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세정

류진아·강예은·김성아·함선유·김동진·임덕영
신영규·김문길·이혜정·김기태·김태완·이원진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출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4. 11.)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 약	1
제1장 서론	43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조사 개요	53
제2장 청년 삶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표본 설계	57
제1절 조사 방법 및 절차	59
제2절 조사의 구성과 내용	81
제3절 표본 설계	92
제4절 가중치	99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	107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및 청년의 일반적 특성	109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116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179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211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227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267
제7절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306
제8절 청년의 소득·지출·재산·부채 실태	378
제9절 1인 가구 청년의 삶	394



제4장 결론 및 제언	413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15
제2절 제언	436
 참고문헌	 451
 부록	 45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1
〈요약표 2〉 일반사항	2
〈표 1-1-1〉 청년층 관련 주요 국가승인 조사통계	47
〈표 1-1-2〉 청년패널조사 주요 내용	49
〈표 1-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요 내용	50
〈표 1-1-4〉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내용	51
〈표 1-2-1〉 2020년 청년 삶 실태조사 진행 과정	54
〈표 2-1-1〉 2022.4.13.~4.20, 2022.6월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자문 참여자	59
〈표 2-1-2〉 조사표 개발을 위해 의견조회를 요청한 부처 및 위원회, 지자체	60
〈표 2-1-3〉 2021년 사전조사의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 관련 주요 자문 및 협의 개요	61
〈표 2-1-4〉 2021년 사전조사의 외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 리스트	63
〈표 2-1-5〉 2021년 사전조사의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 위원회의 화신 의견	64
〈표 2-1-6〉 국가통계 승인 신청 절차	66
〈표 2-1-7〉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 승인 관련 주요 내용	67
〈표 2-1-8〉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일정	73
〈표 2-1-9〉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내용	73
〈표 2-1-10〉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시간표	74
〈표 2-1-11〉 청년 삶 실태조사 인력	75
〈표 2-1-12〉 청년 삶 실태조사 현장 지도 일정	77
〈표 2-1-13〉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물품	77
〈표 2-1-14〉 청년 삶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	78
〈표 2-1-15〉 청년 삶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79
〈표 2-2-1〉 일반사항	84
〈표 2-2-2〉 주거	85
〈표 2-2-3〉 건강	86
〈표 2-2-4〉 교육훈련	87
〈표 2-2-5〉 노동	88
〈표 2-2-6〉 관계 및 참여	89
〈표 2-2-7〉 사회인식미래설계	90
〈표 2-2-8〉 경제	91
〈표 2-3-1〉 시도별 일반가구와 만 19~34세 포함 가구	93



〈표 2-3-2〉 시도별 가구원수별 가구	94
〈표 2-3-3〉 시도별 만 19~34세 인구('22년1월1일 기준 추정)	96
〈표 2-3-4〉 시도별 만 19~34세 포함 가구 추정(표본추출틀)	97
〈표 2-3-5〉 서울 권역별 해당 구 현황	98
〈표 2-3-6〉 경기도 권역별 해당 구 현황	98
〈표 2-4-1〉 시도별 만 19~34세 포함 가구(2021년 인구총조사)	101
〈표 2-4-2〉 2021년 인구총조사 시도별 성별 만 19~34세 인구	103
〈표 3-1-1〉 가구 정의	110
〈표 3-1-2〉 가구 유형 분류	111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	113
〈표 3-1-4〉 부모의 교육수준	115
〈표 3-2-1〉 부모 동거 여부	117
〈표 3-2-2〉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119
〈표 3-2-3〉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121
〈표 3-2-4〉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123
〈표 3-2-5〉 부모 비동거 이유	125
〈표 3-2-6〉 독립한 기간	127
〈표 3-2-7〉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129
〈표 3-2-8〉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130
〈표 3-2-9〉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132
〈표 3-2-10〉 현재 주거 점유 형태	133
〈표 3-2-11〉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135
〈표 3-2-12〉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136
〈표 3-2-13〉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137
〈표 3-2-14〉 현재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	138
〈표 3-2-15〉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139
〈표 3-2-16〉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140
〈표 3-2-17〉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엌)	141
〈표 3-2-18〉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142
〈표 3-2-19〉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143
〈표 3-2-20〉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144



〈표 3-2-2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145
〈표 3-2-22〉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146
〈표 3-2-23〉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147
〈표 3-2-24〉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148
〈표 3-2-25〉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149
〈표 3-2-2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151
〈표 3-2-27〉 점유유형별 주거비 실태	153
〈표 3-2-28〉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155
〈표 3-2-29〉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2순위)	157
〈표 3-2-30〉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	159
〈표 3-2-31〉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2순위)	160
〈표 3-2-32〉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161
〈표 3-2-33〉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률	163
〈표 3-2-34〉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164
〈표 3-2-35〉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165
〈표 3-2-36〉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167
〈표 3-2-37〉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169
〈표 3-2-38〉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해 적절한 시기	171
〈표 3-2-39〉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173
〈표 3-2-40〉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175
〈표 3-2-41〉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176
〈표 3-3-1〉 현재 흡연율	180
〈표 3-3-2〉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중복 응답)	181
〈표 3-3-3〉 두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비율(추가)	182
〈표 3-3-4〉 고위험 음주율	183
〈표 3-3-5〉 규칙적인 운동 빈도	185
〈표 3-3-6〉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187
〈표 3-3-7〉 외식 또는 매식 빈도	189
〈표 3-3-8〉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190
〈표 3-3-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192
〈표 3-3-10〉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194



〈표 3-3-11〉 우울증상 유병률	196
〈표 3-3-12〉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197
〈표 3-3-13〉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199
〈표 3-3-14〉 약물 사용 경험	201
〈표 3-3-15〉 약물 오·남용 경험	202
〈표 3-3-16〉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203
〈표 3-3-17〉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205
〈표 3-3-18〉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206
〈표 3-3-19〉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207
〈표 3-3-20〉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208
〈표 3-4-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학교	212
〈표 3-4-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공공기관	213
〈표 3-4-3〉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사설 기관	214
〈표 3-4-4〉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부모님이나 친인척	215
〈표 3-4-5〉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친구, 선후배]	216
〈표 3-4-6〉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	217
〈표 3-4-7〉 한 달 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액	219
〈표 3-4-8〉 (고졸 이하)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221
〈표 3-4-9〉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223
〈표 3-4-10〉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224
〈표 3-4-1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225
〈표 3-5-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228
〈표 3-5-2〉 복수일자리 해당 여부 및 복수일자리 수	230
〈표 3-5-3〉 (복수일자리) 지난 3개월간 일자리 경험(첫번째 일자리)	232
〈표 3-5-4〉 한 달 중 추가 근무 일수, 추가 수당 수급 비율	234
〈표 3-5-5〉 장시간 근로 경험	236
〈표 3-5-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238
〈표 3-5-7〉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240
〈표 3-5-8〉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과중한 업무]	242



〈표 3-5-9〉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244
〈표 3-5-10〉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46
〈표 3-5-11〉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248
〈표 3-5-12〉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250
〈표 5-3-13〉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252
〈표 3-5-14〉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254
〈표 3-5-15〉 일자리를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256
〈표 3-5-16〉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258
〈표 3-5-17〉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260
〈표 3-5-18〉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하였으나 구직하지 않은 이유	262
〈표 3-5-19〉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264
〈표 3-6-1〉 다섯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및 도움 가능 및 도움 희망 여부 문항 형식	268
〈표 3-6-2〉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270
〈표 3-6-3〉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272
〈표 3-6-4〉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차별, 고충, 갈등 등)]	274
〈표 3-6-5〉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277
〈표 3-6-6〉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279
〈표 3-6-7〉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차별, 고충, 갈등 등)]	281
〈표 3-6-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283
〈표 3-6-9〉 외출 빈도	285
〈표 3-6-10〉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286
〈표 3-6-1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287
〈표 3-6-1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288
〈표 3-6-1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288
〈표 3-6-14〉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290
〈표 3-6-15〉 정치, 사회참여 경험[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292
〈표 3-6-16〉 정치, 사회참여 경험[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294



〈표 3-6-17〉 정치적 효능감[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96
〈표 3-6-18〉 정치적 효능감[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98
〈표 3-6-19〉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 ...	300
〈표 3-6-20〉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02
〈표 3-7-1〉 사회 인식[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정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307
〈표 3-7-2〉 갈등 인식[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309
〈표 3-7-3〉 갈등 인식[부유층과 서민층]	311
〈표 3-7-4〉 갈등 인식[수도권과 비수도권]	313
〈표 3-7-5〉 갈등 인식[남성과 여성]	315
〈표 3-7-6〉 갈등 인식[내국인과 외국인]	317
〈표 3-7-7〉 불평등 및 정부 책임 인식	319
〈표 3-7-8〉 공정성 인식[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	321
〈표 3-7-9〉 공정성 인식[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	323
〈표 3-7-10〉 공정성 인식[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공정] ..	325
〈표 3-7-11〉 공정성 인식[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	327
〈표 3-7-12〉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연애]	329
〈표 3-7-13〉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결혼]	331
〈표 3-7-14〉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자녀 출산과 양육]	333
〈표 3-7-15〉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학력수준]	335
〈표 3-7-16〉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내가 원하는 일자리]	337
〈표 3-7-17〉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339
〈표 3-7-18〉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학력수준]	340
〈표 3-7-19〉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342
〈표 3-7-20〉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사회 기여]	344
〈표 3-7-21〉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명예와 권력]	346
〈표 3-7-22〉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348
〈표 3-7-23〉 향후 결혼 계획	350
〈표 3-7-24〉 향후 출산 계획	351
〈표 3-7-25〉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경제력]	353
〈표 3-7-2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교육수준]	355



〈표 3-7-27〉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교육수준]	357
〈표 3-7-28〉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노력]	359
〈표 3-7-29〉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361
〈표 3-7-30〉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정부의 정책 지원]	363
〈표 3-7-31〉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경제력]	365
〈표 3-7-32〉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교육수준]	367
〈표 3-7-33〉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교육수준]	369
〈표 3-7-34〉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노력]	371
〈표 3-7-35〉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373
〈표 3-7-3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정부의 정책 지원]	375
〈표 3-7-37〉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인식	378
〈표 3-8-1〉 월 기준 총생활비	380
〈표 3-8-2〉 항목별 월평균 가구지출	382
〈표 3-8-3〉 총소득	384
〈표 3-8-4〉 소득원천별 평균소득	386
〈표 3-8-5〉 총부채	388
〈표 3-8-6〉 부채유형별 평균부채액	390
〈표 3-8-7〉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392
〈표 3-9-1〉 1인 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395
〈표 3-9-2〉 1인 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396
〈표 3-9-3〉 1인 가구 청년의 부모 비동거 이유	397
〈표 3-9-4〉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유형	398
〈표 3-9-5〉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유형	399
〈표 3-9-6〉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위치	399
〈표 3-9-7〉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400
〈표 3-9-8〉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400
〈표 3-9-9〉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401
〈표 3-9-14〉 1인 가구 청년의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401
〈표 3-9-11〉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자금 출처	402
〈표 3-9-12〉 1인 가구 청년의 필요 주거 정책	403
〈표 3-9-13〉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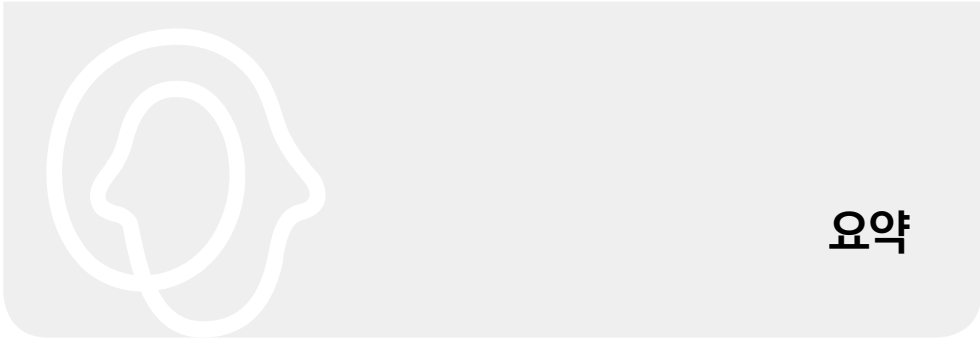
〈표 3-9-14〉 1인 가구 청년의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404
〈표 3-9-15〉 1인 가구 청년의 외식 또는 매식 빈도 및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405
〈표 3-9-16〉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	406
〈표 3-9-17〉 1인 가구 청년의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406
〈표 3-9-18〉 1인 가구 청년의 정신건강 미충족의료 및 그 이유	407
〈표 3-9-19〉 1인 가구 청년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인식	407
〈표 3-9-20〉 1인 가구 청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를 받을 때]	408
〈표 3-9-21〉 1인 가구 청년의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409
〈표 3-9-22〉 미혼 1인 가구 청년의 향후 결혼 계획	409
〈표 3-9-23〉 1인 가구 청년의 월평균 생활비	410
〈표 4-2-1〉 소득 영역 지표 구성의 예	436



[요약 그림 1] 일반사항: 가구 유형별 청년 비율	7
[요약 그림 2] 일반사항: 교육수준	7
[요약 그림 3] 일반사항: 혼인 상태	8
[요약 그림 4] 연령별 부모 동거 비율	9
[요약 그림 5] 지역별 이동 희망 이유	10
[요약 그림 6] 주택자금 조달 출처	11
[요약 그림 7] 연령별 원하는 주거정책	12
[요약 그림 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13
[요약 그림 9]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	13
[요약 그림 10] 외식 또는 매식 빈도	15
[요약 그림 11] 함께 식사하는 사람	15
[요약 그림 12] 번아웃 경험	16
[요약 그림 13]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했으나 전문가 상담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17
[요약 그림 14] 대학 미진학자 교육훈련 선호 분야	19
[요약 그림 15]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20
[요약 그림 16]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	23
[요약 그림 17]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 경험 있음	24
[요약 그림 18]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25
[요약 그림 19] 도움 가능 집단(복수 응답)	26
[요약 그림 20]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 희망 집단	27
[요약 그림 21] 정치에 대한 관심	28
[요약 그림 22] 행복감 점수별 분포	31
[요약 그림 23]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31
[요약 그림 24] 집단간 갈등인식	32
[요약 그림 25]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 정도	34
[요약 그림 26] 월평균 가구 생활비	35
[요약 그림 27] 연평균 총 소득	37
[요약 그림 28] 총 부채	38
[요약 그림 29]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39
[요약 그림 30]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율	40



[그림 1-1-1] 법정 조사의 목적	46
[그림 1-1-2]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48
[그림 1-2-1] 청년 삶 실태조사 과업 추진 체계	56
[그림 2-1-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 포럼	60
[그림 2-1-2]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용의 일부 제외 및 적용제외	68
[그림 2-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69
[그림 2-1-4]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 통지서(제2022-054호)	70
[그림 2-1-5]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를 위해 재심의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 통지서 (제2022-096호)	70
[그림 2-1-6] 한국통계진흥원 조사 인력풀 모집	71
[그림 2-1-7]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보도자료	75
[그림 2-1-8]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체계	75
[그림 2-1-9]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 체계	76
[그림 2-1-10] 청년 삶 실태조사 전산시스템과 전산 내검 시스템	80
[그림 2-1-11] 청년 삶 실태조사 전산 내검 시스템	81
[그림 2-2-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가구의 정의	83
[그림 3-6-1] 도움 가능과 도움 희망에 따른 응답자 분포	275
[그림 4-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지표 개발 관련 내용	436
[그림 4-2-2] 청년지표 개발 연구의 과업	437
[그림 4-2-3] 2021년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문항	439
[그림 4-2-4] F.관계 및 참여 영역 F1-1	440
[그림 4-2-5] 2021년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문항	441
[그림 4-2-6] F.관계 및 참여 영역 F6.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441
[그림 4-2-7] F.관계 및 참여 영역 F2 정치에의 관심정도	441
[그림 4-2-8] ESS(European Social Survey)	442
[그림 4-2-9] G.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G5 집단간 갈등 인식	442
[그림 4-2-10] 국제사회조사(ISSP)의 집단간 갈등 인식 문항	443
[그림 4-2-11] European Social Survey 공정성 문항	443
[그림 4-2-12] G.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G14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44
[그림 4-2-13] ISSP의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44



요약

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개요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요약표 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구분	내용
목적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통계작성 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통계종류	일반통계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의 19~34세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
조사대상 범위	가구, 개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항목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및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8개부문
조사주기	2년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시점	일반사항의 조사시점: '22.1.1

□ 청년 삶 실태조사 기간

○ 2022. 7.18. ~ 8.26

□ 조사완료 대상 수

○ 14,966 가구와 그 가구의 조사 대상 청년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내용¹⁾

〈요약표 2〉 일반사항

영역	주요 내용
일반사항 (2022.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가구원 수 • A2.조사대상과의 관계 및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 • A3.가구원 성별 • A4.가구원 생년과 생월 • A5.가구원 교육수준 (A5-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5-2.상태(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 A6.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 A7.(부모 비동거 가구)부 교육수준(A7-1-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7-1-2.상태) (부모 비동거 가구)모 교육수준(A7-2-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7-2-2.상태) • A8.가구 유형(한부모, 조손, 자립준비청년, 해당없음) • A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경험 A9-1.(국기초 수급 중일 경우) 급여 형태 (A9-1-1.생계급여, A9-1-2.의료급여, A9-1-3.주거급여, A9-1-4.교육급여) • A10.은둔/고립 가구원 유무, A10-1.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과 주된 이유 • A11.(조사대상 청년) 가구원 돌봄 여부 • A12.(조사대상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 A13.(조사대상 청년) 장애 유무 • A14.(조사대상 청년) 태어난 국가, A14-1.현재 국적, A14-1-1.귀화 여부, A14-2.부모 출생 국가, A14-2-1.부모님 중 외국 국적 보유 유무, A14-2-2. 부모 중 귀화 여부 • A15.(조사대상 청년) 혼인 상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부모 동거 여부 B1-1.(부모동거)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B1-1-1.(부모 동거·독립 계획 있음)독립하려는 이유, B1-1-2.(부모 동거·독립 계획 없음)독립 계획 없는 이유, B1-2.(비동거)비동거 이유, B1-2-1. 1) (비동거)독립한 기간, B1-2-1. 2) (비동거)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 B1-2-2.(비동거)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 B2.1)기숙사, 향토학사 거주 경험, 2)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 B3.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 *B4.현재 주거 점유형태, B4-1.(자가)현재 거주 주택 시세, B4-2.(비자가)현재 거주 주택 시세(보증금 및 월세) • *B5.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 *B6.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 B7.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 B8.현재 거주 주택 원룸형 여부 • B9.현재 거주 주택의 방 개수, 현재 B9-1.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 B10.현재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 • B11.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 • B12.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 B13.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B14.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 *B15.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1)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영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6.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 B17.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 • *B18.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B18-1.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 • B19.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 • B20.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 • B21.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B21-1.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 B22.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해왔는지의 여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현재 흡연 여부, C1-1.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 C2.최근 1년간 음주 빈도, C2-1.한번에 마시는 음주 정도, C2-2.남성 과음 빈도, C2-3.여성 과음빈도 • *C3.운동 빈도, C3-1.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 C4.최근 1년간 몸무게 조절 시도 여부 • C5.외식 또는 매식 빈도 • C6.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C7.일일 수면시간 • C8.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C9.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C9-1.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 C10.우울 • C11.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C12.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2-1.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C13.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사용 경험, C13-1.약물 오·남용 경험 • *C14.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C15.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았던 경험, C15-1.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은 이유 • C16.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6-1.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교육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졸업 고등학교 유형 • D2.졸업 고등학교 소재지 • *D3.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D3-1.도움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 D4.한 달 평균 지출 자기계발비 • *D5.(고졸 이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 D6.(고졸 이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D7.(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D7-1.(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전공 계열, *D7-2.(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지역 • *D8.(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D9.(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D9-1.(대학생,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1.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E1-1.지난 주 가족무급종사자 여부, E1-1-1.지난 주 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 E1-1-2.지난 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 • *E2.n잡 해당 여부, *E2-1.일의 수, E2-1-1. 1) 일주일 중 며칠을 일하는지, 2)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3) 세금 공제전 소득, 4) 일의 종류 • E3.(지난주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E3-1.고용계약기간 E3-2.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영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3-3.임금 산정 방식, E3-4.임금(급여) 수령처, E3-5.일경험 해당 여부 • E4.(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주휴 수당 수급 여부 • E5.(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산업 분야 • *E6.(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 E7.(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근무 시작 시기 • E8.한 달 중 밤 근무, 저녁 근무, 하루 8시간이상 근무,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를 며칠 정도 하는지(E8-1), 해당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수급여부(E8-2) • E9.장시간 근로 경험 • E10.현재하고 있는일과 관련한 특정 활동(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사용,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타인으로부터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회사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수행여부 • E11.일에서의 자율성 • E12.일에 대한 생각(불안정성, 환경 오염) • E13.(모든 일자리) 지난 주 36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 E13-1.지난 주 추가 근로 희망 여부, E13-2.지난 주 추가 근로 가능 여부, E13-3.지난 4주간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 *E14.(미취업자) 지난 4주 내에 구직 경험, E14-1.(미취업자)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4-2.(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 E15.(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구직 희망 여부, E15-1.(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5-2.(비경제활동인구) 구직하지 않은 이유 • E16.지난 주 주된 활동상태 • E17.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E18.15세 이후 취업 경험, E18-1.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E18-2.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E18-3.일자리를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E18-4.실업급여 수급 여부, • *E18-4-1.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 E19.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 E20.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 E21.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 E22.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E22-1.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계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1.각 어려움(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F1-1),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F1-2) • F2.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 F3.정치, 사회참여 경험 • *F4.정치적 효능감 • F5.여가활동의 필요성(F5-1), 지난1년간의 경험여부(F5-2), 안(못)한 이유(F5-3) 활동경험의 필요여부에 대한 생각 • F6.대면, 인터넷(S명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 *F7.외출 빈도 • *F8.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 • *F9.은둔고립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사회인식·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삶의 만족도 • G2.주관적 행복감 • G3.삶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 • G4.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G5.집단간 갈등인식 • G6.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 • G7.본인의 소득 계층 인식

영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8.우리사회 불평등 정도 • G9.부의 대물림 인식 • G10.복지확대에 대한 인식 • G11.국가역할에 대한 인식 • G12.정치적 성향 • G13.공정성 인식 • G14.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 G15.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 G16.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 G17.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 *G18.향후 결혼 계획 • *G19.향후 자녀 출산 의향
경제	<p>H1.월평균 가구 생활비 H1-1.총생활비 H1-2.식료품비 H1-3.월세(H1-3-1), 주거관리비(H1-3-2) H1-4.교육비 H1-5.통신비 H1-6.교통비 H1-7.오락문화비 H1-8.세금 H1-9.공적연금·사회보험료 H1-10.가구간 이전지출 H1-11.비영리단체 이전지출</p> <p>H2.가구 및 개인 연간소득 H2-1.근로 및 사업소득 H2-2.재산소득 H2-3.사적이전소득 H2-4.공적이전소득 H2-4-1.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실업급여, 취업지원 관련 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장려금, 기타공적이전 소득,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H2-5.총소득</p> <p>H3.가구 및 개인의 부채와 이자 H3-1.부채총액 H3-2.학자금부채 H3-3.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H3-4.주택관련부채 H3-5.생활비 부채 H3-6.월평균 이자</p> <p>H4.가구 및 개인의 재산 H4-1.금융재산 H4-2.주식 H4-3.가상자산 H4-4.기타 부동산 및 재산</p>

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분석 결과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의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 유형은 2022년 1월 1일 기준이며, 주거, 노동,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등 영역에 따라, 조사 시점이나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 상태를 묻고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지출, 소득, 자산, 부채는 2021년의 정보임

가.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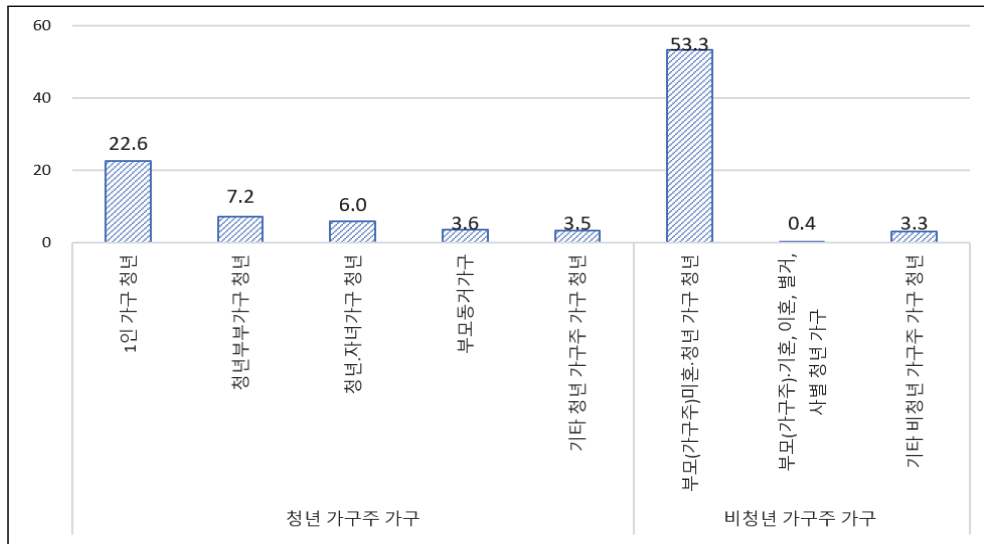
□ (가구유형) 청년가구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43%, 청년이 가구원으로 있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은 57%

□ (교육수준) 대졸이 61.4%로 가장 많고, 대학재학(24.0%), 고졸(14.6%)의 순

-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여성이 88.0%로 남성 83.0%에 비하여 5%p 높게 나타남. 반면 남성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17.0%로 여성(12.0%)보다 많았음

[요약 그림 1] 일반사항: 가구 유형별 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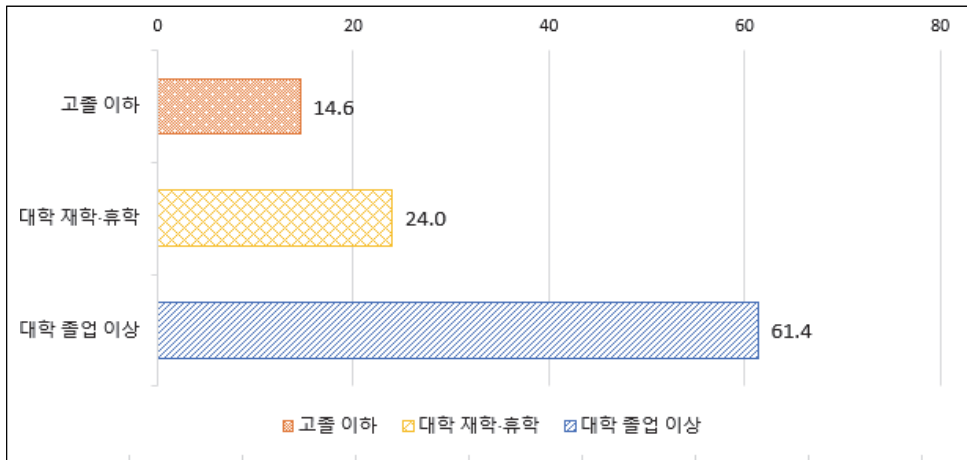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 그림 2] 일반사항: 교육수준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취약가구) 한부모 가구(1.4%), 자립준비청년 가구 등은 전체의 1.7%

○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의 0.9%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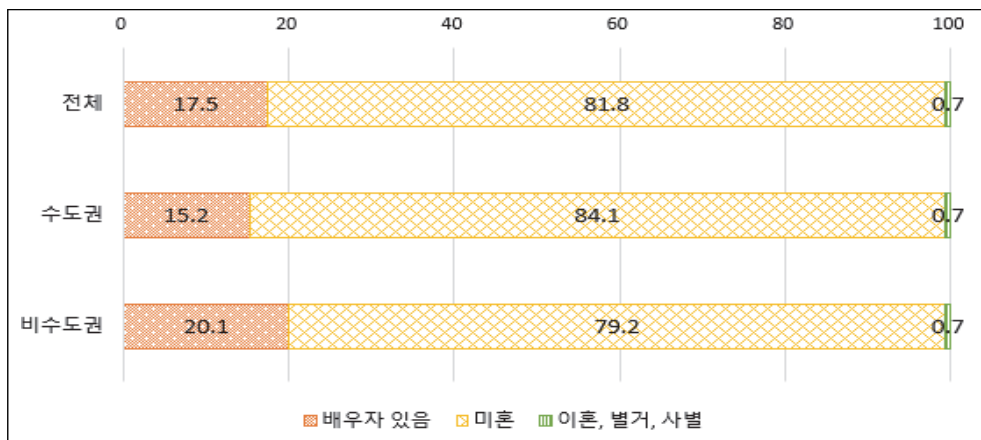
□ (혼인상태) 미혼 81.8%, 배우자 있음 17.5%, 이혼·별거·사별 0.7%

○ 남성의 미혼 비율이 85.7%로 여성 77.4%보다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미혼 비율이 84.1로 비수도권 79.2%에 미하여 약 5%p 높에 나타남.

[요약 그림 3] 일반사항: 혼인 상태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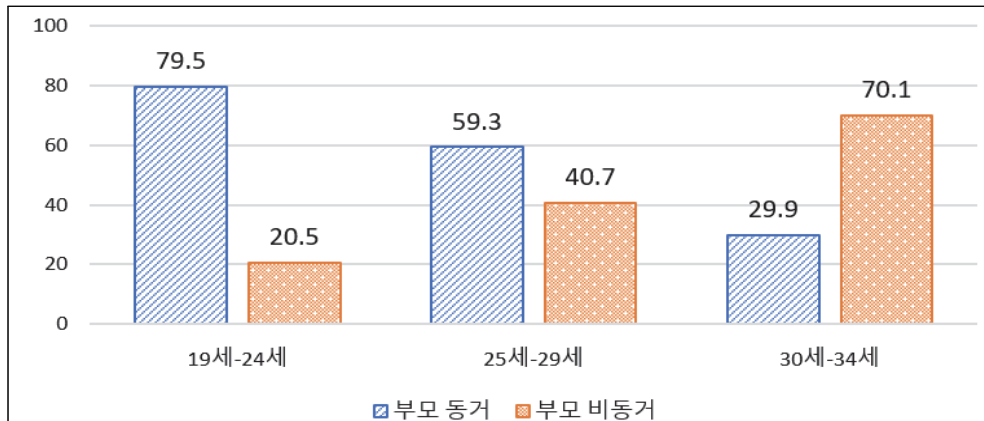
□ (부모동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57.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비동거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짐

○ 19세-24세는 79.5%가 부모와 동거하지만 25세-29세에는 59.3%로 낮아지며 30세-34세는 70.1%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성별간 부모동거 비율 차이는 각각 4.7% 포인트, 4.8% 포인트로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약 그림 4] 연령별 부모 동거 비율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독립계획) 부모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은 67.7%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여건부족이 56.6%로 가장 높음

○ 그 외 특별한 이유없음이 20.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져 이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분석 필요

□ (적정 독립시기) 경제적 안정, 취업, 결혼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자산형성 이후 27.8%, 취업 후 27.2%, 결혼 후 23.1%로 독립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성별, 지역별 응답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후’가 높아지며 ‘자산 형성 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 (주거선택이유) 현재 거주 주택을 선택한 1순위 이유로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여서 42.3%, 주거비가 저렴해서 25.9%, 지인이 인접해서 8.3% 순

○ 연령이 낮을수록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별, 성별 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음

□ (지속거주의향) 현 거주 지역 지속 거주의향은 73.1%가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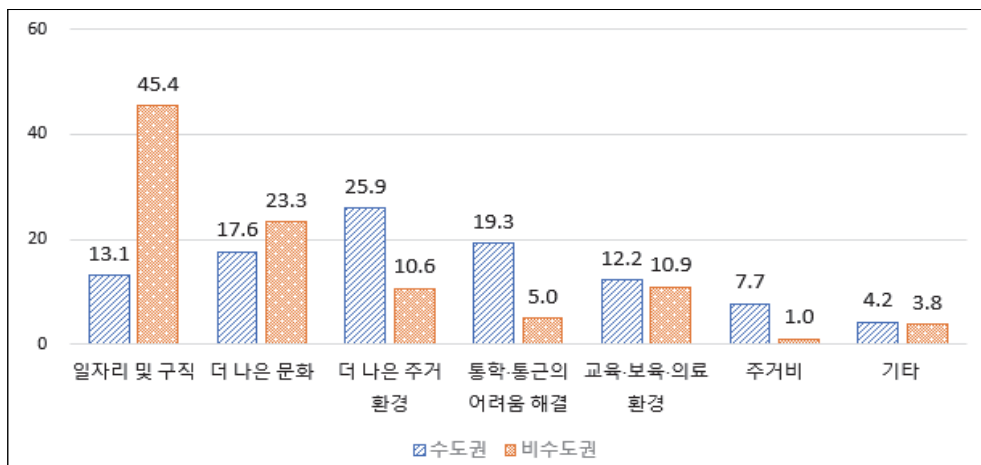
○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지속 거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지역이동희망이유)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45.4% ,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가 25.9%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환경과 교육·보육·의료환경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냄

[요약 그림 5] 지역별 이동 희망 이유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55.8%, 전세 21.5%, 월세 19.0% 순,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는 보증부월세가 가장 많으나, 청년부부가구는 전세, 청년자녀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는 자가가 가장 많음

□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5.3억원(중위값 4억원) 수준, 수도권(7.3억)이 비수도권(3.2억)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남

○ 전세보증금 평균은 2.1억원이며, 수도권 2.5억원, 비수도권 1.4억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백만원, 월세 평균은 3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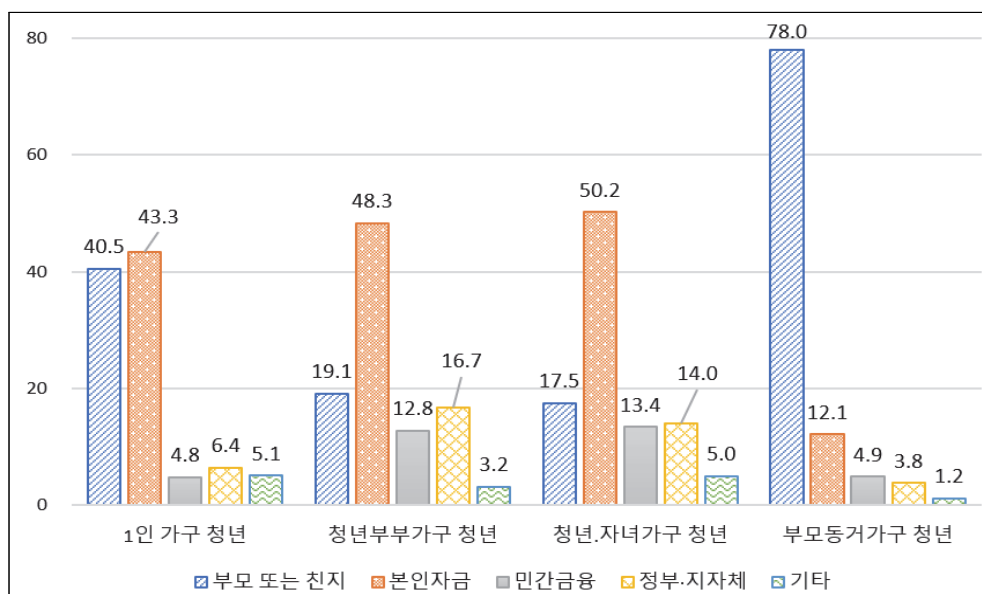
○ 부모 동거가구가 자가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크며, 청년 1인가구는 작은 경향을 나타냄

□ (주택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조달(1순위)은 부모님 또는 친지가 63.7%,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 5.3% 순

○ 청년 1인가구는 부모 또는 친지 비율이,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자녀가구는 본인 자금의 비율이 높은 편

[요약 그림 6] 주택자금 조달 출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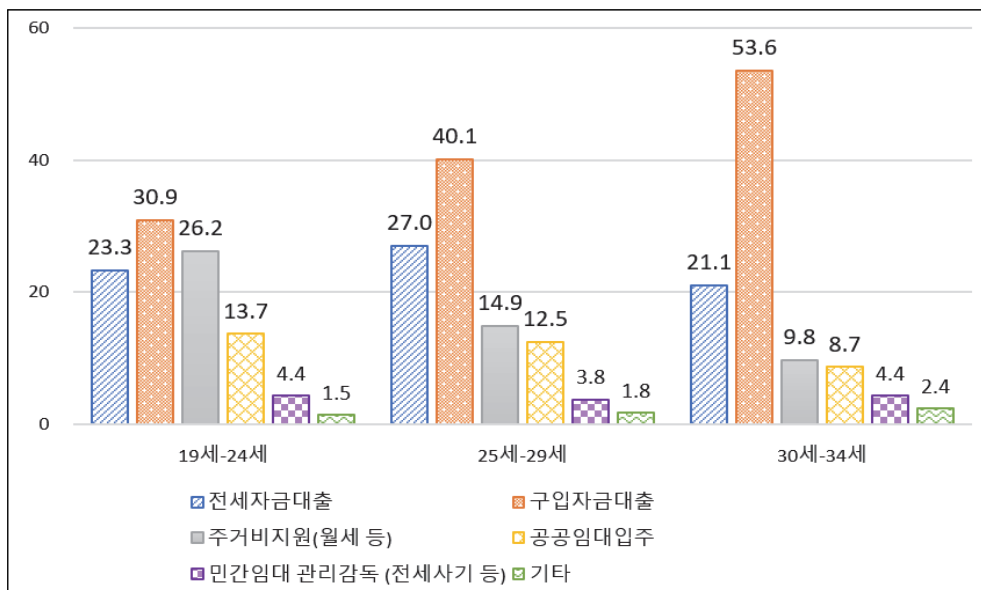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택유형) 현재 거주 중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2.8%로 가장 많고,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순

- 1인가구 청년은 다가구·다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편
-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에서 반지하, 지하, 옥탑 비율은 0.9%이며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 반지하는 수도권에서 1.3%로 나타남
- (주거정책)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구입자금대출 41.0%, 전세자금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11.8% 순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구입자금대출 비율이 높아지며, 청년부부가구와 청년자녀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1인가구는 주거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요약 그림 7] 연령별 원하는 주거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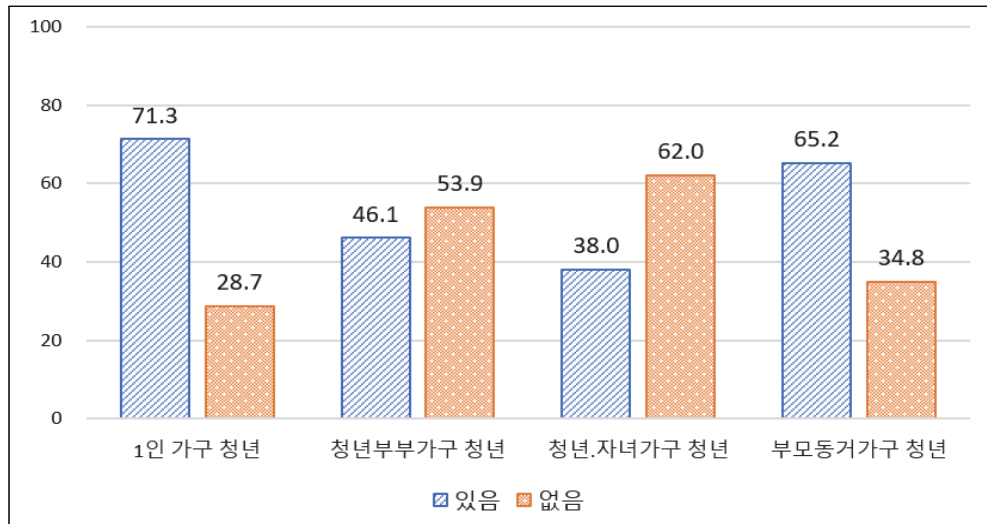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전체의 63.2%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청년 1인가구, 부모 동거가구 비율이 높음

[요약 그림 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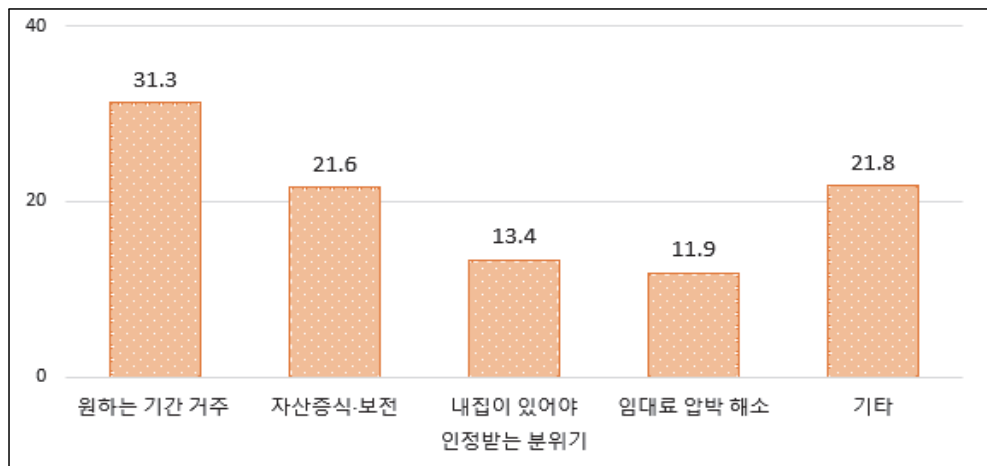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자가주택) 자가 소유 필요성은 91.3%가 그렇다고 응답, 그 이유로는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위해서가 31.3%로 가장 많음

[요약 그림 9]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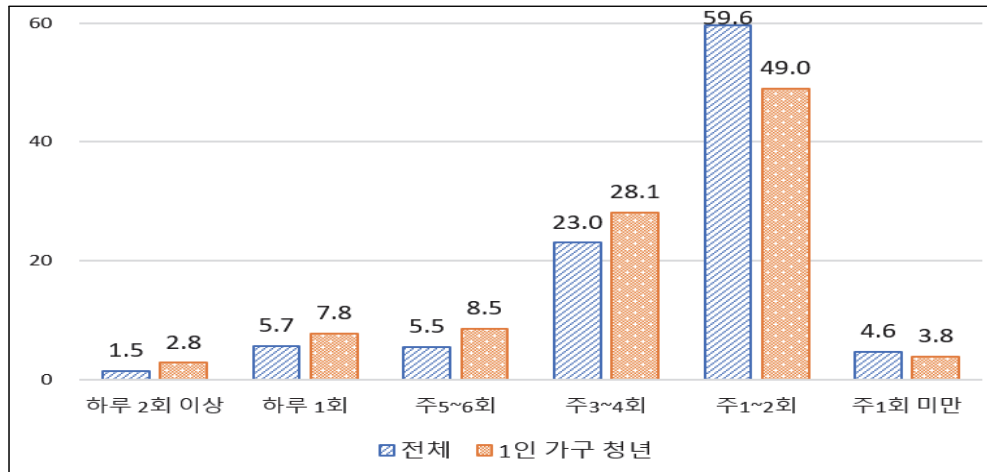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건강

- (흡연) 현재 청년들의 흡연율은 20.1%, 남자(33.3%)가 여자(5.6%)보다 높음
 - 청년 현재흡연자 중 껴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6.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1.3%로 각각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높음
- (음주) 최근 1년간 음주빈도는 월 2~4번 정도가 34.2%로 가장 많음
- (운동) 주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실천율은 32.6%이며,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식사) 외식·매식빈도는 주 1~2회가 59.6%,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20.6%
 - 청년 중 12.7%는 약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2%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식사할 때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지에 대해 청년들의 20.6%는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 특히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52.1%)은 매 끼니마다 '혼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10] 외식 또는 매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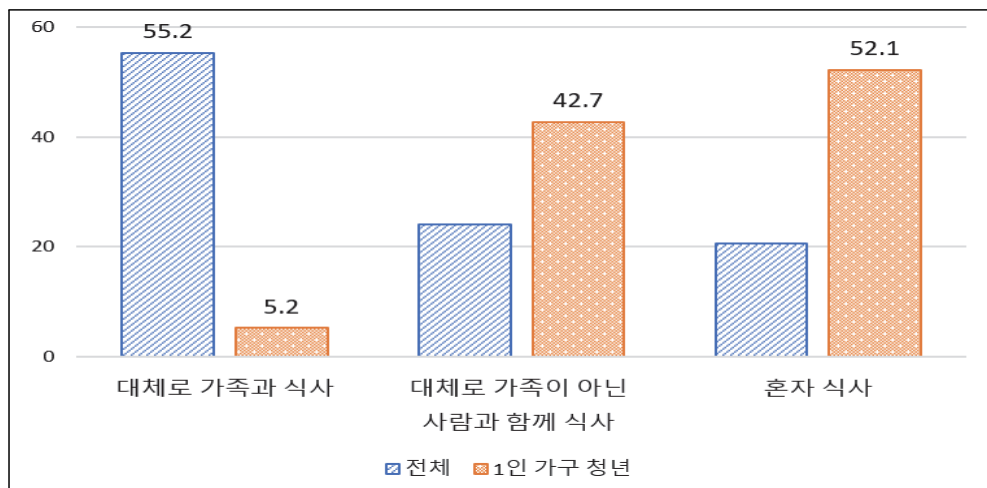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 그림 11] 함께 식사하는 사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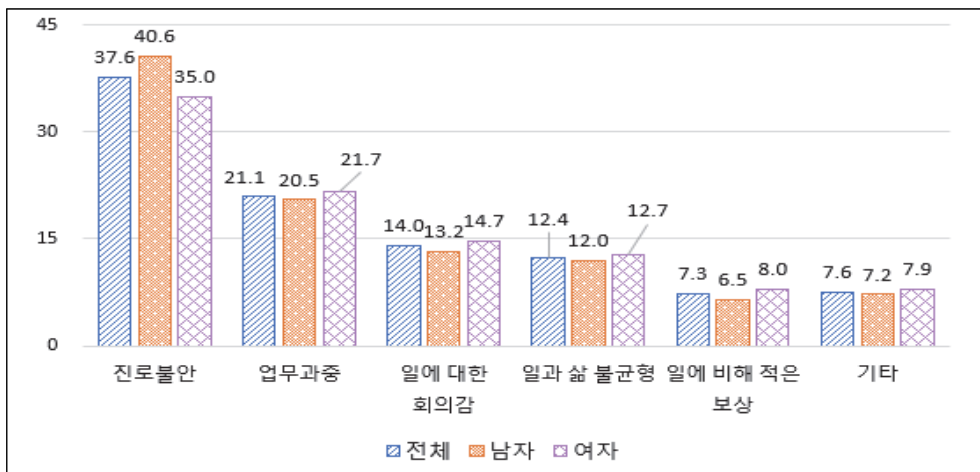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수면) 일일 수면시간은 평균 주중 6.8시간, 주말(휴일) 8.1시간

□ (번아웃)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33.9%)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남자 29.5%, 여자 38.8%), 이유는 진로불안(37.6%), 업무과중(21.1%), 회의감(14.0%), 일과 삶 불균형(12.4%) 순

[요약 그림 12] 번아웃 경험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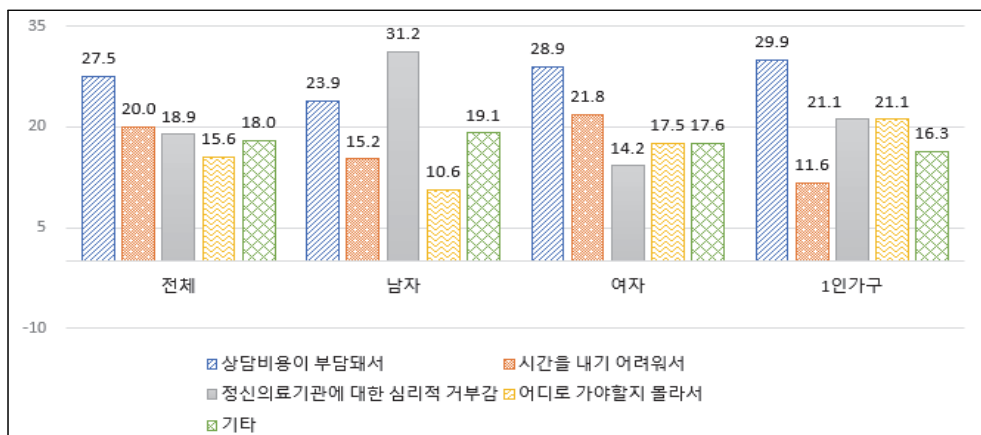
□ (정신건강)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

○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여 PHQ-9 측정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으로 간주함

○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5.6%(남자 3.0%, 여자 8.3%), 이유는 비용부담 27.5%, 시간부족 20.0%, 심리적 거부감 18.9%, 정보부족 15.6% 순

[요약 그림 13]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했으나 전문가 상담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약물 사용경험*에 있어 수면제는 3.8%, 신경안정제는 4.3%, 각성제는 1.0%가 사용경험,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사용경험 ↑

○ 이 연구에서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실태와 오남용 경험을 조사함

○ 약물 사용 경험자 중, 약물 오·남용 경험*은 12.1%가 있다고 응답

○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

□ (건강인식) 청년의 54.5%만 자신의 건강을 좋은(매우 좋음+좋음)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자(58.7%)가 여자(49.9%)보다 높음

□ (미충족의료) 최근 1년간 건강상 이유(정신건강 제외)로 병원 진료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4.5%(남 3.2%, 여 5.9%), 이유는 시간 부족 58.1%, 비용 부담 23.7%,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7.6% 순

라. 교육훈련

- (고등학교) 졸업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순
- (대학교) 대학생(졸업포함)의 전공 계열은 공학 18.2%, 보건·복지 14.8%, 예술·인문 14.6%, 경영·행정·법학 14.4%, 정보·통신 8.6% 순
 - 남성은 공학(29.0%)이 가장 많고, 여성은 보건·복지(21.1%)가 가장 많음
- (취업준비 도움 경험)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은 학교 48.2%, 친구·선후배 43.6%, 부모·친인척 38.9%, 사설기관 33.5%, 온라인·유튜브 32.7% 순
 - 경로별 도움 정도는 친구·선후배(58.6%)와 부모·친인척(54.9%)이 높고, 공공기관(29.5%)이 가장 낮음
- (자기계발비) 자기계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48.27%이며, 월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은 21.4만원(중위값 15만원)
 - 연령별로 25~29세의 평균 지출액이 22.6만원으로 19~24세(21.3만원)와 30~34세(20.0만원)보다 높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2.7만원)이 비수도권(19.7만원)보다 높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 평균이 22.7만원으로 대졸 이상 청년(21.4만원)과 대학 재학·휴학 청년(20.7만원)보다 높음
- (대학 미진학자 교육훈련 선호 분야) 특정 직종의 직업훈련 선호 비율 (36.3%)이 높지만, 교육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36.9%
 - 직업훈련 외에 창업 교육(16.6%)과 어학(7.4%)을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직업훈련 선호 비율은 남성(39.4%)이 여성(31.4%)보다 높았고, 창업 교육은 여성(20.4%)이 남성(14.2%)보다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는 직업훈련 선호(40.7%)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25~29세는 교육훈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40.6%)이 직업훈련 선호 의견(37.8%)보다 높으며, 30~34세는 창업 교육의 선호(21.8%)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대학 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7.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7.0%

○ 부정적인 응답 비율의 경우 19~24세는 11.0%, 25~29세는 19.3%, 30~34세는 21.6%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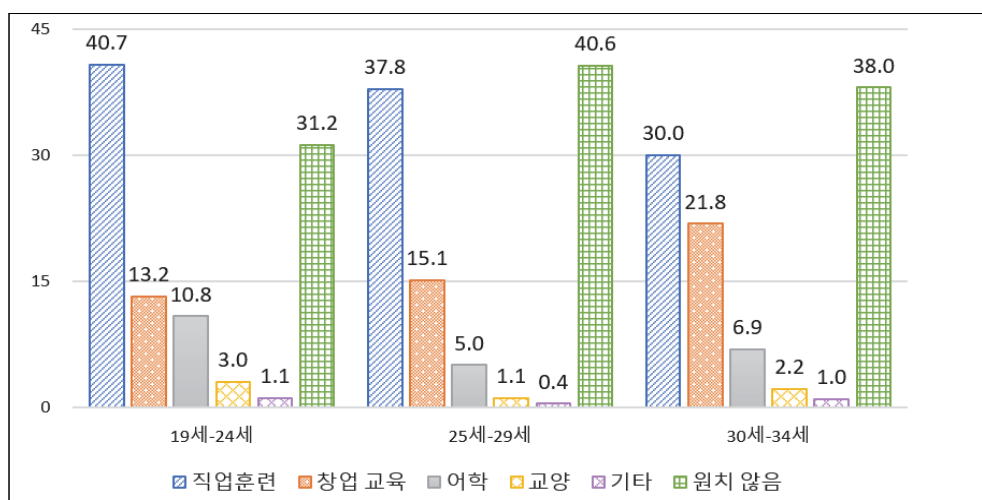
□ (취업 목적 사교육 경험)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32.4%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 경험

○ 성별로는 여성(35.7%)이 남성(29.2%)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25~29세(37.3%)가 가장 높음

○ 사교육 경험자의 71.2%는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19~24세의 긍정적 응답자(77.1%)가 25~29세(69.7%)와 30~34세(67.7%)보다 높음

[요약 그림 14] 대학 미진학자 교육훈련 선호 분야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 노동

□ (경제활동) 조사대상 청년 중,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한 비율은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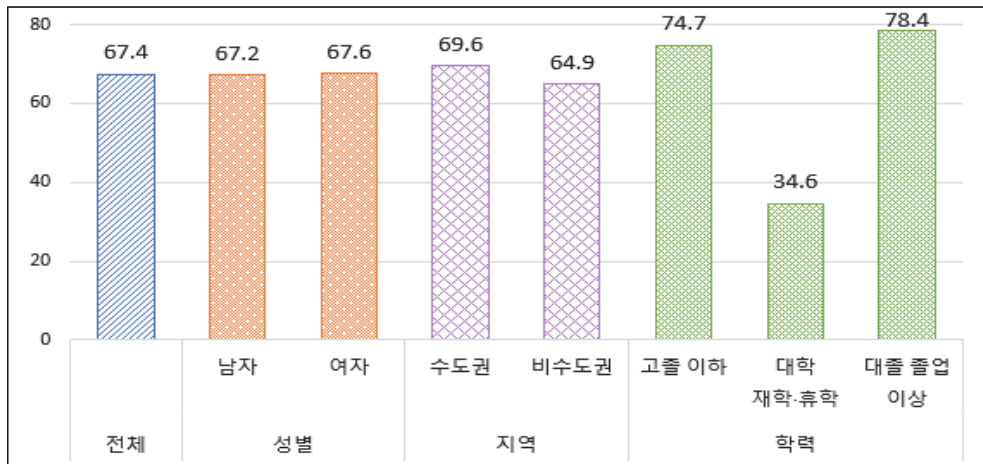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6%와 64.9%로 4.7%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졸이하의 경우 74.7%, 대졸이상은 78.4%를 나타내 고졸이하의 경우 3.7%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남.

○ 주된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한 일자리)의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52만원이었으며,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평균 임금은 각각 272만원, 229만원으로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에 비하여 1.18배가량 소득이 높게 나타났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임금은 254만원과 249만원으로 수도권청년은 비수도권청년에 비하여 취업률도 높고 월 임금도 5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남.

[요약 그림 15]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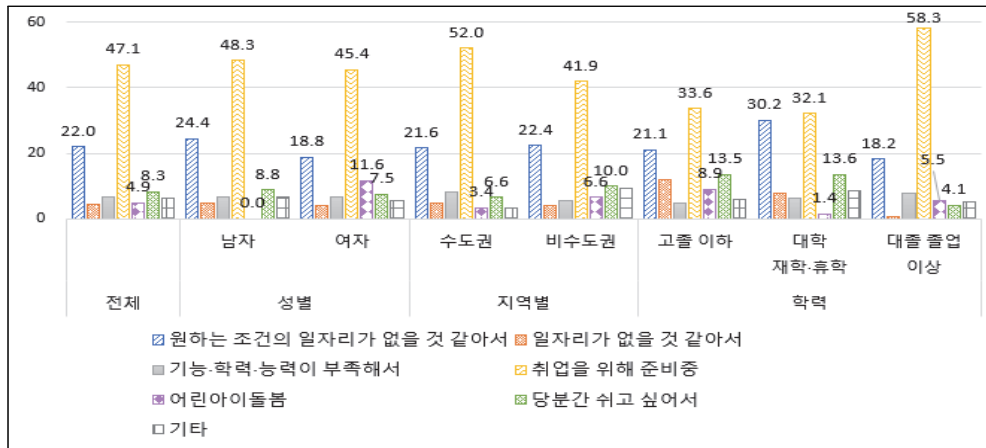
□ (복수일자리) 취업자 중 복수일 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3.9%이며, 3.9% 중 2개라는 응답은 89.9%,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은 10.1%

- 복수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남성 청년은 3.0%, 여성 청년은 4.7%로 여성청년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은 5.2%, 비수도권은 2.2%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근로형태) 근로자 중 전일제는 78.0%로 남자(81.7%)가 여자(74.0%)보다 많으며, 시간제는 22.0%로 나타남
 - 청년의 14.9%는 퇴근한 날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았던 적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도권 청년(16.5%)은 비수도권 청년(13.1%)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았음
- (자영업) 취업한 청년 중 7.5%가 자영업자
 - 남성은 7.9%, 여성은 7.0%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7.0%에 비하여 비수도권에 서 자영업자 비율이 8.0%로 높았음. 고졸이하 학력자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1.9%로 높았음
- (계약기간) 임금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음이 68.7%, 1년 미만이 14.8%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67.8%)에 비하여 남성(69.6%)이 높았으며, 수도권(66.8%)에 비하여 비수도권(71.0%)이 높았음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84.3%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직 사유)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15.0%가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로 응답
 - 근무 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4.5%)에 비하여 여성(15.4%), 비수도권(14.6%)에 비하여 수도권(15.2%)이 높았음
 - 비수도권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여성은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라는 응답이 10.1%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그 비율이 0.4%에 불과하였음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70.6%가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15.0%, 미대상 14.5%
- (재직기간)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5.6%, 1년 미만 32.7%, 1년~3년미만 31.7%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
 - 수도권외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자의 비율이 33.8%로 비수도권의 31.3%에 비하여 높았으며, 3년이상 재직자 비율 역시 수도권 33.7%, 비수도권 37.9%로 차이를 나타냄
 - 고졸이하 학력에 비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의 재직기간이 다소 길게 나타남. 특히 3년 이상 재직기간을 나타내는 비율은 대졸 이상에 40.7% 였음
- (업무자율성) 현 직장에서의 업무자율성은 일하는 순서 외 대부분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높음
- (구직경험)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은 13.2%가 있었음
 - 수도권의 경우 13.8%가 현재 구직중이며, 비수도권은 12.6%가 현재 구직 중임. 고졸이하 학력의 경우 20.0%가,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22.5%가 현재 구직 중임
 - 미취업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4.8개월임. 구직기간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다소 길었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길었음
 - 비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준비가 47.1%,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2.0%로 나타남

[요약 그림 16]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의 경우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해당 응답 비율이 없었음
- 수도권 청년의 경우 52.0%가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41.9%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은 “당분간 쉬고싶어서”라는 응답이 13.5%로 높았으며, 대졸 이상 청년의 경우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율이 58.3%로 상당히 높았으며,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8%로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재학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이직·구직요인) 이직 또는 구직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 48.5%, 고용안정성 12.8%, 장기적 진로설계 8.4% 순

- 이직 또는 구직시 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9.7%)이 여성(47.2%)에 비하여 높았으며, 수도권(51.9%)이 비수도권(44.7%)에 비하여 높았음.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 특히 이 비율이 56.6%로 높게 나타남.
- 여성 청년의 경우 근로시간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9.1%로 남성 청년의 5.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근로환경)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에 있어 과중한 업무 19.1%, 성과 스트레스 11.1%, 감정 스트레스 24.9%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경험

□ (근로환경) 취업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에서 지난 12개월 이내에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4세가 8.8%, 25-29세가 10.0%, 30-34세가 9.7%로, 25~29세 청년의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도한 업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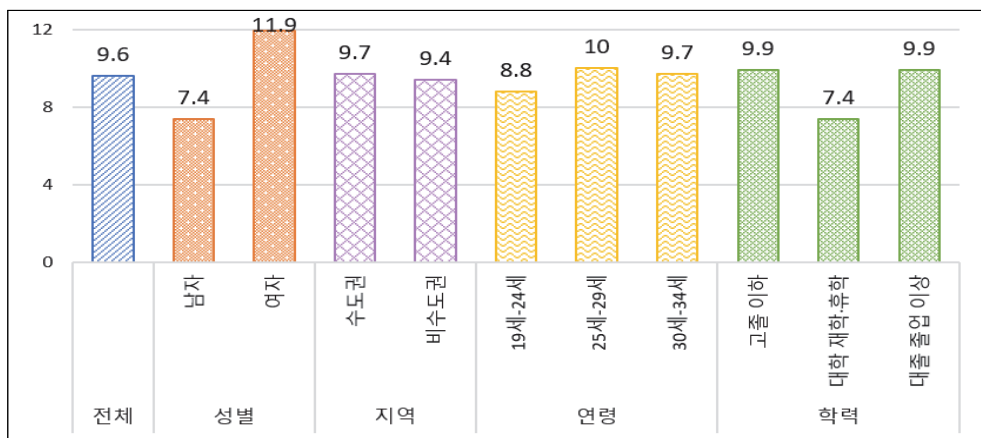
○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6.2%는 지난 1년 사이 과중한 업무를 거의 매일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연령별로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는 비율은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는 30.6%만 있다고 응답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가 있다는 비율은 성별 또는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12.2%, 고졸 이하의 경우 22.3%에 불과하여 대졸 이상의 36.4%과 큰 차이를 나타냈음

[요약 그림 17]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 경험 있음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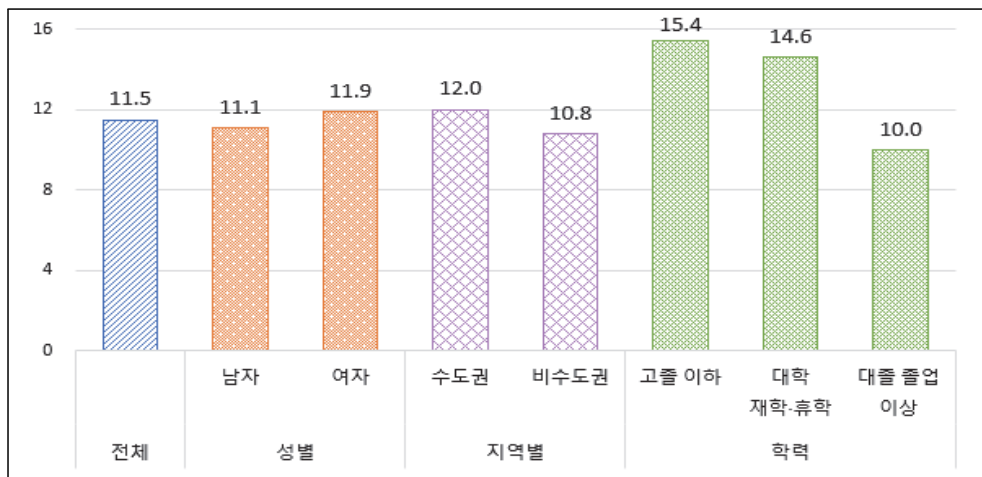
□ (미래 전망) 취업자 중에서 14.4%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기술 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라고 인식함

○ 수도권외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2%로 비수도권의 13.5%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학력 별로는 재학자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자의 13.2%에 비하여 고졸 이하 학력이 14.5%로 그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일자리 불안정성) 지난 1년 사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11.5%로 나타남.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청년의 경우 15.4% 가량이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고 밝혀 대졸자의 10.0%에 비하여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

[요약 그림 18]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직무기술) 전체 취업청년 중 4.8%는 거의 매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무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에 1회 이상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전체 취업 청년의 10.9%에 이르렀음

바. 관계 및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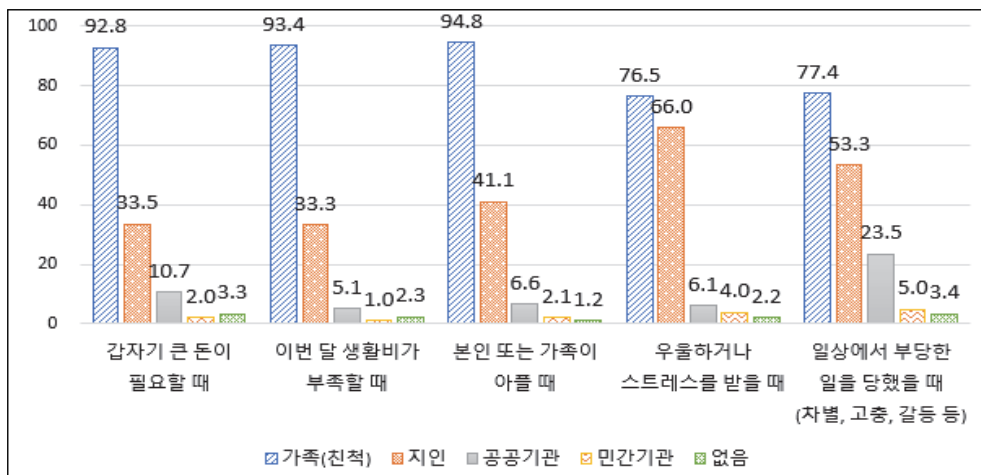
□ (도움가능집단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가족, 지인, 공공기관 순

○ OECD는 회원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설문해서 사회적 관계의 질을 측정. 한국인 가운데 21.5%는 해당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함.

○ 청년들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다섯가지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이 1.2~3.4%로 대체로 낮음. 한국의 청년층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물론, OECD 문항과 이번 설문 문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있음

[요약 그림 19] 도움 가능 집단(복수 응답)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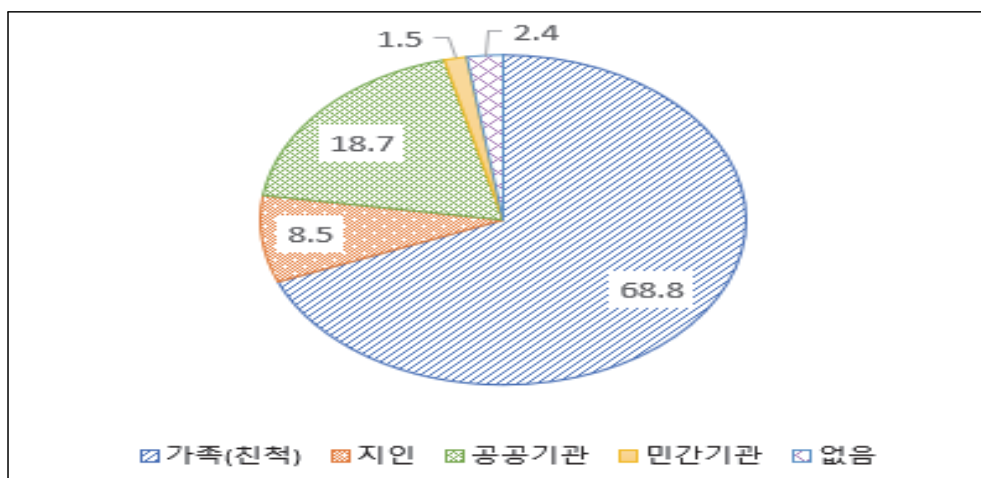
□ (도움가능집단2)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청년집단에서 지역별 편차가 큼

○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울산(14.0%), 경남(10.6%)에서 두자리 수를 나타낸 반면, 세종(0.4%), 대전(0.4%)에서 낮음

-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도 대전(98.4%), 광주(96.8%), 세종(96.6%)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울산(82.5%), 경남(84.9%)이 낮음
 -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전(50.0%), 부산(43.3%)에서 높았고, 세종(16.3%), 울산(21.3%)에서 낮음.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세종(19.9%)에서 높았고, 광주(5.1%)에서 가장 낮음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5.6%) 집단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 재학 및 휴학(2.6%) 집단에서 낮음
- (도움희망집단)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2.4%. 도움 가능 여부와 더불어 ‘도움을 희망하는지’를 추가 설문한 결과.
- 청년 집단 가운데에서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은 낮아지고(19-24세 72.1%→30-34세 65.1%),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은 높아짐(16.9%→21.1%)
 - 지역별 편차도 큼.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경남(9.2%), 울산(5.3%)에서 가장 높고, 세종(0.4%), 대전(0.8%)에서 낮음

[요약 그림 20]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 희망 집단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해 37.5%가 관심 있다고 응답

○ 남성(40.6%), 30-34세(42.1%), 수도권(39.9%), 대졸 이상(39.8%)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 편차도 보임. 대전(44.1%), 인천(43.7%), 서울(42.0%) 등에서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음. 광주(25.9%), 울산(29.5%)에서 비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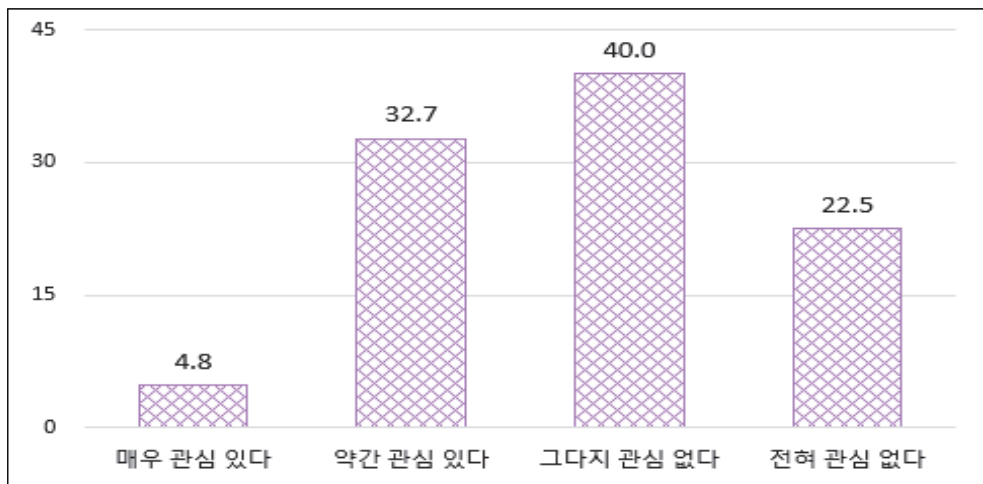
□ (정치적 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3.8%

○ 남성(25.7%), 대학 재학 및 휴학(26.5%)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역별로는 충북(32.2%), 부산(27.8%), 경북(27.6%), 전북(27.5%) 등 지역에서 정치효능감이 높음. 다음으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지역은 대전(27.3%), 서울(26.5%) 등. 전남(16.1%)이 가장 낮음

[요약 그림 21] 정치에 대한 관심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문화예술활동) 청년집단 가운데 40.4%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있음

- 여성(42.8%), 수도권(43.7%), 대졸 이상(42.2%) 집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이 높음. 고졸 이하(31.4%) 집단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음
- 문화예술에 한정해서는 지역간 차이가 큼. 세종(53.1%), 대전(48.6%) 등 도시에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도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0%를 넘지 않음. 전남(29.5%)과 경북(27.0%)에서는 30%를 하회
- 문화 예술 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필요가 없어서' (17.9%), '경제적 부담' (17.8%), '경험·지식·정보 부족' (10.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6%), '공간·지리 문제' (2.9%) 등이 제시됨
- 상당수가 학생으로 추정되는 19-24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18.9%) 대신 시간 부족(37.5%)이었던 점이 눈길을 끄

□ (스포츠 활동) 정기적 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이 46.2%

- 남성(50.4%), 25-29세(48.5%), 수도권(47.3%), 대졸 이상(49.1%), 집단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이 높음. 지역별로는 대전(61.4%)과 세종(55.4%)에서 도드라지게 비율이 높았음. 충북(35.4%), 경북(39.2%)에서는 비율이 40%보다 낮음
-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음.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16.9%), '할 필요가 없어서' (16.5%),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8.8%), '경험·지식·정보 부족' (6.2%), '공간·지리 문제' (3.1%) 등이 제시됨. 광주 지역에서만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 (34.9%)였음
- 전반적으로 청년의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 지역 간 차이가 연령, 학력 등 다른 변수보다 크게 나타남. 지역별 문화, 지역 특성에 따른 청년 집단의 사회·경제·

문화적 배경, 청년 집단의 지역간 이주에 따른 지역 이주 청년의 비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은둔형 청년)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비율은 2.4%(임신·출산·장애 제외)

-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도 없는 국내 사회적 고립인구는 2019년 13세 인구 이상 가운데 4.7%로 추산
- 이 가운데 청년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9년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 은둔생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0%로 가장 높고, 인간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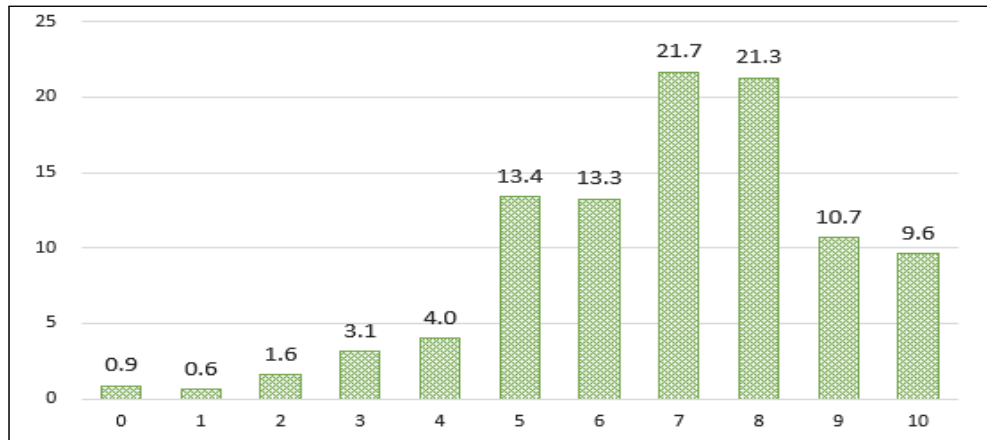
사. 사회인식·미래설계

□ (삶 인식)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를 조사했을 때(0~10점), 만족도는 6.7점,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점

- 주목할만한 것은 청년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나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것임
-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현재 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서 다수의 청년은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선택했음. 하지만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청년들도 10% 넘게 존재함.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이나 1점을 선택한 청년도 약 1.5% 정도 있음
-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보고하는 청년은 5.2%임. 보통 청년들의 삶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생애 가장 활기찬 시기에 행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에 주목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임

[요약 그림 22] 행복감 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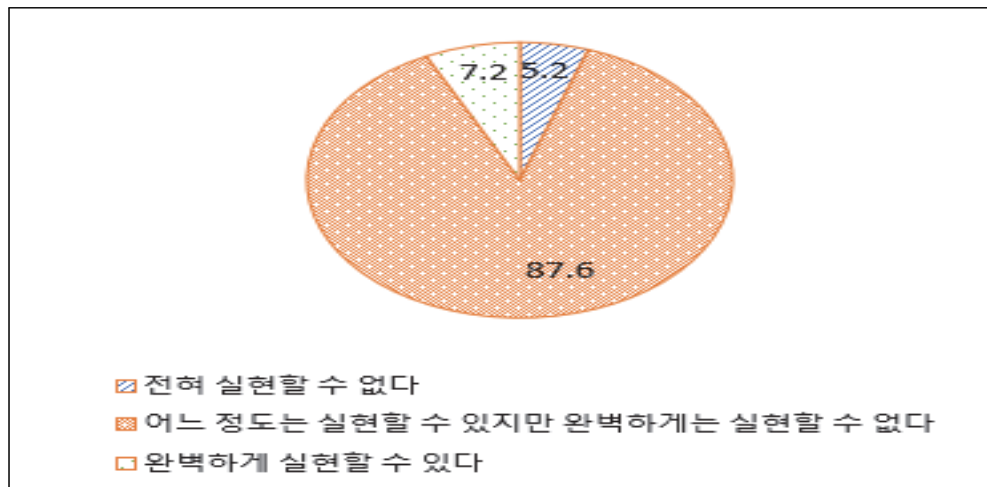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 그림 23]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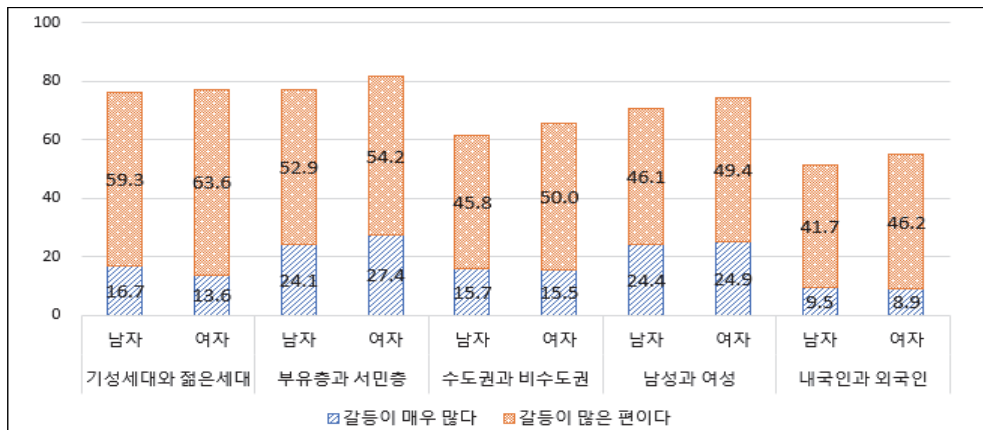
□ (갈등인식) 세대간 갈등은 76.5%, 소득차이 갈등은 79.1%, 지역간 갈등은 63.4%, 성별 갈등은 72.3%, 국적간 갈등은 53.0%가 많다고 응답

○ 성별에 따라 사회갈등 영역별 인식의 차이가 다소 나타남

-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부유층과 서민층 간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여성 청년이 갈등의 정도를 남성 청년보다 다소 심각하게 인식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갈등은 남성 청년 중 61.4%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여성 청년 중에서는 65.6%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다른 영역의 갈등에 비해서는 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임
- 남성과 여성 간 성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 중 70.5%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여성 청년 중에서는 74.3%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 중 51.2%가, 여성 청년 중 55.1%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요약 그림 24] 집단간 갈등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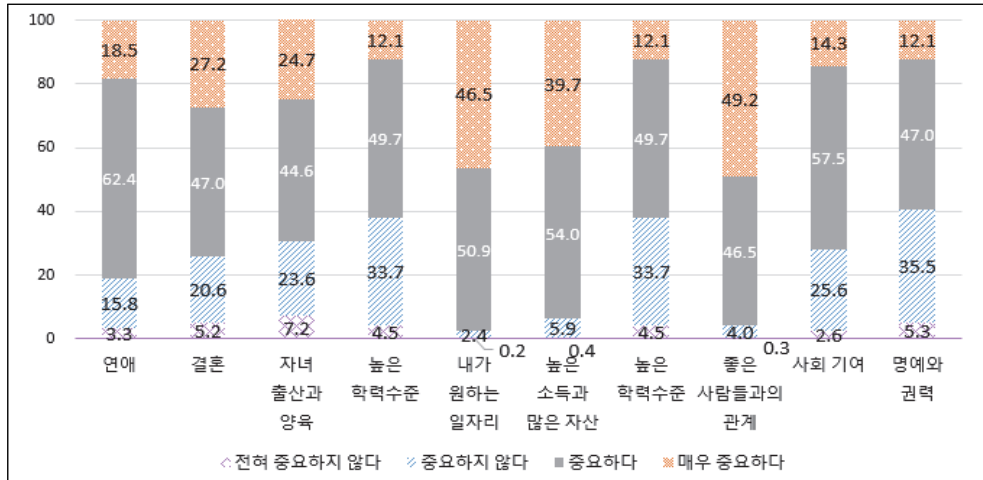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영향요소)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있어 불평등은 90.1%, 저출생·고령화는 95.7%, 기술·산업구조 변화는 90.1%, 테러리즘은 81.9%, 기후변화는 92.4%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소득계층인식) 본인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중간층 56.5%, 중하층 26.5%, 중상층 11.6%, 하층 4.7%, 상층 0.7%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이 바라는 미래)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였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임.
- 일자리는 97.4%의 청년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95.7%의 청년이,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은 93.7%의 청년이 선택하였음. 연애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네 번째 순서이고, 결혼은 74.2%로 다섯 번째임. 사회에의 기여는 71.8%, 자녀출산과 양육이 69.3%로 나타났고, 높은 학력수준과 명예, 권력은 각각 61.8%와 59.1%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46.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9.7%)이었음
-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음

[요약 그림 25]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성 정도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함. 그 중에서 청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98.6%로 사실상 거의 모든 청년이 자신의 노력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도 95.0%로 매우 높았고, 다음은 청년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88.3%, 정부의 정책 지원이 86.7%, 부모의 경제력이 80.3% 순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55.3%로 응답자의 절반은 넘지만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편임

○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의 경향은 다름.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1.3%임

○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1%, 높게 나타난 청년 자신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6%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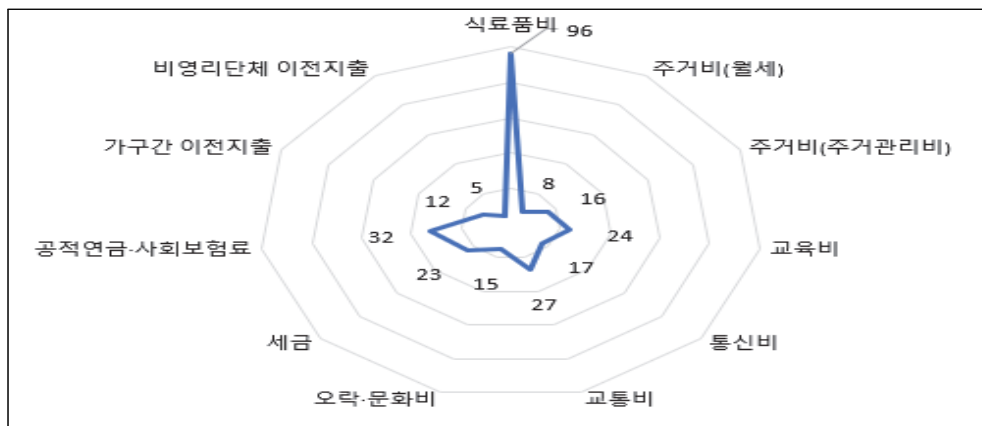
- 부모의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8.4%, 부모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9.9%임
- (결혼) 미혼청년 대상 향후 결혼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함, 남자와 여자는 10.1%p 차이(남자 79.8%, 여자 69.7%)가 나타남
- (출산) 향후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함, 남자와 여자는 15.2%p 차이(남 70.5%, 여 55.3%)가 나타남

아. 경제

- (생활비) 청년가구의 총생활비는 월 평균 303만원, 중위 금액은 월 평균 280만원 수준이었음
- 지출항목별로는 식료품비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등의 순이었음. 19~24세의 경우 식료품비, 교육비 등이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청년이 있는 경우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요약 그림 26] 월평균 가구 생활비

(단위: 만원)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 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은 평균 6,525만원으로 통계청 전국통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청년 개인 연간 소득은 2,162만원, 월 180만원 수준이었음

○ 성별로 보면 청년 개인 기준으로는 남자 청년이 2,309만원으로 여자청년의 2,000만원에 비해서는 높았음. 청년개인 소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3,194만원으로 19~24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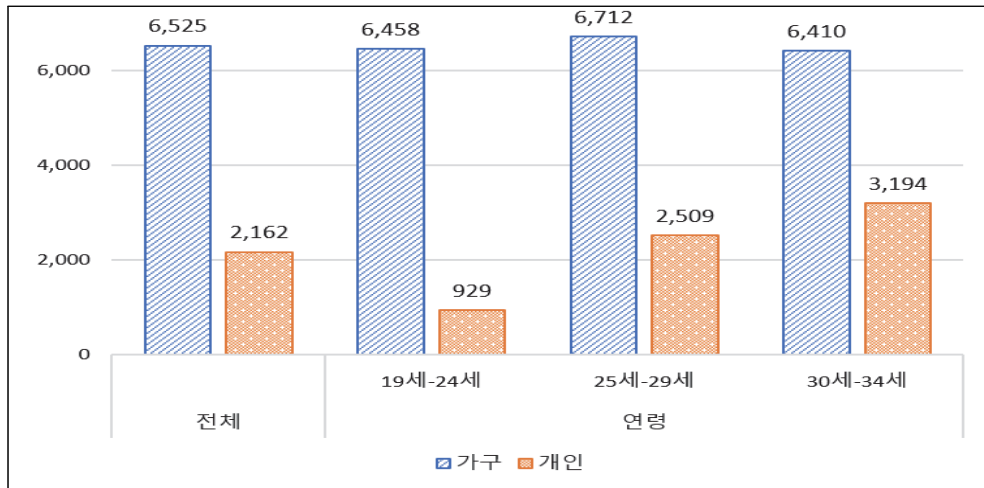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에 비해 광역시의 소득이 높았으며, 청년의 개인소득에서도 도와 광역시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년개인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구와 개인에서도 동일하였음. 가구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6,173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재산소득이 154만원이었음. 근로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청년 개인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시 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청년에 비해 졸업 한 청년의 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유형별로는 청년 부부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3,329만원)이 혼자사는 청년가구(2,583만원)에 비해 많았음

[요약 그림 27] 연평균 총 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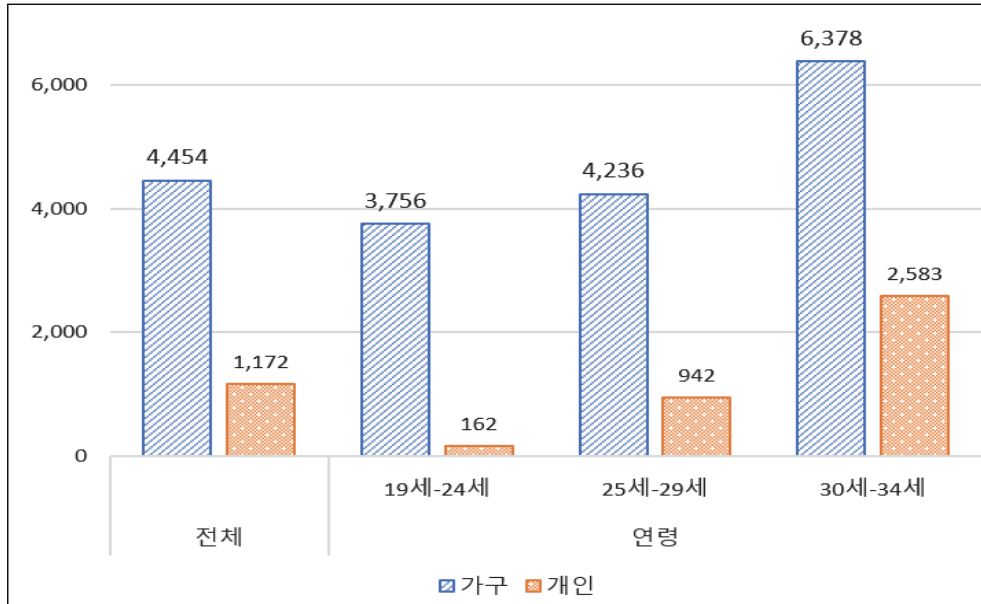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부채) 청년가구의 평균 부채금액은 4,454만원, 청년 개인은 1,17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특성별로 보면, 성별의 경우 가구기준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으며, 청년 개인으로도 남자 청년이 1,478만원으로 여자 청년 832만원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음. 연령별로는 30~34세 사이가 가구(6,378만원)나 청년 개인 기준(2,58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음. 주로 주택관련 부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음. 지역적으로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부채규모가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인천과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졸업자의 부채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 유형으로는 청년부부가구와 청년·자녀가구의 부채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산) 청년가구, 청년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종류별 수준을 보면,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이 가구기준으로 7,096만원, 청년개인 기준으로는 760만원으로 가구와 개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이외에 금융재산으로 가구 기준 7,789만원, 청년개인은 1,415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과 금융재산이 자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

[요약 그림 28] 총 부채

(단위: 만원)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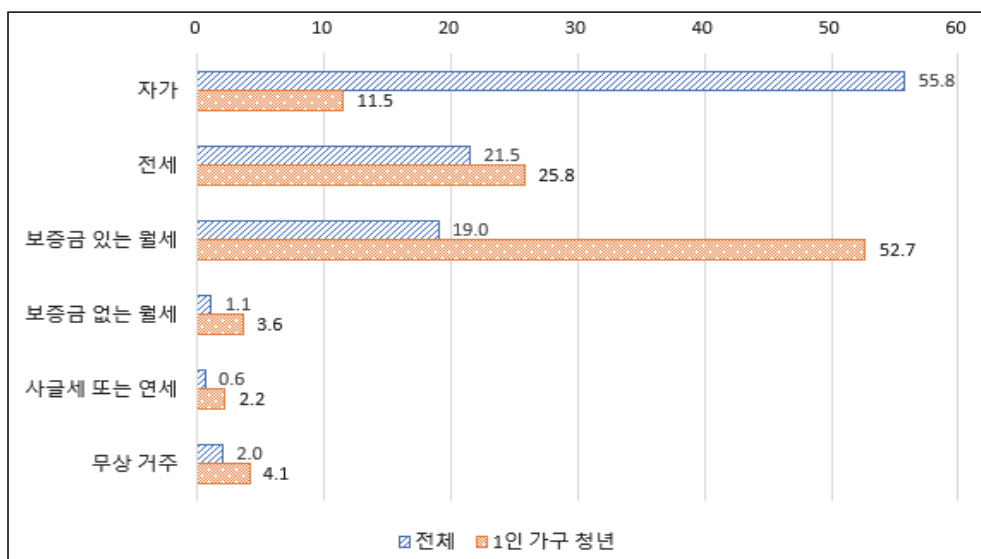
자. 1인 가구 청년의 삶

- 1인 가구 청년의 비율(22.6%)은 부모와 미혼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가구의 청년 (53.3%)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기 청년보다는 중기 청년과 후기 청년의 비율이 높았음. 학력별로는 후기 청년이 많은 만큼 대졸 이상 청년이 가장 많은 비중(67.3%)을 차지하고 있었음
- (주거)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점유형태는 월세 52.7%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세 25.8%, 자가 11.5%의 순이었음
 - 청년 1인 가구는 다가구·다세대 44.2% 주택에 가장 많이 살고, 주택 위치가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2.0%임
 -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는 전체에 비해 1인가구 청년이 월등히 높은 56.8%였음

-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상태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은 주택 내외부 소음이었음

[요약 그림 29]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 1인 가구 청년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이 1.7%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음. 즉, 1인 가구 청년이 살고 있는 청년의 주택은 내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의 문제 또한 전체 청년 가구에 비해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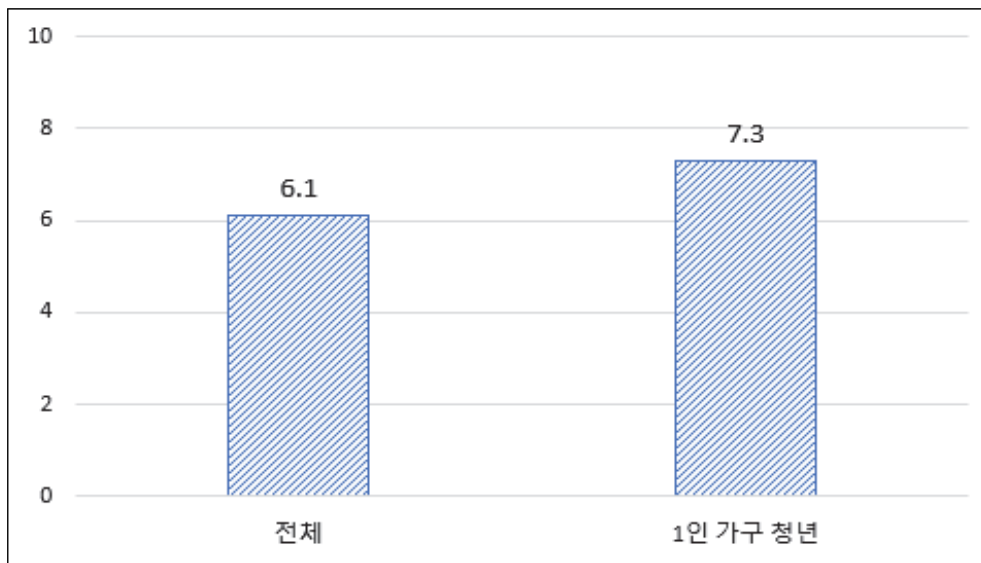
- (지역이동) 1인 가구 청년들은 현재 사는 지역에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이성한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또한 전체 청년 가구에 비해 낮았음

- (건강) 건강 상태에 있어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은 외식 또는 매식 빈도가 전체에 비해서 높고,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이 없이 혼자 식사했다는 비율 또한 절반정도인 52.1%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 가구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이었는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으며, 자살 생각 및 정신건강 미충족을 또한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 더불어, 1인 가구 청년은 전체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 정신건강을 제외한 미충족 의료의 경우에도 1인 가구 청년의 미충족 의료율이 조금 더 높으며, 전체 청년에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음

[요약 그림 30]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관계 및 참여)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 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 및 친척이 없다는 비율이 9.9%에 이른다는 점임. 혼자 살면서도 부모 혹은 형제와도 교류가 없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한명꼴인 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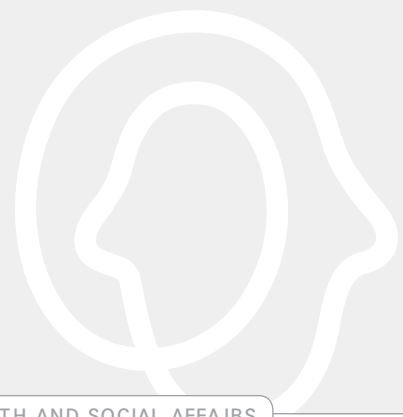
□ (경제) 생활비 중, 1인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에 비해 생활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며, 식료품비 96만원, 연금·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식료품비 48만원, 주거비(월세) 22만원 순으로 주거비(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용어 : 청년 삶, 청년 삶 실태조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제 1 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조사의 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동해 연말에는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법적, 제도적 주춧돌을 발판으로 청년은 주요 정책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다양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도 상세한 삶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물론, 여전히 별도의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최근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이나 주거 또는 소득과 같은 문제 중심이 아닌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름으로는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강신욱 외, 2022). 아동과 노인은 학대, 방임, 빈곤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져있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취약 집단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청년은 길게는 IMF 외환위기 이전, 짧게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 이외의 특정한 사회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생애주기 차원에서 별도의 사회보장 전략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²⁾.

다시 말해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제,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제기되기는 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삶의 다양한 차원들이 교차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차원의 문제이며 전 영역에 걸친 고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년의 삶은 일 뿐 아니라 전반적 차원에서 고르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³⁾.

2) 이는 하나의 근거가 상반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이러한 합의와 정책추진방향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기술된 청년 정책의 성과와 한계로부터 찾아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현대 역사 속에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만 존재할 것인지 장기 시계에서도 고려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국내외 청년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변화하는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세 속에서 청년층의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존재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회적 합의의 어떠한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된 청년 삶 실태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 속에서 조사의 추진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다양한 청년층의 삶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례적인 대규모 횡단면 조사를 수행할 필요’로 구체화하고 있다. 법정 조사는 통상적으로 정책적 활용, 정부 수요, 현안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데, 소득·재산 등 자산조사(means-test)를 전제로 하는 정책대상 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하며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그림 1-1-1] 법정 조사의 목적

(정책적 활용) 소득·재산 등 자산조사(means-test)를 전제로 하는 정책대상 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예) 청년 자산형성사업대상자 규모 추정.

- 가용 데이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국민생활실태조사(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2019년) 등이나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동시 고려할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활용 불가함,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활용가능하지만 시차와 유효표본 수 등에서 제한점이 있음.

(정부 수요)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

-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시행계획 등 평가에 활용.

(현안 대응) 새로운 정책 환경 및 영향 분석.예) 청년 정신건강, 투자 실태, 새로운 위험(기후, 노동시장, 기술,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소득분배, 글로벌 경제 등), 청년담론(젠더, 공정성, 능력주의,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등), 코로나19 영향(소득, 일자리, 정신건강 등).

자료: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 있다. 동계회 p.5에서는 청년정책의 성과로 “①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②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 ③ 청년기본법 제정·컨트를 타워 구축 등 토대 마련을 언급하고, 한계로는 “①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지원 정책 중심 ②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 추진 ③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수렴,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을 들고 있다.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기존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로는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로 수행되었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있다.

〈표 1-1-1〉 청년층 관련 주요 국가승인 조사통계

조사명	분야	작성기관	승인번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2021)	사회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02004
청년패널	노동	한국고용정보연구원	32700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노동	한국고용정보원	327004

그러나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내용이 주로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종합적 삶의 실태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표본 규모가 2020년 기준 3,500명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특성을 포착하고 모수를 추정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와 같은 일부 영역은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이전소득과 지출, 비소비 지출 등과 같이 세부 항목을 조사에 포함하지 않아 정책설계에 필요한 소득을 변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청년패널의 경우에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목표 모집단이 2007년 15~29세 청년층으로 현재의 청년층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모집단이 대졸자로 청년 연령과 학력의 측면에서 활용의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패널은 조사목적은 만15~29세(2007년 기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경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을 한다는데 두고 있고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교육·노동시장 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림 1-1-2]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p>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자료: 법제처.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하면, 청년 삶 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정책 환경과 기존 조사통계들이 가진 특성과 한계 속에서 청년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균형 있는 고른 파악이 중요하며 대규모의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표 1-1-2〉 청년패널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만15~29세(2007년 기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경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통계작성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목표 모집단	2007년 기준 전국의 만15~29세 청년층
조사 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의 90% 조사구(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37,680조사구)의 전체 가구 중 청년거주 가구가 모집단
표본 크기	12,000명을 목표로 표본배분을 실시했으며, 최종 표본추출결과는 13,380명임.
표본 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	1단계: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표본추출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거주 가구 스크린 서베이를 실시 2단계: 스크린 조사를 통해 확보된 만15~29세 청년층 47,282명중 12000명을 청년패널 12,000명을 청년패널 본표본으로 구축
조사방법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 (CAPI) 방식 활용
조사도구	태블릿 PC
조사항목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 700개 내외 항목
조사단위	개인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매년 8월 1일 ~ 11월 30일
공표시기	익익년 2월
주된 활용	청년 고용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슈 및 노동시장 신호등 기능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노동시장 경로, 교육훈련·고용안정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표 1-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 시장 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통계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모집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상의 2~3년제,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졸업자
표본 크기	18,000명
표본 추출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표본추출	대학을 기준으로 약 30%의 졸업생 명부를 제공 받음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사전접촉: 전화를 이용한 사전접촉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TAPI)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가 대면면접조사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황, 현재일자리, 구직활동, 비경제활동상태, 첫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 졸업 전 취업목표, 취업준비 및 기타사항,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준비, 청년고용대책, 신체 및 정신건강,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의 19개 영역
조사단위	개인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매년 9월 1일~11월 30일
공표시기	익년 2월
주된 활용	인력수급 전망의 기초자료 청년 및 고학력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진로 및 진학상담의 객관적 자료 전공-직업불일치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학교-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표 1-1-4〉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통계작성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모집단	전국17개 시도 만18~34세 청년
표본 크기	3,500명
모집단 층화	행정구역별 층화 및 세부 층화
표본 배분	제곱근비례배분법(1차) 비례배분법(2차)
표본 추출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표본추출	층화2단집락추출법: 확률비례계통추출법(1차), 계통추출법(2차)
가중치	최종 가중치=가구 가중치×무응답 조정1×무응답 조정2×벤치마킹 조정계수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TAPI) (가구방문)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1종
조사항목	총 7개 영역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조사단위	개인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2020년 기준)	2020년 7월 6일~9월 17일
공표시기 (2020년 기준)	기초분석보고서 공표 - 2021년 2월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 - 2021년 3월 15일
주된 활용	(기초자료)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관련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청년 삶의 변동 측정) 횡단반복조사를 통해 청년 사회·경제 지표의 변동 파악(학술연구 및 논문작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학술연구, 논문작성 등에 활용

주: 조사모집단, 표본 크기, 표본추출틀,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시기, 공표시기는 2020년 내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 조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청년 삶 실태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년층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의 파악
- 둘째,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셋째, 청년층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 축적

3.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조사의 목적에 맞춰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 및 조사표를 설계하고 통계조사를 수행하며, 결과입력과 자료처리, 결과공표에 필요한 작업 및 신규지표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조사 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조사 목적에 비출 때 연구는 조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파악, 축적해나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과업에서는 조사표 작성에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하고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4.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조사의 배경과 목적, 조사 개요를 서술했다.

제2장에서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조사의 구성과 내용, 표본 설계,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다. 2022년 실시된 청년 삶 실태조사는 가구와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표본 추출틀을 청년통계등록부로 선정했다는 점 등을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조사의 분석 결과를 영역별로 기술했다. 연구의 목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정책 연구자 뿐 아니라 국민 일반이 동일한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 내용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통계량을 보고하며, 주요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타 실태조사에 비해 청년 삶 실태조사는 제공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분석 결과 표에서의 세로축)이 다소 많은데 이는 청년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청년의 다양성’에 따른 삶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제4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했다.

제2절 조사 개요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추진은 1) 조사 설계 단계, 2) 조사 준비 단계, 3) 조사 단계, 4) 조사 후속 단계로 이뤄졌다. 첫째,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조사표 개발, 표본 설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 신규 작성 통계에 대한 통계청 승인이 이뤄졌다. 둘째,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개발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TAPI를 개발하고 조사원을 모집하고 교육했다. 셋째, 조사 단계에서는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넷째, 조사 후속 단계에서는 자료입력, 각종 에러 및 로직 체크 및 사후 가중치를 조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끝으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설계 과정은 조사표 개발, 표본 설계, 조사통계에 대한 통계청 승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의 승인을 포괄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방법 및 절차 부문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관련 부분에서 서술한다.

〈표 1-2-1〉 2020년 청년 삶 실태조사 진행 과정

단계	내용	내용 수행을 위한 기반 작업
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개발 - 표본 설계 - IRB - 신규 작성 통계에 대한 통계청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회의(수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국무조정실, 한국통계진흥원 협의(수시) - 전문가(수시), 청년 당사자 자문 (2022. 4.13.~ 4.20, 2022. 6.) - 17개 부처, 1개 위원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2022. 4.21.~ 4.29.) -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포럼 (2022. 5.26.) - 조사표에 대한 국립국어원 감수(2022. 7.) - 타 조사통계와의 유사중복 검토 및 협의 등 - 통계 승인(2022. 7.14.); 승인번호 제170002호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I 개발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교육(2022. 7.12. ~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2일: 대전, 부산 · 7월 14일: 서울·경기, 제주, 대구 · 7월 15일: 광주, 강원
조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와 청년 대상으로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실시(2022. 7.18. ~ 8.26.) - 실사 지도(2022. 8. 1. ~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일: 서울 · 8월 2일: 부산 · 8월 3일: 강원 · 8월 4일: 경기, 광주 · 8월 5일: 대구
조사 후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 각종 에러, 로직 체크 및 사후 가중치 조정 - 데이터 구축 -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진흥원 자료처리; 조사표 입력 등 (2022. 8.31.~ 9.30.) - 국조실 중간 보고(2022. 9. 7.) - 전체 연구진 회의(2022. 9.13.) (안전-집계표 수정, 보고서 집필 방향 등) - 통계진흥원으로부터 원자료(raw data) 전달받고 연구진 일차 검토(2022. 9.15.) - 검토사항 통계진흥원으로 송부(2022. 9.26.) - 결과표 보완 및 요청사항 통계진흥원으로 송부 (2022.10.14.) - 생성변수 관련 협의 및 통계진흥원 데이터 보완 (2022. 9.27.~11. 6.) - 통계진흥원 데이터 2차 발송 (2022.11. 7.) - 분석 결과 국조실 1차 보고 (2022.11.16.) - 과제 관련 보완 사항 국조실 회의 (2022.12.22.)

단계	내용	내용 수행을 위한 기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계표 수정보완사항, 데이터 검수 결과 통계진흥원으로 전달 및 데이터 보완 요청(2022.12.28.) - 결과 활용방안 관련 자문회의 실시(2023.1.12.) - 가구 가중치 사후 보정 필요 여부 및 보정방안 관련 논의, 결정(2023.1.15.~1.17) - (통계진흥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에 자료제공협조 여부 확인(2023.1.18.) - (통계진흥원) 통계청 MDIS 모집단 자료제공 신청(2023.1.19.) - (통계진흥원) 통계청 MDIS 모집단 자료제공 승인(2023.1.27.)에 따라 모집단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반출 신청함(2023.1.27.) - (통계진흥원) MDIS 자료제공 반출 승인(2023.1.31.) - (통계진흥원) 집계표 변경승인 신청(2023.2.8.) - (통계진흥원) 가구가중치를 2021년 인구총조사 자료로 사후보정한 집계표를 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받음(2023.2.2.) - 통계청에 집계표(양식) 변경승인 신청(2023.2.8.) - 최종보고(2023.2.9.) - 국무총리 보고자료 준비 협조(2023.2.10.~2.22) - 보도자료(안) 작성 준비 협조(2023.28~3.1) - 잠정치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2023.3.6.)

이러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는 국무조정실의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전체 과업의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2-1] 청년 삶 실태조사 과업 추진 체계



주: *표시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협업수행



제2장

청년 삶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표본 설계

- 제1절 조사 방법 및 절차
- 제2절 조사의 구성과 내용
- 제3절 표본 설계
- 제4절 가중치

제2장

청년 삶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표본 설계

제1절 조사 방법 및 절차

1.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방법 및 절차

가. 조사표 개발

조사표 개발은 정세정 외(2021)에 의해 수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표(안)을 토대로 2022년 4월 ~ 6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자문, 1개 위원회와 17개 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와 연구진 회의 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 국무조정실이 최종 협의하여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타 조사통계와의 유사중복 정도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표 2-1-1〉 2022.4.13.~4.20, 2022.6월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자문 참여자

이름	소속
이○○	○○대학교
윤○○	○○연구원
김○○	○○○○네트워크
이○○	○○○○○○○연구원
변○○	○○연구원
김○○	○○○○기술원
남○○	○○○○대학교
김○○	○○○○의료원
권○○	○○○○연구원
정○○	○○○○○○○연구그룹
최○○	○○대학교
김○○	○○○○연구원

내용	
부처 및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5월 26일에는 조사 내용, 표본 설계, 조사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 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관련 포럼에는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한국통계진흥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내외부 전문가 및 청년 연구자가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전면 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2-1-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 포럼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 포럼

| 일시 | 2022. 5. 26 (목) 14:00~16: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회의실B

※ 온라인 생중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ngk01ZKXVA>

| 주최 ·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후원 | 국무조정실

| 프로그램 |

시 간	개 회	세부 내용
14:00~14:10	개 회	인사말씀 이태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축사 남할기 원장(정책조정실장(국무조정실))
14:10~14:40	주제 발표	청년 삶 실태조사의 의미와 활용방안 정세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 이영민 팀장(통계지원팀)
14:40~14:50		휴 식
14:50~15:50	지침 토론	최 장 정세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경 과장(고령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남보영 팀장(고령노동부 청년고용실(국립자립센터)) 정보영 연구원(산학융합자립연구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위원회) 송창균 과장(국립과학고) 윤성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유 토론 참석자 진행
		15:50~16:00

청년 삶 실태조사의 의미와 활용방안

2022. 5. 26. (목)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본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에서도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 관련 주요 자문 및 협의가 이뤄졌다. 아래는 2021년 사전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자문 및 협의의 개요와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 리스트, 의견을 회신한 부처의 의견을 정리한 표이다. 또한 이 표에 미처 제시하지 못했으나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상시 의견을 주고받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들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표 2-1-3〉 2021년 사전조사의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 관련 주요 자문 및 협의 개요

회차	일정	방식	자문 내용
1차	2021년 6월 18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가구 조사 방식의 필요성 ·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방안에 관한 논의
2차	2021년 6월 23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가구의 정의 및 조사 단위 ·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방안에 관한 논의
3차	2021년 7월 8일	회의 세미나	[청년의 특성 및 청년 연구에 관한 이해] · 청년 집단의 특성 · 사회 전반에 드러난 청년 문제 소개 - 일자리 소멸, 소득 빈곤, 근로 빈곤, 고립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 · 청년의 삶 진단 방안 · 청년 문제의 쟁점과 접근 방향 제시
4차	2021년 7월 30일	회의	[청년 조사에 반영되어야 할 주제와 내용] · 청년기본법의 제정의 취지와 제시된 조사 주제·내용 공유 · 그 외 청년의 삶 진단이 필요한 영역의 주제·내용 논의 · 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년 지표 산출 가능성
분 과 별	2021년 8월 19일	회의	[참여·권리 영역, 개인사 영역에 관한 자문] · 참여·권리, 개인사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4일	서면 자문	[건강 영역에 관한 자문] · 건강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5일	서면 자문	[주거 영역에 관한 자문] · 주거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5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조사구·집계구 조사 방식의 장·단점 · 가구의 정의 및 조사 단위 · 적정표본 규모 ·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답례품 규모 등)
	2021년	회의	[미래설계 영역에 관한 자문]

회차	일정	방식	자문 내용
	8월 27일		· 미래설계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9월 1일	서면 자문	[문화·여가 영역에 관한 자문] · 문화·여가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9월 1일, 15일	서면 자문	[노동 영역에 관한 자문] · 노동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9월 16일	서면 자문	[표본 설계에 관한 심층 자문] · 표본 및 조사 설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추출률 표본 설계 관련 사항 등 검토
5차	2021년 10월 21일	서면 자문	[통합조사표 전 영역에 관한 자문] · 전체 조사표 구성의 분량 및 일관성 · 문항 구성의 논리성 검토 · 세부 문항의 조사 기준 시점, 응답 대상, 문항 및 선택지 오탈자 등 오류 검증

자료: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혜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1-4〉 2021년 사전조사의 외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 리스트

영역	자문 위원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강○○(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김○○(○○○리서치), 김○○(○○연구원), 김○○(○○리서치), 김○○(○○○○○○○○연구원), 남○○(○○○○○○○원), 변○○(○○대학교), 손○○(○○대학교), 이○○(○○대학교), 장○○(○○○○리서치)
조사 내용	기○○(○○대학교) 김○○(○○○○연구소) 김○○(○○연구원) 김○○(○○○○○○○원) 김○○(○○○○○○○연구그룹) 김○○(○○○○○○○그룹) 김○○(○○○○○○○연구그룹) 김○○(○○○○○○○연구소) 김○○(○○○○○연구원) 권○○(○○대학교) 문○○(○○○○청년네트워크) 변○○(○○연구원) 배○○(청년 당사자) 송○○(○○대학교) 이○○(○○연구원) 이○○(○○의료원) 이○○(○○○○○○○연구원) 이○○(○○○○○○○연구원) 이○○(○○대학교) 연○○(○○○○○○○○○연구원) 정○○(청년○○○) 정○○(○○○○ ○○○연구소) 최○○(○○○○) 채○○(○○○○○○○연구그룹) 홍○○(○○○○○○○연구그룹)

자료: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혜정, 임택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신된 부처의 의견은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등 조사표 설계 논의과정에서 타 영역과의 균형, 우선순위 설정 등의 이유로 모두 조사표에 담지는 못했으나 후속 연구 등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1-5〉 2021년 사전조사의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 위원회의 회신 의견

구분	내용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식사 섭취 여부 -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 및 종류 - 카페인 섭취량(커피, 에너지링크 등) - 주간 배달음식 주문 횟수 - 식사 중 외식 비중 - 식사 중 집단급식소(학교·직장 등) 이용 비중 - 식사 중 가정간편식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비중 - 의약품 복용 여부 및 종류 - 의약품 부작용 경험 여부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일자리 선호도(타 분야와 비교)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창업 선호도(타 분야와 비교)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일자리의 고용안전성(표준계약서, 프리랜서 산재보험 등) - 일과 삶(여가)의 균형에 관한 인식 - 주거선택에 있어 문화여가여건의 중요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문화예술콘텐츠분야 기회 정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미래역량강화에 있어 문화예술콘텐츠분야 교육의 중요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건강증진에 있어 문화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생활문화생활체육 참여 등)의 중요도 - 청년 취약계층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정도 (타 분야와 비교) - 청년예술인 생계 및 창작 지원에 대한 인식 - 연간 문화여가활동 참여여부/횟수/비용; 비중 : 디지털(%) / 현장(%) - 문화여가활동 목적 - 주로 행하는 문화여가활동 및 유형(TV, 게임, 스포츠, 영화, 문화강좌, 동호회, 자원봉사 등); 비중 : 디지털(%) / 현장(%) - 문화여가 만족도(활동, 시설, 디지털 포함 등) - 적당한 문화여가활동 시간(1일 평균) -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디지털 포함) - 청년 문화여가권 보장 중요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선호도 - 청년교류에 있어 문화여가활동의 기능(매개 또는 활성화/ 타 분야와 비교)
공정거래 위원회	<p>[사회초년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홍보를 본적이 있는지, 어느 경로로 접하였는지? 2. 불법피라미드 피해 경험이 있는지?(주변 포함) 금전적 피해여부는? 3. 불법 피라미드(불법 다단계)의 의미를 아는지? 4.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 다단계”의 차이를 아는지? 합법여부 확인방법을 아는지? 5.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p>[소비자정책 청년 참여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결정 시 청년의 입장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청년을 위한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3. 소비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위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4. 청년위원을 위촉한다면 청년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5. 청년위원을 위촉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6.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떤 소통경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자료: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타 조사통계와의 유사중복 정도에 대한 검토 및 통계청 신규 승인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이 최초 실시이며 매 2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청년 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 승인통계로의 신규통계 생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 조사통계와의 유사중복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작성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통계 생산중단을 사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대한 작성 중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이 2022년 6월 20일 이뤄졌다. 관련된 협의는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에서 참석하였으며, 향후 청년통계 관련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간 지속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그 외에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부터 청년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기존 문항 중 지속 조사할 문항에 대한 검토요청과 청년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었고 작성기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신규 승인(승인번호 제 170002호)을 받았다. 국가통계 승인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승인을 신청하기 전, 국립국어원에 조사표 감수를 의뢰하여 조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표 2-1-6〉 국가통계 승인 신청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조사 등 자료수집 30일 전까지 제출 승인신청 공문발송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내 승인관련 서류 업로드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기획서, 통계작성지침서 등
2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및 가공통계 10일, 보고통계 7일 이내에 승인 신청 처리 수정보완 요청 필요시 통계청 내 관련부서, 통계조정소위원회 또는 통계조정위원회 심사 실시
3	신청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성·연속성·절차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 주요 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목적 - 통계작성의 대상 - 자료수집체계 - 조사표 등 관련 서식 - 응답부담 경감
4	결과 통보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통계청 홈페이지 고시

통계작성 승인을 위해서는 통계의 명칭, 종류, 통계작성 목적(근거법률), 통계작성 사항, 통계작성 대상,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조사(보고)기간, 작성 주기,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통계작성 체계, 통계작성 분류체계, 통계결과 공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과 표본 설계,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 관련 용어해설, 결과표 등을 갖춰야 한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7〉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 승인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통계작성 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통계종류	일반통계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의 만19~34세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
표본크기	15,000가구
조사대상 범위	가구, 개인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항목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및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8개부문
조사주기	2년
조사방법	면접조사

자료: 나라통계. (2022). <https://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rmStatsList.do> 에서 2022. 7. 19. 인출하여 저자 정리.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표본 설계, 연구방법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및 기타 연구 관련 문서에 대한 IRB 승인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사결과 통지서(제 2022-054호)를 받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연구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해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9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에서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다음 네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인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2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검토는 조사 기간, 조사 난이도, 조사 규모, 코로나19 등 주어진 조건 하에서 조사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통계진흥원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인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통계청,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뤄졌으며 협의 결과를 근거로 IRB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를 위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국가승인통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변경 사항 검토 결과 동의서 미수집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사항 신청을 승인” 받았으며, “데이터 공개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서와 데이터 이용 안내에 제시할 것”이라는 심사 의견과 함께 IRB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제2022-096호).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 조사의 IRB 심의 면제 여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 등에 대한 통일된 안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2]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용의 일부 제외 및 적용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9장 보칙 (개정 2020. 2. 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2. 7. 19. 인출.

[그림 2-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9.>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④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보건복지부령 제852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2022. 7. 19. 인출.

[그림 2-1-4]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 통지서(제2022-054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제2022-054호	발송일자	2022. 07. 05
연구과제명	청년 삶 실태조사		
과제번호	[수탁 22-047-00]		
연구책임자	(성명) 정세경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부연구위원	심사일자	2022. 07. 05
심사결과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심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심사형태	신속심사
총 연구기간	2022. 4. 11 ~ 2022. 12. 20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2.07.05부터 2023.07.04까지		

승인 통지서

본 연구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조사로서 다양한 청년층의 삶의 실태 및 인식을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 제공, 사회경제적 구조적 변화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일반 가구 내 만19~34세 청년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CAPRI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연구계획서 참조).

본 조사 내용과 조사 설계 등의 세부 사항은 조사계획서 및 조사 설계서 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조사영역과 내용, 조사 설계, 표집방법(모집단, 표본 및 표본 추출방법 포함) 등).

면접조사 진행 시, 최초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및 조사 계획과 일부 변경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 표본을 대체할지에 대한 안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조사표의 영역과 내용구성이 다소 길고 복잡할 수 있어, 면접 실시 시 대상자의 피로감 감소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면접원 대상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 조사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의사항은 조사계획서 및 면접원 취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자료 활용 동의서)상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 동의와 자료 활용(개인 및 민감 정보 활용 및 보호), 조사와 관련한 동의사항 안내 및 추가 조사에 참여 여부 대한 안내 등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견 1.

본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2년 07월 0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직인)

[그림 2-1-5]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를 위해 재심의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 통지서 (제2022-096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제2022-096호	발송일자	2022. 09. 19
연구과제명	청년 삶 실태조사		
과제번호	[수탁 22-047-00]		
연구책임자	(성명) 정세경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부연구위원	심사일자	2022. 09. 13
심사결과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심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심사형태	신속심사
총 연구기간	2022. 4. 11 ~ 2022. 12. 20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2.09.19부터 2023.09.18까지		

승인 통지서

본 연구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조사로서 다양한 청년층의 삶의 실태 및 인식을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 제공, 사회경제적 구조적 변화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일반 가구 내 만19~34세 청년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CAPRI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연구계획서 참조).

본 조사 내용과 조사 설계 등의 세부 사항은 조사계획서 및 조사 설계서 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조사영역과 내용, 조사 설계, 표집방법(모집단, 표본 및 표본 추출방법 포함) 등).

면접조사 진행 시, 최초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및 조사 계획과 일부 변경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 표본을 대체할지에 대한 안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조사표의 영역과 내용구성이 다소 길고 복잡할 수 있어, 면접 실시 시 대상자의 피로감 감소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면접원 대상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 조사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의사항은 조사계획서 및 면접원 취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자료 활용 동의서)상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 동의와 자료 활용(개인 및 민감 정보 활용 및 보호), 조사와 관련한 동의사항 안내 및 추가 조사에 참여 여부 대한 안내 등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견 1.

본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2년 09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직인)

라. 조사원 모집 및 구분

앞서 언급했듯, 조사의 준비와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원 모집, 조사원 교육과 실사 지도 과정이 포함되었다.

조사원의 모집은 다음의 기준과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첫째, 한국통계진흥원 전문 조사원 인력풀 내 선발을 통한 모집, 둘째, 실사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및 가구조사 유경험자 우선 선발, 셋째, 조사 인력풀 모집 페이지(<http://www.stat.or.kr/recruit/03.php>)를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그림 2-1-6] 한국통계진흥원 조사 인력풀 모집



조사원은 현장 조사 조사원과 입력·내검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했다. 현장 조사 조사는 가구조사 유경험자, 통계진흥원 인력풀 내 실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 그리고 지역본부별 인접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발했다. 입력·내검요원은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숙지된 현장조사원을 채용했다. 조사 업무량은 1인이 1일 3~4가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당했고 조사관리자로는 통계진흥원 지역본부 본부장과 사무실장 및 센터장이 우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조사원, 조사관리자(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장 및 센터장), 콜센터 직원 등 총 248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했다. 교육은 권역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집합교육 미참여자의 경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집합교육 시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손 소독,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현장 조사 관련 일반사항, 조사표 작성 지침, 코로나19 대응지침, TAPI조사 관련 시스템 교육이 이뤄졌으며, 중도 포기 대체 조사원의 경우 각 지역본부별 수시교육을 진행하여 모든 조사원에 대해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원 교육은 통계진흥원의 김종록 본부장, 이영민 팀장, 전재현 연구원, 이영숙 팀장 등 조사관리부 8인, 지역본부장 및 센터장, 행정실장 등 50인, 조사원 190명 내외가 참여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김문길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연구책임인 정세정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인 함선유 부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류진아 전문연구원, 강예은 연구원이 참여했다.

〈표 2-1-8〉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일정

구분		'22. 7. 12(화)	'22. 7. 14(목)	'22. 7. 15(금)
1 그룹	권역	대전	서울·경기	-
	참석인원	46	73	-
	교육장소	한국통계진흥원(대전) 회의실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
	강사1	이○○(문○○) [한국통계진흥원]	이○○(송○○) [한국통계진흥원]	-
	강사2	류○○, 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그룹	권역	부산	제주	광주
	참석인원	39	7	36
	교육장소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호남지방통계청 ※화상교육 병행
	강사1	김○○(송○○) [한국통계진흥원]	전○○ [한국통계진흥원]	전○○(송○○) [한국통계진흥원]
	강사2	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 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 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그룹	권역	-	대구	강원
	참석인원	-	33	14
	교육장소	-	대구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강사1	-	이○○(문○○) [한국통계진흥원]	이○○(문○○) [한국통계진흥원]
	강사2	-	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각 소속의 직위는 생략하였음

〈표 2-1-9〉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내용

구분	내용
조사 일반 사항	- 조사개요, 가구관리, 안전수칙, 답례품 및 조사원 수당 등
조사표 작성요령	- 조사항목(가구문항, 개인문항)
전산입력 요령	- 입력시스템에 대한 설명(테블릿 사용방법 등)
내검 요령 및 조사표 제출	- 내용검토 및 정리, 조사표 제출 요령 등

〈표 2-1-10〉 청년 삶 실태조사 교육 시간표

시간	담당자	교육내용	비고
~ 10:20		교육 참여자 등록	
10:20 ~ 10:30	강사 1	인사말씀	한국통계진흥원
10:30 ~ 12:00	강사 1	조사일반 (수당, 답례품, 태블릿 사용)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30	강사 2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0 ~ 14:40		휴식	
14:40 ~ 16:00	강사 2	조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 조사 실시 및 현장 지도

현장 조사에는 총 248명의 조사원이 참여했으며 조사 첫날인 2022년 7월 17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조사 실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 내 19~34세의 청년과 그 청년이 속한 15,000가구이다. 조사의 내용은 조사대상 청년에 대한 질문과 청년 가구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상 조사대상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가구에 대한 질문과 청년에 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하고, 조사대상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구 구성원(가구주)이 가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가구주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문항은 가구 일반사항과 가구 경제(지출, 소득, 재산, 부채) 부문이다.

또한 본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응답자가 원할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완료된 조사는 오류를 검토한 뒤 태블릿 PC에 입력하도록 했다. 조사 완료 가구에 대해서는 답례품이 지급되었다. 답례품은 응답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4종의 기프티콘 중 1종 선택 또는 3종의 모바일 상품권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 2-1-7]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2. 7. 17.(일) 14:00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팀장 김병준 (044-200-6340)

담당자: 사무관 권희중 (044-200-6342)

○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의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 나아가 청년 삶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경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 문제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20. 시행)에 따른 첫 “청년 삶 실태조사(7.18~8.26.)” 실시

- 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근거로 활용,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전국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참여, 사회인식, 경제** 등 8개 부문, 200여개 설문문항 조사
- 가구부문 면접조사시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비대면조사도 병행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2022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를 포함한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제정(2월)·시행(6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 「청년기본법」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부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부문	주요 조사내용
일반사항	▪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취약계층 식별(온도, 고립, 영세여부 등) 등
주거	▪ 부모동거, 주거형태, 주거비, 주거환경(취주거기준), 주거인식 등
건강	▪ 흡연·음주, 의료경험, 운동, 영양, 번아웃, 약물, 우울, 자살 등
교육·훈련	▪ 진학, 자기개발, 사교육, 대학(등학급), 졸업기간 등
노동	▪ 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초과근무·휴식시간, 이직구직 등
관계·참여	▪ 도움필요여부, 정치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 외출 등
사회인식·미래	▪ 만족도, 행복감, 갈등·불평등인식, 결혼·출산계획 등
경제	▪ 지출, 소득(근로, 사업, 재산 등), 부채(학자금, 주택, 생활비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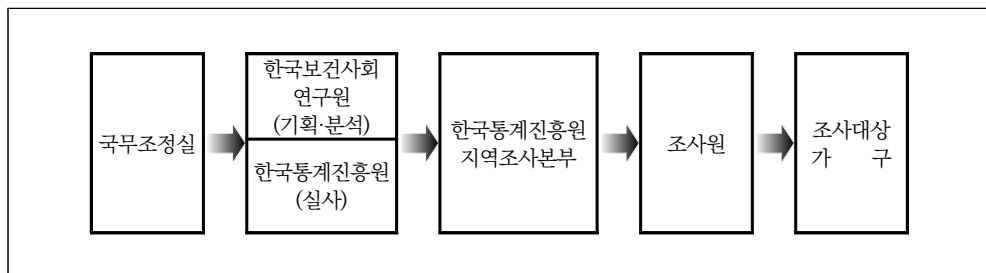
담당 부서 <출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책임자	팀장 김병준 (044-200-6340)
		담당자	사무관 권희중 (044-200-6342)
<공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책임자	연구위원 정세정 (044-287-8130)
		담당자	전문연구원 유진아 (044-287-8162)

〈표 2-1-11〉 청년 삶 실태조사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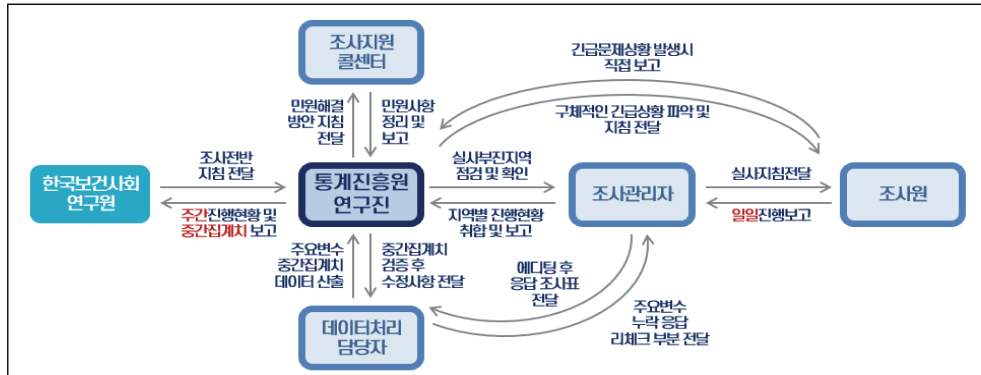
구분	서울,인천	경기	대전,세종 충남,충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강원,제주	계
조사원	36	26	32	32	28	22	14	190
조사관리자	4	5	7	5	6	6	5	38
행정인력	3	1	7	2	2	2	3	20
합 계	43	32	46	39	36	30	22	248

아래 그림은 전체 조사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8]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체계



[그림 2-1-9]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 체계



조사 진행 과정에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며, 현장 지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조사자료 품질 제고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파악
- 조사 진행 파악 및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조사자 현장 상황 점검 및 관리 실태 파악
 - 조사업무 및 내용검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등
 - 조사항목의 적절성, 난이도, 답례품의 만족도 등 차기 조사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 현장 지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 지역본부에서 이뤄졌으며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이 통계진흥원의 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조사관리자 등으로부터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실사 시에는 진행상황 점검, 개선의견 수렴, 조사과정의 전반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 및 문제점 점검, 기타 조사과정, 입력, 내검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조사량에 따른 응답자 부담 정도 파악, 현재 조사 진척률 확인 및 대책 검토, 현장조사의 문제점·애로 사항 청취를 수행했다. 진행된 실사 지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2-1-12〉 청년 삶 실태조사 현장 지도 일정

분류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권역	서울	부산	강원	경기	광주	대구
국무조정실	-	-	곽○○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강○○	김○○ 강○○	-	-	정○○ 류○○	정○○ 류○○
한국통계진흥원	김○○	김○○ 이○○	김○○ 이○○	김○○	김○○ 전○○	이○○

주: 각 소속의 직위는 생략하였음

사. 조사준비물,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한 조치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원들은 조사표, 조사지침서, 가구 명부 등 필요 물품을 지참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② 매일 아침 조사관리자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여부 체크 후 보고하며,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③ 가구 방문 및 면접조사 진행 시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착용, 손소독제, 소독티슈 항시 구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조사 진행하도록 하고, ④ 조사업무 중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조사를 중단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표 2-1-13〉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물품

내용
가구명부, 조사표, 조사지침서, 답례품 지급대장, 비밀보호용 봉투, 조사원증, 조사참여 안내문, 방문안내장, 필기도구, 가방, 태블릿 PC

3. 조사 후속 조치

1) 조사 모니터링

조사의 모니터링은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일간 이뤄졌다. 조사원

별 조사완료 가구의 5% 내외를 무작위 선정하여 전화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원 방문 사실, 주요 조사 내용, 답례품 지급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검증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는 891가구 중 138건(15.5%)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전달에 있어 이상이 있는 경우는 검증 오류로 판단되는 138가구 중 95건(1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사표 검증항목이 불일치한 경우는 138가구 중 13건(1.4%)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니터링 후 검증항목 불일치 13건 중 7건(0.8%)은 전산시스템 상의 오류로 나타났으며 실제 검증항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6건(0.7%)로 보완조사 실시 후 수정·입력 처리했다. 답례품 오류 95건 중 81건(9.1%)은 전산시스템 상의 입력착오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14건(1.6%)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지급한 경우로 해당 지역본부 및 관리자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전화번호 오류 30건 중 13건(1.5%)은 전산시스템 상의 입력착오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조사 착오 11건(1.2%)은 재확인 후 수정입력했으며 응답거부 6건(0.7%)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했다.

〈표 2-1-14〉 청년 삶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

지역 본부	검증 시도	모니터링 성공	정상	검증 오류			
				합계	항목 불일치	답례품 문제	전화번호 오류
서울본부	392	209	185	24	3	14	7
경기본부	470	245	202	43	4	29	10
강원본부	77	37	24	13	3	9	1
대전본부	179	104	85	19	0	18	1
대구본부	140	71	57	14	0	11	3
광주본부	227	110	97	13	2	7	4
부산본부	180	98	89	9	1	4	4
제주센터	30	17	14	3	0	3	0
합계	1,695	891	753	138	13	95	30
비율	-	100.0	84.5	15.5	1.4	10.7	3.4

〈표 2-1-15〉 청년 삶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세부내용	건수	모니터링 조치사항
조사항목 불일치	- 시스템오류	7	불응 가구원 및 대상 외 가구원으로 확인함
	- 방문여부	0	방문하지 않은 경우 없음
	- 조사표완료 자녀수	6	자료수정 후 입력 처리함
답례품오류	- 시스템오류	81	시스템 수정 입력함
	- 과소지급	11	응답자에게 재확인 후 추가 지급함
	- 과다지급	3	회수 및 손실처리
전화번호 오류	- 시스템/기입오류	13	시스템 수정 입력함
	- 조사 착오	11	응답자에게 재확인 후 수정입력
	- 응답거부/기타	6	개인정보 노출기피(공백처리), 답례품 수령증에 기재된 경우 입력처리

2) 자료 처리

자료의 처리는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완료 조사표에 대한 심층 내검을 통한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 조사표 현장 내검

- 조사원이 조사 완료 직후 현장에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 누락 및 분할 항목 검토 (특정 응답자 문항, 주관식 문항 검토 등)

○ 조사표 입력

- 조사표 입력은 지역본부별 조사원 및 입력요원이 실시
- 가구 명부, 조사표 작성 내용, 방문기록, 답례품 지급 등 전반적 조사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입력

○ 입력 데이터 내검

- 내검규칙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입력 데이터 자동 내검 실시
- 내검 결과 오류 발생 시 조사표 확인 및 보완조사 실시

○ 종합 내검 (2022. 9. 1 ~ 2022.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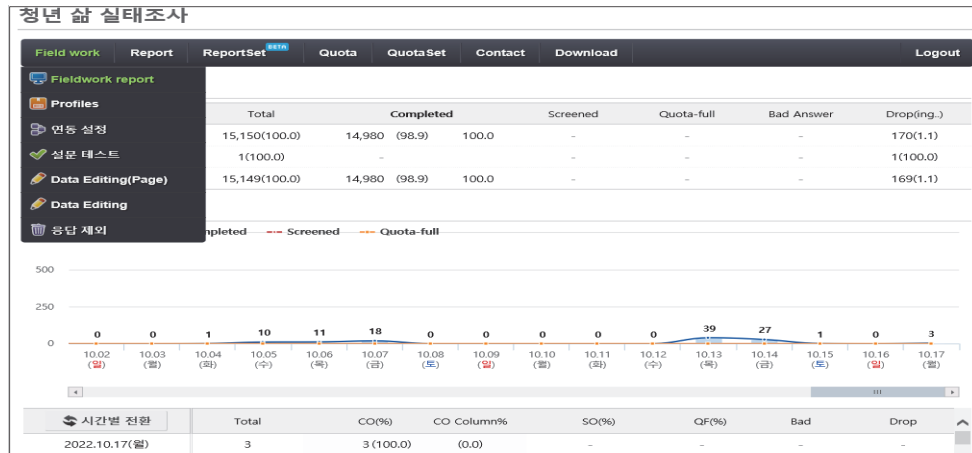
- 1단계 : 자료 2차보완 (2022. 9. 1. ~ 2022. 9.30.)
 -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은 내검규칙을 통해 종합내검을 수행하여 오류사항 재보완

- 조사제외 가구(외국인가구 등) 확인 및 수정
 - 2단계 : 심층 내검 (2022.10. 1 ~ 2022.10.25.)
 - 조사표 조사항목에 대한 누락 및 입력 오류 재점검
 - 조사표 문항별 연관 항목 타당성 검토
 - 가구 방문 횟수, 방문 결과 유형 등 파라미터 분석
 - 집계 및 분석 (2022.10.26. ~ 2022.11.4.)
 - 조사항목에 대한 집계표 작성 및 수준 점검
 - 자료검토 및 집계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 이상치 처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수시 협의체계 유지

[그림 2-1-10] 청년 삶 실태조사 전산시스템과 전산 내검 시스템

청년 삶 실태조사									
Field work Report ReportSet <small>SETA</small> Quota QuotaSet Contact Download Logout									
응답자ID	센터명	동일대체	표본그룹	주소(실거	연락처	접속부	방문결과	Web	컨택원
10000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78	접(예)...	11.모두 응답함	●	김민준
10001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79	접(예)...	11.모두 응답함	●	김민준
10002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80	접(예)...	11.모두 응답함	●	김민준
10003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81	접(예)...	11.모두 응답함	●	김민준
10004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82	-	-	○	김민준
10005	강북센터	111111	A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로1길 13	02-1234-5683	접(예)...	11.모두 응답함	●	김민준

[그림 2-1-11] 청년 삶 실태조사 전산 내검 시스템



제2절 조사의 구성과 내용

1. 청년 삶 실태조사의 구성⁴⁾

청년 삶 실태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조사 내용은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조사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포괄하는 조사통계들이 포함하고 있는 삶의 영역을 검토하고, 이행기 특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뿐 아니라 미래계획을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층에 특화된 문항 뿐 아니라 다른 세대 등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기존 국내외 조사통계의 조사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둘째, 청년 삶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정기 조사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정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은 조사 내용에서 제외했다. 셋째,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실태 뿐 아니라, 기대 수준과 미래에 대한 비전, 삶의 만족도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했다. 넷째, 청년기본법은 제8조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

4) 조사내용의 구성은 사전연구인 정세정 외(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 연구 내용의 일부를 실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청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인적 속성(장애, 이주배경, 다문화 가족), 관계 특성(한부모 가구, 영케어러, 은둔고립 청년), 일자리 특성(저임금, 불안정 고용) 니트, 고립, 가구 배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을 조사내용에 포함했다. 끝으로 다섯째, 청년기본계획은 청년지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단, 니트, 영케어러, 은둔고립 등과 같이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분석은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추후 심층 연구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듯 유사·중복 통계 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작성 중지되었다. 그러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층의 어느 한 삶의 영역이 아닌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여 축적해 온 의미 있는 조사임에 따라, 연구의 발주처인 국무조정실과 통계청, 그리고 통계생산을 담당해왔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본 연구의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의 하에 2021년에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중요 문항이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조사 항목은 완전히 같은 문항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이를테면, 1) 몇 개의 추가 문항을 통해 더 정교하게 해당 항목을 측정할 수도 있고, 2) 연구진 및 전문가/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문항에 따라서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청년 삶 실태조사의 내용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은 1) 일반사항, 2) 주거, 3) 건강, 4) 교육·훈련, 5) 노동, 6) 관계 및 참여, 7) 사회인식·미래설계, 8) 경제부문으로 구성됐다.

가.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청년과 청년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청년기본법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본 조사에서는 청년 개인 뿐 아니라 가구원의 정보도 파악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별이나 연령 등 여러 특성이 거의 동일한 청년이더라도 공간적·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청년 집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상 공간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않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가구의 경제 상황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사항은 가구주가 응답하는 항목과 조사대상 청년이 응답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년이 가구주일 경우 청년이 모두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사항에서는 가구원 수,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외에도 은둔이나 고립하고 있는 가구원 유무와 지속기간, 조사대상 청년이 가구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지 여부와 돌보는 가구원과의 관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청년 삶의 영역별 문항과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단, 일반사항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 노동 등의 영역에서는 조사 시점 또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일반사항에서 파악된 가구유형과 타 영역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었지만, 조사 시점인 7월 경에는 부모와 동거하게 된 경우 일반사항에서 규정된 가구 유형과 주거 영역에서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된 문항에 대한 답변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2-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가구의 정의

2022년 1월 1일 기준,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함

〈표 2-2-1〉 일반사항

영역	주요 내용
일반사항 (2022.1. 1.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가구원 수 • A2.조사대상과의 관계 및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 • A3.가구원 성별 • A4.가구원 생년과 생월 • A5.가구원 교육수준 (A5-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5-2.상태(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 A6.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 A7.(부모 비동거 가구)부 교육수준(A7-1-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7-1-2.상태) (부모 비동거 가구)모 교육수준(A7-2-1.최종적으로 다닌 학교, A7-2-2.상태) • A8.가구 유형(한부모, 조손, 자립준비청년, 해당없음) • A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경험 A9-1.(국민초 수급 중일 경우) 급여 형태 (A9-1-1.생계급여, A9-1-2.의료급여, A9-1-3.주거급여, A9-1-4.교육급여) • A10.은둔/고립 가구원 유무, A10-1.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과 주된 이유 • A11.(조사대상 청년) 가구원 돌봄 여부 • A12.(조사대상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 A13.(조사대상 청년) 장애 유무 • A14.(조사대상 청년) 태어난 국가, A14-1.현재 국적, A14-1-1.귀화 여부, A14-2.부모 출생 국가, A14-2-1.부모님 중 외국 국적 보유 유무, A14-2-2. 부모 중 귀화 여부 • A15.(조사대상 청년) 혼인 상태

나. 주거

주거영역은 다양한 조건에 처해있는 청년의 주거실태 및 주거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테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 생활거주지에 대한 실태와 주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주 중심의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실태 조건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표 2-2-2〉 주거

영역	주요 내용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부모 동거 여부 B1-1.(부모동거)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B1-1-1.(부모 동거·독립 계획 있음)독립하려는 이유, B1-1-2.(부모 동거·독립 계획 없음)독립 계획 없는 이유, B1-2.(비동거)비동거 이유, B1-2-1. 1) (비동거)독립한 기간, B1-2-1. 2) (비동거)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 B1-2-2.(비동거)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 B2.1)기숙사, 향토학사 거주 경험, 2)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 B3.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 *B4.현재 주거 점유형태, B4-1.(자가)현재 거주 주택 시세, B4-2.(비자가)현재 거주 주택 시세(보증금 및 월세) • *B5.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 *B6.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 B7.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 B8.현재 거주 주택 원룸형 여부 • B9.현재 거주 주택의 방 개수, B9-1.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 B10.현재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 • B11.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 • B12.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 B13.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B14.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 *B15.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 B16.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 • B17.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 • *B18.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B18-1.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 • B19.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 • B20.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 • B21.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B21-1.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 B22.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해왔는지의 여부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다. 건강

건강영역은 청년기 건강의 위험요인과 격차를 파악하고 청년기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건강영역의 조사항목은 건강 결과뿐 아니라 향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포함했다. 청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통적 건강 위험요인이자 건강 결과 문항으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스트레스, 우울 등을, 건강 결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자살생각 등을 포함했다. 우울과 스트레스는 건강결과로도 볼 수 있다. 청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건강 위험요인 현황 파악을 위해 수면, 소진, 약물오남용, 스마트폰 의존 등을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참고로 건강영역의 항목 중, 약물 사용 경험은 정세정 외(2021)의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수행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표 2-2-3〉 건강

영역	주요 내용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 현재 흡연 여부, C1-1.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 C2.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C2-1. 한 번에 마시는 음주 정도, C2-2. 남성 과음 빈도, C2-3. 여성 과음 빈도 • *C3. 운동 빈도, C3-1.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 C4. 최근 1년간 몸무게 조절 시도 여부 • C5.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C6.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 C7. 일일 수면 시간 • C8.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 C9. 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C9-1. 최근 1년간 소진(번아웃) 경험 이유 • C10. 우울 • C11.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 C12.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2-1.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 • C13. 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사용 경험, C13-1. 약물 오·남용 경험 • *C14.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 C15.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았던 경험, C15-1. 건강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을 받은 이유 • C16.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 *C16-1.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라. 교육훈련

교육훈련 영역은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뒀다.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조사하는 항목은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도움 받은 경험과 그 정도, 한 달 평균 자기계발비가 있다. 또한,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와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분야를 질문하고 대학생과 대졸 이상 청년들에게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의 취업에의 도움정도, 취업을 위한 대학교육 외에 별도로 받은 사교육 경험을 질문하도록 구성했다.

〈표 2-2-4〉 교육훈련

영역	주요 내용
교육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졸업 고등학교 유형 • D2.졸업 고등학교 소재지 • *D3.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D3-1.취업준비와 관련하여 도움받은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 D4.한 달 평균 지출 자기계발비 • *D5.(고졸 이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 D6.(고졸 이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D7.(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D7-1.(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전공 계열, *D7-2.(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지역 • *D8.(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D9.(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D9-1.(대학생,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마. 노동

노동 영역의 조사항목은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 노동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위험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먼저,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은 범주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보다는 자영업 여부, 계약기간, 임금산정방식, 급여 지급처(파견, 용역) 등의 문항을 통하여 고용 형태를 판별하고자 했으며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자영업자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음으로,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정성 정도를 판별하고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의 관점에서 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환경에서의 위험성을 측정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이 청년의 일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또한 노동 영역의 조사항목은 닛트 청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 2-2-5〉 노동

영역	주요 내용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E1-1. 지난 주 가족무급종사자 여부, E1-1-1. 지난 주 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 E1-1-2. 지난 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 • *E2.n 잡 해당 여부 • *E2-1. 일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2-1-1. 1) 일주일 중 며칠을 일하는지, 2)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3) 세금 공제전 소득, 4) 일의 종류 • E3. (지난주 일한 일자리) 자영업 해당여부, E3-1. 고용계약기간 E3-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E3-3. 임금 산정 방식, E3-4. 임금(급여) 수령처, E3-5. 일경험 해당 여부 • E4.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주휴 수당 지급 여부 • E5.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산업 분야 • *E6.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 E7. (지난주 일한 일자리)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근무 시작 시기 • E8. 한 달 중 밤 근무, 저녁 근무, 하루 8시간이상 근무,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를 며칠 정도 하는지(E8-1), 해당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E8-2) • E9. 장시간 근로 경험 • E10. 현재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특정 활동(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사용,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타인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회사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수행여부 • E11. 일에서의 자율성 • E12. 일에 대한 생각(불안정성, 환경 오염) • E13. (모든 일자리) 지난 주 36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 E13-1. 지난 주 추가 근로 희망 여부, E13-2. 지난 주 추가 근로 가능 여부, E13-3. 지난 4주간 추가 근로를 위한 구직 여부 • *E14. (미취업자) 지난 4주 내에 구직 경험, E14-1. (미취업자)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4-2.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 E15. (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구직 희망 여부, E15-1. (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근무 시작 가능 여부, E15-2.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하지 않은 이유 • E16. 지난 주 주된 활동상태 • E17.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E18. 15세 이후 취업 경험, E18-1.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E18-2.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E18-3. 일자리를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E18-4. 실업급여 지급 여부, *E18-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 E19.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 E20.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쓴 경험 • E21.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 E2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E22-1.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적절성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바. 관계 및 참여

관계 및 참여 영역의 조사항목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청년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행위하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더불어, 청년의 여가활동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F5), 은둔·고립 청년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F6~F9)을 포함했다.

〈표 2-2-6〉 관계 및 참여

영역	주요 내용
관계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1.각 어려움(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F1-1),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F1-2) • F2.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 F3.정치, 사회참여 경험 • *F4.정치적 효능감 • F5.여가활동의 필요성(F5-1), 지난1년간의 경험여부(F5-2), 안(못)한 이유(F5-3) • F6.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 *F7.외출 빈도 • *F8.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 • *F9.은둔·고립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사. 사회인식·미래설계

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갖는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과 현재의 여건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본 영역은 순차적으로 개발될 청년 지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생산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조사와 갤럽월드폴, 세계 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일부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G13.공정성 인식 문항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와 비교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표 2-2-7〉 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주요 내용
사회인식·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삶의 만족도 • G2.주관적 행복감 • G3.삶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 • G4.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G5.집단간 갈등인식 • G6.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인식 • G7.본인의 소득 계층 인식 • G8.우리사회 불평등 정도 • G9.부의 대물림 인식 • G10.복지확대에 대한 인식 • G11.국가역할에 대한 인식 • G12.정치적 성향 • G13.공정성 인식 • G14.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 G15.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 G16.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 G17.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 *G18.향후 결혼 계획 • *G19.향후 자녀 출산 의향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아. 경제

경제 영역은 청년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인 가구 생활비,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로 구성했다.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묻되, 소득과 부채, 재산은 가구와 개인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여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표 2-2-8〉 경제

영역	주요 내용
경제	H1.월평균 가구 생활비 H1-1.총생활비 H1-2.식료품비 H1-3.월세(H1-3-1), 주거관리비(H1-3-2) H1-4.교육비 H1-5.통신비 H1-6.교통비 H1-7.오락문화비 H1-8.세금 H1-9.공적연금·사회보험료 H1-10.가구간 이전지출 H1-11.비영리단체 이전지출
	H2.가구 및 개인 연간소득 H2-1.근로 및 사업소득 H2-2.재산소득 H2-3.사적이전소득 H2-4.공적이전소득 H2-4-1.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실업급여, 취업지원 관련 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장려금, 기타공적이전 소득,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H2-5.총소득
	H3.가구 및 개인의 부채와 이자 H3-1.부채총액 H3-2.학자금부채 H3-3.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H3-4.주택관련부채 H3-5.생활비 부채 H3-6.월평균 이자
	H4.가구 및 개인의 재산 H4-1.금융재산 H4-2.주식 H4-3.가상자산 H4-4.기타 부동산 및 재산

주: *표시한 문항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으로부터 승계한 문항으로 1) 문항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2) 문항을 가져오되, 보거나 문항이 일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해 표시했음.

제3절 표본 설계

1. 모집단

2022년도 청년삶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이다.

2022년 청년삶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에서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이다. 본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구유형에서는 특별조사구(인구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유사한 분류)를 제외하였으며, 가구유형으로는 일반가구(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중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곧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특별조사구 이외 조사구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이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조사원과 응답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 기준일(2022년 1월 1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의 생년월일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가구는 1987년 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표 2-3-1〉은 2020년 시도별 전체 일반가구와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 현황이다. 일반 가구 수는 2020년 인구총조사 총가구에서 외국인 가구, 집단가구(집단시설 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이고,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 수는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 자료 중 만 19세에서 34세를 포함하는 일반가구 수이다. 시도별 전체가구의 구성비와 청년 가구의 구성비는 서울, 경기지역과 경북, 경남, 전남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3-1〉 시도별 일반가구와 만 19~34세 포함 가구

(단위: 가구, %)

시도	인구총조사 ¹⁾		청년통계등록부 ²⁾	
	전체 일반가구 수	구성비	만 19~34세 포함 일반가구 수	구성비
전국	20,926,710	100.0%	7,715,535	100.0%
서울	3,982,290	19.0%	1,713,980	22.2%
부산	1,405,037	6.7%	484,344	6.3%
대구	985,816	4.7%	354,600	4.6%
인천	1,147,200	5.5%	440,416	5.7%
광주	599,217	2.9%	230,207	3.0%
대전	631,208	3.0%	260,407	3.4%
울산	444,087	2.1%	157,935	2.0%
세종	139,106	0.7%	54,011	0.7%
경기	5,098,431	24.4%	1,994,126	25.8%
강원	661,039	3.2%	201,104	2.6%
충북	678,922	3.2%	238,312	3.1%
충남	892,222	4.3%	302,662	3.9%
전북	755,575	3.6%	238,560	3.1%
전남	761,518	3.6%	205,816	2.7%
경북	1,131,819	5.4%	334,227	4.3%
경남	1,350,155	6.5%	417,387	5.4%
제주	263,068	1.3%	87,441	1.1%

자료: 1) 2020년 인구총조사 일반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nn_path=I2

2)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 분석센터서비스의 행정통계자료)

<https://data.kostat.go.kr> (2022년05월~2022년08월 이용)

〈표 2-3-2〉는 각 시·도별 일반가구와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별 가구 현황이다. 전체 일반가구 중 1인 가구는 6,643,354가구, 31.7%이며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 중 1인 가구는 2,057,786가구, 26.7%이다.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종 38.2%, 대전 38.1%, 서울 34.7% 순으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3-2〉 시도별 가구원수별 가구

(단위: 가구, %)

시도	전체 일반가구 ¹⁾			만 19~34세 포함 일반가구 ²⁾		
	1인	2인이상	1인가구비율	1인	2인이상	1인가구비율
전국	6,643,354	14,283,356	31.7%	2,057,786	5,657,749	26.7%
서울	1,390,701	2,591,589	34.9%	594,751	1,119,229	34.7%
부산	455,207	949,830	32.4%	125,445	358,899	25.9%
대구	304,543	681,273	30.9%	82,976	271,624	23.4%
인천	324,841	822,359	28.3%	87,202	353,214	19.8%
광주	193,948	405,269	32.4%	63,767	166,440	27.7%
대전	228,842	402,366	36.3%	99,215	161,192	38.1%
울산	122,848	321,239	27.7%	30,481	127,454	19.3%
세종	43,577	95,529	31.3%	20,632	33,379	38.2%
경기	1,406,010	3,692,421	27.6%	416,772	1,577,354	20.9%
강원	231,371	429,668	35.0%	60,532	140,572	30.1%
충북	236,208	442,714	34.8%	74,353	163,959	31.2%
충남	304,973	587,249	34.2%	92,312	210,350	30.5%
전북	255,269	500,306	33.8%	65,127	173,433	27.3%
전남	256,633	504,885	33.7%	45,897	159,919	22.3%
경북	388,791	743,028	34.4%	93,918	240,309	28.1%
경남	417,737	932,418	30.9%	84,730	332,657	20.3%
제주	81,855	181,213	31.1%	19,674	67,767	22.5%

자료: 1) 2020년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총가구에서 외국인가구, 집단가구(집단시설가구)를 제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명명_path=12

2)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 분석센터서비스의 행정통계자료)

<https://data.kostat.go.kr> 2022년05월~2022년08월 이용

2. 모집단 총화 기준 및 시도별 표본 규모

2022년 현재 인구총조사 전수부문에서 공표되는 가구유형은 1인, 한부모, 다문화, 영유아자녀, 미성년자,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등이다. 본 조사의 사전연구인 정세정 외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에서는 2019년 인구총조사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표본설계를 검토하였다.

한편,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는 KOSIS에 공표되는 시점과 표본추출틀이 제공되는 시점에 시차가 존재하며 공표된 자료라 할지라도 표본추출틀이 제공되기까지 약 10개월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2022년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해 활용가능한 최신 자료로

2019년 인구총조사 표본추출틀과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표본 설계를 위한 표본추출틀로 인구총조사와 청년통계등록부 중 어떤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2022년 5월 10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표본과 그리고 연구진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주요 내용으로 표본과에서는 ‘1년 사이에 인구이동(1년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약 29%이고 19세에서 34세는 인구이동이 많은 연령대이므로 일반적인 표본설계에서도 과표집(oversampling)과 100% 예비표본으로 설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행정자료과에서는 향후 행정자료와의 연계관점에서 볼 때 청년통계등록부가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 시점에서 인구총조사보다는 청년통계등록부가 최신의 모집단이며 향후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때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사를 설계하였다.

앞서 살펴본 모집단 가구 구성은 2020년 11월 1일 기준 인구총조사 자료와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조사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재계산 후 시도별 만 19~34세의 인구를 추정해보면 다음 <표 2-3-3>과 같다.

〈표 2-3-3〉 시도별 만 19~34세 인구('22년1월1일 기준 추정)

(단위: 명)

시도	동·읍면부		연령대별			계
	동부	읍면부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전국	8,173,339	1,204,634	3,120,670	3,524,361	2,732,942	9,377,973
서울	2,037,489	-	605,972	797,770	633,747	2,037,489
부산	586,660	-	198,037	224,763	163,860	586,660
대구	435,744	-	155,510	163,009	117,225	435,744
인천	547,572	-	173,862	209,385	164,325	547,572
광주	286,918	-	107,334	107,252	72,332	286,918
대전	308,802	-	117,376	113,061	78,365	308,802
울산	192,071	-	62,146	72,011	57,914	192,071
세종	60,417	-	20,989	19,935	19,493	60,417
경기	2,109,792	377,131	805,773	928,631	752,519	2,486,923
강원	164,570	74,680	90,067	86,350	62,833	239,250
충북	187,298	98,896	102,312	106,284	77,598	286,194
충남	200,545	160,009	128,923	127,567	104,064	360,554
전북	239,601	52,663	113,287	106,665	72,312	292,264
전남	129,433	120,198	88,519	93,153	67,959	249,631
경북	242,599	149,333	140,645	141,630	109,657	391,932
경남	359,903	145,898	172,655	185,521	147,625	505,801
제주	83,925	25,826	37,263	41,374	31,114	109,751

주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읍면부를 동부에 포함함

자료: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에서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만 19~34세 인구
(2022년1월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재계산)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 자료에서 2020년 11월 1일 기준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는 7,715,535가구이다(〈표 2-3-1〉참고). 그리고 조사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재계산하는 경우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는 7,173,472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표 2-3-4〉참고)

따라서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 자료에서 조사기준일(2022년 1월 1일)에 만 19~34세를 포함하는 일반가구이다.

〈표 2-3-4〉 시도별 만 19~34세 포함 가구 추정(표본추출률)

(단위: 가구, %)

시도	만 19~34세 포함 일반 가구			표본크기			목표 CV(%)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전국	6,265,059	908,413	7,173,472	12,840	2,160	15,000	0.80
서울	1,574,915	-	1,574,915	1,900	-	1,900	2.25
서북권	195,378	-	195,378	240	-	240	
서남권	517,085	-	517,085	620	-	620	
동북권	479,956	-	479,956	580	-	580	
도심권	87,031	-	87,031	100	-	100	
동남권	295,465	-	295,465	360	-	360	
부산	452,946	-	452,946	1,020	-	1,020	3.07
대구	334,371	-	334,371	870	-	870	3.32
인천	408,731	-	408,731	970	-	970	3.15
광주	217,959	-	217,959	700	-	700	3.70
대전	247,324	-	247,324	750	-	750	3.58
울산	147,018	-	147,018	580	-	580	4.07
세종	49,005	-	49,005	340	-	340	5.31
경기	1,572,526	269,522	1,842,048	1,780	290	2,070	2.15
경기북부	197,146	97,384	294,530	230	100	330	
경기남부	1,375,380	172,138	1,547,518	1,550	190	1,740	
강원	132,240	58,914	191,154	460	200	660	3.81
충북	147,275	76,361	223,636	480	240	720	3.65
충남	157,760	123,001	280,761	460	350	810	3.44
전북	185,672	40,556	226,228	600	120	720	3.65
전남	100,720	92,863	193,583	350	310	660	3.81
경북	194,658	117,740	312,398	550	300	850	3.36
경남	278,711	110,628	389,339	700	250	950	3.18
제주	63,228	18,828	82,056	330	100	430	4.73

주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읍면부를 동부에 포함함

자료 : 2020년 청년통계등록부((2022년1월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재계산)

본 조사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5개 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 도심권)과 2개 권역(경기북부, 경기남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2-3-5〉 서울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표 2-3-6〉 경기도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경기북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3. 표본 추출 및 대체

목표 표본크기는 15,000가구를 목표로 하며 만 19~34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만 19~3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표본가구내 만 19~34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빠른 생일자 한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시·도별 표본 배분은 시·도의 가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고, 동부와 읍면부 표본 배분은 가구수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본 배분시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면 전국 추정에는 유리하나 일부 시·도의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표본이 적게 배분되므로 본 조사에서는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규모가 작은 층에 더 많은 표본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표본추출방법으로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시군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9~34세 가구원이다. 층별 계통추출을 위한 분류지표는 250개 시군구, 가구원 수 그룹(1인, 2인 이상), 층별 만 19~34세 인구수를 사용하였다. 층내에서 분류지표 순으로 정렬한 후 표본 수 만큼 계통 추출하였다. 표본 대체는 추출된 표본 가구 내 만 19~34세 가구원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표본 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그룹(동일한 시군구, 동일한 가구원 수 그룹)의 가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절 가중치

1. 가중치 산출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를 이용한 보정 등의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시군구 내 가구 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 시군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군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가. 설계가중치

표본설계에서 각 시도 구분과 도지역의 동·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층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32개 층은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은 17개 시도로 국한된다.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층별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청년통계등록부에서 시군구내 가구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시군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군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였다.

가중치 작성과정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시군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시군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시군구에 대한 크기의 척도(해당 시군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시군구의 가구 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시군구내 조사착수 가구 수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시군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시군구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시군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나. 무응답 조정과 사후층화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무응답 조정 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를 구한 후 2021년 인구총조사 가구수를 사용하여 지역(22개)과 가구원수(1인, 2인이상)에 대해 사후층화를 하였다. 가중치의 사후보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21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이다.

최종 가구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에 사후보정계수를 곱하여 얻는다.

〈표 2-4-1〉 시도별 만 19~34세 포함 가구(2021년 인구총조사)

(단위: 가구)

시도	만 19~34세 포함 일반 가구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계
전국	2,109,556	5,329,438	7,438,994
서울	603,064	1,043,543	1,646,607
서북권	77,835	126,868	204,703
서남권	231,296	318,515	549,811
동북권	165,304	327,328	492,632
도심권	35,939	51,315	87,254
동남권	92,690	219,517	312,207
부산	132,325	339,513	471,838
대구	86,681	257,464	344,145
인천	92,992	336,009	429,001
광주	67,046	158,851	225,897
대전	98,375	153,465	251,840
울산	32,368	118,579	150,947
세종	19,404	32,583	51,987
경기	442,510	1,507,061	1,949,571
경기북부	55,659	259,677	315,336
경기남부	386,851	1,247,384	1,634,235
강원	59,148	133,507	192,655
충북	72,964	152,153	225,117
충남	90,339	192,661	283,000
전북	66,884	161,897	228,781
전남	45,932	148,880	194,812
경북	93,027	221,087	314,114
경남	86,883	308,159	395,042
제주	19,614	64,026	83,640

자료: 2021년 인구총조사 만 19~34세를 포함하는 가구(일반가구)

통계청 MDIS사이트내 인가용서비스 신청후 분석한 자료(<https://mdis.kostat.go.kr>, '23. 1.18.접속)

다. 표본 가구 내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가구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빠른 생일자 한 명을 조사의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text{가구 내 추출률} = \frac{1}{\text{표본 가구의 만 19세} \sim 34\text{세 가구원 수}}$$

앞서 구한 가구 내 추출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가구 내 추출률 차이를 가중치 작성 과정에 반영한다.

라. 벤치마킹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가중치의 사후보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21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이다. 사후보정 과정에서는 2021년 인구총조사의 시도별(17), 성별(2), 연령대별(3) 인구를 이용하였다.

최종 가구원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된다.

$$\text{최종 가구원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frac{1}{\text{가구내추출률}} \times \text{사후층화 보정}$$

〈표 2-4-2〉 2021년 인구총조사 시도별 성별 만 19~34세 인구

(단위: 명)

시도	남성			여성			계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전국	1,858,899	1,822,691	1,609,294	1,697,828	1,616,801	1,471,611	10,077,124
서울	391,098	386,500	255,277	427,477	382,407	285,904	2,128,664
부산	122,723	106,590	93,605	103,812	106,024	97,322	630,075
대구	98,010	76,532	66,162	83,336	69,695	58,771	452,507
인천	90,080	106,362	127,871	106,555	105,372	59,794	596,034
광주	59,308	60,663	34,844	54,354	54,221	39,225	302,615
대전	54,039	50,033	90,345	37,550	55,766	78,367	366,100
울산	45,530	36,284	31,590	33,363	26,071	29,612	202,450
세종	13,642	9,287	10,869	12,086	11,898	9,682	67,463
경기	452,366	525,515	473,313	421,376	424,931	455,749	2,753,251
강원	48,905	50,347	52,738	42,043	38,129	36,125	268,287
충북	53,324	52,618	70,112	55,186	44,405	30,814	306,459
충남	80,191	65,394	58,419	63,234	43,196	68,293	378,726
전북	59,702	51,733	58,439	51,890	42,233	46,490	310,487
전남	59,227	48,445	33,032	47,306	35,754	28,004	251,767
경북	99,763	71,485	56,290	66,492	58,703	60,278	413,012
경남	117,530	99,434	68,446	78,172	97,080	63,275	523,937
제주	13,461	25,469	27,944	13,596	20,915	23,906	125,292

자료: 2021년 인구총조사 만 19~34세 인구(내국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마. 극단 가중치 조정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몇 개의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조사 값이 잘 설계되고 수행된 통계조사에서 얻어지는 조사의 정확성을 낮추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중치 작성의 전체 과정을 마친 후에 과도하게 큰 가중치는 특이치 조정과정을 거쳐서 조정한다. 가구가중치에 대한 특이치 조정과정으로는 상하위 5% 원저화 과정으로 전체 자료의 가중치 분포에서 상하위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특이치로 간주하여 가중치 분포의 95%백분위수 또는 5%백분위수로 대체하여 조정하였다. 가중치에 대한 특이치 조정은 추정량의 편향을 증가할 수 있지만, 추정량의 분산 감소를 통

해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를 줄임으로서 전체적으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수 있다. 가구원 가중치의 경우 가구가중치에 비해 변동이 크지않아 특이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2. 추정량

□ 모평균 추정

$$-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

여기서, w_{hij} 는 가중치, y_{hij} 는 응답결과,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 추출단위인 표본시군구의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시군구의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text{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 추정량의 분산

$$-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overline{e_{h..}})^2$$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추출단위인 시군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시군구의 응답자 수

$$-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모평균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bar{y}) = \sqrt{var(\bar{y})}$$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및 청년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제7절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제8절 청년의 소득·지출·재산·부채 실태

제9절 1인 가구 청년의 삶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기초 분석⁵⁾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및 청년의 일반적 특성

1. 가구, 가구 유형의 정의

청년의 삶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구와 가구 유형의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년 담론에서 강조되어 온 청년의 다양성은 성별, 교육 수준, 지역뿐 아니라 가구 유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가구와 가구 유형을 정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장, 단기의 시계에서 청년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구 유형의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과 더불어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거 상황, 생활비 등과 같이 가구 유형에 따른 영역별 삶의 실태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가구는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했다.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가구 정의는 가구를 1)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이며, 2) 비혈연 관계의 가구원을 포함, 3)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

5) 3장의 기초 분석 결과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표본 수는 표 아래 제시하였음. 단, 연구진의 판단 하에, 셀 유효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결과값은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예: 17개 시도별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경험)
-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정의(통계청, 2020)와 유사하다.

〈표 3-1-1〉 가구 정의

구분	정의
청년 삶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혈연관계(친인척)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포함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구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 도우미와 하숙인, 한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포함 - 학업·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가족 제외
가계금융복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배우자,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미혼 자녀를 포함 - 함께 살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가사사용인, 하숙생 등 동거인을 제외
가계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 - 비혈연 관계의 가구원을 포함 -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을 제외
한국노동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포함 -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제외 -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 제외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a).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20c). 2020년 가계금융조사 조사표.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20b). 2020년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한국노동패널: 제23차(2020)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청년 가구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의미한다. 가구 유형은 우선 해당 가구의 가구주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따져, 청년이 가구주인 1. ‘청년 가구주 가구’와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2.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 정의⁶⁾와 거의 같다. 또한, 청년 가구주 가구는 1) 청년

6)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정의하

독거가구, 2) 청년부부가구, 3) 청년+자녀가구, 4) 부모동거가구, 5)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로 세분하고,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1) 부모(가구주)+미혼 청년가구, 2) 부모(가구주)+기혼 청년가구, 3) 부모(가구주) +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했다.

〈표 3-1-2〉 가구 유형 분류

구분			정의
청년가구			-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
가구 형태	1. 청년 가구주 가구	1-1. 1인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19-34세 청년 1인 가구
		1-2. 청년부부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부부 모두가 19-34세 청년인 2인 가구
		1-3. 청년+자녀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19-34세 청년 부부와 그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그외 다른 가구원 없음) 또는 19-34세 청년 한 부모와 그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그외 다른 가구원 없음) - 가구원 수 최소 2인
		1-4. 부모동거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 청년 또는 청년 배우자의 부모(한부모)와 그 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1-5.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 중 청년이 가구주) - 청년독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자녀가구, 부모동거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2. 비청년 가구주 가구	2-1.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대상 청년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대상 청년이 미혼 & 기타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2. 부모(가구주)+기혼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대상 청년의 부모 또는 조사대상 청년 배우자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대상 청년이 기혼 & 기타 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가구원 중 조사대상 청년의 부모가 가구주) - 조사대상 청년이 이혼 또는 별거 또는 사별 & 조사대상 청년 부모가 가구주 & 기타 가구원 무관 & 가구원 수 무관
		2-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비청년 가구주 가구) -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 중, 2-1., 2-2., 2-3.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가구원 수 무관

고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분석 결과

아래 표에서는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눈에 띄는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청년들은 경기(26.7%)와 서울(20.4%)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1.4%로 가장 많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인 비율이 24.0%, 고졸 이하 청년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의 경우에는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 가구에 속한 청년 비율이 53.3%,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가구 유형에 속한 청년이 24.1%를 구성하고 있다.

청년의 부모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부와 모는 모두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약 20%p정도 많았다. 또한 청년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는데, 19~24세, 25~29세, 30~34세의 순으로 약 10%p 안팎으로 고졸 이하 비중은 낮아지고, 대졸 이상의 비중은 높아졌다.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
성별	남자	52.5
	여자	47.5
	소계	100
연령	19세~24세	35.3
	25세~29세	34.1
	30세~34세	30.6
	소계	100
지역1	수도권	53.0
	비수도권	47.0
	소계	100
지역2	서울	20.4
	부산	6.4
	대구	4.7
	인천	5.9
	광주	3.3
	대전	3.8
	울산	1.9
	세종	0.7
	경기	26.7
	강원	2.8
	충북	3.2
	충남	3.9
	전북	3.3
	전남	2.5
	경북	4.2
	경남	5.3
	제주	1.2
	소계	100
학력	고졸 이하	14.6
	대학 재학·휴학	24.0
	대학 졸업 이상	61.4
	소계	100

구분			비율
가구형태	청년 가구주 가구	1인가구	22.6
		청년부부가구	7.2
		청년·자녀가구	6.0
		부모동거가구	3.6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3.5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53.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0.4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3.3
		소계	10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4〉 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부의 교육수준			비율	모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졸 (수료포함, 대학원생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졸 (수료포함, 대학원생 이상)
전체		100	59.6	0.2	40.2	100	59.9	0.1	40.0
성별	남자	100	60.0	0.2	39.8	100	60.0	0.1	39.8
	여자	100	59.3	0.2	40.5	100	59.7	0.2	40.1
연령	19세~24세	100	49.1	0.3	50.6	100	45.8	0.3	53.9
	25세~29세	100	61.6	0.1	38.3	100	59.5	0.1	40.4
	30세~34세	100	69.6	0.1	30.4	100	76.2	0.0	23.7
지역1	수도권	100	57.7	0.1	42.2	100	57.9	0.1	42.0
	비수도권	100	61.9	0.2	37.9	100	62.2	0.2	37.7
지역2	서울	100	47.6	0.2	52.3	100	49.5	0.3	50.3
	부산	100	54.1	0.0	45.9	100	55.2	0.2	44.7
	대구	100	60.4	0.4	39.2	100	60.8	0.2	39.0
	인천	100	72.2	0.0	27.8	100	71.5	0.0	28.5
	광주	100	64.2	0.0	35.8	100	58.9	0.4	40.7
	대전	100	38.9	0.1	61.0	100	43.8	0.1	56.1
	울산	100	67.2	0.0	32.8	100	66.4	0.3	33.3
	세종	100	39.1	0.6	60.3	100	42.3	1.3	56.4
	경기	100	62.2	0.1	37.7	100	61.5	0.1	38.4
	강원	100	69.3	0.0	30.7	100	64.3	0.0	35.7
	충북	100	73.7	0.4	25.9	100	73.3	0.0	26.7
	충남	100	63.4	0.1	36.5	100	65.2	0.0	34.8
	전북	100	63.2	0.1	36.7	100	68.1	0.3	31.6
	전남	100	74.6	0.3	25.2	100	71.9	0.1	28.0
	경북	100	65.1	0.2	34.7	100	68.2	0.0	31.8
	경남	100	66.8	0.6	32.6	100	64.6	0.0	35.3
	제주	100	65.8	0.6	33.6	100	63.2	0.7	36.1

부: 고졸 이하 n=8,546, 대학재학·휴학 n=33, 대학 졸업 이상 n=6,012

모: 고졸 이하 n=8,190, 대학재학·휴학 n=26, 대학 졸업 이상 n=5,47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청년의 주거 실태

1. 분석 결과

(1) 부모와의 동거 현황

청년의 주거는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 환경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 현황을 주거 실태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가장 먼저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비율은 응답자 중 57.5%였다. 성별로는 남성 59.7%, 여성 54.9%가 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동거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부모동거 비율은 수도권 59.7%, 비수도권 55.0%로 수도권이 다소 높았다. 지역을 광역단위로 세분화하여 부모동거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주 65.8%, 전남 62.0%, 경남 61.9% 순이었으며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대전 38.2%, 세종 43.5%, 충북 46.5% 순이었다. 한편,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51.8%, 대학재학·휴학 80.0%, 대졸 졸업 이상 50.0%로 나타나 학업 과정에 있는 경우 부모 동거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동거 여부	
			예	아니요
전체		100	57.5	42.5
성별	남자	100	59.7	40.3
	여자	100	54.9	45.1
연령	19세-24세	100	79.5	20.5
	25세-29세	100	59.3	40.7
	30세-34세	100	29.9	70.1
지역1	수도권	100	59.7	40.3
	비수도권	100	55.0	45.0
지역2	서울	100	58.2	41.8
	부산	100	57.6	42.4
	대구	100	61.5	38.5
	인천	100	58.8	41.2
	광주	100	65.8	34.2
	대전	100	38.2	61.8
	울산	100	61.3	38.7
	세종	100	43.5	56.5
	경기	100	61.0	39.0
	강원	100	48.3	51.7
	충북	100	46.5	53.5
	충남	100	48.2	51.8
	전북	100	56.6	43.4
	전남	100	62.0	38.0
	경북	100	52.9	47.1
	경남	100	61.9	38.1
	제주	100	54.0	46.0
학력	고졸 이하	100	51.8	48.2
	대학 재학·휴학	100	80.0	20.0
	대학 졸업 이상	100	50.0	50.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비율은 32.3%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3.9%, 여성이 30.4%로 남성이 다소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4세 27.6%, 만 25-29세 36.0%, 만30-40세 38.3%로 연령에 따라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8%로 비수도권의 34.1%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광역 지자체 별로 응답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경북 44.7%, 전북 42.8%, 제주 39.8% 순이며 응답 비율이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부산 19.7%, 인천 22.4%, 서울 28.6%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32.4%, 대학 재학 및 휴학 25.9%, 대졸 졸업 이상 36.3%로 대학 학업 과정에 있는 경우 독립 계획 없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유무	
			있다	없다
전체		100	32.3	67.7
성별	남자	100	33.9	66.1
	여자	100	30.4	69.6
연령	19세-24세	100	27.6	72.4
	25세-29세	100	36.0	64.0
	30세-34세	100	38.3	61.7
지역1	수도권	100	30.8	69.2
	비수도권	100	34.1	65.9
지역2	서울	100	28.6	71.4
	부산	100	19.7	80.3
	대구	100	30.1	69.9
	인천	100	22.4	77.6
	광주	100	37.4	62.6
	대전	100	28.2	71.8
	울산	100	34.7	65.3
	세종	100	39.6	60.4
	경기	100	34.3	65.7
	강원	100	39.5	60.5
	충북	100	34.8	65.2
	충남	100	35.0	65.0
	전북	100	42.8	57.2
	전남	100	39.2	60.8
	경북	100	44.7	55.3
	경남	100	34.6	65.4
	제주	100	39.8	60.2
학력	고졸 이하	100	32.4	67.6
	대학 재학·휴학	100	25.9	74.1
	대학 졸업 이상	100	36.3	63.7

n=7,83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독립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이하 ‘독립생활’)가 가장 높은 40.7%를 나타냈다. 다음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이하 ‘통학통근’) 26.1%, ‘결혼 또는 예정이어서’(이하 ‘결혼동거’) 17.2%,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이하 ‘경제여건’) 14.0%,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하 ‘가족사이’) 0.9%, ‘기타’ 1.1%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독립생활’과 ‘통학통근’이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 별로는 19-24세, 25-29세는 모두 ‘독립생활’과 ‘통학통근’ 비율이 높으나 30-34세는 ‘결혼동거’가 37.1%로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모두 전체 응답자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 3-2-3〉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독립하려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0	26.1	17.2	14.0	40.7	0.9	1.1
성별	남자	100	28.0	14.7	16.3	39.1	0.8	1.1
	여자	100	23.5	20.5	11.0	42.8	1.1	1.1
연령	19세~24세	100	34.8	5.9	11.1	45.6	1.5	1.2
	25세~29세	100	22.2	19.6	15.8	40.8	0.5	1.0
	30세~34세	100	15.0	37.1	16.8	29.5	0.7	1.0
지역1	수도권	100	25.0	17.7	13.6	40.9	1.3	1.5
	비수도권	100	27.3	16.6	14.5	40.4	0.5	0.6
지역2	서울	100	23.0	9.4	21.8	42.9	1.6	1.2
	부산	100	17.0	24.0	17.6	41.4	0.0	0.0
	대구	100	31.1	15.5	19.1	33.8	0.5	0.0
	인천	100	28.6	14.3	11.5	40.2	2.5	2.9
	광주	100	17.2	23.8	11.0	47.5	0.0	0.6
	대전	100	7.9	43.0	1.3	47.8	0.0	0.0
	울산	100	23.6	7.5	16.9	50.9	0.0	1.1
	세종	100	24.4	12.0	16.0	47.6	0.0	0.0
	경기	100	25.7	23.1	8.9	39.8	0.9	1.6
	강원	100	29.1	15.8	21.2	33.9	0.0	0.0
	충북	100	25.4	9.2	11.5	54.0	0.0	0.0
	충남	100	30.6	10.1	8.3	49.3	0.0	1.7
	전북	100	29.6	17.5	13.2	37.3	1.1	1.4
	전남	100	30.0	14.8	14.0	39.3	0.5	1.4
	경북	100	38.4	13.9	19.3	27.7	0.7	0.0
	경남	100	34.7	10.7	15.1	36.9	1.8	0.9
	제주	100	17.0	24.3	9.9	45.3	1.9	1.5
학력	고졸 이하	100	16.7	14.6	16.6	49.5	1.6	0.9
	대학 재학·휴학	100	42.2	3.1	9.3	42.2	1.3	1.8
	대학 졸업 이상	100	21.0	24.0	15.6	38.0	0.6	0.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광역시자치단체별로 응답 항목별로 살펴보면 ‘독립생활’ 비율은 충북이 54.0%로 가장 높으며, 경북이 27.7%로 가장 낮다. ‘통학통근’은 경북이 38.4%로 가장 높으며 대전이 7.9%로 가장 낮다. ‘결혼동거’는 대전이 43.0%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7.5%로 가장 낮다. ‘경제여건’은 서울이 21.8%로 가장 높으며 ‘대전’이 1.3%로 가장 낮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독립생활’이 가장 높은 49.5%이며, 그 외 항목은 대체로 유사 수준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56.6%가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이하 ‘경제여건’)라고 응답했다. 그 외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통근 하기에 가까워서’(이하 ‘통학통근’) 21.0%, ‘특별한 이유 없음’(이하 ‘이유없음’)이 20.0%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이하 ‘돌봄가구원’) 1.2%,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이하 ‘양육부모도움’) 0.4%, 기타 0.8% 순이었다. 성별로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항목별 응답 비율과 높은 비율순은 큰 차이가 없다. 광역자치단체별 항목별로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여건’은 전남 60.5%, 울산 44.3%, ‘통학통근’은 충남 40.3%, 인천 12.3%, ‘이유없음’ 울산 39.4%, 세종 11.1%, ‘돌봄가구원’ 강원 3.7%, 광주 및 경남 0.0%, ‘양육부모도움’ 세종 2.0%, 서울, 울산, 충남, 경남 0.0% 였다. 학력별로는 공통적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4〉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 통근하기 에 가까워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어서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100	21.0	56.6	1.2	0.4	0.8	20.0
성별	남자	100	20.6	57.7	1.1	0.2	0.7	19.6
	여자	100	21.4	55.3	1.3	0.6	1.0	20.4
연령	19세~24세	100	21.6	58.3	0.6	0.1	0.7	18.7
	25세~29세	100	19.5	58.5	1.0	0.1	0.7	20.2
	30세~34세	100	22.1	46.0	3.9	2.2	1.6	24.3
지역1	수도권	100	18.3	59.7	1.2	0.3	0.8	19.6
	비수도권	100	24.5	52.5	1.3	0.5	0.8	20.5
지역2	서울	100	21.1	63.4	1.7	0.0	0.7	13.1
	부산	100	22.5	51.4	1.0	0.7	0.3	24.1
	대구	100	19.0	58.8	1.0	0.6	0.2	20.4
	인천	100	12.3	49.9	1.6	1.0	2.5	32.8
	광주	100	20.6	60.3	0.0	0.5	0.7	17.9
	대전	100	31.1	45.5	3.1	0.6	1.0	18.7
	울산	100	15.3	44.3	1.0	0.0	0.0	39.4
	세종	100	24.8	59.7	2.0	2.0	0.5	11.1
	경기	100	17.5	59.3	0.7	0.4	0.5	21.5
	강원	100	30.3	52.7	3.7	0.2	1.4	11.7
	충북	100	24.2	45.0	1.0	0.6	2.0	27.3
	충남	100	40.3	44.2	3.6	0.0	1.1	10.8
	전북	100	21.1	47.5	2.6	0.4	1.3	27.0
	전남	100	20.5	60.5	0.6	0.4	0.9	17.1
	경북	100	30.8	52.4	0.4	0.7	1.0	14.8
	경남	100	25.0	54.7	0.0	0.0	0.7	19.6
	제주	100	14.8	60.4	1.0	0.8	0.3	22.7
학력	고졸 이하	100	11.8	59.8	3.7	0.9	0.9	22.9
	대학 재학·휴학	100	23.2	58.3	0.4	0.1	0.6	17.4
	대학 졸업 이상	100	21.8	54.5	1.2	0.5	1.0	21.1

n=5,35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이하 ‘통학통근’)가 42.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고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이하 ‘결혼동거’) 38.9%,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이하 ‘경제여건’) 14.0%,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이하 ‘가족사이’) 1.8% 순이었으며 기타는 2.5%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통학통근’이 47.7%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동거’가 46.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통학통근’이 81.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5-29세 역시 ‘통학통근’이 49.5%로 가장 높았다. 30-34세는 ‘결혼동거’가 57.9%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통학통근’이 45.8%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결혼동거’가 42.2%로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65.0%,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로 21.4%였다. ‘결혼동거’의 경우에는 제주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18.1%로 가장 낮아 ‘통학통근’과 대칭을 나타내었다.

한편,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결혼동거’가 42.7%였으며, 대학 재학·휴학은 ‘통학통근’이 89.0%, 대졸 졸업 이상은 ‘결혼동거’가 43.5%로 가장 높았다.

〈표 3-2-5〉 부모 비동거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0	42.8	38.9	14.0	1.8	2.5
성별	남자	100	47.7	31.6	16.3	1.7	2.7
	여자	100	38.1	46.0	11.8	1.9	2.2
연령	19세-24세	100	81.9	3.2	9.1	2.7	3.1
	25세-29세	100	49.5	28.1	16.9	2.2	3.4
	30세-34세	100	25.4	57.9	13.9	1.2	1.6
지역1	수도권	100	45.8	35.6	13.8	2.0	2.8
	비수도권	100	39.9	42.2	14.3	1.6	2.1
지역2	서울	100	65.0	18.1	11.4	2.5	2.9
	부산	100	37.4	41.5	17.1	2.5	1.6
	대구	100	34.3	41.1	17.7	2.4	4.5
	인천	100	35.0	44.7	14.5	3.0	2.7
	광주	100	59.3	23.2	14.4	0.2	2.9
	대전	100	36.6	46.0	16.5	0.3	0.6
	울산	100	30.7	56.0	11.5	0.4	1.3
	세종	100	56.3	38.7	2.7	1.2	1.1
	경기	100	32.5	47.9	15.5	1.3	2.8
	강원	100	44.3	35.1	17.3	1.6	1.7
	충북	100	38.4	40.9	17.2	1.8	1.7
	충남	100	44.1	41.9	10.8	1.8	1.3
	전북	100	39.7	40.8	14.7	1.3	3.5
	전남	100	31.5	42.8	21.7	2.6	1.4
	경북	100	44.9	42.3	9.5	1.9	1.5
	경남	100	38.9	48.1	8.5	1.7	2.8
	제주	100	21.4	59.8	12.9	0.9	4.9
학력	고졸 이하	100	30.6	42.7	18.3	4.4	4.0
	대학 재학·휴학	100	89.0	3.6	2.9	2.3	2.3
	대학 졸업 이상	100	38.4	43.5	14.8	1.1	2.1

n=7,13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9.5개월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7.1개월로 여성의 51.9개월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19세-24세는 21.6개월, 25세-29세는 41.0개월, 30세-34세는 64.5개월이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독립한 기간의 평균은 각각 48.2개월, 50.9개월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이 66.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부산이 41.7개월로 가장 짧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1개월, 대학 재학·휴학 24.5개월, 대졸 졸업 이상 52.2개월이어서 학업 과정인 경우에 독립을 하더라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표 3-2-6〉 독립한 기간

(단위: 개월, %)

구분		평균	비율	독립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49.5	100	1.9	9.1	17.7	14.8	22.2	34.3
성별	남자	47.1	100	2.0	9.4	18.9	16.3	22.3	31.1
	여자	51.9	100	1.7	8.8	16.5	13.4	22.1	37.5
연령	19세~24세	21.6	100	4.1	26.1	30.1	19.3	17.1	3.4
	25세~29세	41.0	100	1.7	9.4	21.5	17.9	22.5	27.0
	30세~34세	64.5	100	1.2	3.1	11.0	11.3	23.8	49.5
지역1	수도권	48.2	100	1.8	10.1	19.0	13.9	21.9	33.4
	비수도권	50.9	100	2.0	8.0	16.4	15.8	22.6	35.3
지역2	서울	42.9	100	2.7	15.2	22.0	12.7	19.8	27.7
	부산	41.7	100	3.3	8.8	18.7	20.9	24.9	23.4
	대구	49.1	100	3.5	8.3	20.1	18.3	16.2	33.7
	인천	48.2	100	0.2	6.0	18.2	17.1	28.0	30.6
	광주	42.2	100	0.9	10.5	19.5	21.3	16.4	31.4
	대전	51.8	100	0.0	3.6	13.7	16.1	31.8	34.8
	울산	48.4	100	1.9	8.7	11.8	13.3	27.4	36.9
	세종	66.8	100	2.3	5.6	13.8	14.6	16.3	47.4
	경기	52.5	100	1.4	7.0	16.7	14.1	22.1	38.8
	강원	55.8	100	1.0	7.3	13.6	15.5	18.7	43.9
	충북	56.0	100	2.4	5.5	13.5	15.6	25.3	37.6
	충남	60.2	100	0.1	11.8	12.0	10.3	20.0	45.7
	전북	53.3	100	3.0	9.4	15.5	14.0	23.5	34.7
	전남	51.4	100	2.4	9.8	15.1	10.1	24.4	38.1
	경북	52.3	100	2.2	4.9	16.6	15.0	25.7	35.5
	경남	45.3	100	2.5	11.3	23.5	15.3	16.8	30.6
	제주	52.6	100	2.0	6.6	15.0	13.8	19.8	42.8
학력	고졸 이하	55.1	100	1.5	7.1	17.6	13.6	19.6	40.6
	대학 재학·휴학	24.5	100	4.0	26.8	29.1	17.8	14.8	7.6
	대학 졸업 이상	52.2	100	1.6	6.8	15.9	14.6	24.0	37.1

n= 7,13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의 현재 주거선택 이유를 질문한 결과(1순위), ‘통학·통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이하 ‘통학통근’)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주거비가 저렴해서’(이하 ‘주거비’) 25.9%였다. 이 밖에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8.3%, ‘내부환경이 좋아서’ 7.7%,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서’ 4.2%,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있어서’ 4.1%,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3.6%, ‘자연 환경이 좋아서’ 1.9%, 기타 2.1%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43.9%, 40.7%를 나타내었으며 ‘주거비’가 각각 27.5%, 24.3%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주거비’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성별 및 연령대별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통학통근’이 가장 높으며 ‘주거비’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통학통근’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전으로 56.6%, 세종 50.1%, 부산 49.2%였으며 낮은 지자체는 전남, 23.1%, 제주 27.4%, 강원 30.5% 순이었다. ‘주거비’는 높은 순으로 전남 38.1%, 강원 35.3%, 인천 33.9%이며, 낮은 순으로 세종 18.4%, 전북 21.3%, 대전 21.9%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주거비’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재학·휴학 및 대졸 졸업 이상은 ‘통학통근’이 각각 56.9%, 42.4%로 가장 높았다.

〈표 3-2-7〉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1순위)								
			주거비가 저렴해서	내부환경 이 좋아서	통학·통 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 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환경 이 좋아서	편의시설 이 잘 갖추어져 서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전체		100	25.9	7.7	42.3	4.2	8.3	1.9	4.1	3.6	2.1
성별	남자	100	27.5	7.4	43.9	4.5	7.1	1.7	3.1	3.1	1.7
	여자	100	24.3	7.9	40.7	3.9	9.5	2.0	5.1	4.2	2.5
연령	19세~24세	100	27.0	6.5	53.2	3.7	5.5	0.6	1.8	0.4	1.3
	25세~29세	100	28.4	6.3	43.4	4.8	7.7	1.1	3.5	2.9	2.0
	30세~34세	100	23.9	9.0	37.9	3.9	9.7	2.8	5.2	5.2	2.4
지역1	수도권	100	25.8	7.6	42.9	4.4	9.6	1.0	3.4	3.3	2.0
	비수도권	100	26.0	7.7	41.7	3.9	7.0	2.7	4.8	4.0	2.2
지역2	서울	100	26.3	6.3	48.0	5.6	7.2	1.1	3.0	0.6	1.9
	부산	100	23.4	6.5	49.2	3.0	8.6	1.0	5.0	2.1	1.1
	대구	100	29.7	10.0	32.0	4.7	8.4	2.1	5.8	5.4	1.9
	인천	100	33.9	9.6	38.6	0.9	10.5	0.9	2.9	2.0	0.7
	광주	100	23.8	8.1	45.9	3.3	12.4	0.4	3.4	2.2	0.4
	대전	100	21.9	4.7	56.6	1.9	4.2	5.1	3.5	1.3	0.8
	울산	100	27.0	9.1	35.1	4.2	5.4	1.8	8.3	6.9	2.2
	세종	100	18.4	11.2	50.1	2.0	2.7	1.2	2.5	4.7	7.2
	경기	100	23.5	8.3	39.6	4.3	11.4	0.9	3.8	5.8	2.3
	강원	100	35.3	5.9	30.5	4.4	5.6	3.3	6.8	4.6	3.6
	충북	100	26.1	14.3	34.2	7.0	3.3	2.9	5.8	4.7	1.7
	충남	100	29.0	3.9	41.4	3.4	6.0	2.3	4.6	5.7	3.8
	전북	100	21.3	8.6	38.5	4.4	7.3	7.6	4.4	6.3	1.6
	전남	100	38.1	6.4	23.1	7.9	9.6	2.7	7.3	2.1	3.0
	경북	100	23.9	7.7	48.9	3.3	6.3	1.7	2.9	3.5	1.8
	경남	100	23.9	9.0	43.9	2.9	7.7	2.5	3.6	4.5	2.0
	제주	100	24.0	8.4	27.4	3.5	13.8	1.6	6.1	6.1	9.0
학력	고졸 이하	100	35.3	6.9	31.9	4.9	9.4	1.4	4.4	4.1	1.8
	대학 재학·휴학	100	25.4	6.1	56.9	3.1	4.0	0.6	1.6	0.4	1.9
	대학 졸업 이상	100	23.8	8.1	42.4	4.2	8.7	2.2	4.4	4.0	2.2

n=7,13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의 현재 주거선택 이유에 대한 2순위 응답비율은 1순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1순위와 동일하게 ‘통학통근’

이 가장 높은 비율로 22.6%이며, 다음 주거비 16.1%의 순이다.

〈표 3-2-8〉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비율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2순위)								
			주거비가 저렴해서	내부환경 이 좋아서	통학·통 근하기에 좋은 위치여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 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환경 이 좋아서	편의시설 이 잘 갖추어져 서 있어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기타
전체		100	16.1	11.9	22.6	9.4	12.3	5.6	16.1	4.9	1.1
성별	남자	100	16.3	11.4	22.6	11.2	12.3	4.5	16.4	4.0	1.3
	여자	100	15.9	12.3	22.6	7.7	12.3	6.6	15.9	5.8	0.9
연령	19세~24세	100	21.4	11.6	23.9	13.9	12.9	2.2	12.0	1.3	0.7
	25세~29세	100	17.6	12.9	23.3	11.2	10.5	4.6	15.3	3.6	0.9
	30세~34세	100	13.4	11.2	21.7	6.8	13.3	7.3	18.1	6.9	1.4
지역1	수도권	100	15.8	11.1	23.5	9.4	12.0	5.8	16.2	5.1	1.1
	비수도권	100	16.5	12.6	21.7	9.4	12.6	5.3	16.0	4.7	1.2
지역2	서울	100	19.3	12.1	23.7	10.3	9.5	3.9	17.3	2.9	0.9
	부산	100	15.3	13.1	21.2	8.9	11.5	1.7	23.0	4.9	0.4
	대구	100	15.0	11.8	21.9	9.7	10.4	7.0	17.1	4.5	2.5
	인천	100	13.3	10.5	23.3	5.2	20.7	3.6	16.9	5.3	1.1
	광주	100	13.9	10.0	16.5	10.0	19.2	4.5	21.8	2.5	1.6
	대전	100	22.9	10.1	20.8	4.4	12.4	10.9	15.8	2.8	0.0
	울산	100	20.3	18.7	20.8	6.8	11.6	6.6	7.8	7.1	0.3
	세종	100	14.3	19.7	30.4	5.9	7.3	4.9	5.2	10.7	1.6
	경기	100	13.4	10.5	23.3	9.7	12.0	7.9	15.2	6.9	1.2
	강원	100	15.2	14.8	25.3	10.6	10.3	6.2	10.4	4.6	2.5
	충북	100	8.4	19.8	22.9	11.8	11.7	2.1	17.1	5.7	0.5
	충남	100	19.4	9.8	25.5	11.5	10.1	3.0	13.1	4.6	3.1
	전북	100	12.7	7.9	20.1	11.6	17.6	5.8	17.6	6.5	0.1
	전남	100	12.5	11.6	26.0	11.4	12.1	7.0	11.0	7.7	0.8
	경북	100	26.1	11.6	17.4	8.6	12.3	6.9	11.5	5.0	0.5
	경남	100	13.2	13.7	20.3	11.5	15.6	3.7	19.0	2.0	1.0
	제주	100	12.0	10.6	23.0	5.8	16.3	4.4	19.0	5.1	3.8
학력	고졸 이하	100	15.2	11.8	23.6	8.6	14.3	4.7	15.8	4.5	1.5
	대학 재학·휴학	100	22.1	11.6	25.4	13.2	12.7	1.9	10.7	1.0	1.4
	대학 졸업 이상	100	15.4	11.9	21.9	9.0	11.8	6.3	17.1	5.6	1.0

n=7,13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주거 및 주거환경

현재 거주하는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1.1%가 부모였으며 본인 27.1%, 배우자 8.1%, 친인척 1.4% 순이며 기타는 2.4%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부모 63.8%, 본인 31.1%, 배우자 1.8% 순이며, 여성은 부모 58.0%, 본인 22.8%, 배우자 14.9% 순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본인 비율이 낮으며 배우자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 비율이 높아지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 비율이 높아진다. 19-24세는 부모 비율이 83.6%인 반면, 30-34세는 본인 비율이 43.3%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모 비율이 각각 62.6%, 59.2%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 71.1%이며, 대구 67.5%, 경남 67.0% 순이다. 낮은 지자체는 대전 41.6%, 충북 50.7%, 세종 51.1%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53.6%, 대학 재학·휴학 84.1%, 대졸 졸업 이상 53.8%로 학업 과정 중인 경우에 부모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3-2-9〉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주거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				
			부모	본인	배우자	친인척	기타
전체		100	61.1	27.1	8.1	1.4	2.4
성별	남자	100	63.8	31.1	1.8	1.3	2.0
	여자	100	58.0	22.8	14.9	1.5	2.8
연령	19세-24세	100	83.6	12.8	0.4	1.6	1.5
	25세-29세	100	62.9	27.5	5.8	1.5	2.3
	30세-34세	100	33.0	43.3	19.4	0.8	3.5
지역1	수도권	100	62.6	26.3	6.7	1.6	2.8
	비수도권	100	59.3	28.1	9.6	1.1	1.9
지역2	서울	100	62.4	30.3	3.3	1.7	2.3
	부산	100	59.8	26.7	9.6	2.4	1.5
	대구	100	67.5	19.1	11.4	0.8	1.2
	인천	100	62.7	28.3	6.2	1.5	1.3
	광주	100	71.1	24.2	2.9	1.7	0.1
	대전	100	41.6	43.7	13.7	0.1	0.9
	울산	100	64.8	24.5	8.6	0.6	1.6
	세종	100	51.1	29.3	12.6	1.7	5.4
	경기	100	62.7	22.8	9.4	1.5	3.5
	강원	100	52.9	35.7	7.5	1.6	2.3
	충북	100	50.7	35.8	11.8	0.5	1.3
	충남	100	51.1	30.1	13.8	1.3	3.7
	전북	100	63.4	27.5	7.4	0.6	1.1
	전남	100	65.7	22.4	6.4	1.9	3.7
	경북	100	57.1	29.1	10.1	0.8	2.9
	경남	100	67.0	22.2	8.3	0.6	1.9
	제주	100	58.3	26.6	9.5	1.6	4.1
학력	고졸 이하	100	53.6	30.5	10.9	1.8	3.2
	대학 재학·휴학	100	84.1	12.5	0.4	1.5	1.4
	대학 졸업 이상	100	53.8	32.0	10.4	1.2	2.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가 55.8%, 전세 21.5%, 보증금 있는 월세 19.0%, 보증금 없는 월세 1.1%, 사글세 또는 연세 0.6%, 일세 0.0%였다. 무상 거주는 2.0%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점유형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가는 각각 56.5%, 55.0% 이었다.

〈표 3-2-10〉 현재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주거 점유 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무상 거주
전체		100	55.8	21.5	19.0	1.1	0.6	0.0	2.0
성별	남자	100	56.5	20.1	19.3	1.1	0.8	0.0	2.1
	여자	100	55.0	22.9	18.6	1.0	0.5	0.0	2.0
연령	19세-24세	100	64.2	13.7	17.8	1.2	1.3	0.0	1.7
	25세-29세	100	54.1	21.5	20.8	1.1	0.3	0.0	2.1
	30세-34세	100	47.9	30.3	18.3	0.9	0.2	0.0	2.3
지역1	수도권	100	52.7	25.7	18.5	1.2	0.1	0.0	1.7
	비수도권	100	59.3	16.6	19.5	1.0	1.2	0.0	2.4
지역2	서울	100	44.0	27.2	24.9	1.6	0.0	0.0	2.2
	부산	100	60.4	17.4	18.7	0.7	0.6	0.0	2.2
	대구	100	60.2	17.5	19.9	0.5	0.3	0.0	1.6
	인천	100	57.1	25.8	15.8	0.6	0.1	0.0	0.5
	광주	100	62.8	11.1	21.8	0.4	2.6	0.0	1.4
	대전	100	46.1	25.0	26.9	0.7	0.0	0.0	1.4
	울산	100	71.8	11.8	12.0	2.3	0.0	0.0	2.0
	세종	100	50.5	15.6	17.7	0.6	12.2	0.0	3.4
	경기	100	58.5	24.6	14.2	1.0	0.2	0.0	1.6
	강원	100	53.4	17.4	22.7	1.9	0.8	0.0	3.8
	충북	100	51.7	21.5	23.9	1.8	0.2	0.0	0.8
	충남	100	55.0	16.2	18.3	1.5	4.1	0.0	4.9
	전북	100	66.5	12.3	17.9	0.8	1.2	0.0	1.3
	전남	100	60.1	18.3	17.2	1.1	0.3	0.0	3.0
	경북	100	63.9	11.6	18.7	0.5	1.8	0.0	3.4
	경남	100	63.0	17.9	16.0	0.5	0.1	0.0	2.5
	제주	100	61.3	13.2	17.3	1.7	3.5	0.0	3.2
학력	고졸 이하	100	45.2	25.2	24.9	1.8	0.3	0.0	2.6
	대학 재학·휴학	100	65.4	12.5	17.4	1.3	2.0	0.0	1.5
	대학 졸업 이상	100	54.6	24.1	18.2	0.8	0.2	0.0	2.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의 비율이 낮아지며 전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세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이 자가 및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순으로 울산 71.8%, 전북 66.5%, 경북 63.9% 이며 낮은 순으로 서울 44.0%, 대전 46.1%, 세종 50.5% 이다. 전세는 서울이 27.2%, 보증금 있는 월세는 대전이 26.9%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각각 45.2%, 25.2%, 24.9%, 대학 재학·휴학이 각각 65.4%, 12.5%, 17.4%, 대졸 졸업 이상 54.6%, 24.1%, 18.2%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파트라 응답한 비율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다가구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22.5%, 오피스텔 6.6%, 일반단독주택 5.8% 순이었다. 그 밖에 영업겸용단독주택 1.3%, 고시원 0.1%, 기숙사, 향토학사는 0.5% 이었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대신 수도권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비율이 34.8%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아파트 비율이 54.4%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를 살펴본 결과 지상이 99.1%로 나타났다. 지상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로 97.5%였다.

〈표 3-2-11〉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유형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 겸용 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숙사, 향토 학사	기타
전체	100	5.8	22.5	1.3	62.8	0.4	6.6	0.1	0.0	0.5	0.0
성별	남자	100	6.4	22.4	1.5	62.0	0.3	6.5	0.2	0.0	0.7
	여자	100	5.0	22.6	1.0	63.6	0.5	6.8	0.1	0.0	0.2
연령	19세~24세	100	6.5	22.8	1.4	63.2	0.4	4.7	0.2	0.0	0.9
	25세~29세	100	5.8	23.7	1.2	60.1	0.4	8.2	0.1	0.0	0.4
	30세~34세	100	4.8	20.8	1.3	65.2	0.3	7.2	0.1	0.0	0.2
지역1	수도권	100	3.9	25.8	0.9	59.9	0.3	8.7	0.3	0.0	0.2
	비수도권	100	7.8	18.8	1.7	66.0	0.5	4.3	0.0	0.0	0.8
지역2	서울	100	4.6	34.8	1.2	46.8	0.4	11.5	0.6	0.0	0.1
	부산	100	3.7	16.5	0.9	69.5	0.8	7.9	0.0	0.0	0.8
	대구	100	10.6	22.1	2.8	58.5	0.3	5.5	0.0	0.0	0.2
	인천	100	1.6	17.9	0.2	70.2	0.1	9.9	0.0	0.0	0.1
	광주	100	9.7	12.7	2.8	70.5	0.4	1.2	0.1	0.0	2.7
	대전	100	2.7	33.9	0.7	58.6	0.1	3.5	0.0	0.0	0.3
	울산	100	6.6	15.9	2.7	70.2	0.2	2.1	0.1	0.0	2.1
	세종	100	4.0	18.6	0.0	74.7	0.4	1.8	0.0	0.0	0.3
	경기	100	3.9	20.6	0.8	67.6	0.2	6.3	0.1	0.0	0.4
	강원	100	11.9	20.6	2.4	61.4	0.6	2.9	0.0	0.0	0.2
	충북	100	6.0	24.0	3.1	62.4	1.2	2.6	0.0	0.0	0.3
	충남	100	7.1	12.1	1.9	64.4	0.5	12.5	0.0	0.2	1.2
	전북	100	8.4	16.6	0.7	73.0	0.4	0.7	0.0	0.0	0.2
	전남	100	8.5	8.6	1.7	76.3	0.1	4.6	0.0	0.0	0.1
	경북	100	7.9	21.2	0.8	66.0	0.6	1.3	0.0	0.0	2.0
	경남	100	10.6	14.1	1.6	71.2	0.1	2.2	0.0	0.0	0.1
	제주	100	16.6	34.8	3.4	36.8	0.9	6.5	0.0	0.0	0.6
학력	고졸 이하	100	7.0	29.6	1.9	54.4	0.4	5.9	0.2	0.0	0.5
	대학 재학·휴학	100	6.2	22.2	1.3	64.6	0.5	4.0	0.1	0.0	1.1
	대학 졸업 이상	100	5.3	20.9	1.1	64.0	0.3	7.8	0.1	0.0	0.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12〉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층)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전체		100	0.7	0.0	0.1	99.1
성별	남자	100	0.6	0.1	0.2	99.2
	여자	100	0.8	0.0	0.1	99.1
연령	19세-24세	100	1.0	0.0	0.1	98.9
	25세-29세	100	0.7	0.1	0.2	99.1
	30세-34세	100	0.4	0.0	0.1	99.5
지역1	수도권	100	1.3	0.0	0.2	98.5
	비수도권	100	0.1	0.0	0.1	99.8
지역2	서울	100	2.2	0.1	0.2	97.5
	부산	100	0.0	0.0	0.0	100.0
	대구	100	0.0	0.0	0.1	99.9
	인천	100	0.3	0.0	0.0	99.6
	광주	100	0.0	0.0	0.1	99.9
	대전	100	0.1	0.0	0.0	99.9
	울산	100	0.0	0.0	0.0	100.0
	세종	100	0.0	0.0	0.0	100.0
	경기	100	0.7	0.0	0.2	99.1
	강원	100	0.3	0.0	0.1	99.6
	충북	100	0.1	0.4	0.2	99.3
	충남	100	0.0	0.0	0.0	100.0
	전북	100	0.0	0.0	0.0	100.0
	전남	100	0.0	0.0	0.1	99.9
	경북	100	0.1	0.0	0.0	99.9
	경남	100	0.0	0.0	0.2	99.7
	제주	100	0.3	0.0	0.6	99.1
학력	고졸 이하	100	1.2	0.1	0.3	98.4
	대학 재학·휴학	100	0.6	0.0	0.1	99.3
	대학 졸업 이상	100	0.6	0.0	0.1	99.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오’의 응답이 전체 86.0%를 나타내었다. 원룸형 비율은 성별이나 연령대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등의 구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원룸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으로 22.5%이며 다음이 서울 21.8%이다.

〈표 3-2-13〉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00	14.0	86.0
성별	남자	100	15.0	85.0
	여자	100	13.0	87.0
연령	19세-24세	100	13.8	86.2
	25세-29세	100	15.9	84.1
	30세-34세	100	12.1	87.9
지역1	수도권	100	13.9	86.1
	비수도권	100	14.1	85.9
지역2	서울	100	21.8	78.2
	부산	100	14.4	85.6
	대구	100	9.1	90.9
	인천	100	9.0	91.0
	광주	100	12.0	88.0
	대전	100	22.5	77.5
	울산	100	5.7	94.3
	세종	100	19.7	80.3
	경기	100	9.0	91.0
	강원	100	15.8	84.2
	충북	100	18.3	81.7
	충남	100	21.6	78.4
	전북	100	13.4	86.6
	전남	100	10.4	89.6
	경북	100	15.0	85.0
	경남	100	9.0	91.0
	제주	100	9.9	90.1
학력	고졸 이하	100	13.7	86.3
	대학 재학·휴학	100	14.0	86.0
	대학 졸업 이상	100	14.1	85.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방 개수로 평균 2.9개를 나타내고 있다. 방 1개 2.5%, 방 2개 18.4%, 방 3개 67.1%, 방 4개 이상 12.1%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구분별, 학력별 구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표 3-2-14〉 현재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

(단위: %)

구분		평균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방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체		2.9	100	2.5	18.4	67.1	12.1
성별	남자	2.9	100	2.4	18.1	67.4	12.0
	여자	2.9	100	2.6	18.6	66.6	12.2
연령	19세~24세	3.0	100	1.4	11.9	70.6	16.1
	25세~29세	2.9	100	2.8	19.1	66.1	12.0
	30세~34세	2.8	100	3.4	25.0	64.1	7.6
지역1	수도권	2.9	100	2.6	19.7	65.0	12.7
	비수도권	2.9	100	2.3	16.9	69.4	11.4
지역2	서울	2.8	100	5.0	26.1	56.6	12.3
	부산	3.0	100	1.5	16.8	65.5	16.2
	대구	2.9	100	1.8	22.7	63.4	12.2
	인천	2.9	100	1.3	16.2	71.6	10.9
	광주	2.9	100	2.7	16.9	67.4	12.9
	대전	2.9	100	3.3	21.4	63.7	11.6
	울산	2.9	100	1.8	15.0	74.5	8.6
	세종	3.1	100	1.3	9.9	71.9	16.9
	경기	3.0	100	1.4	16.3	69.0	13.3
	강원	2.9	100	2.7	18.9	67.2	11.3
	충북	2.8	100	3.3	17.7	73.0	6.0
	충남	3.0	100	1.8	13.6	72.7	11.9
	전북	2.9	100	3.4	10.8	74.4	11.4
	전남	2.9	100	1.2	13.3	78.7	6.8
	경북	2.9	100	3.8	16.5	68.8	10.8
	경남	2.9	100	1.7	16.3	73.6	8.3
	제주	3.0	100	1.0	18.8	60.5	19.8
학력	고졸 이하	2.8	100	3.2	25.8	64.3	6.7
	대학 재학·휴학	3.1	100	1.3	10.2	70.6	17.9
	대학 졸업 이상	2.9	100	2.8	19.8	66.3	11.1

n=11,65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에 대해 전체 93.1%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남자는 94.5%로 여자의 91.7%에 비해 2.8%p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및 수도권/비수도권 차이는 크지 않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89.0%로 가장 낮았다. 학력 수준별로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15〉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의 독립된 침실 공간 유무	
			예	아니요
전체		100	93.1	6.9
성별	남자	100	94.5	5.5
	여자	100	91.7	8.3
연령	19세-24세	100	93.2	6.8
	25세-29세	100	93.7	6.3
	30세-34세	100	92.5	7.5
지역1	수도권	100	92.6	7.4
	비수도권	100	93.7	6.3
지역2	서울	100	91.0	9.0
	부산	100	96.8	3.2
	대구	100	89.0	11.0
	인천	100	97.4	2.6
	광주	100	92.6	7.4
	대전	100	97.2	2.8
	울산	100	89.9	10.1
	세종	100	96.9	3.1
	경기	100	92.7	7.3
	강원	100	93.2	6.8
	충북	100	95.0	5.0
	충남	100	94.3	5.7
	전북	100	96.6	3.4
	전남	100	92.8	7.2
	경북	100	94.4	5.6
	경남	100	92.2	7.8
	제주	100	90.6	9.4
학력	고졸 이하	100	90.8	9.2
	대학 재학·휴학	100	94.0	6.0
	대학 졸업 이상	100	93.4	6.6

n=11,65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이다. 주택 전체는 85.42㎡이며 본인 방(침실)은 12.59㎡이다. 성별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면적은 좁아지며 본인 방 면적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좁으며 주택 전체 72.34㎡, 본인 방(침실) 10.50㎡이다.

〈표 3-2-16〉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주택 전체	본인 방(침실)
전체		100	85.42	12.59
성별	남자	100	85.14	12.65
	여자	100	85.74	12.53
연령	19세-24세	100	90.11	12.03
	25세-29세	100	83.97	12.30
	30세-34세	100	81.64	13.56
지역1	수도권	100	83.95	12.29
	비수도권	100	87.09	12.93
지역2	서울	100	72.34	10.50
	부산	100	89.38	13.88
	대구	100	90.27	12.06
	인천	100	87.18	13.22
	광주	100	92.54	12.81
	대전	100	80.07	13.02
	울산	100	94.00	12.34
	세종	100	84.79	12.78
	경기	100	92.13	13.45
	강원	100	84.07	13.01
	충북	100	79.59	11.26
	충남	100	84.39	13.50
	전북	100	90.31	13.95
	전남	100	91.05	14.27
	경북	100	84.43	12.15
	경남	100	87.21	12.67
	제주	100	88.20	13.05
학력	고졸 이하	100	78.76	12.22
	대학 재학·휴학	100	91.80	12.17
	대학 졸업 이상	100	84.53	12.8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먼저 부역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 중 95.4%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4.4%, '없음' 0.2%였다. 성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만19-24세가 단독사용이 93.5%로 다소 낮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모두 단독사용이 95%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단독사용의 비율이 대부분 95%를 상회하였으나, 전북 83.3%, 충북 86.7%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2-17〉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역)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부역)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5.4	4.4	0.2
성별	남자	100	95.5	4.3	0.2
	여자	100	95.2	4.6	0.2
연령	19세-24세	100	93.5	6.1	0.4
	25세-29세	100	95.9	3.9	0.2
	30세-34세	100	96.9	3.1	0.0
지역1	수도권	100	95.2	4.7	0.1
	비수도권	100	95.5	4.1	0.4
지역2	서울	100	96.5	3.5	0.1
	부산	100	98.6	0.8	0.6
	대구	100	98.1	1.7	0.2
	인천	100	99.2	0.8	0.0
	광주	100	95.2	4.7	0.1
	대전	100	99.0	0.9	0.1
	울산	100	97.8	0.7	1.5
	세종	100	97.8	1.9	0.3
	경기	100	93.4	6.5	0.1
	강원	100	98.1	0.9	1.0
	충북	100	86.7	13.1	0.2
	충남	100	96.8	3.0	0.3
	전북	100	83.3	16.5	0.3
	전남	100	90.6	9.3	0.1
	경북	100	99.3	0.3	0.4
	경남	100	95.5	4.2	0.2
	제주	100	97.6	2.2	0.2
학력	고졸 이하	100	94.3	5.6	0.1
	대학 재학 휴학	100	93.8	5.7	0.5
	대학 졸업 이상	100	96.2	3.7	0.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화장실이다. 전체 응답 중 95.9%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4.1%, ‘없음’ 0.0%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단독사용의 비율이 대부분 95%를 상회하였으나, 전북 83.2%, 충북 89.0%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외 학력, 가구 구성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18〉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화장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5.9	4.1	0.0
성별	남자	100	96.1	3.9	0.0
	여자	100	95.6	4.3	0.0
연령	19세-24세	100	94.4	5.6	0.0
	25세-29세	100	96.5	3.5	0.0
	30세-34세	100	96.9	3.1	0.0
지역1	수도권	100	95.7	4.3	0.0
	비수도권	100	96.0	3.9	0.0
지역2	서울	100	97.4	2.5	0.0
	부산	100	99.2	0.8	0.0
	대구	100	98.1	1.9	0.0
	인천	100	99.2	0.8	0.0
	광주	100	94.8	5.2	0.0
	대전	100	99.2	0.8	0.0
	울산	100	98.1	1.9	0.0
	세종	100	97.9	2.1	0.0
	경기	100	93.6	6.4	0.0
	강원	100	99.5	0.5	0.0
	충북	100	89.0	11.0	0.0
	충남	100	97.5	2.3	0.2
	전북	100	83.2	16.8	0.1
	전남	100	92.0	8.0	0.0
	경북	100	99.3	0.7	0.0
	경남	100	96.1	3.8	0.1
	제주	100	97.9	2.1	0.0
학력	고졸 이하	100	94.9	5.1	0.0
	대학 재학·휴학	100	94.8	5.2	0.0
	대학 졸업 이상	100	96.5	3.5	0.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샤워시설이다. 전체 응답 중 95.7%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4.2%, ‘없음’ 0.1%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 83.2%, 충북 88.9%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2-19〉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샤워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5.7	4.2	0.1
성별	남자	100	95.9	4.0	0.1
	여자	100	95.5	4.4	0.1
연령	19세~24세	100	94.2	5.7	0.1
	25세~29세	100	96.3	3.6	0.1
	30세~34세	100	96.8	3.1	0.1
지역1	수도권	100	95.5	4.4	0.1
	비수도권	100	95.9	4.0	0.1
지역2	서울	100	97.2	2.6	0.2
	부산	100	99.1	0.7	0.2
	대구	100	97.9	2.0	0.1
	인천	100	99.0	1.0	0.0
	광주	100	94.2	5.2	0.6
	대전	100	99.1	0.9	0.0
	울산	100	98.1	1.9	0.0
	세종	100	98.3	1.7	0.0
	경기	100	93.5	6.4	0.0
	강원	100	99.1	0.5	0.4
	충북	100	88.9	11.0	0.0
	충남	100	97.6	2.3	0.1
	전북	100	83.2	16.8	0.1
	전남	100	92.2	7.8	0.0
	경북	100	99.2	0.7	0.1
	경남	100	95.7	4.1	0.1
	제주	100	97.9	2.1	0.0
학력	고졸 이하	100	94.9	5.1	0.1
	대학 재학·휴학	100	94.7	5.2	0.1
	대학 졸업 이상	100	96.3	3.6	0.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세면시설이다. 전체 응답 중 95.6%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4.1%, '없음' 0.2%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 83.2%, 충북 89.1%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2-20〉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세면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5.6	4.1	0.2
성별	남자	100	95.9	4.0	0.2
	여자	100	95.4	4.3	0.3
연령	19세-24세	100	94.1	5.6	0.2
	25세-29세	100	96.3	3.5	0.2
	30세-34세	100	96.7	3.1	0.2
지역1	수도권	100	95.5	4.3	0.3
	비수도권	100	95.8	4.0	0.2
지역2	서울	100	96.9	2.6	0.5
	부산	100	99.1	0.7	0.1
	대구	100	97.6	2.0	0.4
	인천	100	99.2	0.6	0.2
	광주	100	93.8	5.2	1.0
	대전	100	99.1	0.9	0.0
	울산	100	98.1	1.9	0.0
	세종	100	98.3	1.7	0.0
	경기	100	93.5	6.4	0.1
	강원	100	99.3	0.5	0.2
	충북	100	89.1	10.8	0.1
	충남	100	97.7	2.3	0.1
	전북	100	83.2	16.8	0.1
	전남	100	91.7	8.3	0.1
	경북	100	99.3	0.7	0.0
	경남	100	95.7	4.2	0.1
	제주	100	97.6	2.1	0.3
학력	고졸 이하	100	94.5	5.0	0.5
	대학 재학·휴학	100	94.6	5.2	0.2
	대학 졸업 이상	100	96.3	3.5	0.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욕조시설이다. 전체 응답 중 73.3%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3.6%, ‘없음’ 23.2%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이 모두 73%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충북 49.1%, 대구 61.5%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울산 82.1%, 전남 81.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

〈표 3-2-21〉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욕조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73.3	3.6	23.2
성별	남자	100	73.2	3.3	23.4
	여자	100	73.3	3.8	22.9
연령	19세-24세	100	73.6	4.7	21.7
	25세-29세	100	72.1	2.9	24.9
	30세-34세	100	74.1	2.9	22.9
지역1	수도권	100	72.7	4.0	23.3
	비수도권	100	73.9	3.1	23.0
지역2	서울	100	62.5	1.8	35.7
	부산	100	78.8	0.8	20.4
	대구	100	61.5	1.6	36.9
	인천	100	78.5	0.7	20.8
	광주	100	68.7	2.2	29.2
	대전	100	78.9	0.5	20.6
	울산	100	82.1	0.6	17.3
	세종	100	72.1	2.2	25.7
	경기	100	79.2	6.4	14.4
	강원	100	76.8	0.1	23.1
	충북	100	49.1	5.0	45.9
	충남	100	81.1	1.8	17.1
	전북	100	68.0	15.1	16.8
	전남	100	81.5	8.1	10.5
	경북	100	77.3	0.4	22.2
	경남	100	81.1	4.3	14.6
	제주	100	76.2	1.7	22.2
학력	고졸 이하	100	67.3	4.4	28.3
	대학 재학·휴학	100	75.1	4.1	20.8
	대학 졸업 이상	100	74.0	3.1	22.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난방시설이다. 전체 응답 중 93.5%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6.3%, '없음' 0.1%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이 모두 93%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90%를 상회하나 충북이 78.1%로 가장 낮다.

〈표 3-2-22〉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난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3.5	6.3	0.1
성별	남자	100	93.8	6.0	0.1
	여자	100	93.2	6.6	0.2
연령	19세-24세	100	92.2	7.7	0.1
	25세-29세	100	93.9	6.0	0.1
	30세-34세	100	94.7	5.1	0.2
지역1	수도권	100	92.0	7.8	0.2
	비수도권	100	95.3	4.6	0.1
지역2	서울	100	91.8	7.9	0.3
	부산	100	98.8	1.2	0.0
	대구	100	97.7	2.2	0.1
	인천	100	98.2	1.6	0.1
	광주	100	94.7	5.3	0.0
	대전	100	93.4	6.3	0.3
	울산	100	97.7	2.3	0.0
	세종	100	97.7	2.3	0.0
	경기	100	90.7	9.2	0.1
	강원	100	99.3	0.6	0.1
	충북	100	87.1	12.7	0.2
	충남	100	97.2	2.8	0.0
	전북	100	82.9	16.8	0.3
	전남	100	92.6	7.2	0.2
	경북	100	99.1	0.9	0.0
	경남	100	96.4	3.4	0.2
	제주	100	98.0	1.9	0.1
학력	고졸 이하	100	92.5	7.2	0.3
	대학 재학·휴학	100	92.5	7.4	0.1
	대학 졸업 이상	100	94.2	5.7	0.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시설 사용 형태로 냉방시설이다. 전체 응답 중 94.4%가 '단독 사용'이었으며 '공동 사용' 4.8%, '없음' 0.8%였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모두 94%대이며, 연령대별로도 93~95%로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90%를 상회한다.

〈표 3-2-23〉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냉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없음
전체		100	94.4	4.8	0.8
성별	남자	100	94.8	4.5	0.8
	여자	100	94.1	5.2	0.7
연령	19세~24세	100	93.3	6.0	0.7
	25세~29세	100	95.2	4.0	0.8
	30세~34세	100	95.0	4.3	0.7
지역1	수도권	100	93.6	5.7	0.7
	비수도권	100	95.3	3.8	0.9
지역2	서울	100	93.5	5.9	0.6
	부산	100	97.9	1.2	0.9
	대구	100	97.9	1.8	0.3
	인천	100	98.1	1.4	0.5
	광주	100	95.2	3.9	0.8
	대전	100	99.2	0.1	0.8
	울산	100	97.9	2.1	0.0
	세종	100	97.4	2.2	0.3
	경기	100	92.8	6.5	0.7
	강원	100	98.2	0.2	1.6
	충북	100	88.4	11.4	0.2
	충남	100	97.0	2.0	1.0
	전북	100	82.9	16.8	0.3
	전남	100	90.5	8.0	1.5
	경북	100	97.7	0.9	1.4
	경남	100	95.3	3.6	1.2
	제주	100	97.0	1.6	1.4
학력	고졸 이하	100	93.1	5.8	1.1
	대학 재학·휴학	100	93.9	5.5	0.6
	대학 졸업 이상	100	95.0	4.3	0.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주택의 출입구 사용 형태이다. 전체 응답 중 ‘단독사용’이 86.6%, ‘공동사용’이 13.4%이다. 성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수도권 84.7%에 비해 비수도권이 다소 높은 88.7%라고 보고된다. 학력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85~86%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4〉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단위: %)

구분		비율	내부 시설 사용 형태(출입구(현관문))	
			단독 사용	공동 사용
전체		100	86.6	13.4
성별	남자	100	86.9	13.1
	여자	100	86.3	13.7
연령	19세~24세	100	86.0	14.0
	25세~29세	100	87.2	12.8
	30세~34세	100	86.6	13.4
지역1	수도권	100	84.7	15.3
	비수도권	100	88.7	11.3
지역2	서울	100	92.6	7.4
	부산	100	90.2	9.8
	대구	100	83.4	16.6
	인천	100	94.2	5.8
	광주	100	91.5	8.5
	대전	100	95.8	4.2
	울산	100	96.1	3.9
	세종	100	83.6	16.4
	경기	100	76.6	23.4
	강원	100	96.9	3.1
	충북	100	83.1	16.9
	충남	100	85.0	15.0
	전북	100	79.8	20.2
	전남	100	82.5	17.5
	경북	100	98.7	1.3
	경남	100	83.5	16.5
	제주	100	96.3	3.7
학력	고졸 이하	100	85.3	14.7
	대학 재학·휴학	100	86.7	13.3
	대학 졸업 이상	100	86.8	13.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결과이다. 5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전체 3.92~4.13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평가 점수가 높은 항목은 환기상태로 4.13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주택 내외부 소음으로 3.67이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대체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채광'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비수도권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낸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전문)대학 재학·휴학인 경우가 모든 항목에 걸쳐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25〉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상태	채광	주택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법 주택 위생
전체		3.93	4.13	4.13	3.67	4.06	3.98	4.01
성별	남자	3.93	4.10	4.09	3.67	4.05	3.97	4.01
	여자	3.93	4.16	4.18	3.68	4.08	3.99	4.01
연령	19세~24세	3.97	4.18	4.19	3.72	4.07	4.01	4.04
	25세~29세	3.91	4.11	4.12	3.70	4.06	3.95	4.00
	30세~34세	3.91	4.09	4.09	3.60	4.05	3.98	3.98
지역1	수도권	3.94	4.14	4.12	3.72	4.12	4.01	4.04
	비수도권	3.92	4.12	4.15	3.62	4.00	3.95	3.97
지역2	서울	3.81	4.06	4.03	3.67	4.02	3.89	3.93
	부산	4.05	4.24	4.25	3.78	4.10	4.04	4.09
	대구	3.99	4.14	4.18	3.62	4.00	3.95	3.98
	인천	4.07	4.13	4.09	3.76	4.15	4.06	4.11
	광주	3.77	3.94	3.99	3.44	3.90	3.84	3.86
	대전	3.91	4.19	4.23	3.64	4.05	4.06	4.08
	울산	3.91	4.04	4.10	3.65	3.83	3.86	3.91
	세종	3.97	4.07	4.14	3.79	4.03	3.96	4.01
	경기	4.01	4.20	4.20	3.75	4.18	4.09	4.10
	강원	3.88	4.07	4.13	3.62	4.06	3.95	3.93
	충북	3.87	4.07	4.09	3.39	4.00	3.89	3.99
	충남	3.98	4.12	4.13	3.70	4.05	3.98	3.97
	전북	4.08	4.24	4.26	3.78	4.21	4.10	4.08
	전남	3.75	4.02	4.08	3.48	3.85	3.79	3.83
	경북	3.78	3.98	3.99	3.52	3.78	3.81	3.78
	경남	3.93	4.17	4.21	3.61	3.99	3.95	3.99
	제주	3.91	4.19	4.18	3.68	4.07	3.96	3.95
학력	고졸 이하	3.76	3.98	3.95	3.53	3.89	3.80	3.84
	대학 재학·휴학	4.03	4.22	4.22	3.77	4.10	4.04	4.07
	대학 졸업 이상	3.93	4.13	4.14	3.67	4.08	4.00	4.0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다.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항목별로 3.57~3.9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 내부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가 3.96으로 가장 높고 ‘이웃과의 관계’가 3.5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가 가장 높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낮았으며, 이 점은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동일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항목별로는 치안 등과 위생환경, 문화/부대시설은 부산이, 녹지공간은 경기도, 교육환경은 제주가, 이웃간의 관계는 대전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도 치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치안 및 범죄 등 법범 상태	위생 환경	녹지 공간	문화/ 부대시설	교육 환경	이웃과의 관계
전체		3.89	3.83	3.96	3.87	3.91	3.60	3.69	3.57
성별	남자	3.85	3.81	3.97	3.86	3.90	3.58	3.67	3.56
	여자	3.93	3.84	3.95	3.88	3.93	3.62	3.71	3.59
연령	19세-24세	3.93	3.91	4.01	3.91	3.95	3.68	3.78	3.63
	25세-29세	3.89	3.85	3.97	3.88	3.90	3.60	3.70	3.55
	30세-34세	3.83	3.71	3.89	3.82	3.88	3.52	3.57	3.52
지역1	수도권	3.95	3.92	4.01	3.89	3.95	3.66	3.72	3.57
	비수도권	3.81	3.72	3.89	3.84	3.87	3.53	3.65	3.58
지역2	서울	4.07	4.18	4.00	3.84	3.86	3.69	3.78	3.54
	부산	4.10	4.09	4.10	4.11	3.95	3.80	3.81	3.67
	대구	3.98	4.04	3.99	3.94	4.09	3.67	3.74	3.60
	인천	3.97	3.88	4.06	3.92	3.94	3.70	3.75	3.64
	광주	3.84	3.78	3.83	3.72	3.79	3.53	3.66	3.59
	대전	3.89	3.87	3.90	3.67	3.95	3.77	3.78	3.69
	울산	3.55	3.43	3.79	3.76	3.83	3.32	3.53	3.58
	세종	3.58	3.54	3.73	3.77	3.76	3.42	3.53	3.41
	경기	3.87	3.73	4.01	3.93	4.03	3.63	3.67	3.57
	강원	3.69	3.42	3.85	3.88	3.98	3.41	3.60	3.57
	충북	3.80	3.66	3.93	3.86	3.69	3.52	3.64	3.38
	충남	3.65	3.43	3.81	3.80	3.74	3.42	3.52	3.58
	전북	3.99	3.77	3.98	3.87	3.95	3.67	3.82	3.64
	전남	3.63	3.64	3.79	3.68	3.85	3.34	3.59	3.57
	경북	3.45	3.25	3.64	3.60	3.65	3.19	3.31	3.46
	경남	3.79	3.73	3.91	3.91	3.88	3.46	3.60	3.55
	제주	4.00	3.95	3.92	3.96	3.89	3.46	3.84	3.62
학력	고졸 이하	3.68	3.66	3.78	3.69	3.74	3.42	3.52	3.45
	대학 재학·휴학	3.98	3.92	4.05	3.93	3.98	3.72	3.83	3.67
	대학 졸업 이상	3.90	3.83	3.96	3.89	3.93	3.60	3.68	3.5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주거비부담 및 주택마련

다음은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주거비 실태이다. 점유유형별로 평균과 중위를 나타내었다.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평균 5억 2천 966만원, 중위는 4억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7억 3천 477만원으로 비수도권의 3억 2천 376만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서울이 11억 2천 15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2억 1천 13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 별로는 현재 대학에 소속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전세보증금은 평균 2억 1천 73만원, 중위는 1억 7천만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특정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억 4천 814만원으로 비수도권의 1억 4천 541만원에 비해 1억원 정도 높았다. 서울이 2억 7천 21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1억 77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 별로는 현재 대학에 소속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 보증금은 평균 2,945만원, 중위는 1천만원이었으며, 월세는 평균 38만원 중위는 3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보증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월세는 동일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보증금은 30-34세가, 월세는 25-29세가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이 4천 26만원으로 비수도권의 1천 788만원에 비해 2천 3백만원 정도 높았다. 월세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31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보증금은 서울이 4,16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1,17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월세는 서울이 4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2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보증금은 (전문)대졸 졸업 이상, 월세는 (전문)대학 재학·휴학 이상이 각각 3,138만원, 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월세는 전체 평균 32만원, 중위 30만원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원, 비수도권 30만원이며 인천과 제주가 4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2만원으로 가장 낮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만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표 3-2-27〉 점유유형별 주거비 실태

(단위: 만원)

구분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보증금있는 월세 가구				보증금없는 월세가구 월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보증금		월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2,966	40,000	21,073	17,000	2,945	1,000	38	35	32	30
성별	남자	51,181	40,000	19,536	15,000	2,765	1,000	38	35	32	30
	여자	54,993	40,000	22,565	19,300	3,153	1,000	38	35	33	30
연령	19세~24세	56,028	40,000	24,205	20,000	2,766	1,000	39	35	32	30
	25세~29세	55,275	40,000	19,440	15,000	2,864	1,000	40	35	32	30
	30세~34세	45,320	36,000	20,728	18,000	3,249	1,500	36	30	31	30
지역1	수도권	73,477	60,000	24,814	20,000	4,026	2,000	45	40	36	33
	비수도권	32,376	28,000	14,541	12,000	1,788	500	31	30	30	30
지역2	서울	112,154	97,000	27,217	20,000	4,162	2,000	48	45	39	40
	부산	45,814	37,000	17,463	17,000	2,121	700	35	30	24	25
	대구	35,043	30,000	14,366	11,000	2,850	1,000	29	30	23	18
	인천	45,447	40,000	18,603	16,000	3,455	2,000	38	30	40	30
	광주	34,523	33,000	13,750	10,000	2,011	800	26	25	30	30
	대전	43,616	40,000	15,656	13,000	1,499	500	33	30	33	30
	울산	30,199	28,000	15,114	15,000	1,240	500	36	35	27	30
	세종	60,543	65,000	19,755	20,000	3,979	2,800	30	30	32	30
	경기	57,220	50,000	24,221	20,000	3,983	2,000	42	40	32	30
	강원	26,089	25,000	10,770	10,000	1,501	500	33	30	37	34
	충북	27,021	22,000	11,568	10,000	1,438	500	32	30	36	34
	충남	29,614	25,000	12,915	14,000	1,652	500	30	30	26	28
	전북	29,023	25,000	15,826	10,000	1,417	500	30	30	33	35
	전남	21,131	18,000	12,337	10,000	1,275	600	30	30	22	23
	경북	22,040	19,000	13,248	12,000	1,281	300	30	30	26	28
	경남	27,854	23,000	15,046	14,000	1,916	1,000	31	30	33	30
	제주	33,129	30,000	20,834	20,000	1,177	300	39	39	40	40
학력	고졸 이하	38,945	30,000	16,661	15,000	2,758	1,000	35	30	28	30
	대학 재학·휴학	60,032	45,000	25,826	20,000	2,593	1,000	40	35	33	30
	대학 졸업 이상	52,429	40,000	21,214	18,000	3,138	1,000	38	35	33	30

자가 n=7,641, 전세보증금 n=2,634,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보증금 n=3,817, 보증금 있는 월세의 월세 n=3,817
보증금 없는 월세의 월세 n=52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부담자 (1순위)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적으로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이 63.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 ‘본인 자금’ 21.5%, ‘민간 금융기관 자금’ 6.5%,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5.3%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응답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민간 금융기관 자금’ 비율이 1.8%p,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이 1.3%p 높은 반면, ‘부모님 또는 친지자금’이 3.6%p 낮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님 또는 친지자금’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다른 항목들의 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본인 자금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본인 자금’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본인자금’은 대전이 41.5%로 가장 높으며 서울이 15.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현재 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본인 자금’ 비율이 6.5%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표 3-2-28〉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부담자(1순위)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체		100	21.5	63.7	5.3	6.5	3.0
성별	남자	100	21.6	65.4	4.7	5.6	2.7
	여자	100	21.5	61.8	6.0	7.4	3.3
연령	19세~24세	100	7.9	83.0	2.2	4.6	2.4
	25세~29세	100	19.1	65.7	5.8	6.2	3.2
	30세~34세	100	39.9	39.2	8.4	9.0	3.4
지역1	수도권	100	19.8	64.3	6.0	6.9	2.9
	비수도권	100	23.4	63.0	4.5	6.0	3.0
지역2	서울	100	15.6	68.2	6.5	6.0	3.7
	부산	100	21.7	63.7	4.4	7.3	2.9
	대구	100	18.4	67.9	4.9	7.0	1.7
	인천	100	24.6	63.4	4.5	6.0	1.5
	광주	100	18.2	75.7	1.4	2.8	1.9
	대전	100	41.5	53.7	2.1	1.4	1.4
	울산	100	20.9	65.9	3.4	6.0	3.8
	세종	100	25.6	58.7	4.7	5.0	5.9
	경기	100	22.0	61.5	6.0	7.8	2.6
	강원	100	21.8	59.9	7.4	6.9	3.9
	충북	100	36.6	57.0	3.8	1.0	1.6
	충남	100	22.7	53.7	5.7	11.9	6.0
	전북	100	21.8	66.9	2.5	6.9	2.0
	전남	100	19.5	62.3	6.1	8.7	3.4
	경북	100	19.4	65.2	7.3	4.0	4.0
	경남	100	20.9	65.5	4.8	5.8	3.1
	제주	100	20.2	60.5	4.0	10.7	4.7
학력	고졸 이하	100	29.4	52.7	6.8	7.1	4.0
	대학 재학·휴학	100	6.5	85.5	1.8	4.1	2.1
	대학 졸업 이상	100	25.5	57.8	6.3	7.3	3.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 (2순위)에 대한 답변이다. 응답 전체를 살펴보면, ‘민간 금융기관 자금’이 43.9%이며 ‘본인 자금’ 21.5%,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19.6%,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14.2%의 순이다. 성별로는 항목별 응답 비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민간 금융기관 자금’ 비율이 높아 19-24세는 60.4%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유사한 항목별 응답 비율 분포를 나타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민간 금융기관 자금’ 비율은 대구가 50.4%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26.1%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현재 대학에 소속 중인 경우가 ‘민간 금융기관 자금’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다.

〈표 3-2-29〉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2순위)

(단위: %)

구분		비율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자금 부담자(2순위)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체		100	21.5	19.6	14.2	43.9	0.8
성별	남자	100	20.2	20.0	13.3	45.9	0.6
	여자	100	22.8	19.2	15.0	41.9	1.1
연령	19세-24세	100	10.8	16.6	11.7	60.4	0.4
	25세-29세	100	23.0	21.1	13.5	41.7	0.8
	30세-34세	100	28.3	20.7	16.6	33.3	1.2
지역1	수도권	100	20.9	18.8	14.7	45.0	0.6
	비수도권	100	22.3	20.7	13.5	42.4	1.1
지역2	서울	100	27.6	22.0	11.9	37.8	0.6
	부산	100	18.1	24.9	8.0	46.7	2.4
	대구	100	22.5	15.7	9.6	50.4	1.8
	인천	100	19.1	15.1	15.4	48.7	1.8
	광주	100	18.1	12.6	19.4	49.1	0.8
	대전	100	15.8	24.5	9.5	50.2	0.0
	울산	100	23.1	21.3	11.1	44.5	0.0
	세종	100	29.9	19.6	16.5	33.0	1.0
	경기	100	17.7	17.9	16.0	48.0	0.3
	강원	100	29.1	21.4	14.4	35.1	0.0
	충북	100	21.9	24.3	27.7	26.1	0.0
	충남	100	35.5	17.0	12.8	34.1	0.6
	전북	100	14.6	20.8	16.3	47.4	1.0
	전남	100	32.4	24.9	12.1	30.6	0.0
	경북	100	23.9	16.8	10.8	45.5	2.8
	경남	100	16.1	20.9	17.0	44.8	1.2
	제주	100	33.4	24.7	12.6	28.6	0.7
학력	고졸 이하	100	21.6	19.9	17.6	39.9	1.0
	대학 재학·휴학	100	10.8	14.7	11.0	63.0	0.6
	대학 졸업 이상	100	24.6	21.0	14.3	39.3	0.9

n=5,80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주거인식과 불안정 주거 경험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에 대한 응답이다. 가장 높은 비율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41.0%, 다음 ‘전세자금 대출’ 23.9%, ‘주거비 지원’ 17.3%, ‘공공임대 입주’ 11.8%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4.2%,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지원’ 1.0% 순이었다. 기타는 0.9%이다. 성별로는 응답 분포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구입자금 대출’ 비율이 높아지며 ‘주거비 지원’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응답 분포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대신 전세자금대출과 주거비 지원 비율이 평균을 상회한다.

이어서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2순위)를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 28.5%, 주택 구입자금대출 22.9%, 주거비지원 19.4%, 공공임대 입주 14.6%,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8.7%,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5.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주거정책 1순위에 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타 항목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2-30〉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1순위)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체		100	23.9	41.0	17.3	11.8	4.2	1.0	0.9
성별	남자	100	23.8	41.4	16.7	12.0	4.1	1.1	0.9
	여자	100	23.9	40.5	18.0	11.6	4.4	0.8	0.9
연령	19세~24세	100	23.3	30.9	26.2	13.7	4.4	0.7	0.8
	25세~29세	100	27.0	40.1	14.9	12.5	3.8	1.2	0.6
	30세~34세	100	21.1	53.6	9.8	8.7	4.4	1.1	1.3
지역1	수도권	100	25.4	40.6	16.5	12.4	3.6	0.7	0.8
	비수도권	100	22.2	41.4	18.2	11.1	4.9	1.2	1.0
지역2	서울	100	27.8	33.4	20.6	13.4	3.6	0.9	0.3
	부산	100	30.2	42.6	11.9	8.7	3.4	0.7	2.3
	대구	100	17.3	37.9	19.8	13.7	7.5	2.9	0.9
	인천	100	30.0	44.4	15.4	7.7	1.9	0.4	0.2
	광주	100	22.6	38.0	15.9	9.8	12.8	0.7	0.2
	대전	100	17.3	42.2	11.6	26.3	2.4	0.1	0.0
	울산	100	18.2	40.9	27.9	5.7	5.2	0.9	1.2
	세종	100	13.7	46.3	22.4	11.7	5.4	0.2	0.2
	경기	100	22.4	45.2	13.7	12.7	3.9	0.7	1.3
	강원	100	21.2	38.8	24.0	12.1	3.5	0.1	0.3
	충북	100	32.6	42.9	12.9	6.6	2.1	0.9	2.0
	충남	100	23.3	42.3	21.1	6.5	4.8	0.9	1.1
	전북	100	17.5	34.5	23.0	16.4	7.2	0.7	0.8
	전남	100	23.8	39.0	18.2	10.3	7.0	1.0	0.7
	경북	100	22.4	40.3	24.4	6.0	3.7	2.9	0.2
	경남	100	19.4	49.0	17.2	9.5	2.4	1.7	0.8
	제주	100	16.3	47.9	15.7	12.2	4.9	1.2	1.8
학력	고졸 이하	100	28.3	37.0	15.5	14.1	3.4	0.6	1.0
	대학 재학·휴학	100	21.6	30.6	28.4	12.9	4.8	0.8	0.8
	대학 졸업 이상	100	23.7	46.0	13.5	10.8	4.2	1.1	0.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31〉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2순위)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2순위)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 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기타
전체		100	28.5	22.9	19.4	14.6	8.7	5.2	0.6
성별	남자	100	28.3	23.9	19.2	14.9	8.3	4.7	0.7
	여자	100	28.6	21.9	19.7	14.4	9.2	5.7	0.6
연령	19세~24세	100	27.7	21.3	22.7	15.8	8.1	4.1	0.3
	25세~29세	100	27.6	24.1	19.4	15.8	8.3	4.4	0.4
	30세~34세	100	30.4	23.5	15.7	12.1	9.9	7.2	1.3
지역1	수도권	100	29.1	22.3	19.2	15.8	8.5	4.6	0.5
	비수도권	100	27.7	23.6	19.7	13.3	9.0	5.8	0.8
지역2	서울	100	29.7	20.7	20.0	16.0	8.4	4.6	0.7
	부산	100	22.1	21.6	27.0	12.8	8.7	5.1	2.7
	대구	100	26.3	20.3	17.7	15.4	12.8	7.4	0.0
	인천	100	24.2	21.4	21.8	18.0	7.5	6.4	0.7
	광주	100	23.6	33.6	19.3	13.7	6.5	3.3	0.0
	대전	100	34.1	34.1	12.5	10.5	3.9	5.0	0.0
	울산	100	24.4	25.8	24.3	9.1	7.9	8.5	0.0
	세종	100	20.2	18.1	22.6	20.2	15.2	2.9	0.8
	경기	100	29.7	23.7	18.1	15.2	8.7	4.3	0.3
	강원	100	24.3	23.1	23.6	16.3	7.5	4.9	0.2
	충북	100	36.7	28.3	14.9	10.3	4.9	4.5	0.3
	충남	100	29.1	20.5	15.3	16.7	10.0	6.6	1.8
	전북	100	28.6	20.3	21.9	12.6	10.7	5.3	0.6
	전남	100	26.1	22.6	18.1	15.1	11.0	6.8	0.4
	경북	100	27.3	20.6	24.5	11.3	8.8	6.7	0.8
	경남	100	32.7	20.7	15.4	12.5	10.9	6.7	1.0
	제주	100	24.7	20.8	20.5	17.0	12.4	4.3	0.3
학력	고졸 이하	100	24.2	25.7	21.7	15.1	7.6	4.7	1.0
	대학 재학·휴학	100	28.6	20.8	21.8	15.5	8.6	4.3	0.5
	대학 졸업 이상	100	29.4	23.1	18.0	14.2	9.1	5.7	0.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2%, ‘없다’는 36.8%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대별로 ‘있다’의 응답 비율은 30-34세가 53.8%로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의 ‘있다’ 비율이 66.7%로 비수도권 59.4%에 비해 약 7%p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이 74.0%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46.2%로 가장 낮았다.

〈표 3-2-32〉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있다	없다
전체		100	63.2	36.8
성별	남자	100	64.3	35.7
	여자	100	62.1	37.9
연령	19세-24세	100	67.1	32.9
	25세-29세	100	67.7	32.3
	30세-34세	100	53.8	46.2
지역1	수도권	100	66.7	33.3
	비수도권	100	59.4	40.6
지역2	서울	100	67.0	33.0
	부산	100	48.6	51.4
	대구	100	64.1	35.9
	인천	100	64.2	35.8
	광주	100	59.7	40.3
	대전	100	64.9	35.1
	울산	100	57.5	42.5
	세종	100	73.9	26.1
	경기	100	66.9	33.1
	강원	100	74.0	26.0
	충북	100	46.2	53.8
	충남	100	58.2	41.8
	전북	100	64.8	35.2
	전남	100	60.5	39.5
	경북	100	54.4	45.6
	경남	100	62.5	37.5
	제주	100	65.0	35.0
학력	고졸 이하	100	66.2	33.8
	대학 재학 휴학	100	65.6	34.4
	대학 졸업 이상	100	61.6	38.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을 물어본 결과, 항목별로 0.5%~4.9%의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부족’이 4.9%, ‘임대인과의 갈등’ 2.3%, ‘2개월 이상 월임대료 연체’ 1.6% 등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임대보증금 부족’은 여성이 5.6%로 남성의 4.3%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는 남성이 1.9%로 여성의 1.2%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대보증금 부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임대보증금 부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 7.1%, 광주 6.9%, 경기 6.0%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임대보증금 부족,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모두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3-2-32〉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 경험률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3개월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임대,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또는 납부 지연)	임대인과 의 갈등	주택임대 차 보호법 위반
전체		100	1.6	4.9	0.7	0.6	0.5	1.2	2.3	1.3
성별	남자	100	1.9	4.3	0.7	0.7	0.6	1.4	2.0	1.4
	여자	100	1.2	5.6	0.8	0.5	0.4	1.1	2.6	1.1
연령	19세~24세	100	1.6	2.7	0.6	0.6	0.5	1.2	1.7	0.8
	25세~29세	100	1.7	5.2	0.6	0.3	0.3	0.9	2.1	1.0
	30세~34세	100	1.4	7.2	0.9	0.9	0.8	1.6	3.1	2.3
지역1	수도권	100	1.6	5.5	0.7	0.6	0.6	1.2	2.0	1.4
	비수도권	100	1.5	4.3	0.8	0.6	0.5	1.3	2.5	1.1
지역2	서울	100	1.0	5.2	0.3	0.3	0.3	1.0	2.1	0.8
	부산	100	1.6	4.5	0.7	0.6	0.5	1.0	1.7	1.5
	대구	100	1.3	2.9	0.4	0.5	0.7	0.7	1.0	0.6
	인천	100	1.6	4.6	0.5	0.9	0.6	1.1	1.6	2.5
	광주	100	5.2	6.9	2.4	0.7	0.2	1.0	4.2	0.8
	대전	100	1.1	2.7	0.7	0.8	0.9	0.7	13.6	1.3
	울산	100	1.1	1.8	0.6	0.4	0.5	1.1	0.7	0.0
	세종	100	0.3	1.5	0.5	0.0	0.0	0.6	0.6	1.0
	경기	100	2.1	6.0	0.9	0.8	0.8	1.3	2.1	1.7
	강원	100	1.4	7.1	1.3	0.9	0.5	1.6	1.6	1.9
	충북	100	1.0	5.2	0.0	0.4	0.0	1.8	1.4	0.6
	충남	100	1.1	3.9	0.4	0.3	1.0	1.4	1.1	1.3
	전북	100	1.8	4.9	0.9	0.6	0.3	2.2	1.4	1.3
	전남	100	1.8	2.8	0.5	1.0	0.4	2.4	0.9	0.7
	경북	100	0.8	3.4	0.7	1.0	0.4	1.6	2.1	2.6
	경남	100	1.1	4.9	0.3	0.5	0.3	1.4	1.2	0.7
	제주	100	0.7	4.7	2.8	1.3	0.2	1.5	1.2	0.4
학력	고졸 이하	100	2.8	6.7	0.8	0.7	0.7	2.4	2.6	1.3
	대학 재학·휴학	100	1.4	2.4	0.4	0.5	0.4	1.3	1.4	0.7
	대학 졸업 이상	100	1.3	5.5	0.8	0.6	0.5	1.0	2.6	1.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 비율에 대한 응답 현황이다. 고시원이 0.7%, 일터의 일부 공간 0.4%,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0.2%, 쪽방 0.1%, 여관·여인숙 0.1%를 나타내었다.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아 각 구분별 비교 분석에는 무리가 따른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대는 만25세-29세, 지역은 수도권이 다소 높다.

〈표 3-2-34〉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거리 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 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
전체	100	0.0	0.2	0.1	0.7	0.1	0.4	0.0
성별	남자	100	0.0	0.2	0.1	1.0	0.1	0.6
	여자	100	0.0	0.1	0.0	0.3	0.1	0.3
연령	19세-24세	100	0.0	0.2	0.1	0.6	0.0	0.4
	25세-29세	100	0.0	0.1	0.1	0.8	0.1	0.5
	30세-34세	100	0.0	0.2	0.1	0.5	0.2	0.4
지역1	수도권	100	0.0	0.2	0.1	0.8	0.0	0.4
	비수도권	100	0.0	0.2	0.1	0.5	0.2	0.5
지역2	서울	100	0.0	0.1	0.1	0.9	0.0	0.2
	부산	100	0.0	0.1	0.1	0.2	0.0	0.1
	대구	100	0.0	0.0	0.0	0.1	0.3	0.3
	인천	100	0.0	0.3	0.1	1.1	0.0	0.4
	광주	100	0.0	0.3	0.0	0.2	0.1	3.8
	대전	100	0.0	0.0	0.0	0.3	0.1	0.0
	울산	100	0.0	0.1	0.1	0.5	0.0	0.0
	세종	100	0.0	0.0	0.4	0.9	0.0	0.2
	경기	100	0.0	0.2	0.1	0.7	0.1	0.5
	강원	100	0.0	0.2	0.1	1.0	0.0	0.1
	충북	100	0.0	0.0	0.0	0.3	0.2	0.3
	충남	100	0.0	0.0	0.2	0.8	0.0	0.5
	전북	100	0.0	0.5	0.0	0.7	0.2	0.3
	전남	100	0.0	0.0	0.1	1.7	0.1	1.7
	경북	100	0.0	0.1	0.1	0.4	0.8	0.2
	경남	100	0.1	0.5	0.0	0.4	0.2	0.3
	제주	100	0.0	0.2	0.3	0.9	0.5	0.3
학력	고졸 이하	100	0.1	0.3	0.0	0.8	0.2	0.4
	대학 재학·휴학	100	0.0	0.2	0.0	0.5	0.1	0.3
	대학 졸업 이상	100	0.0	0.1	0.1	0.7	0.1	0.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전체 91.3%, ‘그렇지 않다’는 8.7%를 나타낸다. 성별은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그렇다’ 응답 비율이 모두 91.3%로 차이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도 대체로 90% 전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 차이도 크지 않다.

〈표 3-2-35〉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	91.3	8.7
성별	남자	100	91.0	9.0
	여자	100	91.7	8.3
연령	19세-24세	100	88.2	11.8
	25세-29세	100	92.1	7.9
	30세-34세	100	94.0	6.0
지역1	수도권	100	91.3	8.7
	비수도권	100	91.3	8.7
지역2	서울	100	91.3	8.7
	부산	100	92.1	7.9
	대구	100	87.4	12.6
	인천	100	91.9	8.1
	광주	100	87.6	12.4
	대전	100	94.8	5.2
	울산	100	92.3	7.7
	세종	100	95.5	4.5
	경기	100	91.2	8.8
	강원	100	91.4	8.6
	충북	100	93.2	6.8
	충남	100	94.3	5.7
	전북	100	91.8	8.2
	전남	100	92.8	7.2
	경북	100	91.0	9.0
	경남	100	87.8	12.2
	제주	100	93.9	6.1
학력	고졸 이하	100	89.5	10.5
	대학 재학·휴학	100	88.4	11.6
	대학 졸업 이상	100	92.9	7.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이하, ‘이사불필요’)가 3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이하, ‘자산증식’)로 21.6%였다. 그 외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3.4%,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 11.9%,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11.6%, ‘노후 보장을 위해서’ 9.6%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사불필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응답 경향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응답 비율도 전체 응답 비율 순서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3-2-36〉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자가 주택 소유 필요한 이유						
			임대료 상승의 압박이 없으므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 만큼 살 수 있으므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구조변경, 인테리어 등)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기타
전체		100	11.9	31.3	21.6	13.4	11.6	9.6	0.7
성별	남자	100	11.1	30.4	22.6	16.0	10.7	8.3	0.9
	여자	100	12.7	32.2	20.5	10.6	12.6	10.9	0.4
연령	19세-24세	100	11.2	28.0	20.6	14.6	13.9	11.0	0.7
	25세-29세	100	11.2	32.0	22.0	13.5	11.3	9.6	0.4
	30세-34세	100	13.2	34.1	22.2	12.1	9.5	8.0	0.8
지역1	수도권	100	12.6	31.8	22.8	11.8	10.1	10.1	0.8
	비수도권	100	11.0	30.7	20.3	15.3	13.3	8.9	0.5
지역2	서울	100	14.2	30.9	20.8	9.7	11.5	12.1	0.8
	부산	100	19.8	27.5	21.6	12.0	12.1	6.8	0.3
	대구	100	6.9	28.4	17.4	15.2	20.9	10.9	0.2
	인천	100	11.9	31.5	25.0	13.4	9.2	8.8	0.2
	광주	100	10.5	26.7	15.6	21.1	11.7	13.8	0.6
	대전	100	11.9	22.1	27.9	23.4	9.9	4.7	0.0
	울산	100	6.1	31.2	25.2	16.4	12.9	7.3	0.8
	세종	100	6.9	27.8	20.3	18.6	10.0	14.6	1.7
	경기	100	11.6	32.6	23.8	13.0	9.3	8.9	0.9
	강원	100	10.6	37.1	15.5	9.6	14.8	11.5	0.8
	충북	100	14.2	39.9	16.3	10.6	9.3	9.0	0.7
	충남	100	6.3	37.8	23.8	12.4	10.4	8.8	0.7
	전북	100	7.1	29.7	26.6	15.4	12.0	8.3	0.9
	전남	100	9.2	29.4	18.3	16.4	21.2	5.1	0.4
	경북	100	13.7	23.9	20.1	16.2	16.1	9.4	0.5
	경남	100	7.2	38.4	17.2	16.2	10.9	9.7	0.5
	제주	100	16.7	28.1	14.4	12.7	14.9	12.0	1.3
학력	고졸 이하	100	10.8	34.5	18.9	13.4	11.2	10.8	0.4
	대학 재학·휴학	100	11.6	27.7	19.9	14.9	14.4	10.6	0.9
	대졸 졸업 이상	100	12.2	31.9	22.8	12.9	10.7	8.9	0.7

n=13,51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28~4.4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로 4.42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로 3.28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들은 대체로 4점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별로는 대체로 유사한 응답비율 분포로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가 가장 낮은 점수인 3점 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 외 항목은 대체로 4점대 초를 나타내었다. 학력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37〉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이다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다
전체		4.34	4.42	4.15	4.03	4.25	3.28
성별	남자	4.33	4.39	4.12	4.02	4.21	3.27
	여자	4.35	4.44	4.19	4.04	4.29	3.30
연령	19세~24세	4.38	4.42	4.21	4.03	4.28	3.33
	25세~29세	4.33	4.42	4.11	4.05	4.23	3.21
	30세~34세	4.31	4.40	4.13	4.02	4.24	3.31
지역1	수도권	4.35	4.42	4.15	4.07	4.29	3.28
	비수도권	4.33	4.41	4.16	3.98	4.21	3.29
지역2	서울	4.29	4.39	3.93	4.02	4.28	3.08
	부산	4.49	4.55	4.21	4.19	4.30	3.34
	대구	4.36	4.48	4.30	4.14	4.28	3.25
	인천	4.39	4.40	4.31	4.09	4.30	3.46
	광주	4.31	4.39	4.20	4.05	4.14	3.42
	대전	4.41	4.50	4.13	3.68	4.35	3.49
	울산	4.31	4.33	4.28	3.96	4.13	3.32
	세종	4.24	4.40	4.02	4.08	4.09	3.41
	경기	4.39	4.45	4.28	4.11	4.30	3.40
	강원	4.44	4.48	4.03	4.07	4.19	3.07
	충북	4.24	4.29	4.12	3.75	4.06	3.35
	충남	4.28	4.35	3.99	3.99	4.20	3.23
	전북	4.42	4.49	4.25	4.25	4.36	3.60
	전남	4.13	4.24	4.19	3.86	4.13	3.20
	경북	4.20	4.28	3.95	3.88	4.00	3.17
	경남	4.23	4.36	4.20	3.84	4.21	3.08
	제주	4.31	4.44	4.32	4.02	4.26	3.16
학력	고졸 이하	4.16	4.26	4.06	3.87	4.08	3.16
	대학 재학·휴학	4.43	4.46	4.23	4.05	4.32	3.33
	대학 졸업 이상	4.35	4.43	4.14	4.06	4.26	3.2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이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가 27.8%였으며 ‘취업 이후’가 27.2%였다. 다음 결혼 이후 23.1%,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16.7%, 만 19세 이후 3.5%, 출산 이후 0.1% 였으며,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1.6%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취업 이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결혼이후’의 순서였으나, 여자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결혼이후’ ‘취업 이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항목별 응답비율은 대체로 20%대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29.5%, (전문) 대학 재학 및 휴학은 ‘취업 이후’ 35.8%, (전문) 대졸 졸업 이상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27.3%가 가장 높았다. 조금씩 상이한 가운데, 취업, 자산축적, 결혼이 주거 독립 시기를 판단하는 주요 계기로 응답되었다.

〈표 3-2-38〉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해 적절한 시기

(단위: %)

구분		비율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해 적절한 시기						
			만 19세 이후	취업 이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결혼 이후	출산 이후	별도 계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		100	3.5	27.2	27.8	23.1	0.1	16.7	1.6
성별	남자	100	4.0	29.6	27.5	21.1	0.0	16.0	1.7
	여자	100	3.0	24.5	28.1	25.3	0.2	17.4	1.5
연령	19세-24세	100	3.1	31.9	30.3	16.8	0.1	16.0	1.7
	25세-29세	100	3.4	25.4	29.0	23.2	0.2	17.0	1.8
	30세-34세	100	4.0	23.7	23.4	30.3	0.2	17.1	1.3
지역1	수도권	100	3.0	24.6	29.0	25.1	0.2	16.8	1.4
	비수도권	100	4.1	30.1	26.3	20.9	0.1	16.6	1.9
지역2	서울	100	4.1	29.2	29.5	18.6	0.3	17.1	1.2
	부산	100	4.1	23.6	26.4	24.5	0.1	19.5	1.6
	대구	100	2.9	30.2	25.2	25.4	0.3	14.2	1.8
	인천	100	2.5	19.2	20.7	35.8	0.0	20.0	1.8
	광주	100	7.3	29.4	26.2	21.9	0.0	13.3	2.1
	대전	100	3.1	26.6	17.5	24.8	0.1	23.9	4.0
	울산	100	2.6	22.5	35.8	16.4	0.0	18.3	4.4
	세종	100	2.5	42.1	30.0	12.8	0.0	12.7	0.0
	경기	100	2.2	22.2	30.5	27.6	0.1	15.8	1.5
	강원	100	6.1	37.3	24.7	15.5	0.2	15.8	0.5
	충북	100	3.6	37.7	33.5	10.8	0.0	12.8	1.7
	충남	100	3.9	37.3	26.5	13.5	0.0	16.9	2.0
	전북	100	2.9	25.4	25.5	23.4	0.1	20.0	2.6
	전남	100	2.9	27.5	30.7	21.9	0.0	15.7	1.3
	경북	100	8.7	34.9	27.1	19.7	0.1	8.6	0.8
	경남	100	2.0	30.3	25.1	22.4	0.0	18.5	1.7
	제주	100	3.9	20.7	20.6	35.4	0.0	18.4	1.0
학력	고졸 이하	100	3.9	21.2	29.5	23.9	0.0	19.5	1.9
	대학 재학·휴학	100	3.7	35.8	27.9	14.5	0.0	16.0	2.0
	대학 졸업 이상	100	3.3	25.2	27.3	26.3	0.2	16.3	1.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계속 살고 싶다’ 비율은 73.1%,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26.9%였다.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대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살고 싶다’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4.3%p ‘계속 살고 싶다’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계속 살고 싶은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87.5%, 서울 85.1%, 제주 82.2% 순이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45.3%, 전남 39.7%, 전북 39.1%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재학 및 휴학이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표 3-2-39〉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계속 살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전체		100	73.1	26.9
성별	남자	100	73.5	26.5
	여자	100	72.6	27.4
연령	19세-24세	100	68.5	31.5
	25세-29세	100	74.5	25.5
	30세-34세	100	76.9	23.1
지역1	수도권	100	75.1	24.9
	비수도권	100	70.8	29.2
지역2	서울	100	85.1	14.9
	부산	100	80.5	19.5
	대구	100	72.4	27.6
	인천	100	70.0	30.0
	광주	100	80.2	19.8
	대전	100	87.5	12.5
	울산	100	72.3	27.7
	세종	100	65.0	35.0
	경기	100	68.6	31.4
	강원	100	69.4	30.6
	충북	100	72.6	27.4
	충남	100	66.4	33.6
	전북	100	60.9	39.1
	전남	100	60.3	39.7
	경북	100	54.7	45.3
	경남	100	64.6	35.4
	제주	100	82.2	17.8
학력	고졸 이하	100	74.7	25.3
	대학 재학·휴학	100	65.9	34.1
	대학 졸업 이상	100	75.5	24.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29.6%로 가장 높았다. 다음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20.5%,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18.1%,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2.0%, ‘더 나은 교육보육 의료환경을 위해’ 11.5%,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3%,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 2.6% 이었다. 기타는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가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가장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이점을 살펴보면 서울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반면, 그 외 도 지역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대체적으로 4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이사의 목적이 극명하게 상이하였다. 학력별로는 모두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모두 높았다.

〈표 3-2-40〉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보육·의료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
전체		100	4.3	12.0	11.5	29.6	20.5	18.1	2.6
성별	남자	100	3.7	12.4	10.9	33.5	18.5	17.6	2.3
	여자	100	4.9	11.7	12.2	25.4	22.6	18.7	2.9
연령	19세~24세	100	3.1	12.0	7.5	37.4	22.4	13.7	2.5
	25세~29세	100	5.3	12.4	7.7	29.9	21.9	19.8	1.8
	30세~34세	100	4.9	11.8	22.6	16.9	15.7	22.9	4.0
지역1	수도권	100	7.7	19.3	12.2	13.1	17.6	25.9	2.5
	비수도권	100	1.0	5.0	10.9	45.4	23.3	10.6	2.7
지역2	서울	100	20.3	9.6	5.5	5.0	11.7	38.3	6.1
	부산	100	0.9	8.7	10.9	46.3	19.3	12.3	1.2
	대구	100	1.1	1.4	9.1	58.2	18.3	6.4	5.0
	인천	100	2.4	21.8	11.4	14.4	21.0	27.3	0.9
	광주	100	2.9	4.7	5.0	39.2	30.4	16.4	1.4
	대전	100	0.9	3.8	17.0	47.7	20.2	7.9	0.9
	울산	100	0.0	6.7	8.2	43.7	27.6	11.5	1.9
	세종	100	0.6	3.4	8.2	28.3	47.1	10.7	1.7
	경기	100	4.3	22.3	14.8	15.8	19.0	21.1	1.6
	강원	100	0.2	5.3	8.6	49.9	22.3	7.5	5.8
	충북	100	1.7	4.2	9.4	53.2	19.7	11.4	0.4
	충남	100	0.4	6.3	15.4	28.6	23.0	20.7	2.6
	전북	100	0.8	3.1	10.9	48.9	26.2	6.9	3.1
	전남	100	1.6	3.7	10.7	46.5	25.0	9.4	2.0
	경북	100	0.8	4.8	14.8	43.9	24.7	6.3	4.6
학력	경남	100	0.6	7.3	8.5	46.0	21.4	12.3	1.4
	제주	100	3.6	1.9	11.6	38.2	24.8	12.5	4.0
	고졸 이하	100	7.0	8.5	12.6	28.7	19.1	19.1	2.1
	대학 재학·휴학	100	2.7	12.6	7.0	38.5	21.5	14.5	2.1
	대학 졸업 이상	100	4.5	12.6	13.8	25.0	20.3	19.9	3.0

n=4,55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7%가 ‘그렇다’라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렇다’ 비율은 각각 27.9%, 23.3%로 수도권이 4.6%p 높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이 59.1%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12.5%로 가장 낮다. 학력별로는 (전문) 대학 재학·휴학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전문) 대졸 졸업 이상이 가장 높다.

〈표 3-2-41〉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그렇다	아니다
전체		100	25.7	74.3
성별	남자	100	26.7	73.3
	여자	100	24.7	75.3
연령	19세~24세	100	19.7	80.3
	25세~29세	100	24.5	75.5
	30세~34세	100	34.1	65.9
지역1	수도권	100	27.9	72.1
	비수도권	100	23.3	76.7
지역2	서울	100	33.7	66.3
	부산	100	16.8	83.2
	대구	100	15.6	84.4
	인천	100	23.8	76.2
	광주	100	14.2	85.8
	대전	100	27.2	72.8
	울산	100	12.5	87.5
	세종	100	59.1	40.9
	경기	100	24.3	75.7
	강원	100	33.4	66.6
	충북	100	22.2	77.8
	충남	100	33.9	66.1
	전북	100	24.0	76.0
	전남	100	26.1	73.9
	경북	100	28.3	71.7
	경남	100	22.2	77.8
	제주	100	20.9	79.1
학력	고졸 이하	100	24.2	75.8
	대학 재학·휴학	100	21.0	79.0
	대학 졸업 이상	100	27.9	72.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부모와의 동거 현황,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주거비부담, 주거인식으로 나누어 주요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와의 동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청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게 되며, 30-34세가 되면 약 70%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약 30%는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이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청년 중 약 80%는 30세가 넘으면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독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하다. 현재 부모 동거 청년에게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제적 여건 및 통학통근 거리 응답 비율이 높아, 부모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청년은 부모가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자인 경우가 60%를 넘고 있으나,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청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부분 명의자 혹은 계약자라고 응답되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청년이 주거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독립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당위성과 현실 사이의 갭이 주거독립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독립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주거 독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대안적 주거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다음 주거 및 주거환경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으나 서울 등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다가구 등의 비율도 낮지 않다. 반지하 비율은 서울이 2.2%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주택 내부 구조와 관련하여, 본인 방(침실)은 평균 12㎡정도이며, 주택의 내부시설인 부엌, 화장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난방 및 냉방시설은 단독사용이 95% 정도로 응답되어,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택 내부 상태에 대한 평가에

서는 주택 내 외부 소음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주거 환경 만족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택 내부 실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반) 지하 거주 비율은 서울을 중심으로 꽤 높은 상황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극도로 열악한 주거에 대한 조사를,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상세하게 조사할 것인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시행할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거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거비는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가거주의 주택가격은 평균 5억 2천여만원인데 비해 서울은 11억 2천여만원으로 약 2배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의 보증금 등 주거와 관련된 보증금은 모두 서울과 타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컸다.

한편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부담자는 1순위 응답에서는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자금’과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자금’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거비의 서울과 타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지역별 편차는 한 두 가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주거 뿐 아니라, 일자리, 지역 인프라,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영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서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점은 청년의 이동뿐 아니라 주거비와 관련한 정책에서도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한편, 주거비 부담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은 1순위는 물론 2순위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나 그다지 높지 않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거인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대출 비율이 높았다. 다른 한편,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는 ‘자산축적’ ‘취업’ ‘결혼’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편으로는 자가 주택을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일견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관통하는 것은 거주 의 안

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한다. 전체 절반 정도의 청년이 임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서 대다수 청년은 임대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 촉진 정책 뿐 아니라 임대 거주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유안정성 보장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1. 분석 결과

가. 흡연

2020년 국민영양조사결과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질병관리청, 2022)를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청년층의 현재흡연율은 20.1%(남자 33.3%, 여자 5.6%)로 나타났으며, 19~24세의 흡연율이 25세 이상의 흡연율보다 낮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흡연율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현재흡연율이 34.8%로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인 금연 열풍 속에서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은 금연 대신 신종 전자담배(궤련형 전자담배⁷⁾, 액상형 전자담배⁸⁾ 등)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궤련과 신종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신종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것은 기존의 궤련과 비교하여 금연이나 건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0. 4. 10.).

7)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

8)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전자담배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

본 조사 결과 현재 흡연자 중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6.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1.3%로 각각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19~24세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전자담배 사용비율이 높았다.

〈표 3-3-1〉 현재 흡연율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흡연 여부	
			현재 흡연 (매일 피운다+가끔 피운다)	현재 비흡연
전체		100	20.1	79.9
성별	남자	100	33.3	66.7
	여자	100	5.6	94.4
연령	19세~24세	100	18.7	81.3
	25세~29세	100	21.3	78.7
	30세~34세	100	20.5	79.5
지역1	수도권	100	19.6	80.4
	비수도권	100	20.8	79.2
지역2	서울	100	17.9	82.1
	부산	100	22.9	77.1
	대구	100	21.6	78.4
	인천	100	24.4	75.6
	광주	100	15.2	84.8
	대전	100	18.9	81.1
	울산	100	20.4	79.6
	세종	100	11.4	88.6
	경기	100	19.8	80.2
	강원	100	25.3	74.7
	충북	100	25.5	74.5
	충남	100	21.0	79.0
	전북	100	17.4	82.6
	전남	100	18.1	81.9
	경북	100	26.6	73.4
	경남	100	16.5	83.5
학력	제주	100	21.7	78.3
	고졸 이하	100	34.8	65.2
	대학 재학·휴학	100	18.3	81.7
	대학 졸업 이상	100	17.4	82.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현재흡연율은 '현재 담배를 피우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피운다' 또는 '가끔 피운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3-2〉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중복 응답)

(단위: %)

구분		현재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			
		일반 담배(궐련)	궐련형 전자 담배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 담배	기타 담배
전체		79.5	16.3	11.3	0.4
성별	남자	80.1	16.1	10.8	0.3
	여자	75.1	17.9	14.7	0.7
연령	19세~24세	83.5	12.8	13.1	0.5
	25세~29세	79.3	15.2	11.5	0.3
	30세~34세	75.4	21.5	9.1	0.4
지역1	수도권	77.2	16.1	13.1	0.4
	비수도권	81.8	16.5	9.3	0.4
지역2	서울	77.1	15.2	13.9	0.7
	부산	81.6	13.0	13.4	0.0
	대구	84.5	14.3	3.6	0.9
	인천	82.8	19.6	5.8	0.0
	광주	73.8	21.0	10.1	0.0
	대전	81.8	9.7	11.0	0.0
	울산	86.4	9.0	13.3	0.0
	세종	82.6	19.7	8.0	0.0
	경기	75.9	15.8	14.6	0.3
	강원	84.4	16.6	8.9	0.0
	충북	82.5	23.8	7.2	0.0
	충남	79.4	17.1	10.8	1.2
	전북	88.7	18.3	6.6	0.0
	전남	82.5	6.7	13.2	3.4
	경북	83.4	17.5	9.7	0.1
지역3	경남	76.4	25.9	4.6	0.0
	제주	74.7	18.8	14.1	0.0
학력	고졸 이하	83.1	14.0	12.1	0.9
	대학 재학·휴학	82.9	13.8	12.8	0.0
	대학 졸업 이상	76.3	18.5	10.3	0.3

일반 담배 n=2,339, 궐련형 전자담배 n=461,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 담배 n=300, 기타 담배 n=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6) 현재 흡연하는 담배를 모두 응답하도록 하여 비율의 합이 100을 넘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특히,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사용하는 청년은 흡연자의 6.8%로 나타났으며, 대부분(6.4%)은 일반담배(필런)과 전자담배 등을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자, 19-24세, 비수도권,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3〉 두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비율(추가)

(단위: %)

구분		비율	두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비율		
			일반담배 포함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일반담배 비포함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비해당(한 종류의 담배만 흡연하는 사람)
전체		100	6.4	0.4	93.2
성별	남자	100	6.6	0.2	93.3
	여자	100	5.5	1.7	92.8
연령	19세-24세	100	8.4	0.2	91.3
	25세-29세	100	5.7	0.2	94.1
	30세-34세	100	5.1	0.8	94.1
지역1	수도권	100	5.8	0.5	93.7
	비수도권	100	7.1	0.2	92.6
학력	고졸 이하	100	8.2	0.8	90.9
	대학 재학·휴학	100	8.2	0.2	91.5
	대학 졸업 이상	100	4.8	0.2	94.9

n=2,87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일반담배 포함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n=201, 일반담배 비포함 두 가지 이상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n=11, 비해당(한 종류의 담배만 흡연하는 사람) n=2, 662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고위험 음주

최근 1년 간 음주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남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나타났고, 여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9.8%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25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

있고, 고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25세 이상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5~29세 집단에서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3~4%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에서는 현재흡연율도 높아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고위험 집단으로서 중재개입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표 3-3-4〉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고위험 음주율	
		남자	여자
전체		12.6	9.8
연령	19세-24세	10.7	8.2
	25세-29세	13.5	12.0
	30세-34세	13.7	9.2
	35세-39세	11.7	9.9
지역1	수도권	13.5	9.6
	비수도권	11.3	10.7
지역2	서울	9.0	7.4
	부산	12.6	9.7
	대구	9.9	6.0
	인천	12.4	11.0
	광주	5.0	6.1
	대전	11.2	8.0
	울산	7.5	2.9
	세종	12.4	9.8
	경기	21.7	11.3
	강원	20.1	14.9
	충북	12.5	10.7
	충남	15.7	13.0
	전북	13.6	7.7
	전남	11.7	12.0
	경북	14.3	8.1
	경남	30.7	14.4
	제주	18.5	12.2
학력	고졸 이하	9.8	7.9
	대학 재학·휴학	12.2	10.0
	대학 졸업 이상		

n=11,89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운동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일부의 암은 모두 신체활동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신체활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국민 중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의 비율은 32.6%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30.3%)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더 낮게(2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 19~24세, 30~34세 의 순으로 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대학 재학·휴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운동실천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3-3-5〉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평소 규칙적인 운동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번 미만	일주일에 1~2번	운동실천율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번 이상
전체		100	26.3	12.4	28.6	32.6	21.5	11.1
성별	남자	100	22.7	12.1	27.6	37.6	23.1	14.5
	여자	100	30.3	12.8	29.8	27.1	19.7	7.3
연령	19세~24세	100	27.7	12.1	27.7	32.6	20.9	11.7
	25세~29세	100	24.0	12.5	29.3	34.2	22.4	11.8
	30세~34세	100	27.3	12.8	29.1	30.8	21.2	9.6
지역1	수도권	100	26.6	12.8	29.0	31.6	22.0	9.6
	비수도권	100	26.0	12.1	28.2	33.7	21.0	12.7
지역2	서울	100	26.2	12.5	30.2	31.1	21.2	10.0
	부산	100	21.4	12.9	30.9	34.8	23.8	11.0
	대구	100	33.4	11.0	24.8	30.8	19.9	10.9
	인천	100	31.0	10.8	25.2	33.0	22.9	10.1
	광주	100	21.2	15.5	27.3	36.0	21.2	14.8
	대전	100	25.3	9.3	34.7	30.6	13.6	17.0
	울산	100	25.0	13.2	22.9	38.8	23.8	15.0
	세종	100	18.5	10.9	36.4	34.2	21.5	12.7
	경기	100	25.9	13.5	29.0	31.7	22.4	9.3
	강원	100	27.0	12.4	28.4	32.2	22.2	10.0
	충북	100	32.2	9.9	26.6	31.3	22.4	8.9
	충남	100	30.0	11.4	26.7	31.9	20.0	11.9
	전북	100	26.0	11.0	26.8	36.2	23.7	12.5
	전남	100	25.6	15.9	27.3	31.3	19.0	12.3
	경북	100	27.4	10.8	24.7	37.1	20.4	16.7
	경남	100	22.9	12.8	30.5	33.7	20.7	13.0
	제주	100	21.8	12.9	28.5	36.8	24.5	12.3
학력	고졸 이하	100	34.4	12.0	25.1	28.4	16.8	11.6
	대학 재학·휴학	100	25.7	11.7	27.5	35.1	22.5	12.6
	대학 졸업 이상	100	24.6	12.8	29.9	32.6	22.3	10.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런데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의 물리적 환경, 지역 내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사회경제적 환경,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정책·제도 등도 매우 중요하며, 이들 각각은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신체활동 증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돼서’, ‘나에게 맞는 운동프로그램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장소’, ‘운동프로그램 부족’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9~24세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5세 이상부터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표 3-3-6〉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평소 운동하지 않는 이유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장소가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100	53.3	3.8	6.3	4.2	1.2	26.4	4.9
성별	남자	100	54.5	2.9	4.8	3.5	1.4	28.8	4.2
	여자	100	52.3	4.5	7.7	4.8	1.0	24.2	5.6
연령	19세-24세	100	39.1	3.8	7.2	5.0	0.9	38.5	5.5
	25세-29세	100	59.8	3.5	6.4	3.4	1.0	21.3	4.6
	30세-34세	100	63.0	4.0	5.2	4.1	1.6	17.6	4.5
지역1	수도권	100	54.7	3.3	6.6	4.2	1.3	24.7	5.3
	비수도권	100	51.7	4.3	5.9	4.1	1.1	28.4	4.5
지역2	서울	100	50.6	2.0	7.6	4.8	1.8	26.2	7.0
	부산	100	53.0	3.1	5.0	3.0	0.5	32.4	3.0
	대구	100	53.6	3.2	7.0	4.6	1.5	26.5	3.4
	인천	100	56.2	2.8	6.6	3.3	2.1	26.6	2.2
	광주	100	36.0	14.5	8.2	7.6	2.2	29.2	2.4
	대전	100	56.7	6.0	2.6	4.8	1.2	28.2	0.5
	울산	100	46.7	2.4	9.3	3.9	1.0	32.4	4.4
	세종	100	52.7	3.7	6.3	2.2	0.9	28.3	6.0
	경기	100	57.4	4.4	5.9	3.9	0.6	23.1	4.7
	강원	100	54.9	3.7	3.5	2.0	2.8	28.1	4.9
	충북	100	57.5	1.8	3.7	3.8	0.4	28.5	4.2
	충남	100	60.1	3.9	4.7	2.3	0.4	21.2	7.4
	전북	100	44.3	6.6	6.7	5.6	0.6	31.4	4.9
	전남	100	45.8	5.9	5.7	2.8	0.5	32.1	7.2
	경북	100	49.3	3.0	10.5	4.7	0.8	25.8	5.9
	경남	100	51.5	1.4	5.1	4.4	1.7	30.4	5.5
	제주	100	60.6	4.7	4.9	6.0	0.7	18.5	4.7
학력	고졸 이하	100	53.5	2.9	5.6	5.1	1.1	29.0	2.9
	대학 재학·휴학	100	35.9	3.4	7.3	5.1	1.4	40.4	6.6
	대학 졸업 이상	100	60.1	4.2	6.1	3.5	1.1	20.1	4.8

n=5,82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라. 영양

청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행태 중의 하나로 청년의 식생활에 주목했다. 외식 및 매식 빈도 문항에서는 청년층의 경우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급식의 경우 소속 영양사 등에 의해 식자재의 신선도나 영양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수 외식이나 배달음식, 포장음식을 포함한 매식만을 설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외식·매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에서 하루 한 번 이상의 외식·매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하루 한 번 이상 외식·매식하는 빈도가 높았다.

〈표 3-3-7〉 외식 또는 매식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외식 또는 매식 빈도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전혀 안했다
전체		100	1.5	5.7	5.5	23.0	59.6	4.6
성별	남자	100	1.6	6.0	6.2	23.4	58.1	4.7
	여자	100	1.5	5.4	4.8	22.6	61.3	4.5
연령	19세~24세	100	1.5	5.0	5.1	23.7	60.6	4.2
	25세~29세	100	1.4	6.3	6.2	22.8	58.3	5.0
	30세~34세	100	1.7	5.9	5.3	22.6	59.8	4.7
지역1	수도권	100	2.0	6.5	6.4	22.5	58.0	4.6
	비수도권	100	1.0	4.9	4.5	23.6	61.4	4.6
지역2	서울	100	2.6	7.0	8.1	24.3	53.1	4.9
	부산	100	1.2	10.5	5.8	28.6	49.3	4.6
	대구	100	1.1	4.6	3.5	23.5	61.3	6.1
	인천	100	1.7	4.5	4.5	21.0	61.2	7.1
	광주	100	0.9	4.8	3.7	17.7	65.7	7.2
	대전	100	1.2	4.7	3.4	21.4	65.7	3.6
	울산	100	1.1	3.9	5.3	16.0	70.0	3.7
	세종	100	1.3	2.9	2.4	19.3	71.1	2.9
	경기	100	1.6	6.4	5.6	21.4	61.0	3.8
	강원	100	1.8	5.1	6.0	25.6	58.7	2.8
	충북	100	0.8	1.6	3.9	29.1	59.9	4.7
	충남	100	0.9	3.3	6.3	22.8	63.8	2.9
	전북	100	0.9	3.2	5.0	26.3	57.4	7.2
	전남	100	0.1	3.6	4.1	21.6	65.4	5.2
	경북	100	1.0	4.2	4.2	21.2	64.8	4.5
	경남	100	0.7	4.2	3.0	23.8	64.7	3.7
	제주	100	2.1	5.8	5.6	23.0	58.7	4.9
학력	고졸 이하	100	1.3	7.1	6.0	21.0	58.3	6.3
	대학 재학·휴학	100	1.6	5.7	5.3	24.4	58.9	4.2
	대학 졸업 이상	100	1.6	5.4	5.5	23.0	60.1	4.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1년 동안 식사할 때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지에 대해 청년들의 20.6%는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자, 19~29세 미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이른 바 ‘혼식’ 비율이 높았다.

〈표 3-3-8〉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대체로 가족과 식사	대체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전체		100	55.2	24.1	20.6
성별	남자	100	52.0	25.8	22.3
	여자	100	58.8	22.3	18.8
연령	19세~24세	100	55.6	23.5	21.0
	25세~29세	100	49.8	28.2	22.0
	30세~34세	100	60.9	20.4	18.8
지역1	수도권	100	52.7	25.0	22.3
	비수도권	100	58.1	23.1	18.8
지역2	서울	100	46.6	26.5	26.9
	부산	100	59.5	25.0	15.5
	대구	100	60.0	20.1	19.9
	인천	100	57.4	21.0	21.6
	광주	100	60.1	23.4	16.5
	대전	100	61.7	14.3	24.0
	울산	100	65.3	20.3	14.4
	세종	100	53.4	16.0	30.6
	경기	100	56.3	24.9	18.8
	강원	100	53.6	28.0	18.4
	충북	100	53.9	24.7	21.4
	충남	100	54.0	27.0	19.0
	전북	100	58.3	24.2	17.5
	전남	100	58.7	23.2	18.1
	경북	100	57.5	20.6	21.8
	경남	100	57.1	25.8	17.1
학력	제주	100	56.3	25.9	17.7
	고졸 이하	100	55.4	23.4	21.2
	대학 재학·휴학	100	55.9	22.8	21.3
	대학 졸업 이상	100	54.9	24.8	20.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 소진

소진은 생산성 저하, 업무 불만족, 이직 등의 직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 근육통, 두통, 만성 피로, 사고 및 조기 사망) 및 정신적(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장애)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엽, 202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상태에 또는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진'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등재하였다(이승엽, 2020).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활동에서 경험한 무한경쟁과 취업 이후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번아웃(소진)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입시, 학업, 스펙 쌓기,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경쟁 유도 사회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해져 과거에 비해 조기에 소진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33.9%)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소진 경험이 9.3%p 더 높게 나타났다고,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25-29세의 소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거주 청년의 소진경험이 7.4%p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휴학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소진경험이 5.5%p 높았다.

〈표 3-3-9〉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예	아니요
전체		100	33.9	66.1
성별	남자	100	29.5	70.5
	여자	100	38.8	61.2
연령	19세~24세	100	32.5	67.5
	25세~29세	100	36.7	63.3
	30세~34세	100	32.4	67.6
지역1	수도권	100	37.4	62.6
	비수도권	100	30.0	70.0
지역2	서울	100	43.2	56.8
	부산	100	24.2	75.8
	대구	100	34.7	65.3
	인천	100	35.8	64.2
	광주	100	22.7	77.3
	대전	100	11.6	88.4
	울산	100	27.3	72.7
	세종	100	33.6	66.4
	경기	100	33.3	66.7
	강원	100	36.1	63.9
	충북	100	22.8	77.2
	충남	100	35.7	64.3
	전북	100	36.2	63.8
	전남	100	32.8	67.2
	경북	100	34.9	65.1
	경남	100	35.7	64.3
	제주	100	44.9	55.1
학력	고졸 이하	100	30.8	69.2
	대학 재학·휴학	100	30.5	69.5
	대학 졸업 이상	100	36.0	64.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의 소진 이유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37.6%),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가 과중해서’(21.1%),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14.0%), ‘현재하고 있는 학업이나 업무와 삶의 불균형 때문에’(12.4%),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 중 소진 경험 청년의 절반 이상(53.3%)이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30~34세 소진 경험 청년은 상대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26.4%), ‘현재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17.1%),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10.8%)의 응답이 높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소진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청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다.

〈표 3-3-10〉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 이유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개가 들어서	현재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기타
전체	100	37.6	21.1	14.0	12.4	4.7	7.3	2.9
성별	남자	100	40.6	20.5	13.2	12.0	5.1	6.5
	여자	100	35.0	21.7	14.7	12.7	4.4	8.0
연령	19세-24세	100	53.3	18.2	11.6	7.2	3.2	3.7
	25세-29세	100	35.4	19.7	15.7	13.4	5.6	7.8
	30세-34세	100	22.0	26.4	14.8	17.1	5.3	10.8
지역1	수도권	100	37.6	20.2	13.6	13.6	4.6	7.3
	비수도권	100	37.5	22.5	14.7	10.6	4.8	7.3
지역2	서울	100	37.7	21.1	14.2	15.3	3.2	6.4
	부산	100	34.1	28.6	16.8	6.3	3.0	9.6
	대구	100	41.6	26.5	9.4	9.0	4.1	7.7
	인천	100	40.5	24.4	11.1	12.0	4.7	5.4
	광주	100	46.2	12.8	20.1	6.3	5.5	6.9
	대전	100	32.6	24.0	22.3	9.3	4.7	5.2
	울산	100	40.6	22.2	17.8	8.9	4.6	5.4
	세종	100	32.1	29.8	11.4	17.3	6.3	1.5
	경기	100	36.9	18.3	13.6	12.4	6.0	8.6
	강원	100	27.2	30.1	13.3	11.8	5.8	6.4
	충북	100	42.9	12.7	13.3	14.1	6.3	5.6
	충남	100	37.8	22.2	12.5	10.6	3.3	10.4
	전북	100	34.3	21.2	15.4	11.3	6.0	8.5
	전남	100	39.5	22.2	16.6	8.6	6.2	5.4
	경북	100	44.1	19.1	13.4	12.5	2.5	7.1
	경남	100	37.0	20.9	13.7	13.0	7.1	6.0
	제주	100	24.7	20.1	23.0	14.8	5.2	9.0
학력	고졸 이하	100	37.7	15.7	14.2	15.5	6.0	8.1
	대학 재학·휴학	100	54.4	19.0	9.5	7.7	3.6	2.5
	대학 졸업 이상	100	32.0	23.0	15.5	13.3	4.8	8.7

n=4,86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 정신건강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1. 9. 28.).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보건복지부, 2021. 7. 26.)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여 우울증상 유병률⁹⁾을 산출하였다. 우울증상이 있는 청년은 전체 6.1%로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유병률이 2.6%p 높았다.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 지역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2.7%p 높았고, 고졸 이하 청년의 유병률이 대학 재학·휴학 청년에 비해 3.4%p 더 높았다.

9) PHQ-9 측정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으로 간주함.

〈표 3-3-11〉 우울증상 유병률

(단위: %)

구분		우울증상 유병률
전체		6.1
성별	남자	4.9
	여자	7.5
연령	19세-24세	5.1
	25세-29세	6.7
	30세-34세	6.6
지역1	수도권	7.4
	비수도권	4.7
지역2	서울	8.2
	부산	3.3
	대구	3.4
	인천	7.6
	광주	3.7
	대전	2.3
	울산	5.8
	세종	5.4
	경기	6.8
	강원	5.8
	충북	3.5
	충남	7.2
	전북	4.2
	전남	7.7
	경북	4.5
	경남	5.4
	제주	9.4
학력	고졸 이하	8.1
	대학 재학·휴학	4.7
	대학 졸업 이상	6.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청년층 자살의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청년층의 불안·우울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조사대상 청년 중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있는 청년은 2.4%로 나타났다.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

〈표 3-3-12〉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구분		비율	(단위: %)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예	아니요
전체		100	2.4	97.6
성별	남자	100	1.8	98.2
	여자	100	3.1	96.9
연령	19세~24세	100	2.4	97.6
	25세~29세	100	2.4	97.6
	30세~34세	100	2.4	97.6
지역1	수도권	100	2.8	97.2
	비수도권	100	1.9	98.1
지역2	서울	100	3.2	96.8
	부산	100	0.7	99.3
	대구	100	1.8	98.2
	인천	100	2.7	97.3
	광주	100	0.7	99.3
	대전	100	0.8	99.2
	울산	100	1.2	98.8
	세종	100	2.0	98.0
	경기	100	2.6	97.4
	강원	100	2.5	97.5
	충북	100	3.1	96.9
	충남	100	3.0	97.0
	전북	100	1.9	98.1
	전남	100	3.2	96.8
	경북	100	3.1	96.9
	경남	100	1.7	98.3
	제주	100	2.5	97.5
학력	고졸 이하	100	3.2	96.8
	대학 재학·휴학	100	2.5	97.5
	대학 졸업 이상	100	2.2	97.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 중독

본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건강수준 파악을 위해 청년의 특징적 건강행태를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청년의 20.2%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경험은 연령별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 19~24세에서는 23.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5~29세에서는 19.9%, 30~34세에서는 16.3%로 낮아졌다. 특히 대학 재학·휴학 중인 집단에서는 네 명 중 한 명 이상(26.2%)이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3-13〉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일(학업 또는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	2.4	17.8	48.7	31.1
성별	남자	100	2.0	16.2	50.1	31.7
	여자	100	2.9	19.5	47.1	30.5
연령	19세-24세	100	2.4	21.5	49.3	26.7
	25세-29세	100	2.7	17.2	48.5	31.6
	30세-34세	100	2.2	14.1	48.0	35.7
지역1	수도권	100	3.3	19.7	46.1	30.9
	비수도권	100	1.5	15.5	51.6	31.4
지역2	서울	100	3.0	22.4	45.3	29.3
	부산	100	1.3	20.7	47.9	30.2
	대구	100	1.5	15.3	42.8	40.4
	인천	100	3.7	18.1	53.5	24.7
	광주	100	1.0	14.3	56.6	28.0
	대전	100	0.8	10.1	56.1	33.0
	울산	100	2.3	16.8	43.0	37.9
	세종	100	1.6	23.2	55.6	19.6
	경기	100	3.4	18.0	45.0	33.5
	강원	100	1.2	16.3	56.7	25.9
	충북	100	0.6	11.0	45.9	42.5
	충남	100	2.0	16.9	54.1	27.0
	전북	100	1.2	16.6	57.8	24.4
	전남	100	2.3	14.9	55.5	27.2
	경북	100	1.8	11.8	52.6	33.9
	경남	100	1.8	15.5	53.4	29.3
	제주	100	2.6	20.2	46.9	30.3
학력	고졸 이하	100	2.3	13.7	50.4	33.6
	대학 재학·휴학	100	2.8	23.4	49.1	24.7
	대학 졸업 이상	100	2.3	16.5	48.1	33.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층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하이닥, 2020. 12. 10.),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실태와 오남용 경험을 조사하여 관련 실태 파악 및 정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수면제 3.8%, 신경안정제 4.3%, 각성제 1.0%로 나타났으며,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최근 1년 내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 59.7%, 67.9%, 59.4%로 나타나 사용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최근에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집단별로는 대체로 여자, 30~34세, 수도권, 고졸 이하 등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12.1%는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혹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오남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약물 오남용 경험이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가장 높게(16.3%)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3-3-14〉 약물 사용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평생	지난 1년간	평생	지난 1년간	평생	지난 1년간
전체		100	3.8	59.7	4.3	67.9	1.0	59.4
성별	남자	100	2.9	56.6	2.7	64.1	0.9	60.4
	여자	100	4.8	61.9	6.1	69.8	1.0	58.4
연령	19세-24세	100	3.3	58.6	3.8	63.4	1.2	57.4
	25세-29세	100	3.8	56.3	4.6	70.9	1.1	56.4
	30세-34세	100	4.5	64.0	4.6	68.6	0.6	69.4
지역1	수도권	100	4.5	64.5	5.3	71.7	1.1	64.9
	비수도권	100	3.1	51.9	3.3	60.9	0.9	52.3
지역2	서울	100	5.0	70.3	7.3	74.4	1.5	83.7
	부산	100	3.3	37.3	3.5	54.2	2.1	39.8
	대구	100	2.9	50.3	3.6	66.6	1.5	88.2
	인천	100	3.1	43.8	2.0	67.7	1.0	37.9
	광주	100	2.2	45.3	1.7	73.6	0.9	39.8
	대전	100	2.8	85.5	2.6	83.7	0.3	25.8
	울산	100	1.6	77.1	2.0	78.6	0.3	16.8
	세종	100	3.1	20.7	2.2	72.5	0.5	67.5
	경기	100	4.3	62.6	4.4	68.6	0.8	45.1
	강원	100	3.8	53.1	4.4	56.5	0.5	78.0
	충북	100	2.6	46.2	2.2	68.2	0.4	47.1
	충남	100	4.7	47.7	4.0	44.6	0.6	28.2
	전북	100	2.5	47.3	3.6	57.9	0.7	88.2
	전남	100	2.2	46.3	3.1	39.9	0.8	10.4
	경북	100	3.7	60.7	4.4	67.0	0.8	71.9
	경남	100	3.0	51.1	2.5	60.7	0.8	34.3
	제주	100	4.3	65.5	5.6	64.3	1.3	73.6
학력	고졸 이하	100	5.9	60.5	5.8	68.7	1.7	67.6
	대학 재학·휴학	100	3.2	69.6	4.1	67.9	1.1	70.0
	대학 졸업 이상	100	3.5	56.0	4.0	67.6	0.8	48.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약물 사용 경험이 지난 1년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물 사용 경험이 평생 동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지난 1년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3-15〉 약물 오·남용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약물 오·남용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	12.1	87.9
성별	남자	100	12.2	87.8
	여자	100	12.1	87.9
연령	19세-24세	100	13.0	87.0
	25세-29세	100	11.4	88.6
	30세-34세	100	12.0	88.0
지역1	수도권	100	12.2	87.8
	비수도권	100	12.1	87.9
학력	고졸 이하	100	11.2	88.8
	대학 재학·휴학	100	16.3	83.7
	대학 졸업 이상	100	10.9	89.1

n=81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아. 주관적 건강

‘주관적인 건강 인식’은 개인의 건강수준 측정을 위해 각종 설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본 조사에서 평소 본인의 건강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평가한 청년은 전체 54.5%로 나타났다. 인구집단별로는 여자(49.9%)보다는 남자(58.7%), 연령이 낮을수록(19~24세 59.1%)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6〉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단위: %)

구분		주관적 건강 인식 좋은 사람	비율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체		54.5	100	10.6	43.9	38.4	6.6	0.5
성별	남자	58.7	100	13.2	45.5	35.5	5.4	0.4
	여자	49.9	100	7.7	42.1	41.7	7.9	0.5
연령	19세~24세	59.1	100	12.5	46.6	34.4	6.1	0.4
	25세~29세	54.7	100	10.7	44.0	38.2	6.7	0.5
	30세~34세	49.0	100	8.4	40.6	43.4	7.0	0.6
지역1	수도권	52.7	100	9.1	43.6	39.4	7.3	0.6
	비수도권	56.5	100	12.3	44.2	37.3	5.8	0.4
지역2	서울	52.1	100	7.4	44.7	39.3	8.1	0.4
	부산	61.1	100	7.8	53.3	33.4	5.2	0.3
	대구	60.8	100	14.8	45.9	33.8	4.8	0.6
	인천	52.5	100	12.4	40.1	40.1	6.6	0.8
	광주	55.0	100	12.8	42.3	39.3	5.5	0.2
	대전	78.0	100	29.1	48.9	19.2	2.7	0.1
	울산	57.1	100	12.0	45.1	37.3	5.6	0.0
	세종	45.5	100	3.3	42.2	47.2	7.0	0.4
	경기	53.3	100	9.7	43.5	39.3	6.9	0.6
	강원	54.4	100	19.8	34.6	38.7	6.2	0.7
	충북	61.0	100	11.7	49.4	34.5	4.1	0.5
	충남	54.3	100	10.0	44.3	37.6	7.6	0.5
	전북	43.7	100	7.6	36.1	48.1	7.8	0.4
	전남	41.8	100	12.3	29.5	51.0	6.7	0.6
	경북	50.3	100	6.6	43.7	42.5	7.0	0.2
	경남	57.1	100	11.5	45.6	38.0	4.5	0.4
	제주	42.9	100	6.1	36.8	43.6	13.1	0.3
학력	고졸 이하	46.5	100	9.7	36.8	43.4	9.3	0.8
	대학 재학·휴학	62.3	100	13.3	49.0	32.1	5.3	0.4
	대학 졸업 이상	53.4	100	9.8	43.6	39.7	6.4	0.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자. 미충족 의료 경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 7. 26.)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경우 불안과 우울 증가로 인한 정신상담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청년의 5.6%가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다.

〈표 3-3-17〉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단위: %)

구분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전체		5.6
성별	남자	3.0
	여자	8.3
연령	19세-24세	5.7
	25세-29세	4.9
	30세-34세	6.3
지역1	수도권	6.7
	비수도권	4.4
지역2	서울	8.4
	부산	2.5
	대구	4.6
	인천	6.0
	광주	2.7
	대전	1.5
	울산	4.3
	세종	6.4
	경기	5.7
	강원	6.1
	충북	6.3
	충남	5.8
	전북	6.1
	전남	4.3
	경북	4.6
	경남	3.5
	제주	8.2
학력	고졸 이하	6.3
	대학 재학·휴학	5.5
	대학 졸업 이상	5.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에 있는 사람 수) /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던 사람 수(③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적 없었다는 제외)) × 100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돼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20.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18.9%),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31.2%)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여자의 경우 ‘상담 비용’이 미충족의료의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8〉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단위: %)

구분	비율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정신건강)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주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혼자 가기 어려워서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	상담 받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주위의 시선이나 반대 때문에	기타
전체	100	15.6	3.4	4.1	27.5	20.0	18.9	3.8	6.7
성별	남자	100	10.6	4.8	3.2	23.9	15.2	31.2	5.3
	여자	100	17.5	2.9	4.4	28.9	21.8	14.2	3.3
연령	19세-24세	100	15.7	1.8	4.4	27.8	15.7	15.6	7.2
	25세-29세	100	13.7	5.4	3.2	29.6	21.2	19.4	3.6
	30세-34세	100	17.1	3.4	4.4	25.6	23.4	21.7	0.6
지역 ¹⁾	수도권	100	16.0	1.0	2.7	30.2	21.6	17.9	4.0
	비수도권	100	15.0	7.4	6.3	23.1	17.3	20.4	3.6
학력	고졸 이하	100	15.7	5.0	7.5	28.4	14.4	14.5	3.1
	대학 재학·휴학	100	15.9	1.2	3.9	22.8	17.0	22.6	8.0
	대학 졸업 이상	100	15.4	3.8	3.1	29.1	22.8	18.6	2.5

n=42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기존 조사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 문항은 미충족 의료의 원인을 주로 개인의 여건(예, 시간의 부족, 경제적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의료 미충족은 개인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제도와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를 물을 때에도 의료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어려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정신건강을 제외한 건강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청년은 4.5%로 나타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미충족 의료 경험(6.7%)보다는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34 집단에서, 고졸 이하(6.1%) 집단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았다.

〈표 3-3-19〉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구분		(단위: %)
전체		미충족 의료 경험(정신건강 제외)
성별	남자	4.5
	여자	3.2
연령	19세-24세	5.9
	25세-29세	4.0
	30세-34세	4.2
지역1	수도권	5.5
	비수도권	4.6
지역2	서울	4.5
	부산	4.3
	대구	5.0
	인천	3.1
	광주	2.8
	대전	1.9
	울산	3.1
	세종	2.2
	경기	5.0
	강원	5.4
	충북	4.2
	충남	5.4
	전북	7.5
	전남	4.7
	경북	3.3
	경남	4.8
	제주	5.9
학력	고졸 이하	6.1
	대학 재학·휴학	3.7
	대학 졸업 이상	4.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건강상 이유(정신건강 제외)로 병원 진료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 수) / 최근 1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던 사람 수(③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제외)

*100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미충족 경험 이유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58.1%로 가장 높았고, ‘의료비가 걱정되어서’ 의료기관 방문을 미룬 청년도 23.7%나 되었다. 그 외에도,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서’(7.6%),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4.5%),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3.6%)와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애로 제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15.7%로 나타났다.

〈표 3-3-20〉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원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건강상의 이유로(정신건강 제외) 병원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근처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혼자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워서	의료비가 걱정되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기타
전체		100	7.6	4.5	3.6	23.7	58.1	2.5
성별	남자	100	8.8	6.1	2.4	28.5	53.4	0.8
	여자	100	6.9	3.7	4.3	20.9	60.8	3.5
연령	19세~24세	100	6.4	4.2	4.3	30.7	48.8	5.6
	25세~29세	100	6.0	2.8	2.8	19.2	68.4	0.8
	30세~34세	100	9.9	6.3	3.7	21.6	57.2	1.3
지역1	수도권	100	6.8	2.6	3.8	31.4	53.2	2.2
	비수도권	100	8.4	6.5	3.3	15.9	63.0	2.8
학력	고졸 이하	100	2.8	7.4	3.1	23.3	58.5	4.9
	대학 재학·휴학	100	5.8	4.1	7.2	40.8	37.8	4.3
	대학 졸업 이상	100	9.8	3.7	2.6	18.3	64.5	1.1

n=45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청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질병 발생이 적어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일 수 있으나 청년기의 건강은 이후 성인기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년기에 건강 상태가 나빴거나 만성질환을 경험할 경우 성인기 학

업성취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습득된 건강 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년 건강정책은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모든 청년이 자신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기 건강정책은 공정한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한 ‘건강 잠재력 확보’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년층이나 노인층은 건강생활습관이 고착화되고 건강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또한 이미 결정되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중재개입의 효과가 크지 않지만, 청년층의 경우 건강행태 등이 완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건강한 행태의 교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개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생애주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는 청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의 질병부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과 추이 파악을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건강위험요인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건강위험요인 또한 함께 조사되었다. 먼저, 현재 흡연하는 청년(20.1%) 중 쥘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6.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1.3%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하자는 사람도 6.4%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은 세 명 중 한 명(32.6%)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 여자의 경우 운동을 전혀하지 않는 비율보다(30.3%)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더 낮게(27.1%) 나타났다. 청년 중 12.7%는 주중에 적어도 하루에 한번 씩은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섯 명 중에 한 명(20.6%)은 매끼니 마다 ‘혼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서 경험한 무한경쟁과 취업 이후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조기에 번아웃(소진) 경험을 호소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 고갈,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나 업무 능률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청년 세 명중 한 명 이상(33.9%)은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혹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나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소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소진,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 청년 다섯 명 중의 한 명(20.2%)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사용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 12.1%는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혹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오남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과 약물오남용 경험은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중재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의료필요를 인식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5.6%, 신체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4.5%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로는 ‘상담비용이 부담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수준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 시기는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평균’만으로 청년의 건강수준을 판단하거나 혹은 모든 청년은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전제가 되면 이면에 가려진 청년 건강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 측면에서 청년 건강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삶 실태조사’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회계층 간 건강격차(social gradient)가 발생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청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불균등한 분포 찾아내어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는 것 또한 본 조사의 목적이자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청년기의 높은 자살률과 우울의 문제는 그 동안 청년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 해 왔으나 우울, 자살 이외 다른 건강영역에서의 문제점이나 이슈발굴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살펴 청년의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우울, 자살 외에 청년 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청년 건강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1. 분석 결과

(1)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도움 경험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상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청년이 48.2%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후배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청년이 43.6%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다. 뒤를 이어 부모님이나 친인척(38.9%), 사설 기관(33.5%),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32.7%)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21.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도움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대상별로 도움의 정도를 묻은 결과에 따르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도움이 취업 준비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응답(“약간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의 도움이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54.9%)이 두 번째로 높았고, 사설 기관(51.1%),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50.6%)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청년이 경험한 학교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9.5%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도움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쳐 다른 경로에 비해 크게 낮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도움 경험을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 준비 도움 경험은 모든 제공 주체에서 대졸 이상 청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제공 주체별로 두 집단의 도움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는 39.5%(고졸 이하)와 51.4%(대졸 이상), 공공기관은 21.9%(고졸 이하)와 23.3%(대졸 이상), 사설 기관은 31.4%(고졸 이하)와 36.8%(대졸 이상), 부모님이나 친인척은 35.4%(고졸 이하)와 40.5%(대졸 이상), 친구나 선후배는 38.4%(고졸 이하)와 46.8%(대졸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의 경우는 24.9%(고졸 이하)와 35.4%(대졸 이상)였다.

〈표 3-4-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학교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학교(상담 교사, 교사, 지도 교수 등)]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48.2	6.9	12.8	30.8	36.5	13.0	51.8
성별	남자	100	45.6	8.0	11.8	31.3	35.4	13.5	54.4
	여자	100	51.2	5.9	13.8	30.2	37.6	12.5	48.8
연령	19세~24세	100	48.4	5.0	11.8	29.6	39.4	14.3	51.6
	25세~29세	100	49.4	7.6	13.7	31.8	34.9	12.0	50.6
	30세~34세	100	46.7	8.5	12.8	30.9	35.0	12.6	53.3
지역1	수도권	100	46.9	7.3	14.0	32.0	34.4	12.2	53.1
	비수도권	100	49.7	6.5	11.5	29.4	38.7	13.8	50.3
지역2	서울	100	48.1	6.2	12.7	30.8	35.7	14.7	51.9
	부산	100	59.5	3.0	9.9	30.9	38.9	17.3	40.5
	대구	100	48.5	5.4	9.0	26.4	46.5	12.7	51.5
	인천	100	38.7	3.0	14.2	30.8	39.5	12.6	61.3
	광주	100	47.5	6.6	8.3	21.6	53.1	10.4	52.5
	대전	100	34.4	3.9	10.1	18.6	41.3	26.1	65.6
	울산	100	38.2	7.9	16.7	32.5	29.1	13.8	61.8
	세종	100	58.9	4.9	6.4	13.2	58.0	17.5	41.1
	경기	100	47.8	9.0	15.1	33.2	32.6	10.2	52.2
	강원	100	48.1	5.4	15.7	33.4	30.8	14.7	51.9
	충북	100	37.2	8.0	9.9	38.7	30.0	13.4	62.8
	충남	100	49.6	11.7	12.8	29.7	30.0	15.7	50.4
	전북	100	47.7	6.3	11.5	31.2	40.8	10.2	52.3
	전남	100	57.5	7.2	11.9	30.1	37.2	13.5	42.5
	경북	100	59.4	4.7	10.7	29.8	44.7	10.1	40.6
	경남	100	52.2	10.1	15.5	32.0	32.5	10.0	47.8
	제주	100	52.4	11.6	12.3	33.9	30.1	12.1	47.6
학력	고졸 이하	100	39.5	11.2	15.8	32.1	28.9	11.9	60.5
	대학 재학·휴학	100	45.4	4.5	10.7	29.4	41.5	13.9	54.6
	대학 졸업 이상	100	51.4	7.0	13.0	31.0	36.2	12.9	48.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공공기관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공공기관(고용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21.0	17.4	18.7	34.5	21.7	7.8	79.0
성별	남자	100	20.2	19.2	17.7	35.1	20.4	7.6	79.8
	여자	100	21.9	15.5	19.6	33.9	23.0	8.0	78.1
연령	19세~24세	100	16.8	15.6	17.1	35.0	24.8	7.4	83.2
	25세~29세	100	23.8	17.7	17.9	35.6	20.7	8.1	76.2
	30세~34세	100	22.7	18.5	20.9	32.7	20.0	7.8	77.3
지역1	수도권	100	22.7	18.4	18.3	33.2	22.0	8.1	77.3
	비수도권	100	19.1	16.0	19.1	36.2	21.3	7.4	80.9
지역2	서울	100	21.4	16.5	17.6	35.2	19.1	11.5	78.6
	부산	100	17.9	7.3	15.5	39.4	25.1	12.7	82.1
	대구	100	15.1	18.9	18.7	37.9	20.7	3.8	84.9
	인천	100	17.2	13.9	14.9	38.6	22.2	10.4	82.8
	광주	100	16.2	16.2	17.3	35.9	21.8	8.8	83.8
	대전	100	11.8	13.0	22.3	35.1	26.0	3.7	88.2
	울산	100	18.5	12.7	15.1	49.4	11.4	11.4	81.5
	세종	100	19.2	19.6	20.2	16.7	32.2	11.2	80.8
	경기	100	24.9	20.3	19.3	31.0	23.8	5.5	75.1
	강원	100	21.9	12.8	26.3	35.8	20.4	4.7	78.1
	충북	100	14.9	17.7	11.9	42.3	22.2	5.8	85.1
	충남	100	18.1	28.4	17.8	30.4	16.7	6.6	81.9
	전북	100	20.3	11.8	16.6	35.9	25.7	10.0	79.7
	전남	100	24.0	20.9	14.6	35.2	24.9	4.5	76.0
	경북	100	21.1	15.4	27.0	38.7	13.2	5.7	78.9
	경남	100	27.4	18.5	21.6	30.5	22.9	6.5	72.6
	제주	100	25.2	12.6	15.2	44.8	16.7	10.6	74.8
학력	고졸 이하	100	21.9	18.3	17.2	39.3	18.3	6.9	78.1
	대학 재학·휴학	100	14.6	19.1	15.0	36.7	22.1	7.2	85.4
	대학 졸업 이상	100	23.3	16.8	19.9	32.9	22.3	8.1	76.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3〉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사설 기관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사설 기관(사설 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33.5	6.7	9.6	32.6	38.1	13.0	66.5
성별	남자	100	31.0	8.8	10.4	32.3	37.3	11.2	69.0
	여자	100	36.3	4.8	8.9	32.9	38.8	14.6	63.7
연령	19세-24세	100	29.0	5.4	7.9	32.4	41.4	12.8	71.0
	25세-29세	100	36.4	7.6	10.3	32.4	37.2	12.5	63.6
	30세-34세	100	35.5	7.0	10.5	33.0	35.9	13.6	64.5
지역1	수도권	100	35.2	7.1	9.7	32.1	37.3	13.7	64.8
	비수도권	100	31.7	6.2	9.5	33.3	39.0	12.0	68.3
지역2	서울	100	36.3	5.3	8.0	34.0	37.2	15.4	63.7
	부산	100	32.5	1.8	10.0	30.7	46.9	10.6	67.5
	대구	100	23.9	7.0	7.0	38.6	33.7	13.7	76.1
	인천	100	25.8	3.0	9.0	38.7	30.1	19.1	74.2
	광주	100	30.5	7.6	6.6	38.7	34.9	12.2	69.5
	대전	100	18.9	4.6	10.5	34.3	39.5	11.1	81.1
	울산	100	32.4	4.1	12.6	39.8	32.5	11.0	67.6
	세종	100	27.4	1.8	7.4	22.1	52.6	16.1	72.6
	경기	100	36.3	9.1	11.2	29.5	38.6	11.6	63.7
	강원	100	33.9	5.8	14.8	31.5	34.4	13.5	66.1
	충북	100	46.4	6.0	6.5	18.8	55.3	13.4	53.6
	충남	100	26.5	10.5	9.9	31.8	30.8	17.0	73.5
	전북	100	33.8	3.6	8.3	30.1	47.8	10.1	66.2
	전남	100	39.2	6.0	7.9	37.9	33.7	14.5	60.8
	경북	100	29.4	3.9	15.8	43.3	25.9	11.1	70.6
	경남	100	37.1	12.1	7.4	34.4	37.1	9.1	62.9
	제주	100	38.1	8.3	11.9	35.0	34.9	9.9	61.9
학력	고졸 이하	100	31.4	8.3	8.2	35.1	37.4	11.0	68.6
	대학 재학·휴학	100	26.3	5.7	8.4	31.5	42.9	11.6	73.7
	대학 졸업 이상	100	36.8	6.7	10.3	32.4	36.9	13.7	63.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4〉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부모님이나 친인척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부모님이나 친인척]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38.9	4.4	8.0	32.6	38.4	16.5	61.1
성별	남자	100	40.1	4.6	8.4	31.9	37.7	17.5	59.9
	여자	100	37.7	4.2	7.6	33.5	39.2	15.4	62.3
연령	19세~24세	100	38.3	3.0	6.3	32.9	39.9	17.9	61.7
	25세~29세	100	41.1	5.5	9.0	31.6	38.9	15.0	58.9
	30세~34세	100	37.3	4.8	8.8	33.6	36.0	16.8	62.7
지역1	수도권	100	37.5	5.5	9.0	34.6	36.5	14.4	62.5
	비수도권	100	40.6	3.3	7.0	30.6	40.3	18.8	59.4
지역2	서울	100	36.8	5.1	8.2	33.2	37.3	16.3	63.2
	부산	100	39.5	0.4	5.1	27.5	52.5	14.4	60.5
	대구	100	32.5	4.9	4.7	28.7	43.1	18.6	67.5
	인천	100	23.7	3.2	8.6	37.1	33.1	18.0	76.3
	광주	100	39.9	6.3	6.2	23.7	50.2	13.5	60.1
	대전	100	33.1	2.1	5.6	19.9	35.2	37.2	66.9
	울산	100	38.7	4.7	9.1	33.1	34.3	18.7	61.3
	세종	100	47.5	1.2	5.0	14.9	61.0	17.9	52.5
	경기	100	41.1	6.1	9.6	35.3	36.5	12.6	58.9
	강원	100	40.4	2.8	12.3	38.9	31.0	15.1	59.6
	충북	100	35.1	5.0	4.9	34.7	36.3	19.0	64.9
	충남	100	39.4	6.9	5.8	39.3	28.5	19.5	60.6
	전북	100	43.1	2.1	7.8	28.1	39.1	22.9	56.9
	전남	100	51.3	1.5	9.4	31.8	38.8	18.5	48.7
	경북	100	51.0	1.3	7.8	33.8	43.3	13.9	49.0
	경남	100	42.0	5.0	6.6	32.0	36.5	19.9	58.0
	제주	100	49.9	3.4	12.6	31.8	32.6	19.6	50.1
학력	고졸 이하	100	35.4	5.8	9.9	34.7	31.4	18.1	64.6
	대학 재학·휴학	100	37.2	2.9	5.9	31.5	42.5	17.1	62.8
	대학 졸업 이상	100	40.5	4.7	8.4	32.6	38.4	16.0	59.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5〉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친구, 선후배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친구, 선후배]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43.6	3.2	6.1	32.2	44.3	14.3	56.4
성별	남자	100	44.2	3.5	5.9	31.7	44.4	14.4	55.8
	여자	100	42.9	2.8	6.2	32.7	44.2	14.0	57.1
연령	19세~24세	100	40.3	1.7	4.9	32.4	46.5	14.5	59.7
	25세~29세	100	46.2	4.3	6.3	32.2	43.7	13.6	53.8
	30세~34세	100	44.4	3.6	7.0	31.9	42.8	14.7	55.6
지역1	수도권	100	44.3	3.8	6.5	32.3	43.0	14.5	55.7
	비수도권	100	42.8	2.5	5.5	32.1	45.9	14.0	57.2
지역2	서울	100	43.9	3.0	5.2	31.9	44.0	15.8	56.1
	부산	100	42.9	0.2	5.7	29.8	50.6	13.7	57.1
	대구	100	38.0	2.7	2.6	34.4	47.5	12.8	62.0
	인천	100	30.1	1.7	6.2	30.0	48.9	13.1	69.9
	광주	100	46.1	3.6	6.5	29.4	50.0	10.5	53.9
	대전	100	32.1	0.4	4.1	25.0	44.3	26.2	67.9
	울산	100	40.8	0.7	8.3	32.5	41.7	16.9	59.2
	세종	100	46.6	3.8	2.9	17.5	64.9	10.9	53.4
	경기	100	47.8	4.6	7.4	32.8	41.4	13.7	52.2
	강원	100	46.1	2.3	6.5	33.4	45.9	11.9	53.9
	충북	100	40.1	3.7	4.2	33.4	45.6	13.2	59.9
	충남	100	37.8	4.7	6.4	36.6	36.5	15.9	62.2
	전북	100	49.7	2.0	3.9	26.8	49.6	17.8	50.3
	전남	100	53.1	1.8	6.8	35.1	42.5	13.7	46.9
	경북	100	45.7	1.4	8.1	35.0	45.9	9.6	54.3
	경남	100	44.1	5.8	5.5	33.6	42.0	13.1	55.9
	제주	100	46.3	2.8	4.7	40.0	43.4	9.2	53.7
학력	고졸 이하	100	38.4	5.0	8.3	35.2	35.8	15.7	61.6
	대학 재학·휴학	100	38.4	1.6	4.9	32.6	47.4	13.5	61.6
	대학 졸업 이상	100	46.8	3.4	6.0	31.4	45.0	14.2	53.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6〉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도움이 되는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100	32.7	6.1	8.1	35.2	40.3	10.3	67.3
성별	남자	100	31.3	7.7	9.3	35.5	37.9	9.8	68.7
	여자	100	34.3	4.5	6.9	35.0	42.7	10.9	65.7
연령	19세~24세	100	31.8	3.8	5.9	35.2	44.2	11.0	68.2
	25세~29세	100	35.3	7.0	8.7	35.4	38.4	10.5	64.7
	30세~34세	100	30.8	7.7	10.0	35.0	38.0	9.3	69.2
지역1	수도권	100	35.6	6.1	8.0	34.6	40.4	10.9	64.4
	비수도권	100	29.4	6.0	8.3	36.1	40.1	9.5	70.6
지역2	서울	100	38.2	5.1	6.3	34.7	42.2	11.7	61.8
	부산	100	24.8	2.2	9.1	31.7	49.1	8.0	75.2
	대구	100	25.0	6.4	3.9	42.4	39.6	7.7	75.0
	인천	100	24.0	3.6	4.6	36.5	43.3	12.0	76.0
	광주	100	31.4	9.9	5.1	29.1	47.4	8.6	68.6
	대전	100	20.0	5.5	5.5	43.2	35.6	10.1	80.0
	울산	100	37.0	4.6	7.9	36.9	40.3	10.3	63.0
	세종	100	35.0	2.4	5.5	27.9	57.2	7.1	65.0
	경기	100	36.1	7.4	9.8	34.2	38.5	10.1	63.9
	강원	100	35.8	4.6	11.8	37.3	36.7	9.6	64.2
	충북	100	25.0	5.2	6.9	32.4	44.0	11.5	75.0
	충남	100	28.2	8.4	8.0	34.7	36.5	12.4	71.8
	전북	100	34.7	4.6	4.7	40.3	42.6	7.8	65.3
	전남	100	36.3	6.9	7.1	38.4	36.9	10.6	63.7
	경북	100	26.2	4.7	15.5	39.2	31.7	8.9	73.8
	경남	100	36.4	7.6	10.0	34.6	37.8	9.9	63.6
	제주	100	33.9	12.9	12.8	33.6	29.8	10.9	66.1
학력	고졸 이하	100	24.9	11.4	9.2	42.1	29.2	8.1	75.1
	대학 재학·휴학	100	30.4	3.5	7.0	32.0	47.0	10.5	69.6
	대학 졸업 이상	100	35.4	6.1	8.3	35.2	39.9	10.6	64.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자기계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48.27%이며, 이들은 평균 21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를 지출하는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쓰는 돈은 21.4만원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위값은 15만원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의 평균 지출액은 2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25~29세의 평균 지출액이 22.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자기계발비 월 지출 규모는 각각 22.7만원과 19.7만원으로 집계되어 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학력 측면에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자기계발비 지출액이 평균 22.7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컸고, 대졸 이상 청년(21.4만원)과 대학 재학·휴학 청년(20.7만원) 순이었다.

〈표 3-4-7〉 한 달 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액

구분		평균	(단위: 만원) 중위
전체		21.4	15.0
성별	남자	21.8	15.0
	여자	21.0	15.0
연령	19세-24세	21.3	15.0
	25세-29세	22.6	20.0
	30세-34세	20.0	13.0
지역1	수도권	22.7	15.0
	비수도권	19.7	15.0
지역2	서울	23.4	15.0
	부산	20.3	15.0
	대구	18.6	10.0
	인천	22.4	20.0
	광주	19.1	10.0
	대전	17.5	20.0
	울산	20.2	15.0
	세종	19.7	10.0
	경기	22.2	15.0
	강원	19.8	15.0
	충북	15.8	10.0
	충남	23.4	20.0
	전북	18.8	15.0
	전남	20.2	15.0
	경북	17.8	10.0
	경남	21.2	20.0
	제주	26.5	17.0
학력	고졸 이하	22.7	15.0
	대학 재학·휴학	20.7	15.0
	대학 졸업 이상	21.4	15.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자기계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기계발비의 평균과 중위값임.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대학 미진학자의 교육·훈련 선호 분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들 가운데 36.3%는 직업 훈련을 받고 싶어 했지만, 36.9%는 받고 싶은 교육이나 훈련이 없다고 응답했다. 창업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은 16.6%, 어학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은 7.4%로 나타났다.

남성은 직업 훈련을 원하는 비율이 39.4%로 여성(31.4%)보다 높았고, 여성은 창업 교육에 대한 선호가 20.4%로 나타나 남성(14.2%)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교육·훈련 선호 분야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19~24세 청년의 경우, 받고 싶은 교육·훈련이 없다는 의견이 31.2%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고, 직업 훈련에 대한 선호는 40.7%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창업 교육은 13.2%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지만, 어학 교육에 대한 선호는 10.8%로 가장 높았다. 5~29세 청년들은 받고 싶은 교육·훈련이 없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높았고, 직업 훈련과 창업 교육은 각각 37.8%와 15.1%로 나타났다. 30~34세 청년들도 직업 훈련을 원한다는 의견이 30.0%로 가장 높았지만, 창업 교육에 대한 선호도 21.8%에 달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3-4-8〉 (고졸 이하)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단위: %)

구분		비율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받고 싶지 않음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창업 교육	어학	교양	기타	
전체		100	36.3	16.6	7.4	2.0	0.8	36.9
성별	남자	100	39.4	14.2	6.5	2.0	0.8	37.2
	여자	100	31.4	20.4	8.7	2.1	0.9	36.5
연령	만19세-24세	100	40.7	13.2	10.8	3.0	1.1	31.2
	만25세-29세	100	37.8	15.1	5.0	1.1	0.4	40.6
	만30세-34세	100	30.0	21.8	6.9	2.2	1.0	38.0
지역1	수도권	100	36.2	18.1	8.5	1.8	0.5	35.0
	비수도권	100	36.4	15.0	6.2	2.2	1.2	39.0
지역2	서울	100	39.6	11.3	11.7	2.6	0.4	34.4
	부산	100	20.0	19.8	6.9	1.9	1.0	50.4
	대구	100	37.5	17.1	5.5	0.0	0.0	40.0
	인천	100	39.6	14.5	11.2	1.3	1.7	31.7
	광주	100	32.2	8.8	7.8	0.0	0.0	51.1
	대전	100	37.4	15.4	5.0	5.8	0.8	35.6
	울산	100	34.9	12.8	6.9	3.5	0.0	41.9
	세종	100	38.8	18.9	8.6	4.7	6.0	22.9
	경기	100	33.3	22.9	5.9	1.5	0.2	36.1
	강원	100	32.5	16.8	3.4	0.0	0.0	47.3
	충북	100	28.5	14.2	3.6	1.3	0.6	51.6
	충남	100	46.2	11.4	7.1	1.4	4.3	29.5
	전북	100	26.9	21.4	7.4	7.2	0.0	37.2
	전남	100	50.1	15.6	10.6	2.4	0.0	21.3
	경북	100	57.7	14.5	5.7	3.0	0.0	19.2
	경남	100	31.1	11.5	4.6	2.0	3.8	46.9
	제주	100	35.2	14.5	5.7	5.7	3.5	35.4

n=2,084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대학 진학자의 취업 준비 경험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전혀 도움이 안된다”와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는 응답)은 17.0%인 반면, 긍정적인 응답(“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7.1%였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19~24세 청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 11.0%, 긍정적인 응답 64.0%였지만,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늘어 25~29세와 30~34세 청년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각각 19.3%와 21.6%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재학·휴학 상태의 청년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 사이에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졸업자들 가운데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들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은 10.7%, 긍정적인 의견은 64.9%였지만, 대학 졸업자 가운데 부정적인 응답은 19.5%, 긍정적인 응답은 54.1%로 집계되었다.

〈표 3-4-9〉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100	4.4	12.6	25.8	33.3	23.8
성별	남자	100	5.2	13.8	25.5	33.0	22.5
	여자	100	3.6	11.3	26.2	33.7	25.3
연령	만19세~24세	100	2.1	8.9	24.9	37.6	26.4
	만25세~29세	100	5.3	14.0	26.6	31.6	22.5
	만30세~34세	100	6.3	15.3	26.0	30.2	22.2
지역1	수도권	100	4.3	13.4	26.2	32.8	23.3
	비수도권	100	4.6	11.7	25.4	33.9	24.4
지역2	서울	100	4.7	14.9	26.1	31.9	22.3
	부산	100	3.7	13.3	22.9	35.6	24.6
	대구	100	4.2	10.2	25.0	37.7	22.9
	인천	100	6.0	11.6	25.9	32.3	24.3
	광주	100	2.7	12.8	26.8	32.9	24.9
	대전	100	1.1	5.3	25.0	36.3	32.3
	울산	100	4.0	12.0	30.6	31.4	22.0
	세종	100	2.4	6.0	22.1	39.1	30.4
	경기	100	3.6	12.5	26.3	33.6	24.0
	강원	100	6.5	14.6	20.3	35.0	23.7
	충북	100	4.2	13.1	30.2	30.1	22.4
	충남	100	7.5	11.5	27.0	27.5	26.5
	전북	100	5.2	11.5	24.2	31.7	27.4
	전남	100	4.1	11.8	30.3	33.7	20.1
	경북	100	6.1	12.5	26.4	32.6	22.4
	경남	100	6.1	12.7	23.5	35.9	21.7
	제주	100	5.6	14.5	27.3	32.8	19.8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	1.9	8.8	24.4	38.0	26.9
	(전문)대졸 졸업 이상	100	5.4	14.1	26.4	31.5	22.6

n=12,88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 중 32.4%는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9.2%, 여성이 35.7%로 나타나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24세는 25.9%로 가장 낮아 그 차이는 11.4%p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33.5%, 비수도권은 31.1%로 수도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 빈도가 높았다.

〈표 3-4-10〉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취업 목적의 사교육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	32.4	67.6
성별	남자	100	29.2	70.8
	여자	100	35.7	64.3
연령	만19세-24세	100	25.9	74.1
	만25세-29세	100	37.3	62.7
	만30세-34세	100	34.6	65.4
지역1	수도권	100	33.5	66.5
	비수도권	100	31.1	68.9
지역2	서울	100	36.0	64.0
	부산	100	37.0	63.0
	대구	100	29.5	70.5
	인천	100	22.9	77.1
	광주	100	29.2	70.8
	대전	100	27.4	72.6
	울산	100	33.6	66.4
	세종	100	31.5	68.5
	경기	100	33.8	66.2
	강원	100	31.1	68.9
	충북	100	28.6	71.4
	충남	100	25.5	74.5
	전북	100	38.0	62.0
	전남	100	30.8	69.2
	경북	100	30.1	69.9
	경남	100	30.5	69.5
	제주	100	29.6	70.4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	24.8	75.2
	(전문)대졸 졸업 이상	100	35.3	64.7

n=12,88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 사교육 경험자의 71.2%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특히 19~24세 청년들 가운데 77.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25~29세(69.7%)와 30~34세(67.7%) 보다 긍정적인 의견 비율이 높았다.

〈표 3-4-11〉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100	0.9	5.4	22.5	44.2	27.0
성별	남자	100	0.7	4.9	22.9	43.7	27.7
	여자	100	1.1	5.8	22.1	44.6	26.4
연령	만19세~24세	100	0.4	3.6	18.9	47.4	29.7
	만25세~29세	100	1.0	6.3	22.9	43.0	26.7
	만30세~34세	100	1.2	6.0	25.1	42.7	25.0
지역1	수도권	100	1.1	5.0	22.3	42.7	28.8
	비수도권	100	0.6	5.9	22.6	46.0	24.9
지역2	서울	100	0.8	6.2	21.5	39.8	31.7
	부산	100	0.4	2.7	22.1	54.5	20.2
	대구	100	0.0	6.9	24.9	41.0	27.2
	인천	100	2.9	4.1	15.9	54.0	23.2
	광주	100	0.8	8.5	25.9	44.4	20.5
	대전	100	0.7	5.5	23.3	49.5	21.1
	울산	100	4.2	4.7	22.9	44.7	23.5
	세종	100	1.4	2.9	8.8	52.4	34.6
	경기	100	1.2	4.2	24.0	43.5	27.1
	강원	100	0.3	6.7	20.2	43.3	29.5
	충북	100	0.3	12.3	28.1	36.7	22.5
	충남	100	0.3	7.7	23.5	39.4	29.2
	전북	100	0.4	1.9	13.5	51.1	33.1
	전남	100	0.3	6.7	18.7	47.1	27.2
	경북	100	0.0	5.1	29.7	42.8	22.4
	경남	100	1.3	6.7	22.1	46.0	23.9
	제주	100	0.8	10.5	22.3	37.5	28.9
학력	(전문)대학 재학·휴학	100	0.6	3.1	18.9	48.7	28.7
	(전문)대졸 졸업 이상	100	1.0	6.0	23.4	43.0	26.6

n=3,86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받은 경험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청년은 21.0%로 나타나 다른 경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청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한 도움보다 공공기관의 도움이 취업 준비에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 준비 도움 경험은 전반적으로 대졸 이상 청년보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저학력 청년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한 추가 분석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번 조사에서 직업 훈련이나 창업 교육을 받고 싶다는 고졸 이하 청년 비율은 52.9%로 수요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대학교육 외에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교육의 효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들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 과정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사교육 활용의 현상을 분석하고, 불평등을 방지할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5절 청년의 노동 실태

1.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청년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청년의 노동실태는 크게 취업자와 미취업자, 이직자 현황으로 나눌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일자리의 현황과 근무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이직자는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직 경험을 확인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현재 구직 여부와 구직 기간, 일자리를 원치 않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가. 취업자

(1) 취업자 현황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 응답자 중 67.4%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 지난주는 조사에서 정한 2022년 6월 19일부터 7월 16일을 의미한다. 한편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32.6%가 모두 미취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지만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지난 주에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갖고 있었던 일시휴직자 역시 취업자에 해당한다.

지난 주 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이 67.2%, 여성이 67.6%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다소 높았다. 청년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30세 이상 청년의 경우 81.7%가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청년은 지난 주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비율이 69.6%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4.9%로 무려 4.7%p 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경우 그 비율이 58.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주는 8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69.5%, 경기도는 69.3%, 인천은 70.8%로 수도권 지역은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세종 이외에도 경남 61.6%, 부산 61.8%, 대구 61.9%, 울산 62.2%로 부산 경남 지역 청

년의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1〉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예	아니요
전체		100	67.4	32.6
성별	남자	100	67.2	32.8
	여자	100	67.6	32.4
연령	19세~24세	100	46.6	53.4
	25세~29세	100	76.0	24.0
	30세~34세	100	81.7	18.3
지역1	수도권	100	69.6	30.4
	비수도권	100	64.9	35.1
지역2	서울	100	69.5	30.5
	부산	100	61.8	38.2
	대구	100	61.9	38.1
	인천	100	70.8	29.2
	광주	100	64.4	35.6
	대전	100	71.2	28.8
	울산	100	62.2	37.8
	세종	100	58.9	41.1
	경기	100	69.3	30.7
	강원	100	66.0	34.0
	충북	100	71.7	28.3
	충남	100	63.2	36.8
	전북	100	69.2	30.8
	전남	100	62.6	37.4
	경북	100	63.1	36.9
	경남	100	61.6	38.4
	제주	100	82.1	17.9
학력	고졸 이하	100	74.7	25.3
	대학 재학·휴학	100	34.6	65.4
	대학 졸업 이상	100	78.4	21.6

n=14,93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자 중에 일자리가 여러개인 이들의 비율은 3.9%였으며, 복수일자리 종사자 중에서 89.9%가 2개의 일자리를 10.1%가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복수 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7%p 가량 높았으며, 연령이 낮고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복수일자리 비율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우 그 비율이 5.2%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2.2%로 수도권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0%와 5.1%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대전, 경북에서는 1.5%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복수일자리 비율은 일자리의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와 관련한 지표일 수도 있고, 일자리의 낮은 질로 인하여 둘 이상의 일자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들 중 복수일자리 비율도 높아 일자리의 공급이 큰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주로 학생이거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복수일자리인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이들이 여러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5-2〉 복수일자리 해당 여부 및 복수일자리 수

(단위: %)

구분		비율	복수일자리 해당 여부 및 복수일자리 수			
			예	2개	3개 이상	아니요
전체		100	3.9	89.9	10.1	96.1
성별	남자	100	3.0	93.2	6.8	97.0
	여자	100	4.7	87.6	12.4	95.3
연령	19세-24세	100	6.5	90.7	9.3	93.5
	25세-29세	100	3.3	87.5	12.5	96.7
	30세-34세	100	2.8	91.6	8.4	97.2
지역1	수도권	100	5.2	89.5	10.5	94.8
	비수도권	100	2.2	91.1	8.9	97.8
지역2	서울	100	6.0	91.9	8.1	94.0
	부산	100	2.4	83.0	17.0	97.6
	대구	100	2.4	88.1	11.9	97.6
	인천	100	3.1	91.7	8.3	96.9
	광주	100	1.7	93.7	6.3	98.3
	대전	100	1.0	100.0	0.0	99.0
	울산	100	3.4	100.0	0.0	96.6
	세종	100	3.0	71.8	28.2	97.0
	경기	100	5.1	86.9	13.1	94.9
	강원	100	3.7	87.4	12.6	96.3
	충북	100	1.6	100.0	0.0	98.4
	충남	100	3.6	91.8	8.2	96.4
	전북	100	2.3	100.0	0.0	97.7
	전남	100	2.1	100.0	0.0	97.9
	경북	100	1.3	100.0	0.0	98.7
	경남	100	0.9	81.5	18.5	99.1
	제주	100	4.7	83.9	16.1	95.3
학력	고졸 이하	100	2.4	88.3	11.7	97.6
	대학 재학·휴학	100	9.9	87.6	12.4	90.1
	대학 졸업 이상	100	3.2	91.4	8.6	96.8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일자리의 현황

취업 중인 청년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자(복수일자리를 가진 경우 첫 번째 일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함). 청년 삶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은 주당 평균 4.8일, 38.2시간을 일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당 평균 일하는 일수와 시간 모두가 증가하여, 30~34세의 경우 주당 평균 5.1일, 41.4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주당 평균 39.9시간 일하여 여성의 36.4시간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에 비하여 졸업생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고졸자의 경우 대졸이상 청년에 비하여 다소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2.9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36.3시간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4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이 같은 평균 근로시간은 복수일자리 비율과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여성, 서울의 경우 첫 번째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이 짧으나 반대로 복수일자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청년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252만원이었다. 남성은 여성의 평균 임금에 비하여 43만 원가량 높게 나타나 15.8%의 임금 격차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임금 수준을 올라가 30~34세 청년의 경우 평균 임금이 303만원을 기록하였다. 고졸청년의 경우 대졸청년에 비하여 평균 근로시간은 긴 편이나 임금은 256만원으로 대졸 청년의 274만원에 비하여 18만원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임금은 254만원으로 비수도권의 249만원에 비하여 5만원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충북과 대전에서 평균 임금이 27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228만원, 울산 232만원 세종 233만원을 기록하였다. 서울 역시 238만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은 임금 수준을 기록하였다.

청년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은 사무종사자로 전체 28.9%가 사무 종사자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가 24.6%를 차지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21.6%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세 직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75.1%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낮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과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 86.0%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과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청년 직업군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3〉 (복수일자리) 지난 3개월간 일자리 경험(첫번째 일자리)

(단위: 일, 시간, 만원, %)

구분	지난 3개월 간 일자리 경험 (첫 번째 일자리)													
	일주일 중 일하는 일수	일주일 중 일하는 시간	세금 공제 전 받는 금액	비율	직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전체	4.8	38.2	252	100	2.8	21.6	28.9	24.6	7.6	0.3	4.6	4.6	4.2	0.8
성별	남자	4.9	39.9	272	100	3.8	18.3	24.0	22.8	7.6	0.4	7.6	8.1	1.5
	여자	4.8	36.4	229	100	1.7	25.2	34.2	26.6	7.6	0.1	1.4	0.8	2.3
연령	19세~24세	4.2	30.0	161	100	1.1	15.3	18.7	39.6	10.5	0.3	3.0	3.9	6.5
	25세~29세	5.0	40.3	258	100	2.5	23.5	31.0	22.1	6.3	0.3	4.7	4.8	4.0
	30세~34세	5.1	41.4	303	100	4.2	23.7	33.3	17.5	7.1	0.3	5.5	4.8	2.9
지역1	수도권	4.8	37.7	254	100	3.0	20.1	31.9	26.7	8.3	0.1	2.7	3.4	0.4
	비수도권	4.9	38.9	249	100	2.5	23.4	25.2	22.2	6.8	0.5	7.0	6.1	5.1
지역2	서울	4.7	36.3	238	100	1.5	18.8	38.1	28.7	6.4	0.4	2.0	1.6	2.3
	부산	4.8	38.5	246	100	1.4	27.3	27.6	24.9	7.6	0.3	6.2	2.0	2.6
	대구	4.9	37.7	237	100	3.3	31.1	20.2	25.0	7.4	0.1	5.3	3.9	3.7
	인천	4.9	39.9	275	100	2.8	20.5	23.9	27.0	11.0	0.0	4.6	5.2	4.1
	광주	4.8	37.0	228	100	4.0	21.3	32.3	21.1	3.8	0.1	6.4	6.1	4.9
	대전	5.0	39.7	279	100	2.9	28.3	37.4	16.5	6.3	0.0	3.3	3.5	1.1
	울산	4.9	37.9	232	100	1.4	19.3	18.7	23.1	7.7	0.5	9.8	14.2	5.3
	세종	4.5	32.9	233	100	3.0	36.6	26.0	18.8	1.9	0.6	2.4	2.7	7.4
	경기	4.8	38.4	261	100	4.3	21.0	29.0	25.0	9.2	0.0	2.8	4.3	4.2
	강원	5.0	39.5	248	100	0.7	19.8	26.3	23.3	5.2	0.1	10.3	2.6	8.9
	충북	5.0	41.2	279	100	1.9	16.8	30.6	15.7	7.1	0.9	4.4	13.3	7.9
	충남	4.9	39.3	254	100	4.0	25.0	17.2	26.5	4.0	0.9	6.5	6.7	5.1
	전북	5.0	38.0	249	100	3.3	27.4	21.8	17.6	9.6	1.2	6.0	5.8	6.6
	전남	5.0	38.9	243	100	2.1	20.7	18.3	22.5	5.9	0.0	12.5	8.8	8.2
	경북	5.0	40.7	245	100	2.8	13.6	19.7	23.0	10.9	1.2	8.7	10.3	5.1
	경남	4.9	38.4	244	100	1.8	21.0	26.2	23.2	4.8	0.2	9.7	5.7	6.3
	제주	5.0	40.0	238	100	2.8	23.1	25.7	26.5	9.3	0.7	5.2	1.5	4.6
학력	고졸 이하	5.1	41.7	256	100	1.5	6.6	18.8	30.8	12.7	0.3	8.0	10.0	9.4
	대학 재학·휴학	3.6	22.4	111	100	2.0	8.7	11.6	49.9	14.0	0.4	1.3	2.0	9.3
	대학 졸업 이상	5.0	40.1	274	100	3.2	27.2	34.1	18.9	5.4	0.3	4.4	3.8	2.2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근로시간

청년 취업자의 근로시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밤근무나 저녁근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나 주말 근무와 같이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일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의미하는 밤 근무는 월간 평균 0.6일 가량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저녁 근무는 2.1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4.4일, 토요일 근무 0.9일, 일요일 근무는 0.5일 가량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비정규근로시간 근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또는 재학여부별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20대 초반의 학생인 경우라도 밤근무나 저녁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경험하는 비율은 졸업자와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졸업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나타낸 비율이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근무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남, 제주,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밤 근무와 저녁근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주말 근무한 일수가 여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규 근로시간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면, 야간근로의 경우 76.7%, 저녁근무의 경우 58.9%,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57.0%, 토요일근무의 58.0%, 일요일 근무의 52.5%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다. 남성의 경우 추가수당 지급한다는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 경우 추가수당 지급 비율이 낮았고, 재학생인 경우에도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령, 밤근무의 경우 고졸이하 졸업생의 경우 82.9%가 수당을 지급받은 반면, 재학생의 경우 44.4%만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주말 근무 역시 재학생은 22.4%만이 추가수당을 지급받아 대졸이상의 61.3%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추가 수당 지급 비율이 일요일 근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5-4〉 한 달 중 추가 근무 일수, 추가 수당 수급 비율

(단위: 일, %)

구분		한 달 중 추가 근무 일수, 추가 수당 수급 비율									
		밤 근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		저녁 근무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평균 일수	추가 수당 수급 (%)	평균 일수	추가 수당 수급 (%)	평균 일수	추가 수당 수급 (%)	평균 일수	추가 수당 수급 (%)	평균 일수	추가 수당 수급 (%)
전체		0.6	76.7	2.1	58.9	4.4	57.0	0.9	58.0	0.5	52.5
성별	남자	0.9	77.4	2.4	60.7	5.1	57.4	1.0	59.2	0.5	54.7
	여자	0.4	75.2	1.8	56.7	3.6	56.4	0.8	56.5	0.4	49.7
연령	19세-24세	0.6	63.0	2.1	45.0	3.2	48.8	1.1	41.6	0.7	35.0
	25세-29세	0.7	76.2	2.2	61.5	4.8	58.7	0.9	61.9	0.5	56.2
	30세-34세	0.6	84.3	2.1	65.0	4.7	59.0	0.8	66.1	0.4	64.8
지역1	수도권	0.5	71.9	2.1	57.2	4.2	55.9	0.8	56.6	0.5	53.2
	비수도권	0.8	81.2	2.2	61.0	4.6	58.3	1.0	59.5	0.5	51.7
지역2	서울	0.4	70.3	2.4	56.6	4.5	54.2	0.9	57.9	0.5	56.5
	부산	0.9	72.2	2.3	58.5	3.9	57.4	0.9	56.1	0.5	53.3
	대구	0.3	79.5	1.7	59.8	4.6	58.3	1.0	57.7	0.4	48.6
	인천	0.9	82.2	1.8	66.4	4.4	57.6	0.8	54.8	0.3	49.5
	광주	0.6	86.6	1.2	71.4	5.9	40.8	0.8	63.9	0.4	59.9
	대전	0.2	60.4	0.3	69.7	0.9	61.1	0.4	82.1	0.1	62.2
	울산	0.6	70.0	2.8	60.5	3.9	62.9	1.2	55.2	0.6	39.9
	세종	0.6	54.3	1.6	46.7	4.7	69.2	0.5	54.7	0.3	56.7
	경기	0.4	70.4	1.9	55.9	3.9	56.9	0.8	55.9	0.5	50.7
	강원	0.8	74.1	2.5	58.9	3.9	60.4	1.0	66.6	0.7	60.9
	충북	1.2	87.4	2.5	66.6	6.9	65.5	1.0	61.7	0.5	54.1
	충남	1.5	89.3	3.4	56.2	6.0	51.8	1.2	57.5	0.7	56.1
	전북	0.9	82.5	2.1	66.9	4.1	64.6	1.2	60.5	0.6	51.8
	전남	0.7	85.1	1.7	66.5	4.4	68.5	1.3	66.0	0.6	58.0
	경북	1.1	74.6	3.4	60.5	6.5	58.5	1.4	50.7	0.8	36.7
	경남	0.5	94.1	2.0	56.2	4.3	57.6	0.8	60.1	0.4	49.6
	제주	1.1	81.3	2.8	57.4	6.2	58.7	1.2	56.2	0.8	51.6
학력	고졸 이하	0.9	82.9	2.4	58.7	5.5	54.3	1.2	56.0	0.6	53.4
	대학 재학·휴학	0.6	44.4	2.4	28.7	2.0	39.4	1.3	26.1	0.9	22.4
	대학 졸업 이상	0.6	78.8	2.0	64.3	4.5	59.1	0.8	65.8	0.4	61.3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 사이 하루 이상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응답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퇴근한 날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았던 적이 지난 달 사이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청년 취업자의 14.9%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장시간 근로 경험이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취업자의 16.5%가 지난 한 달 사이 장시간 근로 경험이 있었으며, 25-29세 청년이 16.8%를 기록하여 30-34세 취업자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16.5%로, 비수도권의 13.1%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1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4.9%로 낮아, 서울의 4분위 1수준에 불과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청년에 비하여 대졸 이상 청년의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5-5〉 장시간 근로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장시간 근로 경험	
			예	아니요
전체		100	14.9	85.1
성별	남자	100	16.5	83.5
	여자	100	13.2	86.8
연령	19세-24세	100	9.7	90.3
	25세-29세	100	16.8	83.2
	30세-34세	100	16.3	83.7
지역1	수도권	100	16.5	83.5
	비수도권	100	13.1	86.9
지역2	서울	100	19.8	80.2
	부산	100	13.9	86.1
	대구	100	12.6	87.4
	인천	100	12.0	88.0
	광주	100	6.9	93.1
	대전	100	4.9	95.1
	울산	100	13.7	86.3
	세종	100	12.2	87.8
	경기	100	14.9	85.1
	강원	100	15.4	84.6
	충북	100	13.4	86.6
	충남	100	17.9	82.1
	전북	100	14.8	85.2
	전남	100	12.1	87.9
	경북	100	17.0	83.0
	경남	100	12.2	87.8
	제주	100	17.3	82.7
학력	고졸 이하	100	14.5	85.5
	대학 재학·휴학	100	7.8	92.2
	대학 졸업 이상	100	16.2	83.8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장시간 노동과는 반대로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한 이들의 비율도 작지 않다. 전체 청년 취업자의 22.0%였으며, 남성은 18.3%, 여성은 26.0%로 남녀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47.1%에 이르렀다. 이는 재학생의 경우 73.0%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라는 점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졸업자의 경우 단시간 취업자의 비율이 13.8%로 작게 나타난 반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의 경우 19.6%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졸 학력의 청년들이 장시간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역시 높아서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장시간 근로와 함께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청년의 23.8%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9.8%로 수도권에 비하여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31.1%), 울산(26.1%), 서울(26.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전(11.3%), 충북(15.1%), 제주(16.8%)에서 그 비율이 낮았다. 충북이나 제주의 경우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단시간 근로비율이 낮은 양상을 나타내며, 대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장시간 근로자 모두가 낮아서 표준 근로시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5-6〉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지난 주에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36시간 이상 근로	36시간 미만 근로
전체		100	78.0	22.0
성별	남자	100	81.7	18.3
	여자	100	74.0	26.0
연령	19세-24세	100	52.9	47.1
	25세-29세	100	84.9	15.1
	30세-34세	100	87.1	12.9
지역1	수도권	100	76.2	23.8
	비수도권	100	80.2	19.8
지역2	서울	100	74.0	26.0
	부산	100	80.0	20.0
	대구	100	81.5	18.5
	인천	100	80.8	19.2
	광주	100	80.8	19.2
	대전	100	88.7	11.3
	울산	100	73.9	26.1
	세종	100	68.9	31.1
	경기	100	76.8	23.2
	강원	100	80.0	20.0
	충북	100	84.9	15.1
	충남	100	79.0	21.0
	전북	100	80.4	19.6
	전남	100	74.9	25.1
	경북	100	76.5	23.5
	경남	100	77.7	22.3
	제주	100	83.2	16.8
학력	고졸 이하	100	80.4	19.6
	대학 재학·휴학	100	27.0	73.0
	대학 졸업 이상	100	86.2	13.8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위험한 근로환경

지난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였던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7.4%였던 반면 여성은 11.9%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가 8.8%, 25-29세가 10.0%, 30-34세가 9.7%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5-29세 청년의 경우 장시간 근로 경험 역시 가장 높아,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도한 업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9.7%가 업무상 건강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비수도권의 9.4%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14.5%), 경북(12.7%), 서울(11.2%)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5.3%), 대전(5.8%), 대구(7.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7〉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경험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전체		100	9.6	90.4
성별	남자	100	7.4	92.6
	여자	100	11.9	88.1
연령	19세~24세	100	8.8	91.2
	25세~29세	100	10.0	90.0
	30세~34세	100	9.7	90.3
지역1	수도권	100	9.7	90.3
	비수도권	100	9.4	90.6
지역2	서울	100	11.2	88.8
	부산	100	9.8	90.2
	대구	100	7.5	92.5
	인천	100	7.6	92.4
	광주	100	5.3	94.7
	대전	100	5.8	94.2
	울산	100	10.9	89.1
	세종	100	8.0	92.0
	경기	100	9.0	91.0
	강원	100	10.9	89.1
	충북	100	7.8	92.2
	충남	100	10.2	89.8
	전북	100	11.1	88.9
	전남	100	8.4	91.6
	경북	100	12.7	87.3
	경남	100	10.5	89.5
	제주	100	14.5	85.5
학력	고졸 이하	100	9.9	90.1
	대학 재학·휴학	100	7.4	92.6
	대학 졸업 이상	100	9.9	90.1

n=10,5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난 12개월 사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1년 사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6.2%는 과중한 업무를 거의 매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과중한 업무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 가량이었다. 과중한 업무 경험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2회 이상 5회 미만이나,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의 비율은 30-34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과중한 업무 경험에 대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과중한 업무를 매일 또는 주2회 이상 5회 미만 경험하는 비율은 수도권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나, 이를 종종 경험하는 비율을 수도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의 경우 매일 또는 주2회 이상 과중한 업무를 경험한다는 비율이 2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23.0%, 충남 2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그 비율이 7.6%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광주 10.9%, 충북 11.3% 순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이 21.0%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표 3-5-8〉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과중한 업무]

(단위: %)

구분		비율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과중한 업무]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하지 않음
전체		100	6.2	12.9	17.0	15.5	48.4
성별	남자	100	6.2	12.7	17.3	15.2	48.6
	여자	100	6.2	13.1	16.7	15.8	48.2
연령	19세~24세	100	4.2	9.3	13.3	10.0	63.1
	25세~29세	100	7.1	14.0	16.9	16.2	45.9
	30세~34세	100	6.6	14.3	19.8	18.7	40.6
지역1	수도권	100	6.9	13.0	16.2	14.5	49.5
	비수도권	100	5.4	12.7	18.0	16.7	47.2
지역2	서울	100	7.5	13.5	15.7	13.0	50.3
	부산	100	4.5	15.8	26.0	19.1	34.6
	대구	100	5.0	13.2	22.3	15.5	44.0
	인천	100	7.1	14.7	18.4	16.2	43.6
	광주	100	3.8	7.1	11.7	22.0	55.4
	대전	100	2.8	4.7	14.3	21.7	56.4
	울산	100	5.7	10.8	11.1	18.6	53.8
	세종	100	8.2	10.7	13.0	14.7	53.4
	경기	100	6.3	12.2	16.2	15.2	50.1
	강원	100	4.5	11.8	16.0	15.6	52.2
	충북	100	3.8	7.6	12.5	15.3	60.9
	충남	100	5.4	17.0	12.4	13.2	51.9
	전북	100	7.2	13.1	21.6	10.1	48.1
	전남	100	4.1	11.3	16.3	17.1	51.2
	경북	100	9.6	18.4	15.3	17.9	38.8
	경남	100	6.9	14.5	22.1	16.0	40.5
	제주	100	4.7	18.3	23.5	14.1	39.5
학력	고졸 이하	100	8.4	13.4	16.4	13.9	48.1
	대학 재학·휴학	100	2.9	6.6	10.2	7.8	72.5
	대학 졸업 이상	100	6.3	14.0	18.5	17.4	43.8

n=10,5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난 12개월 사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5) 일자리의 안정성

청년 취업자 중에서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라고 보는 청년은 14.4%가량 되었다. 해당 질문에 매우 그렇다(3.3%)와 대체로 그렇다(11.1%)를 합친 값이다. 이 비율은 남성(14.5%)과 여성(14.4%)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외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2%로 비수도권의 13.5%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6.1%), 부산(8.9%), 전남(11.2%)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북(23.3%), 경남(16.3%), 경기(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자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자의 13.2%에 비하여 고졸 이하 학력이 14.5%로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5-9〉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	3.3	11.1	25.3	31.1	29.1
성별	남자	100	3.7	10.7	25.6	29.9	30.0
	여자	100	2.9	11.5	25.0	32.3	28.3
연령	19세-24세	100	4.6	12.4	25.3	29.9	27.9
	25세-29세	100	3.2	10.6	24.9	31.8	29.5
	30세-34세	100	2.7	10.8	25.7	31.2	29.6
지역1	수도권	100	3.6	11.6	25.6	30.4	28.8
	비수도권	100	3.0	10.5	25.0	31.9	29.6
지역2	서울	100	3.4	10.4	24.2	33.6	28.4
	부산	100	1.7	7.2	19.6	33.1	38.4
	대구	100	2.4	13.5	22.7	30.2	31.2
	인천	100	3.9	12.0	23.7	27.9	32.5
	광주	100	1.8	11.3	33.1	32.9	20.9
	대전	100	0.9	5.1	14.6	37.7	41.6
	울산	100	3.4	10.1	28.4	27.3	30.7
	세종	100	3.8	11.9	29.8	32.5	22.0
	경기	100	3.7	12.5	27.0	28.5	28.2
	강원	100	2.9	8.6	37.8	33.2	17.4
	충북	100	2.1	9.5	25.6	29.2	33.7
	충남	100	3.5	11.9	24.0	28.8	31.8
	전북	100	2.7	11.9	28.5	28.2	28.7
	전남	100	1.6	9.5	30.1	30.9	27.8
	경북	100	5.9	17.5	24.6	32.9	19.2
	경남	100	6.0	10.3	22.9	33.4	27.4
	제주	100	4.3	8.9	26.8	34.4	25.6
학력	고졸 이하	100	4.0	10.4	30.4	28.5	26.7
	대학 재학·휴학	100	6.8	14.9	25.1	28.8	24.4
	대학 졸업 이상	100	2.6	10.6	24.2	32.1	30.5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하는 일에서 실직하더라도 비슷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53.1%로 절반 이상이 유사한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체로 그렇지 않거나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18.1% 가량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유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남: 50.5%, 여: 55.9%), 찾지 못할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응답 비율은 낮았다(남: 18.8%, 여: 17.4%).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사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율은 낮아졌다. 이는 통상 임금 수준이 낮은 어린 연령층이나 여성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남성이나 높은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물론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 청년의 경우 긍정적 전망이 46.8%로 대졸청년의 52.7%에 비하여 더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전망 역시 더 높게 나타나, 일자리의 임금 수준 등이 더 높지 않음에도 현재와 비슷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55.6%가 현재 하는 일과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그 수치가 50.1%로 대략 5.5%p 가량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전(74.2%)에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전 지역의 경우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60.9%), 충남(55.8%), 경기(55.7%), 서울(54.0%)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긍정적인 전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슷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제주(27.5%), 울산(26.9%), 전북(25.8%), 부산(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10〉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불안정성 정도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	17.7	35.4	28.7	13.2	5.0
성별	남자	100	16.7	33.8	30.6	13.1	5.8
	여자	100	18.9	37.1	26.7	13.3	4.1
연령	19세-24세	100	23.2	36.4	27.3	8.7	4.5
	25세-29세	100	16.2	36.2	28.6	14.1	4.9
	30세-34세	100	15.7	33.9	29.9	15.1	5.4
지역1	수도권	100	20.4	35.2	28.2	12.2	4.0
	비수도권	100	14.5	35.6	29.4	14.3	6.2
지역2	서울	100	21.3	32.7	27.5	14.5	3.9
	부산	100	12.3	37.1	25.5	19.6	5.5
	대구	100	17.0	35.3	25.6	16.6	5.4
	인천	100	22.9	38.0	25.0	11.0	3.1
	광주	100	6.4	40.2	32.0	16.6	4.9
	대전	100	14.8	59.4	18.0	6.6	1.2
	울산	100	13.7	22.7	36.7	19.1	7.8
	세종	100	15.4	37.6	32.0	13.8	1.3
	경기	100	19.1	36.5	29.3	10.7	4.2
	강원	100	14.3	32.3	36.4	11.9	5.1
	충북	100	14.6	34.8	32.7	12.4	5.5
	충남	100	22.2	33.6	25.3	10.3	8.6
	전북	100	14.9	29.8	29.4	17.8	8.0
	전남	100	12.5	25.6	40.2	12.4	9.3
	경북	100	16.8	35.6	30.1	11.4	6.2
	경남	100	14.4	31.4	31.8	14.0	8.5
	제주	100	10.3	26.3	35.9	19.2	8.3
학력	고졸 이하	100	15.0	31.8	34.2	13.4	5.6
	대학 재학·휴학	100	27.0	36.7	22.6	8.0	5.7
	대학 졸업 이상	100	16.7	36.0	28.6	14.0	4.7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1년 사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11.5%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11.1%)에 비하여 여성(11.9%)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13.7%로 여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와 30-34세는 각각 10.6%와 10.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 비하여 학력별 차이는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청년의 경우 15.4% 가량이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고 밝혀 대졸자의 10.0%에 비하여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저학력 청년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인 청년보다도 더 높은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0%로 비수도권의 10.8%에 비하여 1.2%p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은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일을 쉬었다는 경험이 3.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대전 다음으로는 충북(6.6%)과 광주(7.3%)가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지역은 부산(15.4%)과 대구(14.9%), 전남(14.9%), 울산(14.4%) 등으로 나타났다.

〈표 3-5-11〉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	11.5	88.5
성별	남자	100	11.1	88.9
	여자	100	11.9	88.1
연령	19세-24세	100	13.7	86.3
	25세-29세	100	10.6	89.4
	30세-34세	100	10.9	89.1
지역1	수도권	100	12.0	88.0
	비수도권	100	10.8	89.2
지역2	서울	100	10.2	89.8
	부산	100	15.4	84.6
	대구	100	14.9	85.1
	인천	100	12.4	87.6
	광주	100	7.3	92.7
	대전	100	3.7	96.3
	울산	100	14.4	85.6
	세종	100	9.5	90.5
	경기	100	13.3	86.7
	강원	100	12.8	87.2
	충북	100	6.6	93.4
	충남	100	11.4	88.6
	전북	100	10.7	89.3
	전남	100	14.5	85.5
	경북	100	9.2	90.8
	경남	100	9.6	90.4
	제주	100	9.8	90.2
학력	고졸 이하	100	15.4	84.6
	대학 재학·휴학	100	14.6	85.4
	대학 졸업 이상	100	10.0	90.0

n=10,5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난 12개월 사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 일자리의 요구 숙련

청년들이 일자리 내에서 어떠한 숙련을 요구받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을 살펴보았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숙련기술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취업청년 중 4.8%는 거의 매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무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월에 1회 이상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전체 취업 청년의 10.9%에 이르렀다. 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은 청년 내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을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이 남성은 6.1%였던 반면 여성은 3.4%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월1회 이상 사용한다는 비율 역시 남성은 12.9%인 반면 여성은 8.7%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도 컸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일 사용자가 6.0%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3.4%에 불과하였다.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12.5%, 비수도권은 9.0%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의 경우 매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5.8%, 광주 5.4%, 인천 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1.3%, 경북 2.1%, 전북 2.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경기 13.7%, 부산 13.2%, 대전 12.4%, 서울 11.8%로 주로 대도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숙련이 요구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6.4%, 충남 6.9%, 경남 7.5% 순이었다.

〈표 3-5-12〉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거의 매일 (주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하지 않음
전체		100	4.8	3.0	3.1	2.4	86.7
성별	남자	100	6.1	3.3	3.6	2.5	84.6
	여자	100	3.4	2.7	2.6	2.3	89.0
연령	19세~24세	100	2.7	2.2	2.5	1.2	91.5
	25세~29세	100	5.7	2.8	3.0	2.6	85.9
	30세~34세	100	5.3	3.7	3.5	3.0	84.4
지역1	수도권	100	6.0	3.1	3.4	2.2	85.3
	비수도권	100	3.4	2.9	2.7	2.7	88.3
지역2	서울	100	5.8	2.9	3.2	2.6	85.6
	부산	100	3.3	3.6	6.3	4.4	82.3
	대구	100	3.9	2.5	2.3	3.0	88.2
	인천	100	5.1	1.4	2.7	3.4	87.3
	광주	100	5.4	2.1	0.5	1.1	90.9
	대전	100	3.7	4.8	3.9	2.9	84.7
	울산	100	1.3	3.5	3.3	3.8	88.1
	세종	100	4.2	2.1	1.9	4.2	87.6
	경기	100	6.4	3.6	3.7	1.6	84.6
	강원	100	4.1	3.1	1.5	1.8	89.5
	충북	100	4.5	2.4	1.8	1.2	90.1
	충남	100	2.5	2.1	2.3	1.7	91.3
	전북	100	2.3	0.6	3.4	2.2	91.4
	전남	100	3.4	2.4	1.9	4.7	87.6
	경북	100	2.1	3.9	2.0	1.9	90.1
	경남	100	3.2	3.0	1.3	2.9	89.6
	제주	100	4.4	1.8	2.6	2.1	89.1
학력	고졸 이하	100	1.9	0.7	1.7	1.8	94.0
	대학 재학·휴학	100	1.8	1.2	1.6	1.1	94.3
	대학 졸업 이상	100	6.0	3.8	3.6	2.8	83.7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또 다른 디지털 숙련이라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이나 사진 촬영과 편집 등을 업무에서 월 1회 이상 하는 비율 역시 청년의 15.1%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남성은 13.7%에 불과하였으나, 여성은 16.7%로 나타나,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과 같은 디지털 숙련은 남성이 우세하고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이나 편집은 여성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 분리 현상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월 1회 이상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과 편집을 한다는 비율이 9.0%에 불과한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18.0%에 이르러 두 배가 차이 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5.4%, 비수도권은 14.8% 가량으로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도별로는 대전 지역이 전체 취업 청년의 25.0%가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과 편집을 월 1회 이상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강원 지역이 21.0%, 전북이 17.1%를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광주 10.4%, 충북 10.9%, 울산 11.4%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5-3-13〉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단위: %)

구분		비율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 활동 빈도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거의 매일 (주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하지 않음
전체		100	3.7	5.0	6.4	4.5	80.4
성별	남자	100	2.9	4.9	5.9	4.3	82.0
	여자	100	4.6	5.1	7.0	4.7	78.6
연령	19세-24세	100	2.7	3.2	4.9	2.4	86.7
	25세-29세	100	4.0	5.0	6.1	5.1	79.9
	30세-34세	100	4.1	6.2	7.7	5.3	76.7
지역1	수도권	100	3.5	5.2	6.6	4.0	80.7
	비수도권	100	3.9	4.8	6.1	5.1	80.0
지역2	서울	100	2.9	4.5	8.0	3.5	81.1
	부산	100	2.1	5.5	7.2	8.9	76.3
	대구	100	3.5	1.4	6.6	5.8	82.6
	인천	100	4.6	3.8	6.2	3.7	81.7
	광주	100	1.6	4.3	4.5	4.6	85.0
	대전	100	11.1	5.9	8.0	4.6	70.4
	울산	100	1.4	6.2	3.8	5.2	83.4
	세종	100	1.1	3.2	9.8	5.1	80.8
	경기	100	3.8	6.0	5.7	4.4	80.1
	강원	100	5.9	7.5	7.6	2.6	76.5
	충북	100	1.8	3.8	5.2	3.5	85.6
	충남	100	3.6	5.0	4.4	4.0	83.0
	전북	100	3.2	5.0	8.8	4.1	78.8
	전남	100	4.8	2.2	7.6	5.1	80.3
	경북	100	3.7	5.6	5.0	3.8	81.8
	경남	100	3.6	5.9	4.1	5.7	80.6
	제주	100	5.5	4.3	4.7	5.6	80.0
학력	고졸 이하	100	1.7	3.1	4.3	2.5	88.5
	대학 재학·휴학	100	1.8	1.2	3.1	2.4	91.5
	대학 졸업 이상	100	4.5	6.1	7.4	5.3	76.6

n=9,6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이직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이유는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3.2%, ‘계약 기간이 만료되서’도 12.9%로 나타났다. ‘학업을 계속 하려고’는 12.6%였으며, ‘직장이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도 7.6%를 차지하였다. 남성 청년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라는 항목 모두 14.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서’가 14.5%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 청년의 경우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라는 항목이 10.1%로, 남성청년의 0.4%와 대조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 청년의 경우 일의 적성 여부보다는 근무조건이나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하거나 계약직에 있으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이 잦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을 계속하려고’가 13.0%로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4.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4.6%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계약이 만료되어서’로 16.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하려고’가 12.0%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계약이 만료되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남, 경남 등이 있었으며,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가 있었다. 그 외에도 강원, 경북에서는 ‘학업을 계속하려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충북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충남은 기타가 19.5%를 차지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응답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6.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학 졸업 이상의 청년은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가 1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14.4%를 차지하여

학력별 이직의 사유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졸자들의 경우 하는 일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을 대졸자에 비하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14〉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학업을 계속 하려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해서	동료 또는 상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직장이 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이나 사업(일종)으로 인해서	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기타
전체		100	12.6	1.5	13.2	0.5	3.5	6.4	15.0	7.6	3.8	3.8	0.8	12.9	2.8	5.5	10.2
성별	남자	100	14.4	1.4	14.5	0.8	3.1	7.8	14.5	9.2	4.4	4.7	0.7	11.2	2.1	0.4	10.9
	여자	100	10.9	1.5	12.1	0.2	3.9	5.2	15.4	6.1	3.1	3.1	0.8	14.5	3.5	10.1	9.5
연령	19세~24세	100	32.1	1.6	12.1	0.3	2.6	2.7	11.3	4.5	1.4	2.3	1.0	13.5	2.5	0.4	11.6
	25세~29세	100	9.2	1.6	14.2	0.5	4.5	7.4	15.6	8.5	3.3	4.2	0.8	14.7	3.0	2.9	9.5
	30세~34세	100	3.8	1.2	12.9	0.6	3.0	7.7	16.6	8.6	5.7	4.4	0.6	10.9	2.9	11.1	9.9
지역1	수도권	100	13.0	1.7	12.0	0.5	3.9	7.6	15.2	7.7	3.3	3.7	0.8	12.5	3.2	4.8	10.0
	비수도권	100	12.0	1.2	14.7	0.6	2.9	4.9	14.6	7.4	4.3	4.0	0.7	13.4	2.4	6.3	10.4
지역2	서울	100	15.7	1.7	10.9	0.4	3.3	7.4	14.2	7.9	2.5	3.6	1.4	16.3	2.6	1.0	10.9
	부산	100	9.9	1.2	16.4	0.2	2.8	4.6	19.2	11.3	2.9	4.6	0.1	12.2	2.5	4.1	8.2
	대구	100	12.1	1.7	13.6	0.8	4.0	7.2	16.0	9.5	3.8	3.3	2.0	10.0	3.3	4.9	7.7
	인천	100	7.4	0.8	14.9	0.0	6.6	10.0	17.1	7.8	4.7	5.0	0.8	10.1	3.2	4.4	7.3
	광주	100	9.6	1.1	16.6	0.0	4.7	3.3	14.1	8.7	4.4	2.4	1.6	21.9	3.0	4.5	3.9
	대전	100	5.0	3.9	12.8	0.3	0.9	4.4	18.3	3.6	5.0	4.4	0.4	21.4	1.9	14.7	3.1
	울산	100	12.9	1.5	12.0	0.5	3.5	6.4	15.0	9.4	2.9	3.0	1.3	16.3	1.5	3.4	10.6
	세종	100	17.7	2.0	8.5	0.0	1.7	3.2	6.0	3.0	3.8	0.0	0.5	22.5	2.5	13.6	15.1
	경기	100	12.1	1.8	12.2	0.6	3.9	7.3	15.7	7.5	3.6	3.6	0.4	10.3	3.6	7.6	9.8
	강원	100	16.0	0.5	12.9	0.0	3.5	6.6	15.2	5.3	4.9	1.0	0.2	13.5	1.4	5.0	14.1
	충북	100	10.1	0.2	31.9	0.9	2.7	5.0	14.6	6.2	2.4	3.3	0.5	8.5	1.3	5.4	6.8
	충남	100	14.3	1.0	13.8	0.5	1.9	6.1	8.3	8.9	5.4	2.9	0.6	5.5	2.7	8.7	19.5
	전북	100	11.1	0.1	11.2	1.0	2.3	4.4	16.6	4.2	4.5	8.5	1.1	13.6	2.0	6.2	13.4
	전남	100	14.5	1.1	15.8	2.7	4.2	3.0	12.3	4.0	2.7	6.0	0.2	16.2	3.0	2.8	11.6
	경북	100	15.2	0.4	10.9	0.2	3.6	4.9	11.3	7.4	8.7	2.8	0.6	12.4	2.1	8.1	11.3
	경남	100	12.4	1.5	11.9	0.6	2.0	3.5	15.0	7.6	3.6	5.3	0.1	17.8	2.5	6.4	9.8
	제주	100	11.0	2.0	11.7	0.0	3.3	2.7	13.6	4.6	6.3	6.8	1.3	12.2	3.9	7.0	13.4
학력	고졸 이하	100	4.5	1.0	16.7	1.2	4.4	6.4	16.3	7.4	5.0	5.0	1.4	10.1	3.4	6.4	10.9
	대학 재학·휴학	100	49.1	1.1	8.7	0.2	1.3	2.6	8.4	1.1	1.2	2.6	0.8	9.7	3.2	0.5	9.6
	대학 졸업 이상	100	6.9	1.7	13.2	0.4	3.7	7.2	16.0	9.0	4.0	3.8	0.6	14.4	2.6	6.3	10.1

n= 6,19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일을 그만 두고 힘들었던 경험을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청년들이 53.2%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19.4%의 청년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이 9.8%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역시 5.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여성의 경우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이 6.4%를 차지하였다. 남성 청년이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즉, 여성 청년의 경우 남성 청년과 달리 가족 돌봄에 따른 이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직 후 어려움에서도 가족을 돌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자리를 그만 둔 후 어려웠던 점의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항목의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이 3.0%로 비수도권의 1.8%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 청년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이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15〉 일자리를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

구분		비율	일자리를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기타	특별히 없었음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이전 직장경력 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음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전체		100	19.4	3.8	5.5	9.8	0.9	2.3	3.6	1.3	53.2	
성별	남자	100	20.2	4.0	6.4	9.6	1.1	2.8	0.5	1.0	54.2	
	여자	100	18.7	3.6	4.7	10.0	0.7	1.9	6.4	1.6	52.3	
연령	19세~24세	100	17.4	2.1	3.8	4.5	0.4	0.7	0.3	1.4	69.3	
	25세~29세	100	20.4	5.1	6.0	11.8	0.8	2.1	1.8	1.6	50.3	
	30세~34세	100	19.6	3.6	6.2	11.2	1.3	3.5	7.5	1.0	46.1	
지역1	수도권	100	20.0	3.8	4.9	9.3	1.1	1.8	3.3	1.7	54.2	
	비수도권	100	18.7	3.9	6.3	10.5	0.7	3.0	4.1	0.8	52.0	
지역2	서울	100	22.0	3.2	4.5	9.1	1.1	1.7	1.2	1.3	55.6	
	부산	100	14.3	5.9	6.7	16.6	0.1	4.1	2.6	0.4	49.3	
	대구	100	20.5	4.3	7.2	9.2	1.5	1.2	1.7	0.1	54.3	
	인천	100	18.6	4.3	6.9	12.9	1.5	3.0	2.9	1.0	48.9	
	광주	100	16.1	1.9	6.9	11.8	0.0	2.9	3.2	0.9	56.2	
	대전	100	12.8	2.7	7.4	11.1	0.0	2.6	2.7	0.9	59.8	
	울산	100	22.1	3.1	5.7	15.2	0.0	5.5	3.0	1.1	44.3	
	세종	100	10.5	3.1	7.3	11.0	0.0	1.8	6.9	2.5	57.0	
	경기	100	18.7	4.0	4.8	8.7	0.9	1.6	4.9	2.2	54.2	
	강원	100	18.3	3.2	5.9	8.7	0.5	2.2	5.3	1.1	54.7	
	충북	100	27.6	4.8	3.2	6.2	1.8	0.3	2.7	0.6	52.7	
	충남	100	17.1	3.5	6.0	6.0	1.0	2.1	7.9	1.9	54.3	
	전북	100	21.7	2.7	9.0	6.3	0.6	3.9	3.1	1.6	51.2	
	전남	100	20.1	3.5	8.5	9.2	1.0	0.8	4.9	0.4	51.5	
	경북	100	17.8	5.7	5.4	10.1	1.8	9.1	5.5	0.8	43.7	
	경남	100	18.9	2.3	5.2	13.2	0.0	1.4	5.0	0.0	53.9	
	제주	100	24.7	4.5	5.3	8.2	0.5	4.0	3.5	0.8	48.6	
학력	고졸 이하	100	26.5	3.7	8.5	9.0	0.5	4.2	5.1	1.0	41.6	
	대학 재학·휴학	100	18.4	1.3	2.1	2.5	0.0	0.6	0.6	1.0	73.4	
	대학 졸업 이상	100	17.7	4.4	5.5	11.6	1.2	2.2	3.9	1.5	52.0	

n= 6,19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이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미취업자

(1) 미취업자 현황

현재 미취업자인 청년 중에서 지난 4주 이내에 구직 경험이 있는 이들은 13.2%에 불과하여, 미취업자 대부분은 비경제활동 중인 이들이었다. 미취업자 중에서도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은 25세 이상의 연령층과 학교를 졸업한 고졸 이하 학력 또는 대졸 이상 졸업자들의 경우 20% 이상이 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13.8%로 비수도권의 12.6%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17.3%), 강원(16.8%), 경북(16.7%) 순으로 구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전(8.2%), 전북(8.7%), 대구(10.2%)는 구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표 3-5-16〉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미취업자)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00	13.2	86.8
성별	남자	100	13.1	86.9
	여자	100	13.3	86.7
연령	19세~24세	100	7.9	92.1
	25세~29세	100	21.6	78.4
	30세~34세	100	20.1	79.9
지역1	수도권	100	13.8	86.2
	비수도권	100	12.6	87.4
지역2	서울	100	14.4	85.6
	부산	100	15.6	84.4
	대구	100	10.2	89.8
	인천	100	12.1	87.9
	광주	100	10.7	89.3
	대전	100	8.2	91.8
	울산	100	14.4	85.6
	세종	100	17.3	82.7
	경기	100	13.7	86.3
	강원	100	16.8	83.2
	충북	100	10.3	89.7
	충남	100	10.8	89.2
	전북	100	8.7	91.3
	전남	100	13.0	87.0
	경북	100	16.7	83.3
	경남	100	12.1	87.9
	제주	100	13.0	87.0
학력	고졸 이하	100	20.0	80.0
	대학 재학·휴학	100	4.4	95.6
	대학 졸업 이상	100	22.5	77.5

n=5,28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구직 기간

지난 4주간 구직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8개월을 나타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9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1년 이상의 비율도 1.8% 가량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구직 기간은 각각 4.7개월과 4.9개월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은 0.8%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3.0%에 이르렀다. 평균 구직기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데, 30-34세 구직자의 경우 평균 구직기간이 5.8개월이며,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의 비율 역시 5.2%에 이르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5.2개월, 대학 졸업 이상은 5.3개월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구직자가 2.4% 가량으로 고졸의 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의 구직기간이 비수도권에서 구직기간에 비하여 더 길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평균 구직기간이 5.1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구직자는 3.0%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평균 구직기간이 4.5개월로 수도권에 비하여 짧았고, 1년 이상 장기 구직자 역시 0.4%로 작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7.3개월), 인천(6.9개월), 전남(5.8개월), 대구(5.7개월), 서울(5.1개월) 순으로 긴 구직기간을 나타냈다. 1년 이상 장기 구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9.3%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남은 6.4%, 서울이 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17〉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평균 기간	(미취업자) 직장(일)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				
			비율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4.8	100	0.1	98.1	1.8	0.0
성별	남자	4.7	100	0.0	99.2	0.8	0.0
	여자	4.9	100	0.3	96.7	3.0	0.0
연령	19세-24세	3.8	100	0.0	99.5	0.5	0.0
	25세-29세	5.1	100	0.0	99.1	0.9	0.0
	30세-34세	5.8	100	0.5	94.4	5.2	0.0
지역1	수도권	5.1	100	0.0	97.0	3.0	0.0
	비수도권	4.5	100	0.2	99.4	0.4	0.0
지역2	서울	5.1	100	0.0	94.7	5.3	0.0
	부산	4.3	100	0.0	100.0	0.0	0.0
	대구	5.7	100	0.0	100.0	0.0	0.0
	인천	6.9	100	0.0	90.7	9.3	0.0
	광주	5.0	100	0.0	100.0	0.0	0.0
	대전	3.5	100	0.0	100.0	0.0	0.0
	울산	7.3	100	0.0	100.0	0.0	0.0
	세종	3.8	100	0.0	100.0	0.0	0.0
	경기	4.8	100	0.0	100.0	0.0	0.0
	강원	3.9	100	0.0	100.0	0.0	0.0
	충북	3.1	100	0.0	100.0	0.0	0.0
	충남	4.7	100	3.1	96.9	0.0	0.0
	전북	4.2	100	0.0	100.0	0.0	0.0
	전남	5.8	100	0.0	93.6	6.4	0.0
	경북	3.5	100	0.0	100.0	0.0	0.0
	경남	4.2	100	0.0	100.0	0.0	0.0
	제주	4.1	100	0.0	10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5.2	100	0.0	99.0	1.0	0.0
	대학 재학·휴학	2.5	100	0.0	100.0	0.0	0.0
	대학 졸업 이상	5.3	100	0.2	97.4	2.4	0.0

n= 50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미취업자 중 구직자이며,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미구직 사유

지난주에 일을 희망하였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면,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중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향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2.0%를 차지하였으며, “당분간 쉬고 싶어서”가 8.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1.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30~34세의 경우 해당 응답이 33.0%를 차지하였고, 이는 30~34세의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 청년 중의 상당한 비중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 청년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지난 주 일을 희망하였으나 구직을 하지 않은 청년의 52.0%의 청년은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1.6%를, “당분간 쉬고 싶어서”가 6.6%를 차지하였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순서는 같으나 비율이 각각 41.9%, 22.4%, 10.0%로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당분간 쉬고 싶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율은 33.6%로 대졸 이상의 58.3%와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고졸이하 학력자의 경우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1.1%, “당분간 쉬고 싶어서”가 13.5%로 대졸 이상의 18.2%, 4.1%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경우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8%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학력 수준이 낮은 고졸자의 4.8%에 비하여 높은 비율이었다.

〈표 3-5-18〉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하였으나 구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지난주 비구직자) 지난 주 직장(일) 희망하였으나 구직하지 않은 이유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취업을 위해 준비 중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가사 일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전체		100	22.0	4.6	6.9	0.4	47.1	4.9	0.2	1.7	8.3	3.9
성별	남자	100	24.4	4.9	6.9	0.0	48.3	0.0	0.4	1.9	8.8	4.3
	여자	100	18.8	4.2	6.9	0.9	45.4	11.6	0.0	1.4	7.5	3.2
연령	19세~24세	100	25.2	4.8	9.7	0.0	41.4	0.0	0.0	0.7	11.7	6.6
	25세~29세	100	21.4	2.5	5.8	0.9	57.8	2.5	0.6	3.3	4.7	0.3
	30세~34세	100	11.7	11.3	0.0	0.0	29.7	33.0	0.0	0.0	7.9	6.3
지역1	수도권	100	21.6	5.0	8.1	0.0	52.0	3.4	0.0	0.0	6.6	3.3
	비수도권	100	22.4	4.2	5.7	0.8	41.9	6.6	0.5	3.5	10.0	4.4
지역2	서울	100	20.1	5.8	9.1	0.0	53.2	0.0	0.0	0.0	6.7	5.0
	부산	100	17.5	3.4	5.0	0.0	39.3	0.0	0.0	0.0	24.9	10.0
	대구	100	22.2	0.0	1.9	0.0	36.6	12.2	0.0	11.6	10.8	4.7
	인천	100	15.3	0.0	9.3	0.0	59.1	0.0	0.0	0.0	7.3	9.0
	광주	100	28.8	0.0	23.4	0.0	40.1	0.0	0.0	7.7	0.0	0.0
	대전	100	38.4	0.0	0.0	0.0	61.6	0.0	0.0	0.0	0.0	0.0
	울산	100	12.3	0.0	0.0	0.0	60.4	0.0	0.0	4.9	12.5	9.9
	세종	100	0.0	10.0	0.0	0.0	42.7	0.0	0.0	32.0	15.3	0.0
	경기	100	24.9	5.8	6.8	0.0	48.8	7.6	0.0	0.0	6.2	0.0
	강원	100	33.2	3.0	3.0	0.0	35.4	22.3	0.0	0.0	3.0	0.0
	충북	100	11.9	0.0	20.8	35.0	0.0	0.0	0.0	0.0	20.8	11.7
	충남	100	37.2	2.5	12.4	0.0	30.5	0.0	0.0	0.0	0.0	17.4
	전북	100	13.1	0.0	13.1	0.0	47.7	0.0	6.2	0.0	20.0	0.0
	전남	100	27.1	18.0	0.0	0.0	26.6	11.9	0.0	4.7	9.3	2.5
	경북	100	30.1	7.4	0.0	0.0	40.9	19.0	0.0	0.0	2.6	0.0
경남	100	9.4	6.2	0.0	0.0	72.1	0.0	0.0	0.0	12.3	0.0	
제주	100	25.0	16.6	8.3	0.0	43.0	0.0	0.0	0.0	0.0	7.1	
학력	고졸 이하	100	21.1	12.1	4.8	0.0	33.6	8.9	0.0	5.4	13.5	0.5
	대학 재학·휴학	100	30.2	7.8	6.3	0.0	32.1	1.4	0.0	0.5	13.6	8.2
	대학 졸업 이상	100	18.2	0.9	7.8	0.7	58.3	5.5	0.4	1.3	4.1	2.7

n=2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미취업자 중 미구직자이나 일을 원하였던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이직 또는 구직 시 영향 요인

이직 또는 구직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의 48.5%가 임금을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12.8%,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가 8.4%로 나타났다. 임금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여성(47.2%)에 비하여 남성(49.7%)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5~29세 청년(49.9%)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51.9%가 임금을 1순위로 꼽아 비수도권의 44.7%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14.5%로 수도권의 11.2%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수준에 대한 비율도 4.9%로 수도권의 3.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 전남, 충북, 인천, 서울, 제주, 경기 지역 청년의 절반 이상은 임금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뽑았다. 대전의 경우 임금이 1순위인 비율은 33.3%에 불과하였으며, 복지수준을 20.6%로 뽑아 여타 지역과 다른 순위를 나타냈다. 부산의 경우 임금은 36.5%에 불과하였으며, 고용 안정성이 22.1%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의 56.6%가 임금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근로시간이 9.4%로 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고용안정성은 9.2%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임금은 47.5%로 그 비율이 고졸 이하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며, 대신, 고용안정성이 13.9%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더불어 본인의 장기적인 진로 설계 역시 8.2%를 차지하여 고졸 이하 청년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력에 따라 이직 또는 구직 시 고려하는 요인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5-19〉 아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단위: %)

구분		비율	아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													
			임금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승진 가능성	휴일 (주말)제	동료 또는 상사의 관계	회사 전망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	스카우트 제의	복지 수준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기타
전체		100	48.5	7.2	12.8	0.5	3.3	1.6	4.2	8.4	0.2	4.0	2.1	2.1	4.5	0.6
성별	남자	100	49.7	5.4	12.5	0.6	2.6	1.5	5.2	8.7	0.2	3.4	2.6	2.4	4.8	0.4
	여자	100	47.2	9.1	13.2	0.3	4.1	1.6	3.2	8.1	0.1	4.6	1.5	1.8	4.3	0.8
연령	19세-24세	100	47.0	6.1	11.7	0.5	2.6	1.8	4.2	10.2	0.1	3.8	3.0	3.1	5.3	0.5
	25세-29세	100	49.9	6.8	13.1	0.3	3.5	1.4	4.2	8.1	0.2	3.5	2.1	1.8	4.2	0.7
	30세-34세	100	48.7	8.8	13.7	0.5	3.9	1.5	4.3	6.6	0.2	4.6	1.1	1.4	4.0	0.6
지역1	수도권	100	51.9	6.7	11.2	0.5	2.7	1.7	4.3	8.9	0.2	3.1	2.1	1.6	4.2	0.8
	비수도권	100	44.7	7.7	14.5	0.4	4.0	1.5	4.2	7.8	0.2	4.9	2.1	2.8	4.9	0.4
지역2	서울	100	53.3	5.6	12.0	0.3	2.8	1.8	3.9	9.9	0.1	2.9	1.1	1.3	4.3	0.7
	부산	100	36.5	9.8	22.1	0.4	3.4	1.6	4.1	9.3	0.1	3.9	1.8	2.4	4.6	0.1
	대구	100	40.2	6.6	10.9	0.8	4.1	1.5	7.3	10.3	0.1	2.7	3.7	3.1	8.4	0.3
	인천	100	54.0	7.8	8.7	0.9	2.4	1.9	4.9	8.3	0.1	3.5	3.0	2.4	2.1	0.1
	광주	100	39.0	5.5	21.0	0.4	3.9	0.6	1.9	3.2	0.0	4.7	1.7	5.5	12.4	0.0
	대전	100	33.3	4.0	12.9	0.9	2.9	3.5	3.4	6.7	1.2	20.6	1.5	6.7	2.4	0.1
	울산	100	55.5	5.9	10.6	0.6	5.2	0.3	4.5	5.2	0.0	3.6	2.0	0.7	5.1	0.6
	세종	100	38.6	9.9	19.1	0.0	3.4	0.9	3.6	5.9	0.0	5.6	0.3	2.7	8.4	1.6
	경기	100	50.5	7.3	11.2	0.6	2.7	1.5	4.5	8.3	0.2	3.2	2.6	1.6	4.7	1.1
	강원	100	48.7	11.8	12.9	0.1	3.9	1.4	3.2	7.9	0.1	2.5	1.1	1.5	3.8	1.1
	충북	100	54.7	4.4	15.0	0.6	3.0	1.6	4.0	8.1	0.1	2.7	0.9	2.1	2.7	0.0
	충남	100	47.4	10.0	11.8	0.8	4.9	1.4	6.6	8.5	0.0	2.4	2.1	1.4	2.7	0.0
	전북	100	48.4	7.2	14.3	0.1	2.9	0.7	4.7	8.8	0.3	3.1	0.7	2.4	5.9	0.5
	전남	100	55.4	9.8	9.6	0.2	4.2	1.1	1.6	4.8	0.0	4.5	1.6	2.7	3.8	0.6
	경북	100	49.7	6.6	13.1	0.0	4.4	1.6	3.1	10.9	0.1	3.4	3.1	1.7	1.7	0.7
	경남	100	44.2	9.0	12.9	0.2	4.9	1.6	4.3	6.6	0.1	4.5	3.9	3.0	4.2	0.6
학력	제주	100	51.4	7.1	13.9	0.2	5.1	1.2	2.3	6.8	0.0	4.7	0.2	0.6	5.6	0.9
	고졸 이하	100	56.6	9.4	9.2	0.3	4.5	1.3	2.7	6.3	0.0	4.1	0.6	0.9	3.7	0.4
	대학 재학·휴학	100	46.1	6.3	12.3	0.5	2.1	1.4	4.8	10.3	0.0	3.3	3.7	3.8	4.9	0.6
	대학 졸업 이상	100	47.5	7.0	13.9	0.5	3.5	1.7	4.4	8.2	0.2	4.2	1.9	1.8	4.6	0.7

n= 14,93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 내 다양한 집단의 일자리 및 구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도별로 청년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 청년은 지난 주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비율이 69.6%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4.9%로 무려 4.7%p 가량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복수일자리의 비율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의 경우 그 비율이 5.2%였던 반면 비수도권은 2.2%로 수도권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복수일자리를 가진 취업자의 비율이 각각 6.0%와 5.1%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대전, 경북에서는 1.5% 미만으로 낮았다. 이러한 취업자와 복수일자리의 지역별 편차를 통하여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공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수일자리 비율도 높아 일자리의 공급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복수일자리 비율은 일자리의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와 관련한 지표일 수도 있고, 일자리의 낮은 질로 인하여 둘 이상의 일자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고, 밤시간이나 저녁시간, 장시간 근로와 같은 비정규근로시간에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퇴근한 날로부터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이 되지 않았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역시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자리의 공급이 많고 평균 임금 수준도 높으나, 과중한 근로와 장시간 근로를 경험하는 비율도, 불완전 취업을 경험하는 비율도 모두 높은 양상을 나타낸다. 이 같은 지역별 편차와 각 지역별 일자리의 제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역 노동시장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직자나 미취업자의 현황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일을 그만둔 경험에 있는 여성 청년의 10.1%는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일을 그만두었던 반면, 남성 청년의 0.4% 만이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일을 그만 두었다. 일을 그만두고 어려움을 겪었던 점 역시 여성의 경우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이 6.4%를 차지하였다. 남성 청년이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을 희망하였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은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11.6%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년 내에서도 여전히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청년의 경우 이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에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디지털 숙련의 요구 수준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업무 활동 시에 매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중은 4.8% 정도로 나타났으며, 월 1회 이상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전체 취업 청년의 10.9%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 노동시장 내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디지털 숙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 취업자의 13.5%가 월 1회 이상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디지털 숙련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개발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낙후한 조직 문화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숙련이 노동시장 내에 어떠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디지털 숙련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어떠한 노동시간과 건강위험을 나타내는지, 임금 보상 수준은 어떠한지를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으로는 청년 취업자의 11.5%가 지난 1년 사이에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쉬는 경험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가 일을 하더라도 단속성(intermittent)을 나타내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년 취업자의 14.4%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하는 일이 기술변화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자리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거나, 불안정한 전망을 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은 집단과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 다양한 불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여지가 높아 보인다. 향후 심층 연구를 통하여 청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의 양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직이나 구직 등의 사유나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 등을 묻는 문항의 경

우 문항 내 선택지의 수가 많으나 대부분이 특정 요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선택지들이 배타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청년의 절반가량이 임금을 꼽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등의 문항은 각각 2~4%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일자리인 만큼 여타 문항과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향후 이러한 선택지들 사이에 보다 배타적인 특성만이 남도록 설문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한국은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OECD(2020)는 회원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 사회적 관계의 질을 측정한다. 한국인 가운데 21.5%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이 통계 수치는 터키(26.7%)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10.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다른 나라에 견줘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가운데 청년 집단의 사회관계에 관한 위험 신호 역시 감지되고 있다(김성아, 2022). 주변과의 사회적 관계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단절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 청년 세대의 고립에 주목하는 연구도 늘고 있다(김성아 외, 2021;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여기서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관계의 부적절한 질과 양.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상호관계가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개인, 집단, 지역 혹은 더 넓은 사회적 환경)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Zavaleta, Samuel, & Mills., 2017; p. 5).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정치다.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자신의 이해와 의견을 드러내고 관철하거나 양보하는 과정은 정치의 과정이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인 투표에서 청년의 참여 비율은 낮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전반~30대 전반 연령대의 투표율은 70.4~71.5% 수준이다(국가지표체계, 2023). 40대(74.2%), 50대(81.4%), 60대(87.6%)보다 크게 낮다. 이와 같은

수치들을 살펴보면, 청년 집단은 다른 집단에 견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절에서는 한국 청년 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 및 고립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수준, 그리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분석 결과

가. 관계

청년 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 및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물었다. 다섯 가지는 아래 <표 3-6-1>에서 제시됐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가능한 집단’과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물었다. ‘도움 가능’과 ‘도움 희망’이 다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를테면, 자발적으로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집단인 경우, 주변에 도움이 가능한 집단이 있어도 본인이 도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절에서는 다섯가지 어려움 가운데 첫째(‘큰 돈’)와 넷째(‘우울’), 다섯째(‘부당한 일’)에 한정해서 내용을 분석했다.

<표 3-6-1> 다섯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및 도움 가능 및 도움 희망 여부 문항 형식

구분	도움 가능 (복수 응답)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5)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자료: ‘청년 삶 실태 조사’ 조사표의 해당 문항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열개만 제시함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가능한 집단을 보면, 가족(92.8%), 지인(33.5%), 공공(10.7%), 민간기관(2.0%)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다만, 한가지 확인할 지점은 앞서 OECD(2020)에서 제시한 수치와 이 수치

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항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항에 대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부 드러났다. 19~24세 연령대에서는 ‘도움 받을 사람/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2.6%로 낮았지만, 30~34세로 가면 비율이 4.4%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연령대로 높아질수록 94.7%에서 90.1%로 떨어지는 경향과 반비례하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컸다. ‘도움받을 어떤 사람/기관이 없다’는 비율이 울산(14.0%), 경남(10.6%)에서 두자리 수를 나타낸 반면, 세종(0.4%), 대전(0.4%)에서 크게 낮았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도 대전(98.4%), 광주(96.8%), 세종(96.6%), 충북(96.3%)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울산(82.5%), 경남(84.9%)이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전(50.0%), 부산(43.3%)에서 높았고, 세종(16.3%), 울산(21.3%)에서 낮았다.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세종(19.9%)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5.1%)에서 가장 낮았다. 민간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0.1%(대전)~5.1%(울산)로 차이가 컸다.

〈표 3-6-2〉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92.8	33.5	10.7	2.0	3.3
성별	남자	100	92.7	36.2	9.7	1.8	3.2
	여자	100	93.0	30.4	11.7	2.1	3.4
연령	19세~24세	100	94.7	33.5	10.8	2.0	2.6
	25세~29세	100	93.3	34.7	10.2	1.5	3.2
	30세~34세	100	90.1	32.2	11.0	2.4	4.4
지역1	수도권	100	93.4	33.2	11.4	2.1	2.7
	비수도권	100	92.1	33.7	9.8	1.8	4.0
지역2	서울	100	94.0	35.3	10.6	1.9	2.3
	부산	100	93.9	43.3	8.7	1.9	2.6
	대구	100	90.2	22.4	9.8	1.2	5.4
	인천	100	90.6	34.5	6.8	1.2	4.0
	광주	100	96.8	25.8	5.1	0.5	1.4
	대전	100	98.4	50.0	5.7	0.1	0.4
	울산	100	82.5	21.3	9.7	5.1	14.0
	세종	100	96.6	16.3	19.9	1.6	0.4
	경기	100	93.6	31.4	13.0	2.4	2.7
	강원	100	92.6	32.2	11.6	3.2	1.7
	충북	100	96.3	30.4	11.0	0.2	1.7
	충남	100	90.5	29.7	14.2	0.8	3.4
	전북	100	92.0	27.0	7.3	1.5	4.3
	전남	100	92.2	33.5	10.9	1.6	3.9
	경북	100	93.6	42.5	12.2	2.5	2.0
	경남	100	84.9	34.2	10.0	4.1	10.6
	제주	100	89.9	39.8	8.9	0.5	3.7
학력	고졸 이하	100	87.7	34.7	9.8	1.4	5.6
	대학 재학·휴학	100	95.2	34.3	11.1	1.8	2.6
	대학 졸업 이상	100	93.1	32.9	10.7	2.1	3.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물었다.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한 정책이 다수 제시되는 상황을 고려한 문항이었다 (조현아, 2023.2.1.). ‘큰 돈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92.8%)과 비교하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5%로 떨어졌다. 그 대신 지인을 제시한 비율은 66.0%로 ‘큰 돈이 필요할 때’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33.5%)의 두배 정도 비율이 높았다. 청년들은 큰 돈이 필요할 때는 가족을 찾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친구나 동료를 찾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부각되지 않는 반면, 지역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와 일부 다른 경향도 보인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84.7%), 부산(83.6%) 등에서 높았고, 대전(68.6%), 전북(69.4%)로 낮았다. 대전의 양상이 다소 독특하다. 대전은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98.4%) 반면, 우울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우울할 때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대전(76.6%)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부산(75.9%)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경북(11.0%)과 대전(8.3%)이 가장 높았다.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고졸 이하(72.1%)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6-3〉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 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76.5	66.0	6.1	4.0	2.2
성별	남자	100	77.2	65.3	5.7	3.3	1.9
	여자	100	75.7	66.8	6.6	4.7	2.5
연령	19세~24세	100	76.9	69.4	5.9	3.9	1.9
	25세~29세	100	76.9	66.8	6.5	3.8	2.2
	30세~34세	100	75.5	61.3	5.9	4.3	2.6
지역1	수도권	100	76.4	64.2	7.3	4.2	2.3
	비수도권	100	76.6	68.1	4.8	3.8	2.1
지역2	서울	100	75.8	71.2	8.3	5.1	2.0
	부산	100	83.6	75.9	3.9	2.8	1.5
	대구	100	70.7	73.5	5.0	3.3	2.4
	인천	100	72.6	64.3	2.0	3.2	3.4
	광주	100	83.0	52.9	1.3	1.5	1.2
	대전	100	68.6	76.6	3.0	8.3	0.8
	울산	100	80.5	58.2	5.6	2.1	4.7
	세종	100	84.7	53.0	5.9	3.9	0.8
	경기	100	77.6	58.8	7.7	3.6	2.3
	강원	100	78.2	63.4	5.4	3.7	2.3
	충북	100	70.7	65.2	5.5	1.7	2.1
	충남	100	80.8	67.7	5.3	3.1	1.4
	전북	100	69.4	64.3	3.7	3.2	4.3
	전남	100	74.1	65.6	5.8	4.7	2.8
	경북	100	75.6	70.5	11.0	5.2	1.8
	경남	100	79.0	67.0	2.8	4.6	2.2
	제주	100	74.8	75.7	5.1	3.9	2.5
학력	고졸 이하	100	72.1	62.6	5.8	3.2	3.0
	대학 재학·휴학	100	78.9	69.6	6.1	4.1	2.0
	대학 졸업 이상	100	76.6	65.4	6.2	4.1	2.1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차별, 고충, 갈등 등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어떤 기관/사람도 없다’도 답한 비율이 3.4%로 ‘큰 돈이 필요할 때’(3.3%)와 비슷하고, ‘우울’(2.2%)의 어려움과 비교할 때보다 높았다. ‘일상의 부당함’이라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3.8%)이 남성(3.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올라갔다. 2.7%(19-24세)에서 4.8%(30-34세)로 비율이 올랐다.

지역별 차이는 역시 컸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울산(14.8%)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울산은 세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 부산이 1.1%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산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도 세종(90.6%) 다음으로 높은 86.4%였다. 울산(67.4%)과 대구(70.9%), 전북(71.4%)의 비율이 낮았다.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전(64.3%), 제주(63.7%), 부산(63.5%) 순으로 높았고, 낮은 지역은 세종(38.1%), 광주(44.9%), 전북(45.2%), 울산(45.9%)였다. 공공과 민간 기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대전(36.7%)과 경북(8.5%)에서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2.4%로 낮았고, 그 다음이 대졸 이상(3.7%)이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떤 기관/사람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2~3% 정도가 꾸준히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세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은 대상은 꾸준히 가족, 지인, 공공기관, 민간기관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상의 어려움’을 제외하고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 내외로 낮았다. 사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집단을 배려하는 공적인 제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셋째, 고졸, 여성, 독거가구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는 지역의 가족 및 지연 문화, 공공 인프라 및 민간 기관의 활성화 수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4〉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차별, 고충, 갈등 등)]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주민센터 , 정부 등)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77.4	53.3	23.5	5.0	3.4
성별	남자	100	78.1	52.9	22.2	4.3	3.1
	여자	100	76.7	53.6	24.8	5.8	3.8
연령	19세~24세	100	81.0	53.6	23.5	5.2	2.7
	25세~29세	100	77.7	55.4	23.2	4.6	3.0
	30세~34세	100	73.0	50.5	23.7	5.3	4.8
지역1	수도권	100	76.1	51.9	23.5	5.1	3.4
	비수도권	100	78.9	54.8	23.5	5.0	3.5
지역2	서울	100	75.5	57.7	26.4	6.5	2.9
	부산	100	86.4	63.5	28.4	7.0	1.1
	대구	100	70.9	48.4	24.5	4.0	6.4
	인천	100	74.6	51.7	12.7	3.1	3.5
	광주	100	85.6	44.9	14.0	1.7	1.7
	대전	100	82.6	64.3	36.7	4.7	4.6
	울산	100	67.4	45.9	19.3	3.9	14.8
	세종	100	90.6	38.1	24.2	4.1	1.4
	경기	100	76.9	47.4	23.6	4.4	3.8
	강원	100	80.2	52.7	19.6	3.8	2.5
	충북	100	76.5	51.7	25.5	5.0	2.4
	충남	100	81.5	60.5	11.0	2.4	1.6
	전북	100	71.4	45.2	25.8	4.8	3.5
	전남	100	72.4	56.9	24.1	8.0	2.9
	경북	100	77.5	58.3	28.5	8.5	3.4
	경남	100	80.7	53.8	19.0	4.3	3.3
	제주	100	76.1	63.7	21.2	5.2	3.5
학력	고졸 이하	100	72.1	50.7	20.7	4.5	4.2
	대학 재학·휴학	100	83.6	53.7	24.2	5.4	2.4
	대학 졸업 이상	100	76.2	53.7	23.8	5.0	3.7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도움을 희망하는 것은 다르다. 정세정, 김기태 (2022)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원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움 받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인구 비율이 8%를 넘어선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림 3-6-1] 참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세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집단으로부터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지를 물었다.

[그림 3-6-1] 도움 가능과 도움 희망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		
	도움받기를 원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도움받을 곳이 있음	65.58 (집단 I. 비배제)	8.61 (집단 II. 자발적 배제)
도움받을 곳이 없음	12.74 (집단 III. 비자발적 배제)	13.07 (집단 IV. 고립)

자료: 정세정, 김기태 (2022) 표 3.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원하는 집단을 보면, 가족(68.8%), 공공(18.7%), 지인(8.5%), 민간기관(1.5%)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집단에게도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4%로 나타났다. 정세정, 김기태(2022)가 19~59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약 21%의 응답자가 큰 돈이 필요할 때 어떤 기관/사람으로부터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 집단에서는 도움을 거부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설문의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큰 돈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원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은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30세 이상 집단에서 비율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9.1%, 울산이 5.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0.4%), 대전(0.5%), 충북(0.8%)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비율은 남성(69.5%), 19-24세(72.1%), 비수도권(70.0%), 지역별로는 대전(90.5%), 충북(81.4%), 대학 재학·휴학(7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컸다. 울산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는 비율이 42.7%로 대전의 절반에 못미쳤다.

큰 돈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비율은 18.7%였다. 지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비율(8.5%)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을 제외한 사적인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공적인 공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다. 여성(20.0%), 30~34세(21.1%), 수도권(19.5%), 고졸 이하(22.3%), 등에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바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희망하는 물적인 도움의 내용까지는 설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별 차이는 컸다. 앞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는 비율(42.7%)이 가장 낮았던 울산의 응답자들 가운데 공공기관의 도움을 선호한 비율은 43.2%였다. 울산에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등(허광무, 2023.2.1.)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울산의 청년 지원 대책이 이와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앞서 ‘큰 돈이 필요할 때’ 공공의 도움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답한 울산의 응답자 비율은 9.7%로 전국 평균(10.7%) 보다 낮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3-6-5〉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68.8	8.5	18.7	1.5	2.4
성별	남자	100	69.5	9.2	17.6	1.2	2.5
	여자	100	67.9	7.8	20.0	1.9	2.3
연령	19세-24세	100	72.1	7.5	16.9	1.3	2.1
	25세-29세	100	68.7	9.6	18.6	1.0	2.2
	30세-34세	100	65.1	8.6	21.1	2.3	3.0
지역1	수도권	100	67.7	9.1	19.5	1.7	2.0
	비수도권	100	70.0	8.0	17.9	1.3	2.8
지역2	서울	100	68.7	8.3	19.6	1.3	2.1
	부산	100	68.4	11.1	15.5	2.3	2.7
	대구	100	72.2	6.9	17.6	0.3	3.0
	인천	100	71.0	8.3	18.1	1.3	1.3
	광주	100	71.4	9.4	16.6	1.0	1.5
	대전	100	90.5	4.1	4.6	0.3	0.5
	울산	100	42.7	6.4	43.2	2.5	5.3
	세종	100	73.8	5.3	18.0	2.5	0.4
	경기	100	66.2	9.8	19.7	2.1	2.2
	강원	100	70.8	7.8	17.9	1.7	1.9
	충북	100	81.4	3.1	13.7	1.0	0.8
	충남	100	66.2	7.8	24.1	0.4	1.4
	전북	100	70.0	4.7	20.5	1.7	3.1
	전남	100	65.0	10.0	22.7	0.9	1.4
	경북	100	69.9	9.3	16.8	2.2	1.8
	경남	100	62.8	11.0	15.5	1.6	9.1
	제주	100	64.5	7.6	24.9	1.2	1.8
학력	고졸 이하	100	60.4	13.1	22.3	1.2	3.1
	대학 재학·휴학	100	74.2	6.9	15.2	1.3	2.4
	대학 졸업 이상	100	68.7	8.1	19.3	1.7	2.3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을 물었다. 앞서 ‘큰 돈이 필요할 때’와 비교했을 때, 가족의 비율은 46.0%로 줄고 지인의 비율은 39.2%로 늘었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는 비율은 2.7%였다.

집단별로 보면,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는 비율에서 성별 및 수도권/비수도권 차이는 크지 않았다. 30-34세 연령대(3.2%), 고졸 이하(3.3%) 등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청년 독거 가구는 가족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이 38.9%로 다른 집단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울산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9.3%로 높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전북(4.2%), 경남(3.3%) 등의 지역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전(0.9%), 세종(1.2%)에서 비율은 낮았다.

우울과 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국 평균은 9.2%였는데, 여자(9.7%), 30-34세(10.2%), 대졸 이상(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이 높고, 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정서 문제에 대한 공공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 단위로 보면, 울산(14.4%), 경북(13.1%), 전남(12.0%)에서 정서 문제에 대한 공적인 도움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울산은 민간기관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도 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 지역은 금전 및 정서 문제에 대해서 모두 혈연과 지연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공공과 민간 기관을 통한 도움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어느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표 3-6-6〉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주민센터 , 정부 등)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46.0	39.2	9.2	2.8	2.7
성별	남자	100	45.9	40.4	8.8	2.2	2.7
	여자	100	46.2	37.8	9.7	3.4	2.8
연령	19세~24세	100	45.7	40.9	8.5	2.5	2.5
	25세~29세	100	46.0	40.0	9.1	2.4	2.6
	30세~34세	100	46.5	36.4	10.2	3.7	3.2
지역1	수도권	100	46.8	37.3	10.2	2.9	2.8
	비수도권	100	45.2	41.3	8.1	2.7	2.7
지역2	서울	100	42.9	40.7	10.6	3.1	2.7
	부산	100	44.5	45.3	6.7	1.6	1.8
	대구	100	43.3	43.6	7.0	4.5	1.7
	인천	100	51.7	34.0	7.3	4.4	2.6
	광주	100	44.5	42.8	8.7	2.5	1.6
	대전	100	37.7	58.0	1.9	1.5	0.9
	울산	100	34.8	36.5	14.4	5.0	9.3
	세종	100	59.5	30.9	5.6	2.8	1.2
	경기	100	48.6	35.5	10.6	2.4	2.9
	강원	100	45.6	41.0	7.3	2.8	3.2
	충북	100	56.0	37.5	3.1	1.1	2.3
	충남	100	45.7	39.1	9.7	2.3	3.1
	전북	100	42.2	39.5	9.6	4.4	4.2
	전남	100	52.6	30.7	12.0	1.6	3.1
	경북	100	44.6	37.6	13.1	2.5	2.2
	경남	100	47.5	38.3	7.9	3.0	3.3
	제주	100	44.6	38.7	10.9	3.5	2.3
학력	고졸 이하	100	43.0	42.1	8.8	2.9	3.3
	대학 재학·휴학	100	47.7	39.9	7.7	2.0	2.6
	대학 졸업 이상	100	46.1	38.2	9.9	3.1	2.7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차별과 고충, 갈등과 같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의 문제에 대한 도움 희망 여부도 물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이 가족(46.1%), 공공기관(28.0%), 지인(20.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2.9%), 민간기관(2.5%)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성(28.9%), 30-34세(31.1%), 수도권(28.6%), 대졸 이상(2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큰 돈이 필요할 때’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일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학력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집단에서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이 나타난다.

〈표 3-6-7〉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단위: %)

구분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차별, 고충, 갈등 등)]				
			가족(친척)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100	46.1	20.5	28.0	2.5	2.9
성별	남자	100	46.1	21.7	27.1	2.1	3.0
	여자	100	46.2	19.2	28.9	2.9	2.7
연령	19세-24세	100	48.5	19.9	26.6	2.4	2.6
	25세-29세	100	46.6	21.8	26.5	2.3	2.8
	30세-34세	100	42.9	19.9	31.1	2.7	3.4
지역1	수도권	100	45.4	20.2	28.6	2.8	3.0
	비수도권	100	47.0	20.9	27.2	2.1	2.8
지역2	서울	100	42.3	20.4	31.7	3.2	2.4
	부산	100	45.8	21.6	29.8	1.6	1.2
	대구	100	43.2	18.7	31.7	3.6	2.9
	인천	100	50.2	21.4	23.8	3.2	1.5
	광주	100	50.7	28.2	18.0	2.0	1.2
	대전	100	48.4	20.6	25.7	1.0	4.4
	울산	100	32.3	13.5	42.7	1.4	10.0
	세종	100	63.6	10.4	22.4	2.1	1.5
	경기	100	46.7	19.8	27.3	2.4	3.7
	강원	100	49.5	22.5	24.1	2.3	1.6
	충북	100	55.2	15.7	26.1	1.3	1.8
	충남	100	44.0	30.8	21.7	1.2	2.4
	전북	100	43.6	15.4	35.5	1.8	3.7
	전남	100	45.4	21.7	27.4	2.9	2.6
	경북	100	46.0	19.2	28.1	4.2	2.5
	경남	100	51.5	21.5	21.4	1.9	3.6
	제주	100	43.4	19.3	31.8	3.2	2.3
학력	고졸 이하	100	42.3	23.2	27.7	2.5	4.4
	대학 재학·휴학	100	51.4	18.3	25.7	2.3	2.2
	대학 졸업 이상	100	45.0	20.8	28.9	2.5	2.8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고립 및 은둔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도 없는 국내 사회적 고립인구는 2019년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4.7%로 추산됐다(김성아, 2022). 약 220만명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범유행을 겪으면서 그 비율은 6.0%로 늘어서, 해당 인구는 280만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김성아, 2022). 이 가운데 청년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9년 3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성아 외, 2022). 청년의 고립 및 은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혹은 ‘②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 중에’, ‘평소에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①은 동거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②는 업무 상 접촉 대상은 제외했다.

먼저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 혹은 친척이 없다는 비율은 13.6%였다. 남자(15.6%), 고졸 이하(19.3%) 집단에서 동거하는 가족 외 교류하는 가족 및 친척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물론, 이 문항은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 있는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교류하는 비동거 가구 혹은 친척이 없는 비율이 충북(22.9%), 울산(22.1%)에서 높았고, 세종(5.8%), 충남(8.1%)에서 낮았다.

두 번째, 친족 외에 교류하는 지인이 없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없다는 비율이 9.6%였다. 남성(11.1%), 30-34세(11.7%), 수도권(10.1%), 고졸 이하(15.7%)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세분하면, 충북(17.0%), 전북(14.6%)에서 가족 외 타인과의 교류가 적은 청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8〉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가족 또는 친척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업무상 접촉은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00	86.4	13.6	90.4	9.6
성별	남자	100	84.4	15.6	88.9	11.1
	여자	100	88.6	11.4	92.1	7.9
연령	19세~24세	100	85.2	14.8	92.8	7.2
	25세~29세	100	86.1	13.9	89.9	10.1
	30세~34세	100	88.1	11.9	88.3	11.7
지역1	수도권	100	86.3	13.7	89.9	10.1
	비수도권	100	86.5	13.5	91.1	8.9
지역2	서울	100	87.1	12.9	91.5	8.5
	부산	100	90.8	9.2	95.5	4.5
	대구	100	87.1	12.9	93.1	6.9
	인천	100	86.9	13.1	89.4	10.6
	광주	100	85.8	14.2	86.3	13.7
	대전	100	87.7	12.3	96.9	3.1
	울산	100	77.9	22.1	90.6	9.4
	세종	100	94.2	5.8	89.1	10.9
	경기	100	85.6	14.4	88.8	11.2
	강원	100	90.1	9.9	92.4	7.6
	충북	100	77.1	22.9	83.0	17.0
	충남	100	91.9	8.1	92.8	7.2
	전북	100	79.4	20.6	85.4	14.6
	전남	100	88.4	11.6	88.3	11.7
	경북	100	91.7	8.3	95.5	4.5
	경남	100	82.8	17.2	88.9	11.1
	제주	100	80.9	19.1	84.3	15.7
학력	고졸 이하	100	80.7	19.3	84.3	15.7
	대학 재학·휴학	100	85.8	14.2	93.7	6.3
	대학 졸업 이상	100	88.0	12.0	90.6	9.4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고립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는 외출의 빈도를 묻는 것이다. 외출의 빈도를 여덟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물었다. 이 가운데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한 비율¹⁰⁾을 합했다. 이들을 편의상 ‘은둔’ 집단으로 명명하면, 은둔 집단의 비율은 전체 평균 2.8%였다. 나누어서 보면,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비율이 1.4%,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는 비율이 1.3%였다. 나머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각각 0.1%와 0.0%였다.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둘 대목은 있다. ‘청년 삶 실태 조사’는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과정에서 마지막 두 항목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설문 대상에 얼마나 포함됐을지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은둔 집단’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면, 여성(3.1%), 25~29세(3.1%), 수도권(3.2%), 고졸 이하(4.9%)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은둔 집단’의 비율을 보면, 제주(4.5%), 경기(4.1%)에서 높았고,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1.2%), 부산(1.3%)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10) 응답 문항 여덟 개 가운데, 아래 네 문항 가운데 하나로 응답을 한 비율을 합했음.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표 3-6-9〉 외출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외출 빈도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 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 한다	여가 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 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 만을 위해 외출 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체		100	70.7	9.1	6.3	11.0	1.4	1.3	0.1	0.0
성별	남자	100	74.2	8.5	5.4	9.3	1.5	1.1	0.1	0.0
	여자	100	66.9	9.7	7.3	12.9	1.4	1.6	0.1	0.0
연령	19세~24세	100	62.2	15.4	7.2	12.5	1.6	1.0	0.1	0.0
	25세~29세	100	74.6	6.1	6.1	10.1	1.5	1.4	0.2	0.0
	30세~34세	100	76.3	5.1	5.4	10.3	1.1	1.6	0.0	0.0
지역1	수도권	100	69.7	9.9	6.4	10.6	1.6	1.4	0.2	0.0
	비수도권	100	71.9	8.1	6.1	11.4	1.2	1.2	0.1	0.0
지역2	서울	100	71.3	10.3	5.7	10.4	1.5	0.7	0.1	0.0
	부산	100	73.6	8.5	5.7	10.8	0.9	0.4	0.0	0.0
	대구	100	68.9	8.8	5.2	14.5	1.8	0.7	0.1	0.0
	인천	100	74.3	5.9	5.0	12.5	0.8	1.4	0.2	0.0
	광주	100	75.4	9.2	3.8	7.9	1.7	1.6	0.4	0.0
	대전	100	82.4	4.5	5.8	6.1	0.6	0.6	0.0	0.0
	울산	100	63.5	9.5	8.3	16.3	0.3	2.1	0.0	0.0
	세종	100	64.5	11.7	5.9	14.3	1.7	2.0	0.0	0.0
	경기	100	67.5	10.5	7.3	10.4	1.9	2.0	0.2	0.0
	강원	100	74.1	6.9	5.7	10.3	1.4	1.2	0.4	0.0
	충북	100	78.1	7.3	5.3	7.8	1.0	0.4	0.1	0.0
	충남	100	66.3	8.6	7.3	13.9	1.1	2.6	0.0	0.1
	전북	100	77.0	5.2	6.6	9.2	0.4	1.4	0.2	0.0
	전남	100	65.2	9.3	9.2	12.9	1.6	1.7	0.0	0.1
	경북	100	64.2	10.4	5.4	17.4	1.2	1.3	0.0	0.0
	경남	100	71.2	8.1	7.5	10.4	1.6	1.2	0.0	0.0
	제주	100	75.4	8.9	3.7	7.5	1.7	2.7	0.1	0.0
학력	고졸 이하	100	69.3	6.0	7.7	12.1	1.9	2.6	0.4	0.0
	대학 재학·휴학	100	60.5	19.0	7.3	10.4	1.8	0.9	0.1	0.0
	대학 졸업 이상	100	75.1	5.9	5.5	10.9	1.2	1.2	0.1	0.0

n= 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들 ‘은둔’ 청년들에 한정해서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를 물었다. 지역 및 가구 유형별 사례가 종종 소수인 점을 고려해서 지역과 가구 유형별 통계는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먼저, 은둔의 지속 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34.6%였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인 비율도 31.5%로 높았다. 5년 이상 장기 은둔의 비율도 6.6%였다. 사이토 다마키(2002; 김혜원 등, 2021, p. 23에서 재인용)의 기준에 따르면, “(자택에 틀어박혀) ①사회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은둔의 한 요소다. 이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집에 주로 머문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은 65.4%였다. 여성(66.2%), 30-34세(80.2%), 비수도권(66.5%), 고졸 이하(73.8%)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았다.

〈표 3-6-10〉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비율	은둔 생활 상태 지속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전체		100	34.6	21.6	31.5	5.8	2.4	4.2
성별	남자	100	35.6	23.7	28.2	5.0	4.3	3.2
	여자	100	33.8	19.6	34.5	6.4	0.6	5.1
연령	19세-24세	100	49.7	18.6	23.4	6.5	0.0	1.9
	25세-29세	100	32.9	21.6	32.7	3.2	5.8	3.8
	30세-34세	100	19.8	24.9	39.1	8.0	0.8	7.4
지역1	수도권	100	35.5	18.1	35.3	4.9	2.2	4.1
	비수도권	100	33.5	26.6	25.9	7.0	2.6	4.4
학력	고졸 이하	100	26.2	29.8	25.2	4.5	9.7	4.6
	대학 재학·휴학	100	54.8	23.9	14.0	4.3	0.0	3.1
	대학 졸업 이상	100	30.0	16.8	41.8	7.0	0.0	4.5

n=39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37.8%), 취업 문제 (29.0%), 임신이나 출산(14.7%), 인간 관계 (8.3%), 학업 중단(6.5%)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가장 많은 사유로 제시된 점은 하나의 특정화할 수 있는 은둔의 원인을 지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인구사회적 집단별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19~29세에서는 ‘취업’이 은둔의 가장 원인으로 제시됐지만, 30~34세에서는 ‘임신이나 출산’(37.7%)로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은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취업 문제(25.7%)에 이어서 임신 및 출산(25.2%)이 제시됐다.

〈표 3-6-1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단위: %)

구분		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비율	학업의 중단으로	대학 진학의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전체		100	6.5	1.2	29.0	8.3	2.5	14.7	37.8
성별	남자	100	10.7	0.9	32.5	10.3	2.4	3.4	39.7
	여자	100	2.7	1.5	25.7	6.4	2.5	25.2	36.0
연령	19세-24세	100	12.5	3.2	22.0	10.2	1.9	2.0	48.3
	25세-29세	100	4.3	0.0	44.4	7.9	4.1	7.8	31.4
	30세-34세	100	2.5	0.4	17.9	6.5	1.2	37.7	33.8
지역1	수도권	100	4.6	1.0	28.9	6.4	1.5	14.5	43.1
	비수도권	100	9.4	1.5	29.2	11.1	3.9	15.0	30.0
학력	고졸 이하	100	6.5	2.9	25.7	11.7	7.0	12.0	34.2
	대학 재학·휴학	100	16.3	1.7	8.7	9.5	0.0	0.0	63.8
	대학 졸업 이상	100	2.4	0.2	39.1	6.2	1.4	22.3	28.4

n=39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 비율은 2.4%였다. 은둔 생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0%로 가장 높고, 인간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의 순이었다.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는 6개월 미만 38.2%, 1년 이상 3년 미만 29.6%, 6개월 이상 20.3%의 순이었다.

〈표 3-6-12〉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단위: %)

구분(%)		합계	매일 외출	주3~4 일	자주 외출	가끔 외출	취미만 위해 외출	인근 편의점	방에 서만 나옴	방도 거의 안나옴
전체		100	71.1	9.1	6.3	11.0	1.3	1.0	0.1	0.0
성별	남자	100	74.3	8.5	5.4	9.3	1.4	1.0	0.1	0.0
	여자	100	67.5	9.8	7.3	13.0	1.1	1.1	0.1	0.0

n=14,90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6-13〉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은둔 기간

구분(%)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전체	100	38.2	20.3	29.6	5.4	2.6	4.0

n=33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정치 및 사회 참여

고립과 은둔에 대별하는 표현이 있다면 참여다. 고립과 은둔이 공동체로부터 자의 혹은 타의에 따라 거리를 두는 방식이라면, 참여는 공동체에 개인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행위”(조성대, 홍재우, 2012, p. 24)로서의 정치의 장에 들어선다. 먼저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었다.

청년 집단 가운데 정치에 매우 혹은 약간 관심이 있는 비율은 37.5%였다. 남성(40.6%), 30-34세(42.1%), 수도권(39.9%), 대졸 이상(39.8%)에서 관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성, 고학력, 수도권 집단에서 정치에 관심 수준이 높았다. 이른바 고학력·고소득의 ‘주류’ 집단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참여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의 양극화’ 경향(김기태, 발간예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보였다. 대전(44.1%), 인천(43.7%), 서울(42.0%) 등에서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광주(25.9%), 울산(29.5%)에서 비율이 20%대에 머물렀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율이 30%대 수준이었다. 대도시 지역이 양쪽 극단에 위치한 점이 이채롭다.

〈표 3-6-14〉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매우 관심 있다	약간 관심 있다	그다지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전체		100	4.8	32.7	40.0	22.5
성별	남자	100	6.4	34.2	38.8	20.7
	여자	100	3.0	31.1	41.4	24.4
연령	19세~24세	100	4.2	29.6	40.4	25.7
	25세~29세	100	4.4	32.7	40.7	22.1
	30세~34세	100	5.8	36.3	38.8	19.1
지역1	수도권	100	4.9	35.0	39.0	21.1
	비수도권	100	4.6	30.3	41.2	23.9
지역2	서울	100	5.4	36.6	39.6	18.5
	부산	100	2.8	30.8	46.2	20.3
	대구	100	3.1	32.6	36.7	27.5
	인천	100	7.1	36.6	31.2	25.1
	광주	100	2.7	23.2	40.0	34.1
	대전	100	18.1	26.0	39.8	16.1
	울산	100	2.4	27.1	51.0	19.5
	세종	100	4.0	30.8	53.5	11.7
	경기	100	4.1	33.3	40.3	22.3
	강원	100	3.9	31.3	39.2	25.6
	충북	100	3.4	31.9	45.0	19.6
	충남	100	2.9	28.4	43.3	25.4
	전북	100	4.6	34.4	39.0	22.1
	전남	100	4.1	34.7	37.4	23.7
	경북	100	3.8	30.5	34.1	31.6
	경남	100	3.8	30.0	42.3	23.9
	제주	100	3.2	35.1	39.6	22.1
학력	고졸 이하	100	3.2	25.5	39.9	31.4
	대학 재학·휴학	100	5.0	31.9	40.3	22.8
	대학 졸업 이상	100	5.0	34.8	40.0	20.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이어서 실제의 참여 내용 및 빈도에 대해서 물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섯 문항에 대해서 설문했다. 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③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④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직접 제출하기, ⑤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⑥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 봉사 하기 등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이 제약을 고려해서 ③ 번과 ⑤번 문항에 대한 분석 내용만 소개한다.

온라인 서명을 포함한 서명운동 참여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비율은 33.8%였다. 여성(41.3%), 30~34세(38.0%), 수도권(35.2%), 대졸 이상(36.3%), 청년 자녀 가구(45.4%)에서 서명 운동 참여의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범주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서명 참여 비율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이 서명 참여에 있어서는 남성(27.2%)보다 적극적이었다.

〈표 3-6-15〉 정치, 사회참여 경험[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사회참여 경험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전체		100	8.4	10.3	15.1	66.1
성별	남자	100	5.7	7.8	13.7	72.8
	여자	100	11.5	13.1	16.7	58.7
연령	19세~24세	100	8.4	9.7	13.9	68.0
	25세~29세	100	7.2	10.0	15.1	67.7
	30세~34세	100	10.0	11.5	16.5	62.1
지역1	수도권	100	9.3	11.0	14.9	64.8
	비수도권	100	7.5	9.6	15.3	67.6
지역2	서울	100	10.1	9.3	15.2	65.4
	부산	100	6.6	6.6	12.5	74.3
	대구	100	5.7	9.5	17.0	67.7
	인천	100	11.8	12.3	18.7	57.3
	광주	100	4.5	9.5	15.3	70.6
	대전	100	14.3	20.1	17.6	48.0
	울산	100	7.6	9.4	14.7	68.3
	세종	100	11.4	8.0	13.7	66.9
	경기	100	8.1	12.1	13.9	65.9
	강원	100	7.3	10.0	13.8	69.0
	충북	100	5.2	6.0	8.6	80.3
	충남	100	6.5	6.8	14.1	72.6
	전북	100	9.2	8.9	14.9	67.0
	전남	100	7.6	11.3	23.4	57.7
	경북	100	8.6	8.5	16.3	66.6
	경남	100	5.7	10.2	16.5	67.6
	제주	100	12.7	11.7	17.6	58.0
학력	고졸 이하	100	6.4	7.2	12.9	73.4
	대학 재학·휴학	100	8.3	10.1	13.8	67.9
	대학 졸업 이상	100	9.0	11.2	16.1	63.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집회 및 시위 참여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사회 참여의 유형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참여의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한번이라도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10.6%였다. 여성(12.2%), 30-34세(12.0%), 수도권(12.9%), 대졸 이상(11.4%)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서명운동 참여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9.2%)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정치·사회 참여의 다른 문항에서도 여성의 참여 비율은 일관되게 남성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21.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13.4%), 서울(12.1%) 순이었다. 충북(3.7%), 대구(4.2%)에서 비율은 낮았다.

〈표 3-6-16〉 정치, 사회참여 경험[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단위: %)

구분		비율	정치, 사회참여 경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전체		100	0.7	1.6	8.3	89.4
성별	남자	100	0.7	1.7	6.8	90.9
	여자	100	0.6	1.6	10.0	87.7
연령	19세~24세	100	0.5	1.6	7.6	90.3
	25세~29세	100	0.5	1.5	8.3	89.7
	30세~34세	100	1.0	1.8	9.2	88.0
지역1	수도권	100	0.8	2.0	10.1	87.0
	비수도권	100	0.5	1.2	6.3	92.1
지역2	서울	100	0.5	1.0	10.6	87.8
	부산	100	0.5	0.4	7.7	91.4
	대구	100	0.0	0.6	3.6	95.8
	인천	100	2.4	5.8	13.6	78.1
	광주	100	0.1	1.1	7.4	91.4
	대전	100	0.3	1.9	11.2	86.5
	울산	100	0.5	0.7	5.6	93.3
	세종	100	0.0	2.9	8.4	88.7
	경기	100	0.6	2.0	9.0	88.4
	강원	100	0.4	1.6	6.4	91.5
	충북	100	0.4	0.6	2.7	96.3
	충남	100	0.5	1.2	5.3	93.0
	전북	100	0.8	1.3	9.0	88.9
	전남	100	0.4	1.2	5.4	93.0
	경북	100	0.7	1.2	4.7	93.4
	경남	100	0.9	1.9	5.1	92.1
	제주	100	1.6	1.6	8.3	88.5
학력	고졸 이하	100	0.9	1.3	5.2	92.5
	대학 재학·휴학	100	0.5	1.7	8.6	89.2
	대학 졸업 이상	100	0.7	1.7	9.0	88.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 집단의 정치 효능감을 살펴보았다. 정치 효능감은 흔히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으로 나누어서 정의된다. 한국행정연구원(2022)은 외적 효능감은 “정부가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 즉 유의미한 참여의 보상에 대한 믿음” (p. 13)으로, 내적 효능감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치적 ‘자원’(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p. 13)”으로 설명한다. 정치효능감이 높으면 정치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세가지 문항을 통해 물어보는데, 이글에서는 아래 두 문항만 활용했다. 외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와 내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이다.

먼저, 정치의 내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19.3%) 혹은 ‘매우 그렇다’(4.5%)라고 답한 비율은 23.8%였다. 남성(25.7%), 30-34세(25.1%), 대학 재학 및 휴학(26.5%)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북(32.2%), 부산(27.8%), 경북(27.6%), 전북(27.5%) 등 도 단위의 지역에서 내적 효능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내적 효능감이 높은 지역은 대전(27.3%), 서울(26.5%) 등이었다. 전남(16.1%), 충남(18.1%), 대구(19.4%)는 내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6-17〉 정치적 효능감[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구분		비율	정치적 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	15.9	23.0	37.3	19.3	4.5
성별	남자	100	15.6	21.6	37.1	20.2	5.5
	여자	100	16.2	24.5	37.6	18.3	3.4
연령	19세~24세	100	16.7	22.5	36.7	19.7	4.4
	25세~29세	100	16.3	23.8	37.6	18.2	4.1
	30세~34세	100	14.6	22.6	37.7	20.1	5.0
지역1	수도권	100	15.7	23.1	37.2	19.4	4.5
	비수도권	100	16.1	22.8	37.5	19.2	4.4
지역2	서울	100	12.7	20.6	40.2	21.1	5.4
	부산	100	12.7	18.1	41.3	25.1	2.7
	대구	100	15.7	30.9	34.0	15.6	3.8
	인천	100	17.6	22.4	35.1	20.8	4.1
	광주	100	29.4	16.6	29.1	17.6	7.3
	대전	100	12.4	20.5	39.8	22.5	4.8
	울산	100	15.0	23.4	41.6	15.9	4.1
	세종	100	7.9	21.9	52.9	14.3	3.0
	경기	100	17.6	25.2	35.4	17.8	3.9
	강원	100	17.9	22.8	40.2	16.2	2.9
	충북	100	12.9	18.2	36.8	25.3	6.9
	충남	100	21.4	27.6	32.8	14.9	3.2
	전북	100	11.5	18.1	42.8	21.5	6.0
	전남	100	19.8	26.1	38.0	12.3	3.8
	경북	100	11.7	27.3	33.3	21.5	6.1
	경남	100	17.8	24.0	37.2	17.3	3.6
	제주	100	15.6	22.6	41.5	16.5	3.9
학력	고졸 이하	100	21.7	26.3	35.8	13.2	3.0
	대학 재학·휴학	100	14.7	22.0	36.8	21.1	5.4
	대학 졸업 이상	100	15.0	22.6	37.9	20.1	4.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항을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내적 효능감과 다소 다른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20.0%)과 비수도권(17.5%)의 비율 차이도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물론, 남성(19.7%), 대학 재학 혹은 휴학(23.0%)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은 내적 효능감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외적 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8.8%였다. 반대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 ‘그렇지 않다’가 24.6%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앞서 살펴본 내적 효능감에서도 부정적 응답 비율이 38.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치적인 내·외적인 효능감에서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6-18〉 정치적 효능감[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구분		비율	정치적 효능감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0	20.5	24.6	36.2	15.0	3.8
성별	남자	100	20.8	23.5	36.0	15.4	4.3
	여자	100	20.1	25.8	36.4	14.5	3.3
연령	19세~24세	100	19.5	23.2	36.7	16.7	3.8
	25세~29세	100	21.6	26.1	35.9	13.0	3.4
	30세~34세	100	20.2	24.6	35.8	15.3	4.2
지역1	수도권	100	20.6	24.1	35.4	15.8	4.2
	비수도권	100	20.3	25.2	37.0	14.1	3.4
지역2	서울	100	18.0	23.7	38.3	15.6	4.3
	부산	100	20.6	22.4	39.6	14.6	2.7
	대구	100	18.4	31.5	34.3	12.6	3.3
	인천	100	20.6	21.4	35.8	16.7	5.4
	광주	100	34.9	19.9	29.5	13.3	2.5
	대전	100	12.8	24.0	40.8	15.3	7.1
	울산	100	17.6	23.5	36.2	18.6	4.1
	세종	100	10.6	26.1	47.7	13.0	2.6
	경기	100	22.5	24.9	33.0	15.8	3.8
	강원	100	22.9	23.6	38.5	12.5	2.4
	충북	100	20.7	23.1	40.7	13.1	2.4
	충남	100	24.2	26.1	33.2	13.9	2.7
	전북	100	15.6	20.4	40.3	18.7	5.0
	전남	100	22.1	27.3	37.5	10.2	2.9
	경북	100	14.9	31.2	36.4	13.5	4.0
	경남	100	21.9	26.0	35.6	14.2	2.4
	제주	100	22.0	26.9	35.9	12.3	2.8
학력	고졸 이하	100	25.4	27.2	34.8	9.4	3.3
	대학 재학·휴학	100	18.4	21.7	36.9	19.0	4.0
	대학 졸업 이상	100	20.1	25.1	36.2	14.8	3.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라. 문화 및 스포츠 활동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와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이유를 물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스포츠 활동 외에도 여행과 단체·동호회 활동 등도 설문했지만, 이 절에서는 문화/스포츠로 주제를 살펴본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40.4%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여성(42.8%), 수도권(43.7%), 대졸 이상(42.2%) 집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고졸 이하(31.4%)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떨어졌다. 문화 예술에 한정해서는 도/농의 차이가 컸다. 세종(53.1%), 부산(47.5%) 등 대도시들은 대체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도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 전남(29.5%)과 경북(27.0%)에서는 30%를 하회했다.

문화 예술 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다.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17.9%), ‘경제적 부담’ (17.8%), ‘경험·지식·정보 부족’ (10.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6%), ‘공간·지리 문제’ (2.9%) 등이 제시됐다. 대부분 집단에서 시간 부족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제적 부담(32.2%)이 시간 부족(30.5%)을 앞질렀다. 상당수가 학생으로 추정되는 19-24세 집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18.9%) 대신 시간 부족(37.5%)인 점도 눈에 띈다.

〈표 3-6-19〉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

(단위: %)

구분		비율	활동경험 유무[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했다	활동경험을 못한 이유						
				안(못)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공간, 지리적 문제로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		100	40.4	59.6	17.8	45.1	5.6	2.9	10.8	17.9
성별	남자	100	38.3	61.7	16.9	42.9	6.0	2.9	10.6	20.7
	여자	100	42.8	57.2	18.8	47.8	5.0	2.9	11.0	14.5
연령	19세~24세	100	40.9	59.1	18.9	37.5	6.8	3.0	12.1	21.8
	25세~29세	100	41.0	59.0	18.1	46.2	5.2	2.6	11.4	16.6
	30세~34세	100	39.3	60.7	16.2	52.5	4.6	3.1	8.7	15.0
지역1	수도권	100	43.7	56.3	16.7	47.6	5.9	1.8	11.2	16.8
	비수도권	100	36.8	63.2	18.9	42.6	5.2	4.0	10.3	19.0
지역2	서울	100	41.4	58.6	17.5	47.9	6.1	1.8	11.2	15.5
	부산	100	47.5	52.5	24.7	36.9	8.1	2.6	9.7	17.9
	대구	100	35.4	64.6	18.0	36.8	4.7	1.1	13.3	26.1
	인천	100	47.7	52.3	15.3	49.2	5.8	2.1	9.6	18.1
	광주	100	35.7	64.3	32.2	30.5	2.7	5.8	8.4	20.5
	대전	100	48.6	51.4	9.8	73.9	3.8	3.6	5.2	3.7
	울산	100	46.3	53.7	19.7	35.7	4.0	1.5	9.1	30.0
	세종	100	53.1	46.9	16.4	52.6	6.4	2.4	9.0	13.2
	경기	100	44.6	55.4	16.3	47.0	5.8	1.8	11.6	17.5
	강원	100	38.1	61.9	13.3	41.8	4.1	7.5	8.8	24.5
	충북	100	31.9	68.1	8.0	57.3	2.4	2.3	8.0	22.1
	충남	100	35.0	65.0	16.2	43.5	6.0	3.8	10.2	20.4
	전북	100	32.0	68.0	18.2	37.6	7.7	6.1	12.2	18.1
	전남	100	29.5	70.5	19.0	32.4	6.6	5.2	13.0	23.8
	경북	100	27.0	73.0	27.4	37.8	3.9	7.0	8.8	15.2
	경남	100	30.1	69.9	16.7	45.4	6.0	3.2	13.0	15.7
	제주	100	32.8	67.2	15.7	48.1	4.3	2.0	13.2	16.7
학력	고졸 이하	100	31.4	68.6	23.1	42.2	5.5	2.4	7.4	19.4
	대학 재학·휴학	100	41.6	58.4	18.6	37.1	7.2	3.4	11.9	21.9
	대학 졸업 이상	100	42.2	57.8	16.0	49.1	4.9	2.8	11.3	15.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1년 사이 한가지 이상의 정기적 스포츠 활동’ 여부도 물었다. 경험이 있는 비율이 46.2%로 문화예술 활동(40.4%)보다는 약간 높았다. 남성(50.4%), 25-29세(48.5%), 수도권(47.3%), 대졸 이상(49.1%) 집단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61.4%)과 세종(55.4%)에서 도드라지게 비율이 높았고, 충북은 35.4%, 경북은 39.2%였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16.9%), ‘할 필요가 없어서’ (16.5%),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8.8%), ‘경험·지식·정보 부족’ (6.2%), ‘공간·지리 문제’ (3.1%) 등이 제시됐다. 광주 지역에서만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34.9%)으로 제시됐다.

〈표 3-6-20〉 활동 경험 및 경험하지 못한 이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단위: %)

구분		비율	활동경험 유무[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했다	안(못)했다	활동경험을 못한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공간, 지리적 문제로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		100	46.2	53.8	16.9	48.4	8.8	3.1	6.2	16.5
성별	남자	100	50.4	49.6	16.9	49.1	9.6	3.0	5.0	16.3
	여자	100	41.4	58.6	17.0	47.7	8.0	3.2	7.4	16.7
연령	19세~24세	100	43.7	56.3	18.9	39.6	11.4	2.7	7.8	19.6
	25세~29세	100	48.5	51.5	17.1	49.9	7.5	3.5	6.0	15.9
	30세~34세	100	46.4	53.6	14.4	57.4	7.0	3.2	4.6	13.5
지역1	수도권	100	47.3	52.7	14.5	50.5	9.3	2.7	7.3	15.7
	비수도권	100	44.9	55.1	19.6	46.1	8.3	3.6	5.1	17.4
지역2	서울	100	46.0	54.0	14.7	53.3	7.7	1.8	7.2	15.4
	부산	100	43.6	56.4	19.6	38.2	9.4	4.8	4.5	23.5
	대구	100	42.8	57.2	18.8	52.6	7.5	0.6	4.8	15.7
	인천	100	47.2	52.8	12.5	51.3	9.2	2.8	8.9	15.4
	광주	100	42.9	57.1	34.9	31.0	5.5	5.2	4.5	18.8
	대전	100	61.4	38.6	18.8	61.8	6.6	4.6	1.8	6.3
	울산	100	49.6	50.4	20.7	46.2	4.7	1.4	8.3	18.6
	세종	100	55.4	44.6	16.4	44.1	13.0	2.4	5.9	18.2
	경기	100	48.3	51.7	14.8	48.2	10.6	3.4	7.0	16.0
	강원	100	47.6	52.4	12.9	48.1	7.8	4.7	4.9	21.6
	충북	100	35.4	64.6	6.5	53.7	3.7	2.3	3.9	29.9
	충남	100	43.8	56.2	17.9	50.9	7.7	3.9	5.8	13.8
	전북	100	42.0	58.0	17.8	42.8	11.3	5.7	6.1	16.3
	전남	100	43.6	56.4	21.3	35.5	11.8	2.4	8.2	20.8
	경북	100	39.2	60.8	29.4	42.3	8.1	5.6	3.2	11.4
	경남	100	45.6	54.4	17.4	50.8	11.5	1.7	6.3	12.4
	제주	100	49.2	50.8	15.8	52.7	7.8	2.8	8.7	12.3
학력	고졸 이하	100	36.1	63.9	21.0	45.1	8.2	3.9	5.1	16.8
	대학 재학·휴학	100	44.9	55.1	18.8	38.9	11.5	2.5	7.9	20.5
	대학 졸업 이상	100	49.1	50.9	15.0	53.4	7.9	3.1	5.9	14.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이번 절에서는 한국 청년 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 및 고립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수준, 그리고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경험을 확인했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수준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로 나누어서 ①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② 어디로부터 도움을 희망하는지를 물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가능한 집단을 보면, 가족(92.8%), 지인(33.5%), 공공(10.7%), 민간기관(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5%로 떨어졌다. 대신 지인을 제시한 비율은 66.0%로 ‘큰 돈이 필요할 때’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33.5%)의 두배 정도 비율이 높았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은 2.2%였다. ‘차별, 고충, 갈등 등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은 3.4%였다. 세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떤 기관/사람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2~3% 정도가 꾸준히 확인됐다.

세가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희망하는 곳을 하나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원하는 집단을 보면, 가족(68.8%), 공공(18.7%), 지인(8.5%), 민간기관(1.5%)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집단에게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4%로 나타났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을 물었다. 앞서 ‘큰 돈이 필요할 때’와 비교했을 때, 가족의 비율은 46.0%로 줄고 지인의 비율은 39.2%로 늘었다. 어떤 사람/기관도 없다는 비율은 2.7%였다. 차별과 고충, 갈등과 같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의 문제에 대한 도움 희망 여부도 물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이 가족(46.1%), 공공기관(28.0%), 지인(20.5%),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2.9%), 민간기관(2.5%) 순이었다. ‘도움 희망’에서는 ‘도움 가능’에 비해, 공공기관을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립과 은둔에 대해서도 물었다. 고립 및 은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혹은 ‘②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 중에’, ‘평소에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먼저 교류

하는 비동거 가족 혹은 친척이 없다는 비율은 13.6%였다. 친족 외에 교류하는 지인이 없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없다는 비율이 9.6%였다. 남성(11.1%), 30-34세(11.7%), 수도권(10.1%), 고졸 이하(15.7%)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집단 가운데 외출의 빈도도 확인했다. 여덟 개의 답변 문항 가운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다 은둔의 정도가 높은 집단의 비율은 2.8%였다. 이들에 한정해서 은둔 상태가 지속된 기간을 물었을 때, 6개월 이상 은둔 상태가 지속된 비율은 65.4%였다.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37.8%), 취업 문제(29.0%), 임신이나 출산(14.7%), 인간 관계 (8.3%), 학업 중단(6.5%)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청년집단의 정치 및 사회 참여의 내용도 물었다.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었을 때, ‘매우 관심 있다’ 혹은 ‘약간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5%였다. 남성(40.6%), 30-34세 (42.1%), 수도권(39.9%), 대졸 이상(39.8%)에서 관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 참여의 내용도 물었다. ① 서명 운동에 참여(온라인 서명 포함)와 ② 시위, 집회 등에 참여 경험을 나누어서 물었다. 온라인 서명을 포함한 서명운동 참여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비율은 33.8%였다. 두 번째 참여의 형태인 집회·시위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0.6%였다. 여성(12.2%), 30-34세(12.0%), 수도권(12.9%), 대졸 이상(11.4%)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 집단의 정치 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두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19.3%) 혹은 ‘매우 그렇다’(4.5%)라고 답한 비율은 23.8%였다. 남성(25.7%), 30-34세(25.1%), 대학 재학 및 휴학(26.5%)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8.8%였다. 반대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 ‘그렇지 않다’가 24.6%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내용도 물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40.4%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17.9%), ‘경제적 부담’

(17.8%), ‘경험·지식·정보 부족’ (10.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6%), ‘공간·지리 문제’ (2.9%) 등이 제시됐다. ‘지난 1년 사이 한가지 이상의 정기적 스포츠 활동’ 여부도 물었다. 경험이 있는 비율이 46.2%로 문화예술 활동(40.4%)보다는 약간 높았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16.9%), ‘할 필요가 없어서’ (16.5%),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8.8%), ‘경험·지식·정보 부족’ (6.2%), ‘공간·지리 문제’ (3.1%) 등이 제시됐다.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집단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이 28.0%(일상의 부당함의 경우)에 이르렀다. 청년기는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및 사적인 네트워크가 아직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사적·공적 영역에서 부당한 상황에서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공적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상담 혹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집단의 교류와 참여의 정도가 인구사회학적인 범주별로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은 울산 지역에서 42.7%인 반면, 대전에서는 90.5%였다. 동일한 청년 집단 안에서도 지역별로 정책 수요의 내용과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정책의 설계에서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년의 문화 스포츠 활동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금전보다는 시간이었다.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금을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청년 집단에서 주요하게 부족한 자원이 금전보다는 시간이라는 점은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소득이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방안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 넷째, 이번 분석에서 청년 고립 및 은둔 집단은 청년 인구의 약 2.8%로 추산됐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인 조사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추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안을 구상하기 앞서, 이들을 위한 보다 정교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제7절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1. 분석 결과

가. 청년의 행복과 신뢰

청년이 보고하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10점을 기준으로 평균 6.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제 느낀 행복감은 10점을 기준으로 6.9점으로 삶에 대한 만족 수준보다 다소 높다.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10점을 기준으로 6.9점 정도로 비교적 높다. 우리 사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10점을 기준으로 5.2점 정도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성별에 따라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6.7점 정도로 유사하고, 행복감도 6.9점 내외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정도는 여성 청년이 6.9점인 데에 비해 남성은 약간 높은 7.0점 정도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성별에 따라 5.2점 내외에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세부 연령집단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19~24세 청년의 삶의 만족 점수가 6.8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5~29세 청년은 6.6점 정도로 다소 낮아졌다가 30~34세 청년은 다시 6.8점 정도로 높아졌다. 행복감의 경향도 유사한데, 19~24세 청년은 6.9점 정도를 보인 반면, 25~29세 청년은 6.8점 정도로 약간 낮아졌다가 30~34세 청년은 다시 7.0점 정도로 높아졌다.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정도는 다소 경향이 다른데, 19~24세 청년은 7.1점 정도로 비교적 높다가 25~29세 청년은 6.9점, 30~34세 청년은 6.8점 정도로 0.1점 정도씩 낮아진다.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19~24세 청년이 5.4점 정도이다가, 25~29세 청년은 5.2점 정도, 30~34세 청년은 5.1점 정도로 점차 낮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6.7점 정도인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6.8점 정도로 다소 높다. 행복감의 경향은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 모두 6.9점 내외에서 비슷하지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비수도권 청년의 행복감 점수가 수도권 청년에 비해 약간 높다.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은 다소 다르다.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 모

두 6.9점 정도로 유사하다.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 모두 5.2점 내외에서 나타나고, 차이가 0.02점 정도로 거의 없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한 청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 점수가 각각 7.0점과 7.1점으로 가장 높다.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또한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한 청년이 7.2점과 5.5점 정도로 가장 높다.

〈표 3-7-1〉 사회 인식(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정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구분		사회 인식			
		삶의 만족도	행복감 정도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전체		6.72	6.89	6.93	5.20
성별	남자	6.72	6.86	6.95	5.22
	여자	6.73	6.93	6.90	5.18
연령	19세-24세	6.82	6.94	7.10	5.36
	25세-29세	6.60	6.78	6.86	5.15
	30세-34세	6.76	6.97	6.81	5.08
지역1	수도권	6.67	6.86	6.94	5.19
	비수도권	6.79	6.93	6.91	5.21
지역2	서울	6.53	6.70	6.89	5.15
	부산	6.90	6.99	6.84	5.69
	대구	6.84	7.03	7.13	5.48
	인천	6.83	6.93	6.81	5.19
	광주	6.71	6.84	6.96	5.31
	대전	7.47	7.47	7.35	5.09
	울산	6.72	6.78	6.88	5.18
	세종	6.88	6.79	7.12	5.66
	경기	6.74	6.97	7.01	5.23
	강원	6.81	7.02	7.07	5.04
	충북	6.75	6.77	6.98	5.43
	충남	6.88	7.01	7.03	4.87
	전북	6.80	6.89	6.40	4.74
	전남	6.46	6.77	6.73	5.04
	경북	6.53	6.63	6.61	4.94
	경남	6.59	6.90	6.87	5.19
	제주	6.45	6.72	6.81	5.13
학력	고졸 이하	6.20	6.39	6.52	4.77
	대학 재학·휴학	6.97	7.06	7.21	5.47
	대학 졸업 이상	6.75	6.95	6.91	5.2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갈등 인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인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61.3%로 응답자 5명 중 3명 꼴로 높다.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인 15.2%와 합하면 76.5%에 달한다. ‘갈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2.6%에 불과하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도 20.9%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가 76.0%, 여성 응답자가 77.2%로 1.2%p 차이를 보인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5.7%, 25~29세 청년은 76.2%, 30~34세 청년은 77.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씩 증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5.3%, 비수도권 청년은 77.9%로 2.6%p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년과 경북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5.7%와 85.4%로 높다. 고졸 이하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이 75.6%,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77.6%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연령집단에 따른 경향과 유사하다.

〈표 3-7-2〉 갈등 인식[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단위: %)

구분		비율	갈등 인식[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	15.2	61.3	20.9	2.6
성별	남자	100	16.7	59.3	21.2	2.8
	여자	100	13.6	63.6	20.5	2.3
연령	19세-24세	100	13.8	61.8	21.3	3.0
	25세-29세	100	15.3	60.9	21.3	2.4
	30세-34세	100	16.7	61.2	19.9	2.2
지역1	수도권	100	15.2	60.1	22.0	2.7
	비수도권	100	15.3	62.6	19.6	2.5
지역2	서울	100	15.3	63.8	19.2	1.7
	부산	100	11.0	60.3	23.2	5.6
	대구	100	12.0	63.9	22.4	1.8
	인천	100	17.3	56.8	23.8	2.1
	광주	100	15.2	62.5	20.0	2.3
	대전	100	21.4	53.6	24.3	0.7
	울산	100	12.0	66.9	18.8	2.3
	세종	100	9.4	66.9	20.4	3.4
	경기	100	14.5	58.1	23.8	3.6
	강원	100	18.5	59.6	20.7	1.1
	충북	100	20.2	65.4	12.8	1.5
	충남	100	15.3	60.4	21.8	2.6
	전북	100	14.5	62.5	21.3	1.7
	전남	100	14.8	63.0	19.4	2.7
	경북	100	20.1	65.3	13.3	1.3
	경남	100	13.8	67.1	16.1	3.0
	제주	100	12.8	67.9	16.3	2.9
학력	고졸 이하	100	14.3	59.1	23.1	3.5
	대학 재학·휴학	100	14.6	61.0	21.2	3.2
	대학 졸업 이상	100	15.7	62.0	20.2	2.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 인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53.5%로 응답자 2명 중 1명 수준이다.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인 25.6%와 합하면 79.2%에 달한다. ‘갈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2.4%에 불과하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도 18.4%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가 77.0%, 여성 응답자가 81.6%로 4.6%p 차이를 보인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 25~29세 청년은 80.0%, 30~34세 청년은 80.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층 간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씩 증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 비수도권 청년은 80.1%로 2.2%p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1.3%로 가장 높다. 고졸 이하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8.1%,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이 76.1%,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80.6%로 나타났다.

〈표 3-7-3〉 갈등 인식[부유층과 서민층]

(단위: %)

구분		비율	갈등 인식[부유층과 서민층]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	25.6	53.5	18.4	2.4
성별	남자	100	24.1	52.9	20.3	2.7
	여자	100	27.4	54.2	16.4	2.0
연령	19세-24세	100	22.0	54.9	20.1	3.0
	25세-29세	100	25.9	54.1	17.8	2.2
	30세-34세	100	29.5	51.4	17.2	2.0
지역1	수도권	100	26.7	51.7	19.2	2.5
	비수도권	100	24.5	55.7	17.6	2.3
지역2	서울	100	25.4	56.5	16.6	1.6
	부산	100	21.7	58.1	15.4	4.8
	대구	100	19.4	62.2	16.5	1.8
	인천	100	28.1	53.1	17.1	1.7
	광주	100	25.9	51.7	19.9	2.5
	대전	100	13.2	47.8	37.1	1.9
	울산	100	23.5	56.2	17.9	2.4
	세종	100	24.7	50.7	22.8	1.9
	경기	100	27.3	47.7	21.7	3.3
	강원	100	30.1	50.5	17.8	1.6
	충북	100	28.5	62.8	7.8	0.9
	충남	100	27.2	54.3	15.8	2.8
	전북	100	29.9	53.5	15.2	1.4
	전남	100	27.5	51.6	18.3	2.7
	경북	100	25.2	58.2	15.3	1.3
	경남	100	25.2	56.9	16.2	1.6
	제주	100	31.5	53.0	12.3	3.2
학력	고졸 이하	100	23.2	54.9	18.7	3.3
	대학 재학·휴학	100	22.3	53.8	20.8	3.1
	대학 졸업 이상	100	27.5	53.1	17.4	1.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인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47.8%로 응답자 2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인 15.6%와 합하면 63.4%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4.1%로 가장 적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도 32.5%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가 61.4%, 여성 응답자가 65.6%이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1.0%, 25~29세 청년은 63.6%, 30~34세 청년은 65.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씩 증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 비수도권 청년은 68.1%로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 간 갈등의 존재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7.1%로 가장 높고, 서울 청년과 경기 청년이 각각 58.9%와 58.4%로 낮다. 고졸 이하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이 61.6%인 데에 반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은 64.6%로 다소 높아져 대학 졸업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지역 간 갈등을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4〉 갈등 인식[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위: %)

구분		비율	갈등 인식[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	15.6	47.8	32.5	4.1
성별	남자	100	15.7	45.8	33.8	4.7
	여자	100	15.5	50.0	31.1	3.4
연령	19세-24세	100	13.8	47.2	34.3	4.7
	25세-29세	100	15.6	48.0	32.1	4.3
	30세-34세	100	17.6	48.3	31.0	3.1
지역1	수도권	100	14.0	45.2	36.1	4.7
	비수도권	100	17.4	50.7	28.5	3.4
지역2	서울	100	12.1	46.8	36.8	4.3
	부산	100	11.8	54.2	27.3	6.7
	대구	100	18.2	52.7	27.0	2.1
	인천	100	17.4	46.7	32.4	3.5
	광주	100	21.4	53.9	22.5	2.1
	대전	100	9.1	34.5	53.1	3.3
	울산	100	16.3	53.7	26.1	3.9
	세종	100	17.3	46.0	34.2	2.4
	경기	100	14.7	43.7	36.3	5.3
	강원	100	18.3	49.7	29.5	2.5
	충북	100	16.9	60.2	21.6	1.3
	충남	100	15.4	51.6	28.4	4.7
	전북	100	23.7	50.1	24.3	2.0
	전남	100	19.9	49.2	27.3	3.6
	경북	100	21.9	49.7	26.0	2.5
	경남	100	20.3	50.2	26.4	3.1
	제주	100	16.6	49.7	28.4	5.2
학력	고졸 이하	100	13.6	47.5	33.6	5.4
	대학 재학·휴학	100	14.7	46.9	34.1	4.3
	대학 졸업 이상	100	16.4	48.2	31.7	3.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성별에 따른 갈등 인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47.7%로 응답자 절반 정도이다.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인 24.6%와 합하면 72.3%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2.9%로 가장 적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도 24.8%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가 70.5%, 여성 응답자가 74.3%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 청년이 성별에 따른 갈등의 존재를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 25~29세 청년은 75.5%, 30~34세 청년은 71.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성별에 따른 갈등 인식이 다소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2.8%, 비수도권 청년은 71.7%로 1.1%p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제주, 서울, 대전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2%, 78.6%, 77.9%, 77.6%로 순으로 높다. 고졸 이하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7.3%인 데에 반해,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이 73.8%,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은 72.9%로 다소 높았다.

〈표 3-7-5〉 갈등 인식[남성과 여성]

(단위: %)

구분		비율	갈등 인식[남성과 여성]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	24.6	47.7	24.8	2.9
성별	남자	100	24.4	46.1	26.3	3.2
	여자	100	24.9	49.4	23.2	2.5
연령	19세-24세	100	27.2	46.0	23.5	3.4
	25세-29세	100	24.7	47.8	25.0	2.5
	30세-34세	100	21.6	49.4	26.2	2.7
지역1	수도권	100	26.9	45.8	24.7	2.5
	비수도권	100	22.0	49.7	25.0	3.3
지역2	서울	100	31.6	46.3	20.6	1.5
	부산	100	15.7	44.6	33.4	6.3
	대구	100	22.2	52.7	20.4	4.6
	인천	100	21.0	50.5	26.0	2.5
	광주	100	20.9	48.1	28.6	2.4
	대전	100	25.6	52.1	21.1	1.3
	울산	100	21.3	50.2	25.4	3.0
	세종	100	14.0	53.0	29.9	3.2
	경기	100	24.7	44.4	27.6	3.3
	강원	100	24.6	50.8	23.0	1.7
	충북	100	21.6	58.6	18.0	1.8
	충남	100	21.4	49.0	25.9	3.7
	전북	100	21.7	52.8	23.6	1.9
	전남	100	20.1	49.2	27.8	2.9
	경북	100	27.0	47.9	22.8	2.2
	경남	100	24.6	45.7	26.1	3.6
	제주	100	26.1	52.5	17.4	4.0
학력	고졸 이하	100	21.1	46.2	28.2	4.5
	대학 재학·휴학	100	28.5	45.3	23.0	3.2
	대학 졸업 이상	100	24.0	48.9	24.7	2.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인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43.8%로 가장 높다. ‘갈등이 매우 많다’의 응답률인 9.2%와 합하면 53.0%로 절반을 약간 상회한다. ‘갈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6.1%로 가장 적고, ‘갈등이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은 40.9%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가 51.2%, 여성 응답자가 55.1%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 청년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의 존재를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 25~29세 청년은 53.1%, 30~34세 청년은 55.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 인식이 다소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 비수도권 청년은 53.3%로 1.3%p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69.5%로 가장 높고, 광주 청년이 63.3%, 인천 청년이 6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갈등이 많은 편이다’ 혹은 ‘갈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0.9%,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청년이 51.4%,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은 54.2%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내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을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6〉 갈등 인식[내국인과 외국인]

(단위: %)

구분		비율	갈등 인식[내국인과 외국인]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전체		100	9.2	43.8	40.9	6.1
성별	남자	100	9.5	41.7	42.2	6.6
	여자	100	8.9	46.2	39.5	5.4
연령	19세-24세	100	7.0	43.5	42.6	6.9
	25세-29세	100	10.0	43.2	40.7	6.2
	30세-34세	100	10.9	44.8	39.3	5.0
지역1	수도권	100	9.7	43.1	41.8	5.4
	비수도권	100	8.7	44.6	40.0	6.8
지역2	서울	100	7.1	44.8	43.0	5.1
	부산	100	4.2	38.9	39.7	17.2
	대구	100	6.2	47.8	38.6	7.5
	인천	100	13.2	47.0	35.7	4.0
	광주	100	15.7	47.6	32.7	4.1
	대전	100	15.0	34.9	45.7	4.3
	울산	100	5.6	48.8	39.0	6.6
	세종	100	2.8	54.1	38.4	4.8
	경기	100	10.8	41.0	42.2	6.0
	강원	100	8.8	44.2	41.3	5.7
	충북	100	9.9	59.6	28.5	2.0
	충남	100	8.2	39.8	45.7	6.4
	전북	100	10.5	42.4	43.1	4.0
	전남	100	7.7	49.0	37.4	5.8
	경북	100	8.6	44.0	42.8	4.5
	경남	100	8.4	44.0	42.2	5.4
	제주	100	9.1	48.5	36.9	5.4
학력	고졸 이하	100	8.9	42.0	40.9	8.3
	대학 재학·휴학	100	7.5	43.9	41.8	6.8
	대학 졸업 이상	100	10.0	44.2	40.6	5.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사회 인식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정부 역할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0~10점 범위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해서는 6.9점으로 0~10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기준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특히 여성(7.1점)이 남성(6.8점)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 청년이 6.8점, 25~29세 청년이 7.0점, 30~34세 청년이 7.1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6.93점)과 비수도권 청년(6.95점)이 유사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 청년이 7.4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이 6.9점,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6.8점,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7.0점이다.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물림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7.2점으로 소득불평등 상태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 특히 여성(7.31점)이 남성(7.1점)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 청년이 7.1점, 25~29세 청년이 7.2점, 30~34세 청년이 7.3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세대 소득이 부모 세대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이 인식하는 수준이 7.2점으로 비수도권 청년 7.1점에 비해 약간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과 광역시 청년 중 소득 대물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이 7.0점,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7.1점,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7.2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대물림 현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나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정부(0점) 혹은 당사자(10점)인 데에 대한 인식은 평균 5점으로 중간값에 가깝다. 생계나 복지는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특히 여성(5.1점)이 남성(4.7점)에 비해 당사자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 청년이 4.9점, 25~29세 청년이 5.0점, 30~34세 청년이 4.9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이 인식하는 수준이 4.9점으로, 비수도권 청년 5.0점으로 나

타나 0.1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 청년이 5.3점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인천과 전남, 제주 청년이 4.5점대로 정부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이 4.7점,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5.0점,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5.0점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이 당사자와 정부의 책임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7-7〉 불평등 및 정부 책임 인식

(단위: 점)

구분		불평등 및 정부 책임 인식			
		우리사회 소득불평등 정도	소득 대물림 인식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대 개인 역할 인식	정부가 소득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견해
전체		6.94	7.16	4.92	6.83
성별	남자	6.84	7.05	5.13	6.66
	여자	7.05	7.28	4.69	7.01
연령	19세-24세	6.79	7.06	4.85	6.84
	25세-29세	6.95	7.18	4.99	6.75
	30세-34세	7.10	7.25	4.94	6.91
지역1	수도권	6.93	7.24	4.88	6.86
	비수도권	6.95	7.06	4.98	6.79
지역2	서울	6.90	7.29	4.91	6.92
	부산	6.99	7.29	4.97	6.82
	대구	6.70	7.21	5.19	6.75
	인천	7.04	7.12	4.51	7.08
	광주	7.09	7.30	4.85	6.85
	대전	7.28	6.27	5.26	7.11
	울산	6.68	6.80	4.76	6.72
	세종	6.88	6.90	5.66	6.67
	경기	6.93	7.22	4.93	6.77
	강원	7.06	7.12	4.55	6.92
	충북	6.86	6.74	5.03	6.55
	충남	6.93	7.08	5.19	6.77
	전북	7.35	7.50	5.02	6.94
	전남	6.70	6.98	4.54	6.95
	경북	6.74	7.22	4.79	6.47
	경남	6.88	6.94	5.16	6.62
	제주	7.11	7.34	4.54	7.15
학력	고졸 이하	6.93	6.97	4.66	6.78
	대학 재학·휴학	6.83	7.11	4.96	6.81
	대학 졸업 이상	6.99	7.22	4.98	6.8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6.8점으로 중간값인 5점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특히 여성 7.0점으로 남성의 6.7점에 비해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이 6.8점, 25~29세 청년이 6.8점, 30~34세 청년이 6.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이 인식하는 수준이 6.9점으로 비수도권 청년 6.8점에 비해 약간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제주, 대전, 인천 청년이 약 7.1점 정도로 다소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과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약 6.8점,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이 약 6.9점 정도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하다는 명제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률이 31.7%로 가장 높고, 약간 반대가 26.2%, 약간 동의가 20.0% 순이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42.6%로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한 25.7%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남성 44.9%, 여성 4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 명제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41.2%, 25~29세 청년은 44.8%, 30~34세 청년은 41.7%로 20대 중반 청년에서 명제에 반대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40.4%, 비수도권 청년은 45.1%로 비수도권 청년의 반대 응답률이 더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37.8%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43.8%,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이 43.3% 수준이다.

〈표 3-7-8〉 공정성 인식[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

(단위: %)

구분		비율	공정성 인식 [소득과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공정]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	5.5	20.2	31.7	26.2	16.4
성별	남자	100	5.5	19.0	30.6	24.9	20.0
	여자	100	5.4	21.5	33.0	27.6	12.5
연령	19세-24세	100	6.0	20.9	31.9	26.5	14.7
	25세-29세	100	5.1	20.8	29.3	27.0	17.8
	30세-34세	100	5.3	18.7	34.3	24.8	16.9
지역1	수도권	100	6.2	21.9	31.5	25.0	15.4
	비수도권	100	4.7	18.3	32.0	27.4	17.7
지역2	서울	100	5.1	18.2	30.0	29.3	17.3
	부산	100	2.8	18.5	34.5	25.6	18.6
	대구	100	8.5	21.1	30.7	21.3	18.3
	인천	100	7.2	21.2	36.0	24.0	11.6
	광주	100	8.5	23.0	27.1	26.8	14.6
	대전	100	2.7	10.8	44.3	25.0	17.2
	울산	100	1.4	14.7	37.6	33.0	13.3
	세종	100	0.8	11.3	36.4	24.8	26.8
	경기	100	6.7	24.9	31.6	22.0	14.7
	강원	100	3.3	26.5	28.5	27.4	14.3
	충북	100	6.7	16.8	24.1	24.9	27.4
	충남	100	4.9	14.7	30.8	27.2	22.3
	전북	100	5.8	18.1	26.4	26.1	23.5
	전남	100	5.3	26.4	33.5	22.5	12.3
	경북	100	2.6	16.4	29.0	35.7	16.3
	경남	100	3.8	16.9	33.8	33.9	11.7
	제주	100	6.1	19.9	33.6	26.2	14.1
학력	고졸 이하	100	6.9	22.9	32.4	22.7	15.1
	대학 재학·휴학	100	5.8	19.9	30.5	26.8	17.0
	대학 졸업 이상	100	5.0	19.7	32.0	26.7	16.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공정하다는 명제에 대해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43.5%로 가장 높고, 매우 동의가 35.0%,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이 17.8% 순이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78.4%로 청년 5명 중 4명 정도의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남성 77.8%, 여성 79.1%로 1.3%p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77.9%, 25~29세 청년은 79.2%, 30~34세 청년은 78.2%로 20대 중반 청년에서 명제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77.8%, 비수도권 청년은 79.2%로 비수도권 청년의 동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77.8%,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77.7%로 유사하고,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이 78.9% 수준이다.

〈표 3-7-9〉 공정성 인식[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

(단위: %)

구분		비율	공정성 인식[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	35.0	43.5	17.8	3.0	0.7
성별	남자	100	38.1	39.7	18.0	3.2	1.0
	여자	100	31.5	47.6	17.6	2.8	0.5
연령	19세-24세	100	34.2	43.7	18.4	2.8	1.0
	25세-29세	100	34.7	44.5	17.1	3.1	0.6
	30세-34세	100	36.1	42.1	18.0	3.1	0.6
지역1	수도권	100	34.2	43.6	18.7	3.0	0.6
	비수도권	100	35.9	43.3	16.9	3.0	0.9
지역2	서울	100	33.6	45.6	17.4	2.8	0.6
	부산	100	36.9	38.3	20.6	3.3	0.9
	대구	100	34.6	48.0	14.7	2.1	0.6
	인천	100	38.6	43.1	15.4	2.3	0.6
	광주	100	32.4	47.4	13.9	5.0	1.3
	대전	100	46.8	28.6	21.1	2.9	0.6
	울산	100	24.7	46.2	23.1	5.2	0.8
	세종	100	30.8	34.5	30.9	1.7	2.1
	경기	100	33.6	42.2	20.3	3.3	0.6
	강원	100	37.7	46.6	14.2	1.4	0.1
	충북	100	41.8	35.3	17.6	3.3	2.0
	충남	100	42.4	35.0	18.2	3.1	1.3
	전북	100	43.0	46.1	9.1	1.6	0.3
	전남	100	29.7	47.1	20.8	2.2	0.2
	경북	100	27.0	50.3	16.6	4.5	1.6
	경남	100	32.1	51.1	13.3	2.5	1.0
	제주	100	29.9	54.1	14.0	1.8	0.2
학력	고졸 이하	100	34.6	43.2	17.5	4.0	0.7
	대학 재학·휴학	100	34.9	42.8	18.5	2.8	1.1
	대학 졸업 이상	100	35.1	43.8	17.7	2.8	0.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명제에 대해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률이 40.1%로 가장 높고, 약간 동의가 27.6%, 약간 반대가 19.9% 순이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26.7%이고,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의 응답률을 합하면 33.3%로 동의하는 청년의 응답률이 반대하는 청년의 응답률보다 약간 높다. 전반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남성 31.2%, 여성 35.4%로 4.2%p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32.4%, 25~29세 청년은 34.2%, 30~34세 청년은 33.0%로 20대 중반 청년에서 명제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35.0%, 비수도권 청년은 31.2%로 수도권 청년의 동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약간 동의와 매우 동의 응답률의 합이 32.4%,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33.4%,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이 33.3% 수준이다.

〈표 3-7-10〉 공정성 인식[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공정]

(단위: %)

구분		비율	공정성 인식[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빈곤하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공정]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	5.6	27.6	40.1	19.9	6.7
성별	남자	100	5.6	25.5	40.0	20.6	8.2
	여자	100	5.6	29.8	40.3	19.2	5.1
연령	19세-24세	100	6.2	26.2	41.8	19.4	6.4
	25세-29세	100	4.9	29.3	39.2	19.9	6.6
	30세-34세	100	5.8	27.2	39.3	20.4	7.3
지역1	수도권	100	6.3	28.7	41.5	17.8	5.7
	비수도권	100	4.9	26.3	38.6	22.3	7.9
지역2	서울	100	5.5	27.9	39.9	20.0	6.8
	부산	100	7.5	33.4	39.9	16.1	3.1
	대구	100	5.9	26.4	37.2	22.1	8.3
	인천	100	7.0	27.5	47.3	13.7	4.5
	광주	100	3.7	33.6	31.4	22.5	8.8
	대전	100	1.7	15.8	40.3	26.8	15.5
	울산	100	3.4	30.0	45.1	17.5	4.1
	세종	100	1.3	22.6	50.4	21.2	4.6
	경기	100	6.8	29.5	41.4	17.1	5.2
	강원	100	4.4	33.6	38.5	18.0	5.4
	충북	100	7.9	27.0	31.1	23.8	10.2
	충남	100	3.8	23.5	42.4	17.8	12.5
	전북	100	4.3	19.5	31.6	29.7	14.8
	전남	100	3.6	26.9	45.2	17.3	7.1
	경북	100	4.6	20.8	38.8	31.0	4.8
	경남	100	4.8	24.7	40.8	24.8	4.9
	제주	100	6.7	31.9	39.1	17.8	4.5
학력	고졸 이하	100	6.0	26.4	43.6	18.0	6.0
	대학 재학·휴학	100	6.4	26.9	40.3	19.3	7.1
	대학 졸업 이상	100	5.2	28.1	39.3	20.6	6.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사회가 공정하다는 명제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34.3%로 가장 높고,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률이 29.1%,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27.8% 순이다.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률을 합하면 62.1%로 청년 5명 중 3명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남성 61.2%, 여성 63.0%로 1.8%p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4세 청년 중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60.6%, 25~29세 청년은 63.0%, 30~34세 청년은 60.6%로 20대 중반 청년에서 명제에 반대하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청년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59.6%, 비수도권 청년은 64.8%로 비수도권 청년의 반대 응답률이 약간 높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의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 응답률의 합이 62.6%,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이 61.2%,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이 62.3% 수준이다.

〈표 3-7-11〉 공정성 인식[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

(단위: %)

구분		비율	공정성 인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려야 공정]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전체		100	1.5	7.3	29.1	27.8	34.3
성별	남자	100	1.8	7.5	29.5	25.4	35.8
	여자	100	1.3	7.1	28.6	30.4	32.6
연령	19세-24세	100	1.9	7.2	30.4	28.0	32.7
	25세-29세	100	1.2	7.5	28.2	27.5	35.6
	30세-34세	100	1.6	7.2	28.7	27.8	34.7
지역1	수도권	100	1.7	7.7	31.0	27.5	32.1
	비수도권	100	1.3	6.9	27.0	28.0	36.8
지역2	서울	100	0.9	5.9	29.4	30.1	33.7
	부산	100	0.7	3.2	24.8	29.0	42.4
	대구	100	1.4	5.8	29.6	28.1	35.2
	인천	100	1.4	6.6	29.6	22.9	39.5
	광주	100	1.1	7.8	28.7	24.6	37.8
	대전	100	1.0	9.0	24.6	18.3	47.0
	울산	100	3.2	6.4	36.8	24.7	29.0
	세종	100	1.2	11.6	37.5	27.6	22.1
	경기	100	2.5	9.3	32.4	26.6	29.2
	강원	100	1.6	6.6	28.3	31.9	31.6
	충북	100	2.9	11.1	19.2	22.1	44.8
	충남	100	0.9	6.9	28.0	28.2	36.0
	전북	100	1.1	4.1	21.8	25.7	47.4
	전남	100	0.5	5.6	34.4	24.6	34.8
	경북	100	1.0	6.9	24.4	40.1	27.6
	경남	100	2.1	9.6	29.5	30.2	28.6
	제주	100	0.0	6.2	21.4	35.9	36.4
학력	고졸 이하	100	1.6	7.0	28.8	26.3	36.3
	대학 재학·휴학	100	1.9	7.6	29.3	27.8	33.4
	대학 졸업 이상	100	1.4	7.3	29.1	28.1	34.2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라. 바라는 미래의 요소와 실현 가능성 전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연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가 18.5%, ‘중요하지 않다’가 15.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3.3%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합하면 80.9%로 청년 5명 중 4명 정도의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에 있어 남성이 83.4%, 여성이 78.1%로 남성이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연애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7.5%, 25~29세 81.0%, 30~34세 84.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연애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0.4%, 비수도권 청년은 81.5%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 청년 중 연애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9.6%로 가장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연애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8.1%,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6.7%인 데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83.2%로 높다.

〈표 3-7-12〉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연애]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연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3.3	15.8	62.4	18.5
성별	남자	100	2.4	14.2	63.5	20.0
	여자	100	4.2	17.7	61.2	17.0
연령	19세-24세	100	4.0	18.5	60.9	16.6
	25세-29세	100	3.4	15.7	62.9	18.1
	30세-34세	100	2.4	12.9	63.5	21.3
지역1	수도권	100	3.7	15.9	60.4	20.0
	비수도권	100	2.7	15.7	64.6	16.9
지역2	서울	100	4.1	20.2	58.6	17.2
	부산	100	2.7	15.8	64.7	16.8
	대구	100	4.3	20.3	61.1	14.3
	인천	100	4.1	20.1	53.2	22.6
	광주	100	0.8	12.3	59.4	27.5
	대전	100	0.3	10.1	78.7	10.9
	울산	100	3.5	20.7	61.2	14.6
	세종	100	2.6	23.9	64.4	9.1
	경기	100	3.4	11.7	63.4	21.5
	강원	100	5.1	14.3	59.8	20.8
	충북	100	1.2	13.8	69.5	15.5
	충남	100	3.2	16.6	64.2	16.1
	전북	100	2.6	14.2	66.6	16.6
	전남	100	3.2	14.3	64.6	17.9
	경북	100	2.4	16.6	64.1	16.9
	경남	100	3.6	16.6	61.8	18.0
	제주	100	2.9	18.6	59.8	18.6
학력	고졸 이하	100	4.4	17.5	61.9	16.2
	대학 재학·휴학	100	4.1	19.3	60.6	16.1
	대학 졸업 이상	100	2.7	14.1	63.2	20.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결혼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가 27.2%, 중요하지 않다가 20.6%,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5.2%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74.2%로 청년 4명 중 3명 정도의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결혼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8.8%인 데에 반해 여성이 69.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결혼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0.4%, 25~29세 74.4%, 30~34세 78.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결혼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2.6%, 비수도권 청년은 76.0%으로 비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이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 청년 중 결혼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4.9%로 가장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결혼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0.9%,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69.9%인 데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76.7%로 높다.

〈표 3-7-13〉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결혼]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결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5.2	20.6	47.0	27.2
성별	남자	100	3.6	17.6	49.2	29.7
	여자	100	7.0	23.9	44.6	24.5
연령	19세-24세	100	6.2	23.4	47.5	22.9
	25세-29세	100	5.4	20.3	48.1	26.2
	30세-34세	100	3.8	17.7	45.2	33.3
지역1	수도권	100	6.2	21.2	44.2	28.4
	비수도권	100	4.1	19.9	50.2	25.9
지역2	서울	100	7.2	25.2	45.1	22.5
	부산	100	2.2	17.9	57.2	22.7
	대구	100	5.8	27.4	47.0	19.8
	인천	100	4.3	21.7	41.8	32.2
	광주	100	2.4	16.0	46.5	35.1
	대전	100	0.6	14.5	55.5	29.4
	울산	100	5.6	25.8	48.4	20.2
	세종	100	5.4	14.3	46.5	33.8
	경기	100	5.8	18.0	44.1	32.1
	강원	100	7.0	15.7	46.3	31.0
	충북	100	2.8	14.4	64.4	18.4
	충남	100	5.1	22.4	48.5	23.9
	전북	100	4.1	23.0	48.0	25.0
	전남	100	4.2	22.0	46.3	27.4
	경북	100	5.3	20.2	45.9	28.7
	경남	100	4.3	21.8	46.5	27.4
	제주	100	6.7	16.6	45.2	31.4
학력	고졸 이하	100	7.0	22.1	47.3	23.6
	대학 재학·휴학	100	6.4	23.6	46.9	23.0
	대학 졸업 이상	100	4.3	19.0	47.0	29.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가 24.7%, 중요하지 않다가 23.6%,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7.2% 순이다. 중요하다는와 매우 중요하다는의 응답률을 합하면 69.2%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3.7%인 데에 반해 여성이 64.3%로 나타나 여성의 응답률이 낮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3.5%, 25~29세 68.9%, 30~34세 7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6.3%, 비수도권 청년은 72.5%으로 비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이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 청년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5.2%로 가장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5.1%,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64.4%인 데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72.1%로 높다.

〈표 3-7-14〉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자녀 출산과 양육]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자녀 출산과 양육]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7.2	23.6	44.6	24.7
성별	남자	100	5.2	21.1	47.0	26.7
	여자	100	9.5	26.3	41.8	22.4
연령	19세-24세	100	9.0	27.5	43.9	19.7
	25세-29세	100	7.2	23.9	45.9	22.9
	30세-34세	100	5.1	18.6	43.8	32.4
지역1	수도권	100	8.9	24.8	41.6	24.7
	비수도권	100	5.3	22.2	47.9	24.6
지역2	서울	100	10.0	28.6	42.9	18.5
	부산	100	3.1	23.8	53.1	19.9
	대구	100	7.4	29.2	44.1	19.2
	인천	100	8.1	27.4	37.2	27.3
	광주	100	3.5	17.9	48.2	30.4
	대전	100	1.5	13.3	52.7	32.5
	울산	100	6.8	24.9	47.9	20.4
	세종	100	6.8	11.9	48.4	33.0
	경기	100	8.2	21.3	41.6	28.8
	강원	100	8.8	17.9	44.3	29.0
	충북	100	3.2	17.9	56.0	22.9
	충남	100	7.7	24.0	48.3	20.0
	전북	100	4.2	23.1	49.8	22.9
	전남	100	5.3	24.3	45.1	25.3
	경북	100	5.8	25.0	43.2	25.9
	경남	100	6.7	23.9	42.5	27.0
	제주	100	6.5	18.3	44.7	30.5
학력	고졸 이하	100	9.2	25.7	44.0	21.1
	대학 재학·휴학	100	8.8	26.8	44.7	19.7
	대학 졸업 이상	100	6.1	21.8	44.6	27.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높은 학력수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가 33.7%, 매우 중요하다가 12.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4.5%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61.7%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높은 학력수준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1.7%, 여성이 60.5%로 나타나 1.2%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높은 학력수준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6.1%, 25~29세 58.4%, 30~34세 60.3%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높은 학력수준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4.4%, 비수도권 청년은 58.7%으로 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이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과 경기 청년 중 높은 학력수준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4.6%와 64.9%로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높은 학력수준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45.9%인 데에 반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69.9%,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63.3%로 높다.

〈표 3-7-15〉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학력수준]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학력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4.5	33.7	49.7	12.1
성별	남자	100	5.3	34.2	48.3	12.3
	여자	100	3.7	33.3	51.2	11.9
연령	19세-24세	100	3.7	30.2	53.1	13.0
	25세-29세	100	5.8	35.8	48.1	10.3
	30세-34세	100	4.1	35.5	47.4	13.0
지역1	수도권	100	4.6	31.0	51.4	12.9
	비수도권	100	4.4	36.9	47.7	11.1
지역2	서울	100	4.6	30.9	53.4	11.2
	부산	100	2.7	37.9	51.2	8.2
	대구	100	4.3	33.7	52.1	9.9
	인천	100	5.3	33.4	47.3	14.1
	광주	100	3.4	27.9	50.0	18.7
	대전	100	0.4	26.0	50.6	23.0
	울산	100	4.3	38.2	44.3	13.2
	세종	100	1.8	25.0	58.9	14.3
	경기	100	4.6	30.5	50.8	14.1
	강원	100	7.0	45.3	39.0	8.6
	충북	100	3.5	42.4	44.6	9.6
	충남	100	8.0	39.9	45.7	6.4
	전북	100	3.6	35.6	48.1	12.7
	전남	100	5.5	34.1	51.5	8.9
	경북	100	5.5	37.6	47.2	9.8
	경남	100	5.1	42.2	44.3	8.5
	제주	100	8.8	47.2	36.9	7.2
학력	고졸 이하	100	9.4	44.7	38.6	7.2
	대학 재학·휴학	100	2.9	27.2	55.4	14.5
	대학 졸업 이상	100	4.0	33.7	50.0	12.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9%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가 46.5%, 중요하지 않다가 2.4%,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2%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97.4%로 대부분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7.4%, 여성이 97.3%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8.0%, 25~29세 97.0%, 30~34세 97.1%로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7.2%, 비수도권 청년은 97.5%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5.2%인데 반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98.2%,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97.5%로 다소 높다.

〈표 3-7-16〉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내가 원하는 일자리]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내가 원하는 일자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0.2	2.4	50.9	46.5
성별	남자	100	0.3	2.3	51.3	46.1
	여자	100	0.2	2.5	50.4	46.9
연령	19세-24세	100	0.3	1.7	48.5	49.5
	25세-29세	100	0.2	2.9	51.9	45.0
	30세-34세	100	0.2	2.7	52.5	44.6
지역1	수도권	100	0.3	2.5	50.7	46.5
	비수도권	100	0.2	2.3	51.0	46.5
지역2	서울	100	0.1	3.3	49.8	46.8
	부산	100	0.2	2.7	48.0	49.1
	대구	100	0.1	1.3	50.6	48.0
	인천	100	1.1	3.2	47.8	47.8
	광주	100	0.1	2.2	46.1	51.6
	대전	100	0.0	1.2	31.6	67.2
	울산	100	0.1	2.8	50.3	46.8
	세종	100	0.0	0.4	61.3	38.3
	경기	100	0.2	1.8	52.1	45.9
	강원	100	0.0	1.4	54.4	44.2
	충북	100	0.4	3.5	57.4	38.6
	충남	100	0.2	1.5	55.3	43.0
	전북	100	0.0	1.1	52.0	47.0
	전남	100	0.3	2.9	59.7	37.1
	경북	100	0.1	2.9	52.4	44.6
	경남	100	0.6	3.5	55.6	40.3
	제주	100	0.2	2.2	54.5	43.1
학력	고졸 이하	100	0.9	4.0	58.6	36.5
	대학 재학·휴학	100	0.2	1.6	46.8	51.4
	대학 졸업 이상	100	0.1	2.3	50.6	46.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가 39.7%, 중요하지 않다가 5.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4%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93.8%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3.7%, 여성이 93.9%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3.7%, 25~29세 93.0%, 30~34세 94.7%로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4.0%, 비수도권 청년은 93.5%으로 거주지역간 차이도 거의 없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년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9.8%로 다소 낮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1.3%인 데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각각 94.2%로 높다.

〈표 3-7-17〉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0.4	5.9	54.0	39.7
성별	남자	100	0.5	5.8	54.3	39.5
	여자	100	0.3	5.9	53.8	40.0
연령	19세-24세	100	0.4	5.9	52.7	41.0
	25세-29세	100	0.3	6.7	56.0	37.1
	30세-34세	100	0.4	4.9	53.4	41.3
지역1	수도권	100	0.4	5.6	53.9	40.1
	비수도권	100	0.3	6.2	54.2	39.4
지역2	서울	100	0.1	6.1	53.9	40.0
	부산	100	0.5	7.6	59.9	32.0
	대구	100	0.1	5.6	59.2	35.1
	인천	100	1.0	8.3	49.3	41.4
	광주	100	0.0	3.4	51.6	45.0
	대전	100	0.0	3.1	35.6	61.4
	울산	100	0.0	5.8	45.8	48.4
	세종	100	0.0	2.8	63.1	34.1
	경기	100	0.5	4.7	55.0	39.8
	강원	100	0.7	8.2	58.0	33.0
	충북	100	0.1	10.1	50.7	39.1
	충남	100	0.3	3.6	57.1	39.0
	전북	100	0.0	4.8	50.4	44.7
	전남	100	0.6	6.3	60.3	32.7
	경북	100	0.4	6.6	56.5	36.5
	경남	100	0.5	7.7	55.4	36.4
	제주	100	1.1	8.8	53.0	37.1
학력	고졸 이하	100	0.6	8.1	56.4	34.9
	대학 재학·휴학	100	0.2	5.6	52.5	41.7
	대학 졸업 이상	100	0.4	5.4	54.1	40.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7-18〉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높은 학력수준]

(단위: %)

구분		계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높은 학력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4.5	33.7	49.7	12.1
성별	남자	100	5.3	34.2	48.3	12.3
	여자	100	3.7	33.3	51.2	11.9
연령	19세~24세	100	3.7	30.2	53.1	13.0
	25세~29세	100	5.8	35.8	48.1	10.3
	30세~34세	100	4.1	35.5	47.4	13.0
지역1	수도권	100	4.6	31.0	51.4	12.9
	비수도권	100	4.4	36.9	47.7	11.1
지역2	서울	100	4.6	30.9	53.4	11.2
	부산	100	2.7	37.9	51.2	8.2
	대구	100	4.3	33.7	52.1	9.9
	인천	100	5.3	33.4	47.3	14.1
	광주	100	3.4	27.9	50.0	18.7
	대전	100	0.4	26.0	50.6	23.0
	울산	100	4.3	38.2	44.3	13.2
	세종	100	1.8	25.0	58.9	14.3
	경기	100	4.6	30.5	50.8	14.1
	강원	100	7.0	45.3	39.0	8.6
	충북	100	3.5	42.4	44.6	9.6
	충남	100	8.0	39.9	45.7	6.4
	전북	100	3.6	35.6	48.1	12.7
	전남	100	5.5	34.1	51.5	8.9
	경북	100	5.5	37.6	47.2	9.8
	경남	100	5.1	42.2	44.3	8.5
	제주	100	8.8	47.2	36.9	7.2
학력	고졸 이하	100	9.4	44.7	38.6	7.2
	대학 재학·휴학	100	2.9	27.2	55.4	14.5
	대학 졸업 이상	100	4.0	33.7	50.0	12.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중요하다가 46.5%, 중요하지 않다가 4.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3%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95.7%로 청년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5.1%, 여성이 96.3%로 나타나 1.2%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5.7%, 25~29세 96.1%, 30~34세 96.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5.4%, 비수도권 청년은 95.9%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93.6%인 데에 반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96.1%,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96.0%로 차이를 보인다.

〈표 3-7-19〉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0.3	4.0	46.5	49.2
성별	남자	100	0.5	4.4	47.4	47.7
	여자	100	0.2	3.5	45.4	50.9
연령	19세-24세	100	0.3	4.0	45.0	50.8
	25세-29세	100	0.3	3.6	47.2	49.0
	30세-34세	100	0.5	4.5	47.4	47.7
지역1	수도권	100	0.3	4.2	44.6	50.8
	비수도권	100	0.3	3.7	48.5	47.4
지역2	서울	100	0.1	5.3	42.0	52.6
	부산	100	0.1	4.4	52.8	42.6
	대구	100	1.1	4.6	47.3	47.0
	인천	100	0.8	4.6	47.1	47.5
	광주	100	0.0	2.7	47.7	49.6
	대전	100	0.1	3.5	60.7	35.7
	울산	100	0.2	2.9	41.7	55.2
	세종	100	0.0	8.2	47.8	44.0
	경기	100	0.4	3.3	46.1	50.2
	강원	100	0.8	5.7	41.1	52.4
	충북	100	0.3	3.8	59.6	36.3
	충남	100	0.3	2.8	42.7	54.2
	전북	100	0.0	2.6	46.4	51.0
	전남	100	0.4	2.4	47.3	49.9
	경북	100	0.2	2.2	49.1	48.5
	경남	100	0.7	4.6	42.9	51.7
	제주	100	0.2	3.7	42.4	53.8
학력	고졸 이하	100	0.7	5.8	50.4	43.2
	대학 재학·휴학	100	0.2	3.7	45.4	50.7
	대학 졸업 이상	100	0.3	3.7	45.9	50.1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사회 기여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가 25.6%, 매우 중요하다가 14.3%,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6%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을 합하면 71.8%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사회 기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0.4%, 여성이 73.4%로 나타나 여성이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사회 기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2.1%, 25~29세 70.5%, 30~34세 73.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사회 기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72.0%, 비수도권 청년은 71.6%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 청년 중 사회 기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3.4%로 가장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사회 기여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3.8%인 데에 반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3.5%,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73.1%로 비교적 높다.

〈표 3-7-20〉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사회 기여]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사회 기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2.6	25.6	57.5	14.3
성별	남자	100	3.4	26.2	56.4	14.0
	여자	100	1.6	25.0	58.7	14.7
연령	19세-24세	100	2.7	25.2	57.8	14.3
	25세-29세	100	2.8	26.7	56.7	13.8
	30세-34세	100	2.2	24.9	58.1	14.9
지역1	수도권	100	2.5	25.5	56.2	15.8
	비수도권	100	2.7	25.7	59.0	12.6
지역2	서울	100	2.3	25.6	56.3	15.8
	부산	100	1.9	26.7	58.6	12.7
	대구	100	3.2	30.7	53.3	12.8
	인천	100	2.8	30.4	53.5	13.4
	광주	100	2.1	21.5	66.5	9.9
	대전	100	1.1	15.5	74.3	9.1
	울산	100	1.3	20.3	60.8	17.6
	세종	100	2.0	29.7	56.8	11.5
	경기	100	2.5	24.4	56.7	16.3
	강원	100	5.8	29.1	52.7	12.4
	충북	100	1.0	21.7	65.7	11.6
	충남	100	3.6	25.4	57.5	13.5
	전북	100	1.9	25.9	57.8	14.5
	전남	100	3.4	23.8	59.6	13.2
	경북	100	3.5	34.5	52.4	9.6
	경남	100	3.0	26.7	54.9	15.5
	제주	100	4.3	22.7	57.7	15.3
학력	고졸 이하	100	4.1	32.1	52.2	11.6
	대학 재학·휴학	100	2.7	23.8	58.8	14.7
	대학 졸업 이상	100	2.1	24.8	58.3	14.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삶의 요소 중 명예와 권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가 35.5%, 매우 중요하다가 12.1%,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5.3% 순이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दा의 응답률을 합하면 59.1%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58.8%, 여성이 5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61.1%, 25~29세 56.7%, 30~34세 59.6%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 중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59.5%, 비수도권 청년은 58.7%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세종 청년 중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48.4%로 가장 낮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52.2%인 데에 반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62.1%,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59.6%로 다소 높다.

〈표 3-7-21〉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명예와 권력]

(단위: %)

구분		비율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명예와 권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5.3	35.5	47.0	12.1
성별	남자	100	6.2	35.1	46.0	12.8
	여자	100	4.4	36.0	48.2	11.3
연령	19세-24세	100	5.1	33.8	48.5	12.6
	25세-29세	100	6.4	36.8	45.7	11.0
	30세-34세	100	4.3	36.1	46.8	12.8
지역1	수도권	100	5.3	35.2	46.5	13.0
	비수도권	100	5.4	35.9	47.6	11.1
지역2	서울	100	5.3	37.3	45.0	12.5
	부산	100	5.0	38.7	44.8	11.6
	대구	100	7.0	33.8	50.1	9.0
	인천	100	6.3	35.4	45.6	12.6
	광주	100	3.6	28.7	59.7	8.1
	대전	100	1.2	31.3	52.6	14.9
	울산	100	2.2	29.4	55.7	12.8
	세종	100	4.0	47.7	43.3	5.1
	경기	100	5.1	33.5	47.9	13.5
	강원	100	7.9	39.7	42.4	10.0
	충북	100	5.7	43.4	43.4	7.6
	충남	100	6.6	32.3	49.6	11.4
	전북	100	4.5	31.1	47.6	16.8
	전남	100	10.9	34.0	44.5	10.6
	경북	100	4.1	45.6	41.2	9.1
	경남	100	4.7	34.7	48.4	12.3
	제주	100	11.9	40.4	37.2	10.5
학력	고졸 이하	100	7.3	40.5	42.9	9.2
	대학 재학·휴학	100	4.8	33.1	48.0	14.0
	대학 졸업 이상	100	5.1	35.3	47.6	12.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 응답한 청년 중 87.6%가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7.2%이다. 그런데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바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보고한 청년의 응답률이 5.2%의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 패턴은 전체 청년의 응답 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19~24세 4.1%, 25~29세 5.2%, 30~34세 6.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점차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의 응답 패턴은 전체 청년 응답 패턴과 유사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8.3%), 인천(8.1%), 전북(7.9%) 등인데, 대전 청년과 울산 청년의 경우 바라는 미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15.1%와 10.3%로 비교적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의 응답률이 10.4%로 가장 높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이 2.7%로 가장 낮다.

〈표 3-7-22〉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전혀 실현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전체		100	5.2	87.6	7.2
성별	남자	100	5.5	87.0	7.5
	여자	100	4.9	88.2	7.0
연령	19세~24세	100	4.1	87.9	8.0
	25세~29세	100	5.2	88.2	6.6
	30세~34세	100	6.5	86.5	7.0
지역1	수도권	100	5.0	87.9	7.1
	비수도권	100	5.4	87.1	7.4
지역2	서울	100	4.9	89.0	6.2
	부산	100	4.9	89.2	5.9
	대구	100	3.7	87.2	9.0
	인천	100	8.1	86.2	5.7
	광주	100	6.1	89.8	4.1
	대전	100	3.8	81.1	15.1
	울산	100	5.1	84.6	10.3
	세종	100	1.9	91.1	7.0
	경기	100	4.5	87.5	8.0
	강원	100	3.5	91.6	4.9
	충북	100	5.6	88.6	5.8
	충남	100	6.0	88.1	5.9
	전북	100	7.9	86.3	5.8
	전남	100	8.3	82.6	9.1
	경북	100	5.3	86.6	8.1
	경남	100	6.3	87.3	6.4
	제주	100	7.6	84.8	7.6
학력	고졸 이하	100	10.4	83.4	6.2
	대학 재학·휴학	100	2.7	88.5	8.8
	대학 졸업 이상	100	5.0	88.2	6.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배우자가 있는 청년을 제외하고,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의 비율이 전체의 61.8%로 결혼 계획이 없는 청년 20.6%의 세 배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청년 중 68.7%가 결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여성 청년의 응답률은 54.2%에 불과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결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26.1%로 가장 높고, 25~29세 청년은 21.1%, 30~34세 청년은 13.6%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청년 중 배우자도 없고 결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은 22.0%, 비수도권 청년은 19.1%로 2.9%p 차이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구 청년의 25.4%, 전남 청년의 25.2%, 서울 청년의 25.1%가 결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 중 결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이 26.5%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 청년 22.9%, 대학 졸업 이상 청년 1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23〉 향후 결혼 계획

(단위: %)

구분		비율	향후 결혼 계획		
			비해당(유배우)	있다	없다
전체		100	17.6	61.8	20.6
성별	남자	100	13.8	68.7	17.5
	여자	100	21.7	54.2	24.0
연령	19세-24세	100	0.8	73.1	26.1
	25세-29세	100	11.9	67.0	21.1
	30세-34세	100	43.3	43.1	13.6
지역1	수도권	100	15.3	62.7	22.0
	비수도권	100	20.1	60.8	19.1
지역2	서울	100	8.4	66.4	25.1
	부산	100	18.6	65.3	16.1
	대구	100	16.7	57.9	25.4
	인천	100	19.6	58.1	22.3
	광주	100	7.4	74.8	17.8
	대전	100	29.1	56.8	14.1
	울산	100	24.1	55.3	20.6
	세종	100	24.6	59.9	15.5
	경기	100	19.6	60.9	19.5
	강원	100	18.2	62.7	19.1
	충북	100	24.8	59.8	15.4
	충남	100	22.8	59.3	17.8
	전북	100	19.0	61.1	19.9
	전남	100	17.7	57.1	25.2
	경북	100	21.9	56.7	21.4
	경남	100	19.1	61.5	19.3
	제주	100	27.9	53.9	18.2
학력	고졸 이하	100	22.4	54.7	22.9
	대학 재학·휴학	100	0.8	72.7	26.5
	대학 졸업 이상	100	22.9	59.3	17.7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향후 출산계획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 남성 청년은 70.5%가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여성 청년의 경우에는 55.3%만이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

고 응답했다.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5%p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높았으며, 혼인여부에 따라서는 미혼 64.9%, 유배우 57.3%였다.

〈표 3-7-24〉 향후 출산 계획

(단위: %)

구분		비율	향후 출산 계획	
			있다	없다
전체		100	63.3	36.7
성별	남자	100	70.5	29.5
	여자	100	55.3	44.7
연령	19세~24세	100	62.4	37.6
	25세~29세	100	65.9	34.1
	30세~34세	100	61.3	38.7
지역1	수도권	100	60.7	39.3
	비수도권	100	66.2	33.8
지역2	서울	100	60.5	39.5
	부산	100	70.1	29.9
	대구	100	62.7	37.3
	인천	100	54.9	45.1
	광주	100	73.2	26.8
	대전	100	67.0	33.0
	울산	100	63.5	36.5
	세종	100	66.0	34.0
	경기	100	62.1	37.9
	강원	100	67.7	32.3
	충북	100	66.4	33.6
	충남	100	65.3	34.7
	전북	100	60.8	39.2
	전남	100	59.2	40.8
	경북	100	62.8	37.2
	경남	100	69.7	30.3
	제주	100	66.1	33.9
학력	고졸 이하	100	56.6	43.4
	대학 재학·휴학	100	62.8	37.2
	대학 졸업 이상	100	65.0	35.0
혼인 여부	유배우	100	57.3	42.7
	미혼	100	64.9	35.2
	이혼, 별거, 사별	100	28.4	71.6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의 중요성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다.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다가 18.8%, 중요하지 않다가 17.2%,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80.3%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8.2%, 여성이 82.6%로 4.4%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3%로 높은 데에 반해, 25~29세 청년은 79.8%, 30~34세 청년은 79.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 비수도권 청년은 79.8%로 0.9%p 차이이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인 데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81.8%,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80.1%로 비교적 높다.

〈표 3-7-25〉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경제력]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부모의 경제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2.5	17.2	61.5	18.8
성별	남자	100	3.1	18.7	60.1	18.0
	여자	100	1.9	15.5	63.0	19.6
연령	19세-24세	100	2.4	16.4	63.3	18.0
	25세-29세	100	3.0	17.3	62.2	17.5
	30세-34세	100	2.2	18.1	58.6	21.1
지역1	수도권	100	2.5	16.8	60.6	20.1
	비수도권	100	2.6	17.6	62.5	17.3
지역2	서울	100	2.5	17.6	59.4	20.5
	부산	100	2.5	17.9	64.7	14.9
	대구	100	3.8	16.3	60.7	19.2
	인천	100	2.1	15.2	58.7	24.0
	광주	100	1.9	10.5	62.2	25.4
	대전	100	2.1	25.7	60.1	12.2
	울산	100	1.4	14.1	70.7	13.8
	세종	100	0.6	13.7	68.5	17.2
	경기	100	2.6	16.6	62.0	18.9
	강원	100	5.3	21.3	55.9	17.5
	충북	100	0.6	20.7	68.3	10.3
	충남	100	2.7	15.4	61.6	20.2
	전북	100	1.2	11.0	65.1	22.7
	전남	100	4.8	17.3	63.5	14.4
	경북	100	2.1	16.7	57.8	23.3
	경남	100	2.5	20.9	62.8	13.8
	제주	100	3.3	20.9	57.6	18.1
학력	고졸 이하	100	3.1	18.4	59.4	19.2
	대학 재학·휴학	100	2.3	15.9	63.8	17.9
	대학 졸업 이상	100	2.5	17.4	61.1	19.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지 않다가 37.3%, 매우 중요하다가 9.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7.4%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55.3% 수준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53.9%, 여성이 56.8%로 여성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 25~29세 청년은 54.0%, 30~34세 청년은 55.5%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5%, 비수도권 청년은 53.9%로 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인 데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56.6%,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55.3%로 비교적 높다.

〈표 3-7-2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부모의 교육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7.4	37.3	45.8	9.5
성별	남자	100	8.3	37.8	44.2	9.7
	여자	100	6.5	36.7	47.6	9.2
연령	19세-24세	100	6.8	36.9	47.6	8.7
	25세-29세	100	8.9	37.1	45.0	9.0
	30세-34세	100	6.4	38.1	44.7	10.8
지역1	수도권	100	8.0	35.5	45.8	10.7
	비수도권	100	6.8	39.4	45.8	8.0
지역2	서울	100	8.0	35.9	46.8	9.3
	부산	100	5.3	38.9	51.0	4.8
	대구	100	9.8	36.4	45.7	8.1
	인천	100	9.5	36.8	43.6	10.2
	광주	100	5.1	28.6	48.1	18.2
	대전	100	3.1	39.5	49.7	7.8
	울산	100	9.0	43.0	43.0	4.9
	세종	100	5.2	31.2	55.1	8.4
	경기	100	7.6	34.9	45.7	11.9
	강원	100	9.8	40.0	40.5	9.7
	충북	100	2.9	33.0	57.5	6.7
	충남	100	9.1	41.5	41.4	8.0
	전북	100	4.3	35.5	51.2	9.1
	전남	100	9.3	38.9	45.9	5.9
	경북	100	6.6	47.3	36.2	9.9
	경남	100	6.4	48.0	39.6	6.0
	제주	100	15.8	35.9	41.0	7.3
학력	고졸 이하	100	7.4	39.7	43.8	9.1
	대학 재학·휴학	100	6.8	36.6	47.9	8.7
	대학 졸업 이상	100	7.6	37.0	45.5	9.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나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가장 높다. 나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25.7%, 중요하지 않다가 10.5%,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88.3%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 나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7.1%, 여성이 89.7%로 2.6%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9%, 25~29세 청년은 86.5%, 30~34세 청년은 87.4%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 비수도권 청년은 85.8%로 수도권 청년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6%인 데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92.7%,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89.7%로 비교적 높다.

〈표 3-7-27〉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나의 교육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1.1	10.5	62.7	25.7
성별	남자	100	1.4	11.5	61.5	25.6
	여자	100	0.8	9.4	64.0	25.8
연령	19세-24세	100	0.7	8.3	61.7	29.2
	25세-29세	100	1.6	11.9	63.1	23.5
	30세-34세	100	1.1	11.5	63.4	24.0
지역1	수도권	100	1.1	8.3	60.9	29.6
	비수도권	100	1.2	13.0	64.6	21.2
지역2	서울	100	1.0	7.1	61.7	30.1
	부산	100	0.5	17.7	62.9	18.9
	대구	100	0.8	11.2	61.2	26.7
	인천	100	1.5	12.1	59.1	27.4
	광주	100	1.1	10.5	63.3	25.2
	대전	100	0.0	4.9	74.4	20.7
	울산	100	1.7	12.5	66.3	19.5
	세종	100	0.0	8.4	73.2	18.5
	경기	100	1.1	8.4	60.8	29.7
	강원	100	1.9	16.8	59.3	22.0
	충북	100	0.2	14.2	67.7	18.0
	충남	100	2.8	15.3	60.4	21.5
	전북	100	0.8	10.3	65.3	23.7
	전남	100	2.3	11.5	66.9	19.4
	경북	100	1.1	13.4	65.0	20.5
	경남	100	1.6	14.5	64.8	19.2
	제주	100	4.2	12.8	61.2	21.9
학력	고졸 이하	100	2.6	21.8	59.6	16.0
	대학 재학·휴학	100	0.6	6.7	61.4	31.3
	대학 졸업 이상	100	1.0	9.3	63.9	25.8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가장 높다.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가 40.7%, 중요하지 않다가 1.4%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0.0%로 거의 없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98.6%로 대부분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98.5%, 여성이 98.7%로 비슷하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8.8%, 25~29세 청년은 98.5%, 30~34세 청년은 98.5%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8%, 비수도권 청년은 98.4%로 0.4%p 차이이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99.0%,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98.5%로 모두 높다.

〈표 3-7-28〉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노력]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나의 노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0.0	1.4	40.7	57.9
성별	남자	100	0.0	1.5	40.0	58.5
	여자	100	0.0	1.2	41.5	57.3
연령	19세-24세	100	0.1	1.1	38.8	60.0
	25세-29세	100	0.0	1.5	40.9	57.6
	30세-34세	100	0.0	1.5	42.6	55.9
지역1	수도권	100	0.1	1.1	37.6	61.2
	비수도권	100	0.0	1.6	44.2	54.1
지역2	서울	100	0.1	1.1	35.4	63.4
	부산	100	0.0	1.6	51.3	47.1
	대구	100	0.0	1.1	34.5	64.3
	인천	100	0.1	1.7	40.6	57.5
	광주	100	0.0	4.0	41.4	54.6
	대전	100	0.0	0.5	52.6	46.9
	울산	100	0.0	0.7	45.4	53.9
	세종	100	0.0	1.1	57.6	41.3
	경기	100	0.0	1.0	38.6	60.4
	강원	100	0.1	0.6	40.8	58.6
	충북	100	0.0	0.8	53.2	46.0
	충남	100	0.1	0.8	39.4	59.7
	전북	100	0.0	1.5	40.8	57.6
	전남	100	0.0	2.3	42.1	55.6
	경북	100	0.0	2.0	41.6	56.4
	경남	100	0.0	2.9	44.6	52.5
	제주	100	0.0	1.4	37.1	61.6
학력	고졸 이하	100	0.0	1.7	48.4	49.8
	대학 재학·휴학	100	0.0	1.0	37.5	61.5
	대학 졸업 이상	100	0.1	1.4	40.1	58.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다.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 40.7%, 중요하지 않다가 4.8%,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2%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95.0%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94.5%, 여성이 95.4%로 0.8%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9%, 25~29세 청년은 95.3%, 30~34세 청년은 94.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9%, 비수도권 청년은 95.1%로 0.2%p 차이이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2%,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94.5%,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95.4%로 모든 집단에서 높다.

〈표 3-7-29〉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0.2	4.8	54.3	40.7
성별	남자	100	0.3	5.2	54.2	40.4
	여자	100	0.1	4.4	54.4	41.1
연령	19세~24세	100	0.2	4.9	53.8	41.1
	25세~29세	100	0.3	4.4	53.5	41.8
	30세~34세	100	0.2	5.1	55.8	38.9
지역1	수도권	100	0.2	5.0	51.7	43.2
	비수도권	100	0.3	4.7	57.2	37.9
지역2	서울	100	0.1	6.7	50.4	42.8
	부산	100	0.1	7.1	60.5	32.3
	대구	100	0.7	6.2	52.3	40.8
	인천	100	0.2	6.4	50.7	42.7
	광주	100	0.1	3.0	52.5	44.5
	대전	100	0.2	3.1	71.8	24.9
	울산	100	0.1	3.2	55.3	41.4
	세종	100	0.0	4.8	60.4	34.8
	경기	100	0.2	3.4	53.0	43.5
	강원	100	0.5	7.6	49.1	42.9
	충북	100	0.0	4.5	64.3	31.2
	충남	100	0.3	3.2	51.8	44.7
	전북	100	0.0	2.8	59.7	37.5
	전남	100	0.3	3.0	54.3	42.4
	경북	100	0.1	4.1	55.8	40.0
	경남	100	0.7	4.8	56.2	38.2
	제주	100	0.3	5.3	50.9	43.6
학력	고졸 이하	100	0.4	5.4	57.7	36.5
	대학 재학·휴학	100	0.2	5.4	52.7	41.7
	대학 졸업 이상	100	0.2	4.5	54.1	41.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가장 높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24.8%, 중요하지 않다가 11.9%,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는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86.7% 수준이다.

성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4.1%, 여성이 89.6%로 여성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 25~29세 청년은 84.6%, 30~34세 청년은 87.9%로 20대 후반 청년의 응답률이 다소 낮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2%, 비수도권 청년은 87.3%로 1.1%p 차이이다. 학력에 따라서 고졸 이하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1%,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의 응답률은 86.6%,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87.2%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높아진다.

〈표 3-7-30〉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정부의 정책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100	1.4	11.9	62.0	24.8
성별	남자	100	1.9	14.0	60.5	23.6
	여자	100	0.7	9.6	63.6	26.0
연령	19세-24세	100	1.1	11.1	63.3	24.5
	25세-29세	100	1.8	13.6	61.8	22.8
	30세-34세	100	1.1	11.0	60.7	27.2
지역1	수도권	100	1.4	12.4	61.2	25.1
	비수도권	100	1.3	11.4	62.9	24.4
지역2	서울	100	1.4	13.1	63.2	22.2
	부산	100	1.4	14.4	61.8	22.4
	대구	100	1.6	14.2	67.7	16.5
	인천	100	1.0	13.4	56.5	29.0
	광주	100	2.0	8.3	63.0	26.7
	대전	100	0.6	8.0	62.3	29.2
	울산	100	1.6	7.8	53.8	36.8
	세종	100	1.6	14.5	69.8	14.2
	경기	100	1.4	11.5	60.7	26.4
	강원	100	0.6	13.6	62.5	23.3
	충북	100	0.7	9.3	66.3	23.7
	충남	100	0.7	14.0	58.6	26.7
	전북	100	1.3	8.0	64.9	25.7
	전남	100	1.1	10.3	61.4	27.2
	경북	100	1.4	9.3	63.3	26.0
	경남	100	2.2	13.6	62.0	22.2
	제주	100	0.9	8.5	66.9	23.7
학력	고졸 이하	100	1.9	13.0	60.2	24.9
	대학 재학·휴학	100	1.1	12.3	63.4	23.2
	대학 졸업 이상	100	1.3	11.5	61.9	25.3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을 갖춘 정도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8%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33.4%,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5.0%,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61.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61.1%, 여성이 62.1%로 1.0%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67.7%, 25~29세 청년 61.3%, 30~34세 청년 54.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62.2%, 비수도권 청년은 61.0%로 1.2%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부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46.2%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0.6%,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61.8%로 나타났다.

〈표 3-7-31〉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경제력]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부모의 경제력]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5.0	33.4	57.8	3.8
성별	남자	100	4.9	33.9	56.9	4.3
	여자	100	5.0	32.9	58.8	3.3
연령	19세-24세	100	3.3	29.0	62.9	4.9
	25세-29세	100	5.2	33.5	57.8	3.6
	30세-34세	100	6.7	38.5	51.9	2.9
지역1	수도권	100	5.6	32.2	58.1	4.1
	비수도권	100	4.2	34.8	57.5	3.5
지역2	서울	100	5.8	29.2	60.2	4.9
	부산	100	3.3	37.2	55.1	4.4
	대구	100	4.0	34.8	58.2	3.0
	인천	100	6.9	37.4	51.2	4.5
	광주	100	2.9	34.9	56.9	5.3
	대전	100	1.5	33.7	62.0	2.8
	울산	100	3.6	26.3	67.6	2.4
	세종	100	0.7	37.6	57.1	4.6
	경기	100	5.2	33.4	57.9	3.4
	강원	100	6.8	35.7	54.3	3.3
	충북	100	2.1	28.0	67.8	2.0
	충남	100	4.9	32.8	57.5	4.7
	전북	100	5.6	34.5	57.2	2.7
	전남	100	4.4	31.4	62.5	1.7
	경북	100	6.2	43.3	46.1	4.5
	경남	100	5.6	36.3	55.0	3.1
	제주	100	5.4	31.7	58.9	4.0
학력	고졸 이하	100	9.8	44.0	43.2	2.9
	대학 재학·휴학	100	2.9	26.5	65.1	5.5
	대학 졸업 이상	100	4.6	33.6	58.4	3.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27.1%,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6.1%,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70.1%이다.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1%로 같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76.9%, 25~29세 청년 71.1%, 30~34세 청년 6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부모 세대의 코호트 효과일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71.0%, 비수도권 청년은 69.2%로 1.8%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부모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53.1%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9.3%,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70.6%로 나타났다.

〈표 3-7-32〉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부모의 교육수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2.7	27.1	64.0	6.1
성별	남자	100	2.9	27.0	63.7	6.4
	여자	100	2.6	27.3	64.4	5.7
연령	19세-24세	100	1.7	21.4	68.7	8.2
	25세-29세	100	3.1	25.9	65.1	6.0
	30세-34세	100	3.5	35.2	57.4	3.8
지역1	수도권	100	3.1	26.0	63.8	7.1
	비수도권	100	2.4	28.5	64.2	4.9
지역2	서울	100	2.9	22.6	66.2	8.2
	부산	100	1.7	29.6	63.2	5.5
	대구	100	2.2	29.9	63.5	4.3
	인천	100	3.5	31.1	59.4	5.9
	광주	100	1.4	31.3	62.1	5.2
	대전	100	0.8	24.5	71.1	3.6
	울산	100	2.2	20.5	71.2	6.1
	세종	100	0.4	22.6	70.0	6.9
	경기	100	3.0	27.4	63.0	6.6
	강원	100	3.9	26.7	64.3	5.1
	충북	100	0.7	25.4	71.2	2.8
	충남	100	2.9	24.3	66.0	6.8
	전북	100	2.9	24.5	68.2	4.5
	전남	100	2.4	26.4	66.3	4.9
	경북	100	5.5	38.5	50.8	5.2
	경남	100	2.5	32.7	60.5	4.3
	제주	100	2.5	24.5	65.5	7.5
학력	고졸 이하	100	5.9	41.1	49.5	3.5
	대학 재학·휴학	100	1.6	19.1	70.2	9.1
	대학 졸업 이상	100	2.4	27.0	65.1	5.5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22.1%,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5.3%,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76.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75.4%, 여성이 77.6%로 2.2%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77.7%, 25~29세 청년 76.1%, 30~34세 청년 75.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77.7%, 비수도권 청년은 75.7%로 2.0%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나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45.5%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80.7%,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82.2%로 나타났다.

〈표 3-7-33〉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나의 교육수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1.5	22.1	71.1	5.3
성별	남자	100	1.8	22.8	70.0	5.3
	여자	100	1.1	21.2	72.3	5.3
연령	19세-24세	100	1.4	20.8	72.1	5.6
	25세-29세	100	1.8	22.1	70.7	5.4
	30세-34세	100	1.1	23.5	70.4	4.9
지역1	수도권	100	1.7	21.3	71.0	6.1
	비수도권	100	1.2	23.0	71.3	4.5
지역2	서울	100	1.7	20.2	71.7	6.4
	부산	100	1.1	24.9	67.6	6.3
	대구	100	0.8	23.2	72.5	3.5
	인천	100	1.7	23.7	68.6	6.0
	광주	100	1.9	24.5	68.8	4.8
	대전	100	0.4	11.7	83.9	4.0
	울산	100	0.7	17.6	76.0	5.8
	세종	100	0.4	24.0	70.4	5.1
	경기	100	1.7	21.5	71.0	5.9
	강원	100	2.2	26.3	66.7	4.7
	충북	100	0.6	18.8	75.6	5.0
	충남	100	1.7	22.8	71.0	4.5
	전북	100	0.5	19.7	74.6	5.1
	전남	100	1.2	25.5	69.9	3.4
	경북	100	2.0	27.5	68.1	2.4
	경남	100	1.5	27.0	67.5	4.0
	제주	100	2.5	26.1	67.1	4.3
학력	고졸 이하	100	5.6	48.9	43.9	1.7
	대학 재학·휴학	100	1.0	18.3	74.8	5.9
	대학 졸업 이상	100	0.7	17.2	76.2	6.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나의 노력에 대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19.7%,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8.4%,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78.7%이다.

성별에 따라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78.8%, 여성이 78.6%로 0.2%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76.1%, 25~29세 청년 79.6%, 30~34세 청년 80.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78.9%, 비수도권 청년은 78.5%로 0.4%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나의 노력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69.8%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6.4%,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81.7%로 나타났다.

〈표 3-7-34〉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나의 노력]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나의 노력]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1.6	19.7	70.3	8.4
성별	남자	100	1.8	19.4	70.0	8.8
	여자	100	1.3	20.1	70.6	8.0
연령	19세-24세	100	1.8	22.1	68.0	8.1
	25세-29세	100	1.8	18.5	71.5	8.2
	30세-34세	100	1.1	18.3	71.6	9.0
지역1	수도권	100	1.8	19.3	70.2	8.7
	비수도권	100	1.4	20.1	70.4	8.1
지역2	서울	100	2.2	21.2	68.9	7.6
	부산	100	0.8	21.1	71.7	6.4
	대구	100	1.3	20.2	68.4	10.1
	인천	100	1.9	17.5	69.4	11.2
	광주	100	3.0	22.3	63.9	10.7
	대전	100	0.8	7.6	80.1	11.5
	울산	100	0.9	16.3	69.6	13.1
	세종	100	0.7	26.3	68.7	4.3
	경기	100	1.5	18.3	71.4	8.9
	강원	100	1.7	18.4	71.4	8.5
	충북	100	1.2	15.1	76.6	7.1
	충남	100	1.5	18.8	73.0	6.6
	전북	100	1.1	23.9	65.7	9.3
	전남	100	1.5	21.9	71.7	4.9
	경북	100	0.7	20.0	72.6	6.7
	경남	100	2.0	28.2	63.2	6.6
	제주	100	2.3	23.6	67.4	6.7
학력	고졸 이하	100	3.3	26.9	63.4	6.4
	대학 재학·휴학	100	1.8	21.7	68.5	8.0
	대학 졸업 이상	100	1.1	17.2	72.6	9.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22.3%,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8.4%,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75.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75.0%, 여성이 77.0%로 여성의 응답률이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75.3%, 25~29세 청년 76.1%, 30~34세 청년 76.5%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증가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75.5%, 비수도권 청년은 76.4%로 0.9%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68.8%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75.5%,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77.8%로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7-35〉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1.7	22.3	67.6	8.4
성별	남자	100	1.9	23.1	66.2	8.8
	여자	100	1.5	21.5	69.1	7.9
연령	19세-24세	100	1.5	23.2	65.9	9.4
	25세-29세	100	2.2	21.7	67.4	8.6
	30세-34세	100	1.5	22.0	69.6	6.9
지역1	수도권	100	2.2	22.3	66.9	8.6
	비수도권	100	1.2	22.4	68.4	8.1
지역2	서울	100	2.0	23.1	65.9	9.0
	부산	100	0.7	28.0	64.7	6.6
	대구	100	1.6	20.3	69.5	8.5
	인천	100	2.5	24.8	63.3	9.3
	광주	100	1.3	22.4	66.1	10.2
	대전	100	0.4	11.4	81.8	6.4
	울산	100	1.6	17.5	70.9	10.0
	세종	100	0.6	30.7	62.5	6.1
	경기	100	2.3	21.0	68.4	8.3
	강원	100	2.5	24.5	63.2	9.9
	충북	100	0.5	18.7	75.7	5.0
	충남	100	1.3	22.6	67.8	8.4
	전북	100	0.1	22.4	69.6	8.0
	전남	100	0.5	19.8	72.8	7.0
	경북	100	0.6	21.4	68.7	9.3
	경남	100	3.0	29.3	59.2	8.5
	제주	100	1.0	20.8	67.6	10.6
학력	고졸 이하	100	3.3	27.9	61.7	7.1
	대학 재학·휴학	100	1.3	23.1	66.6	8.9
	대학 졸업 이상	100	1.5	20.7	69.3	8.4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중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해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가장 높고,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30.4%,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12.3%,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응답한 비율의 합은 32.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이 32.6%, 여성이 32.0%로 0.6%p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34.0%, 25~29세 청년 32.1%, 30~34세 청년 30.8%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은 31.5%, 비수도권 청년은 33.3%로 1.8%p 차이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청년 중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갖추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26.3%로 가장 낮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하고 있는 청년은 35.5%,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32.5%로 나타났다.

〈표 3-7-36〉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정부의 정책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요소 [정부의 정책 지원]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전체		100	12.3	55.4	30.4	1.9
성별	남자	100	13.6	53.8	30.5	2.2
	여자	100	10.8	57.2	30.4	1.6
연령	19세-24세	100	11.1	54.9	32.2	1.8
	25세-29세	100	12.7	55.2	30.2	1.8
	30세-34세	100	13.1	56.1	28.6	2.2
지역1	수도권	100	13.7	54.8	29.3	2.1
	비수도권	100	10.6	56.1	31.6	1.7
지역2	서울	100	13.4	55.3	29.8	1.5
	부산	100	10.7	56.5	32.0	0.9
	대구	100	8.2	55.5	34.1	2.1
	인천	100	16.5	55.0	27.3	1.3
	광주	100	10.2	52.4	35.4	2.0
	대전	100	4.6	52.4	40.4	2.5
	울산	100	11.7	54.6	30.7	3.0
	세종	100	8.9	64.0	25.9	1.2
	경기	100	13.3	54.4	29.5	2.8
	강원	100	13.1	57.1	27.8	2.0
	충북	100	11.4	46.1	40.7	1.8
	충남	100	13.7	55.3	29.4	1.7
	전북	100	16.6	57.4	24.4	1.6
	전남	100	11.6	48.3	38.5	1.5
	경북	100	8.9	65.7	23.9	1.6
	경남	100	10.0	61.5	27.2	1.3
	제주	100	12.1	56.3	30.8	0.9
학력	고졸 이하	100	15.3	58.4	24.7	1.6
	대학 재학·휴학	100	11.0	53.6	33.6	1.9
	대학 졸업 이상	100	12.1	55.4	30.5	2.0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청년 삶 실태조사로 읽어 본 청년의 사회 인식과 미래 설계 실태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청년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나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다.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현세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서 다수의 청년은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청년들이 10% 넘게 존재한다.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이나 1점을 선택한 청년도 약 1.5% 정도 존재한다.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보고하는 청년은 5.2%에 달한다. 보통 청년들의 삶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생애 가장 활기찬 시기에 행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에 주목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의 기초통계량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므로, 행복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 취약 청년에 대한 심층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였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었다. 일자리는 97.4%의 청년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95.7%의 청년이,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은 93.7%의 청년이 선택하였다. 사실상 청년 중 거의 대부분이 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연애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네 번째 순서이고, 결혼은 74.2%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사회에의 기여는 71.8%, 자녀 출산과 양육이 69.3%로 나타났고, 높은 학력수준과 명예, 권력은 각각 61.8%와 59.1%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46.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9.7%)이 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 청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들 하지만, 연애나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게 하는 기제이다. 또한 향후에는 다양한 요소로 읽어내고자 한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구

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 양상을 심층분석하고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바라는 미래상의 차이를 탐색하여, 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98.6%로 사실상 거의 모든 청년이 자신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도 95.0%로 매우 높았다. 다음은 청년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88.4%, 정부의 정책 지원이 86.8%, 부모의 경제력이 80.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55.3%로 응답자의 절반은 넘지만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의 경향은 다르다.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와 ‘갖추고 있지 않다’의 합)고 응답한 청년은 21.3%에 이른다.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0%, 청년 자신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6% 정도이다. 부모의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8.4%, 부모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9.8%다.

주목할 점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정도가 8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7.7%에 이른 것이다. 물론 정책 지원을 청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부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청년의 수요와 정책 공급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표 3-7-37〉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인식

(단위: %)

구분	중요성						갖추고 있다는 인식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가득 갖추고 있지 않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가득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	19.7	2.5	17.2	80.3	61.5	18.8	38.4	5.0	33.4	61.6	57.8	3.8
부모의 교육수준	44.7	7.4	37.3	55.3	45.8	9.5	29.8	2.7	27.1	70.1	64.0	6.1
나의 교육수준	11.6	1.1	10.5	88.4	62.7	25.7	23.6	1.5	22.1	76.4	71.1	5.3
나의 노력	1.4	0.0	1.4	98.6	40.7	57.9	21.3	1.6	19.7	78.7	70.3	8.4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5.0	0.2	4.8	95.0	54.3	40.7	24.0	1.7	22.3	76.0	67.6	8.4
정부의 정책 지원	13.3	1.4	11.9	86.8	62.0	24.8	67.7	12.3	55.4	32.3	30.4	1.9

n=14,966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8절 청년의 소득·지출·재산·부채 실태

1. 분석 결과

가. 생활비

청년가구는 월 평균 303만원의 생활비를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 금액으로는 월 평균 280만원 수준이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해 보면, 가계지출은 2020년 약 324만원, 2021년 약 337만원, 소비지출은 2020년 약 240만원, 2021년 약 249만원과 비교해보면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조금 낮고, 소비지출 수준 보다는 높았다. 우리 조사가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총생활비는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간 차이는 청년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의 경우 가족구성 차이, 계절적 차이, 조사방식(통계청은 가계부 기장 방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19~24세가 포함된 가구가 월 평균 333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많았다. 중위지출 역시 높았다. 이는 19~24세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높음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지만 동 연령대의 경우 식료품비와 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의 평균지출이 320만원으로 지출이 가장 낮은 세종과 충북 261만원에 비해 59만원이 많았다. 중위지출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가구의 평균지출액이 높았다.

〈표 3-8-1〉 월 기준 총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평균금액	중위금액
전체		303	280
성별	남자	305	280
	여자	302	280
연령	19세-24세	333	315
	25세-29세	280	250
	30세-34세	268	250
지역1	수도권	314	300
	비수도권	291	270
지역2	서울	307	260
	부산	320	288
	대구	290	295
	인천	314	284
	광주	271	250
	대전	266	250
	울산	305	300
	세종	261	230
	경기	320	300
	강원	295	280
	충북	261	230
	충남	274	250
	전북	295	265
	전남	298	281
	경북	291	280
	경남	304	300
	제주	286	258
학력	고졸 이하	272	250
	대학 재학·휴학	346	350
	대학 졸업 이상	287	255

n=14,93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출항목별로 가구지출의 특징을 보면, 세부특성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식료품비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지출항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지역별로는 특정 항목이 크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목별 소소한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출 격차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로 수도권은 식료품비와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청년가구 소득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학중인 청년이 있는 경우 교육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표 3-8-2〉 항목별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만원)

구분		식료품비	주거비 (월세)	주거비 (주거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오락·문화비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전체		96	8	16	24	17	27	15	23	32	12	5
성별	남자	97	9	16	24	17	27	15	24	32	12	5
	여자	94	8	16	25	17	26	15	22	32	13	5
연령	19세~24세	102	8	16	39	18	29	15	23	33	13	6
	25세~29세	91	10	15	10	16	25	15	23	32	11	5
	30세~34세	86	7	15	10	15	23	15	22	30	14	4
지역1	수도권	101	9	17	26	17	25	16	24	33	12	5
	비수도권	89	8	15	22	17	28	14	22	31	14	5
지역2	서울	104	13	15	30	15	22	16	26	34	11	5
	부산	99	8	15	29	16	29	17	25	33	14	6
	대구	89	7	15	20	17	29	16	21	33	12	5
	인천	103	7	19	27	20	31	15	23	35	12	7
	광주	75	8	13	18	16	26	13	17	32	13	6
	대전	108	10	17	19	15	26	12	13	24	8	6
	울산	94	6	17	24	17	27	16	25	30	13	5
	세종	84	6	15	32	14	21	10	15	22	9	4
	경기	97	6	17	23	18	27	16	23	32	12	5
	강원	89	9	13	26	18	28	12	22	32	15	6
	충북	77	9	14	13	14	22	10	16	23	14	3
	충남	72	8	16	21	16	26	14	23	30	15	3
	전북	87	7	14	27	18	31	15	18	31	16	6
	전남	81	6	16	15	20	30	11	25	32	17	9
	경북	93	7	15	23	16	31	13	30	37	16	3
	경남	94	6	16	20	18	29	14	22	32	12	4
	제주	99	10	10	12	18	27	15	22	30	11	6
학력	고졸 이하	90	9	14	14	17	24	14	20	28	11	4
	대학 재학·휴학	104	8	17	51	18	29	15	24	32	12	6
	대학 졸업 이상	92	8	16	12	16	26	16	23	33	13	5

n=14,93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소득

청년가구와 청년개인 기준으로 소득을 보면, 먼저 가구소득은 평균 6,5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2020년 경상소득이 6,125만원, 2021년 6,414만원인 것을 보면, 통계청 전국통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청 조사의 경우 노인, 혼자사는 중년 등 소득이 낮은 대상까지 포함하여 조사된다는 점에서 우리 조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 개인이 연간 소득은 2,162만원으로 이를 월로 보면 180만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월 기준으로 약 180만원인 것을 보면, 청년 개인 소득은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해석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의 경우 학생 신분이거나 기타 비정형 일자리(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보면 가구소득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청년 개인 기준으로는 남자청년이 2,309만원으로 여자청년의 2,000만원에 비해서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가 포함된 가구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7,082만원이었으며, 30~34세가 가장 낮은 4,972만원이었다. 이는 가구내 구성에서 주된 소득활동자가 누구지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청년개인 소득을 보면, 오히려 30~34세가 3,194만원으로 19~24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가구와 청년개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에 비해 광역시의 소득이 높았으며, 청년의 개인소득에서도 도와 광역시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가구 소득은 재학중인 청년이 있는 가구가 높았지만, 청년개인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의 소득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가구주 가구를 보면, 청년개인소득에서도 오히려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3〉 총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금액(가구기준)	평균금액(청년개인 기준)
전체		6,525	2,162
성별	남자	6,492	2,309
	여자	6,554	2,000
연령	19세-24세	6,458	929
	25세-29세	6,712	2,509
	30세-34세	6,410	3,194
지역1	수도권	6,837	2,254
	비수도권	6,157	2,059
지역2	서울	6,573	2,185
	부산	6,408	2,067
	대구	6,231	1,838
	인천	7,137	2,482
	광주	6,090	1,813
	대전	5,808	2,570
	울산	6,517	1,795
	세종	5,508	2,133
	경기	6,994	2,257
	강원	5,623	2,076
	충북	5,788	2,474
	충남	6,010	2,029
	전북	6,160	2,073
	전남	6,388	1,960
	경북	6,205	1,850
	경남	6,359	2,005
	제주	6,433	2,414
학력	고졸 이하	5,825	2,351
	대학 재학·휴학	6,366	567
	대학 졸업 이상	6,803	2,738
청년 가구주 가구	1인가구	2,633	2,856
	청년부부가구	8,018	3,437
	청년자녀가구	6,577	2,857
	부모동거가구	6,395	2,913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5,884	2,797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8,403	1,54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9,346	2,510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6,931	1,792

가구 n=14,870, 개인 n=14,91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구와 개인에서도 동일하였다. 가구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6,173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재산소득이 154만원이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이를 월로 환산하면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청년가구내 청년개인에게 위기 발생시 단기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대응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연령별로 보면 가구기준으로는 25~29세가 포함된 가구가 높았지만, 청년 개인으로는 30~34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3,1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청년 개인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로 확대시 역시 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단지 경기도와 전남은 높은 근로 및 사업소득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청년에 비해 졸업 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부부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3,329만원)이 혼자사는 청년가구(2,583만원)에 비해 많았다.

〈표 3-8-4〉 소득원천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전체		6,173	2,048	154	19	126	71	71	25
성별	남자	6,120	2,189	169	24	140	77	63	19
	여자	6,222	1,891	141	13	112	64	78	32
연령	19세~24세	6,088	781	147	5	171	123	52	21
	25세~29세	6,361	2,406	182	15	93	57	77	32
	30세~34세	6,104	3,106	132	39	67	26	107	23
지역1	수도권	6,477	2,144	184	21	110	63	65	27
	비수도권	5,816	1,940	119	16	145	80	78	23
지역2	서울	6,087	1,999	227	29	194	121	66	37
	부산	5,956	1,897	122	11	231	127	99	33
	대구	5,875	1,722	109	11	175	93	72	12
	인천	6,842	2,392	148	23	72	43	74	24
	광주	5,810	1,757	136	8	74	23	70	25
	대전	5,593	2,502	47	0	103	64	65	4
	울산	6,145	1,696	166	3	114	58	93	37
	세종	4,997	1,863	241	101	210	154	60	15
	경기	6,728	2,201	156	14	46	22	63	20
	강원	5,156	1,880	86	12	218	131	163	52
	충북	5,618	2,422	77	7	58	29	36	16
	충남	5,670	1,882	106	27	163	97	71	23
	전북	5,828	1,985	164	10	104	56	64	23
	전남	6,143	1,872	84	17	77	46	84	26
	경북	5,865	1,689	97	35	180	104	63	22
	경남	6,007	1,893	151	23	128	70	74	19
	제주	6,017	2,328	267	31	71	27	79	27
학력	고졸 이하	5,625	2,280	68	8	46	31	85	32
	대학 재학·휴학	5,918	379	163	5	233	162	52	21
	대학 졸업 이상	6,467	2,642	172	27	85	45	79	25
청년 가구주 가구	1인가구	2,307	2,583	17	18	280	229	30	26
	청년부부가구	7,756	3,329	42	29	161	56	59	22
	청년자녀가구	6,144	2,717	139	80	62	21	233	40
	부모동거가구	6,029	2,862	181	23	66	7	119	21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5,454	2,618	71	17	225	121	134	40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8,052	1,496	233	10	46	15	72	22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9,036	2,481	159	1	101	14	49	13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6,381	1,692	186	24	160	37	204	39

가구 n=14,870, 개인 n=14,918

주: 1) 결과값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부채 및 자산

청년가구와 청년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부채를 살펴보면, 평균 부채금액은 4,454만원, 청년 개인은 1,17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보면 부채는 2020년 8,256만원, 2021년 8,801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 보다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부채액이 낮았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가구기준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으며, 청년 개인으로도 남자 청년이 1,478만원으로 여자 청년 832만원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34세 사이가 가구(6,378만원)나 청년 개인기준(2,58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동 연령대는 전환기로 사회진출, 결혼, 주택 마련 등 여러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부채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인 부채 종류에서 동 연령대의 주택관련 부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부채규모가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인천과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수도권의 부채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아서 수도권 가구의 부채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6천만원대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으로도 역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부채규모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졸업자의 부채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 유형으로는 청년부부가구와 청년·자녀가구의 부채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5〉 총부채

		(단위: 만원)	
구분		평균금액(가구 기준)	평균금액(청년(개인) 기준)
전체		4,454	1,172
성별	남자	4,468	1,478
	여자	4,442	832
연령	19세-24세	3,756	162
	25세-29세	4,236	942
	30세-34세	6,378	2,583
지역1	수도권	5,479	1,402
	비수도권	3,309	930
지역2	서울	4,044	1,579
	부산	4,156	847
	대구	2,860	670
	인천	5,564	1,905
	광주	2,969	514
	대전	1,904	1,040
	울산	2,771	594
	세종	4,401	1,262
	경기	6,638	1,147
	강원	3,253	1,486
	충북	2,569	1,171
	충남	3,903	808
	전북	3,496	1,317
	전남	3,747	706
	경북	2,541	1,282
	경남	3,696	649
지역3	제주	5,719	1,474
	고졸 이하	4,293	1,213
	대학 재학·휴학	3,675	107
지역4	대학 졸업 이상	4,950	1,578
	1인 가구	1,606	1,888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부부가구	12,616	3,684
	청년자녀가구	9,644	3,950
	부모동거가구	4,627	953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3,688	1,948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4,911	193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5,818	510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8,098	609

가구 n=14,310, 개인 n=14,39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부채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관련 부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액에서 가구 기준으로 주택관련 부채가 3,10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는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가 130만원으로 많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의 투자 확대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생활비 부채가 119만원, 학자금 부채가 91만원의 순이었다. 청년개인으로 살펴봐도 주택관련 부채가 823만원으로 역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자금 부채가 58만원 수준이었다.

특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부채가 가장 많았으며, 청년 개인을 기준으로 는 남자청년이 여자청년에 비해 부채금액이 많았다. 연령기준으로도 30~34세 청년개인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부채가 많은 청년가구나 개인의 경우 부채상환과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분석단위를 부채만 있는 가구나 개인으로 보면, 이들 가구의 부채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채를 가진 청년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가구와 개인 간에 평균 부채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가구주 유형으로는 부모 동거가구, 기타 청년가구주 가구의 주택관련 부채가 낮았으며, 청년·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의 주택관련 부채는 5천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가구에 있어 생활속에서 주택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6〉 부채유형별 평균부채액

(단위: 만원)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전체		91	58	130	36	3,101	823	119	32
성별	남자	83	57	138	55	3,024	1,062	114	41
	여자	99	60	123	15	3,170	557	124	22
연령	19세-24세	101	52	109	5	2,563	71	114	6
	25세-29세	91	68	167	30	3,000	655	108	28
	30세-34세	69	54	126	78	4,487	1,869	147	66
지역1	수도권	111	73	146	46	3,824	981	119	31
	비수도권	69	42	113	26	2,291	656	120	33
지역2	서울	91	69	65	44	3,111	1,114	74	34
	부산	92	41	86	7	3,216	630	160	41
	대구	48	34	68	11	1,879	485	136	10
	인천	150	119	198	91	3,550	1,197	143	19
	광주	20	9	78	1	1,619	403	31	6
	대전	35	26	84	27	1,645	914	41	19
	울산	61	31	124	31	1,710	297	50	19
	세종	162	94	79	1	3,009	933	41	36
	경기	118	65	200	36	4,475	830	150	32
	강원	74	41	120	95	2,281	1,127	157	41
	충북	58	45	223	36	1,345	889	108	97
	충남	63	63	96	42	2,986	478	210	35
	전북	102	53	290	50	2,123	728	124	21
	전남	60	36	181	22	2,082	440	91	23
	경북	56	43	15	9	1,796	974	89	52
	경남	104	58	87	6	2,833	437	126	20
	제주	67	57	251	122	3,652	708	323	108
학력1	고졸 이하	25	13	78	57	3,141	740	208	75
	대학 재학·휴학	88	50	119	3	2,541	35	101	4
	대학 졸업 이상	111	72	150	44	3,415	1,151	106	33
청년 가구주 가구	1인 가구	89	89	56	74	1,165	1,351	43	50
	청년부부가구	42	26	75	31	8,087	2,983	90	35
	청년자녀가구	45	36	125	109	7,378	2,947	246	134
	부모동거가구	72	24	274	28	2,893	511	200	21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136	110	107	76	2,607	1,268	131	74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101	53	160	12	3,400	73	147	10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65	16	528	2	1,378	97	229	55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34	23	168	11	6,342	360	143	25

가구 n=14,310, 개인 n=14,39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재산과 관련하여 청년가구, 청년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종류별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기준으로 7,096만원, 청년개인 기준으로는 760만원으로 가구와 개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이외에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7,789만원, 청년개인은 1,415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과 금융재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넘었다. 이외에 주식과 가상자산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규모는 주식과 비교해 보면, 현재 수준에서는 많지는 않았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기타부동산 및 재산은 남자가 가구나 청년개인기준으로 여자에 비해 많았지만, 금융재산, 주식은 등은 가구차원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식에서만 남자청년이 여자청년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가구와 개인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청년 개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보유 금액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가구기준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특징적으로 기타 부동산 및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30~34세 청년이 많았으며, 또한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수준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자산 규모가 자산유형별로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수도권과 조사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7〉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단위: 만원)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부동산 및 재산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가구	청년(개인)
전체		5,789	1,415	907	259	68	25	7,096	760
성별	남자	5,625	1,425	927	322	64	36	7,963	863
	여자	5,939	1,405	889	189	72	11	6,302	647
연령	19세~24세	5,562	512	1,000	70	75	7	7,637	93
	25세~29세	6,075	1,591	858	292	48	22	6,969	632
	30세~34세	5,902	2,260	763	439	81	47	6,030	1,671
지역1	수도권	6,143	1,538	1,013	318	77	26	7,666	808
	비수도권	5,375	1,278	784	193	57	23	6,430	707
지역2	서울	5,846	1,542	1,436	300	109	23	9,381	1,018
	부산	5,491	1,171	1,283	160	52	14	9,174	650
	대구	5,500	1,173	707	195	23	14	4,543	195
	인천	5,528	1,700	800	319	48	16	6,004	562
	광주	5,888	1,327	1,132	156	60	42	8,359	282
	대전	6,885	1,829	431	166	42	31	3,215	632
	울산	4,693	1,133	1,206	116	33	21	4,619	326
	세종	4,724	1,372	570	260	25	3	11,822	1,707
	경기	6,527	1,499	708	331	57	29	6,609	706
	강원	4,189	1,150	514	291	40	28	5,658	924
	충북	5,004	1,283	318	142	38	14	6,716	1,110
	충남	4,795	1,205	548	171	30	13	3,739	287
	전북	5,457	1,163	952	333	164	54	7,562	1,546
	전남	5,404	1,087	528	94	77	27	6,291	484
	경북	4,364	923	877	204	26	24	6,803	1,463
	경남	6,118	1,560	660	209	102	23	5,508	462
	제주	5,549	1,798	718	299	88	5	13,371	811
학력	고졸 이하	4,582	1,233	439	201	149	20	5,026	1,045
	대학 재학·휴학	5,699	388	1,203	63	51	7	8,094	91
	대학 졸업 이상	6,160	1,860	860	349	56	32	7,065	954
청년 가구주 가구	1인 가구	1,433	1,784	302	393	36	42	708	866
	청년부부가구	4,840	2,084	807	359	58	38	5,134	1,874
	청년자녀가구	4,438	1,522	636	303	89	32	6,662	2,714
	부모동거가구	6,087	1,770	693	351	101	60	7,352	1,381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4,595	1,594	553	410	31	24	4,398	1,247
비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8,162	1,114	1,287	171	85	14	10,596	295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6,691	1,492	283	69	44	12	7,409	396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6,414	1,519	677	226	43	2	7,932	389

가구 n=14,687, 개인 n=14,68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이번 절에서는 청년가구와 청년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를 통해 보면, 생활비와 소득 수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경우 통계청 조사자료에 비해 높았지만, 이는 가구구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년이 있는 가구와 비교해 청년 개인의 소득, 지출, 부채 및 자산은 가구 기준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청년 혼자 사는 독거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 등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유형으로 볼 때 청년이 부모와 함께 있는 가구와 비교해서는 경제규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부모세대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자산이 축적되어 있지만, 청년 독거가구와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 노동시장 참여경험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 보면, 2021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를 가진 가구나 개인의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 역시 부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도 보면 부채금액의 대부분이 주택관련 부채라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 증가는 주거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유지하는 속에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9절 1인 가구 청년의 삶¹¹⁾

1. 분석 결과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연도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이래 감소하였고, 2015년(27.2%)을 기점으로서는 가구원수별 가구구성에 있어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국가지표체계, 2022).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19.8%, 70세 이상이 18.1%, 30대가 17.1%로 청년과 노인세대가 주를 이룬다(통계청, 2022b). 이에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도 자료를 별도 생산하고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22.6%)은 부모와 미혼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53.3%)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의 주요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단, 앞서 여러번 언급했듯, 가구 유형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했으므로, 노동, 건강, 주거 영역 등 문항에 따라 조사시점(7월-8월)에서의 상황에서의 실제 가구 유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눈에 띄는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남성 중 1인 가구 청년(24.7%)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성 중 1인 가구 청년(20.4%)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25~29세 중 1인 가구 청년(25.7%)에 해당하는 경우와 30~34세 중 1인 가구 청년(25.5%)에 해당하는 경우가 19~24세가 1인 가구 청년(17.3%)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많았다. 수도권(22.3%)과 비수도권(23.0%)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 중 1인 가구 청년이 24.8%, 고졸 중 1인 가구 청년이 22.7%, 대학 재학·휴학 17.0%였다.

11) 3장 1절 각주에서 설명했듯,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따라서, ‘1인 가구 청년’은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을 의미함.

〈표 3-9-1〉 1인 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n=14,966	남자 n=7,171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여자 n=7,795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연령 n=14,966	19세-24세 n= 7,195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25세-29세 n=4,549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30세-34세 n=3,222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2〉 1인 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단위: %)

구분		비율
지역1 n=14,966	수도권 n=4,938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비수도권 n=10,028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학력 n=14,966	고졸이하 n=2,084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대학재학휴학 n=4,734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대학 졸업 이상 n=8,148	1인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청년·자녀가구 청년
		부모동거가구 청년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 청년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 가구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청년
		소계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주거

1인 가구 청년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9.7%),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23.2%),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의 부모 비동거 이유 1위인 결혼했거나 동거중이어서(38.9%)와 차이를 보인다. 청년가구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55.8%, 전세 21.5%, 월세 19.0% 순인데 반해, 청년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주거점유형태는 월세 52.7%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세 25.8%, 자가 11.5%의 순으로 나타나 월세 및 주거관리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9-3〉 1인 가구 청년의 부모 비동거 이유

(단위: %)

구분	합계	부모 비동거 이유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결혼했거나 동거중이어서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타
전체 n=7,134	100	42.8	38.9	14.0	1.8	2.5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69.7	1.0	23.2	2.8	3.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4〉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유형

(단위: %)

구분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기타
전체 n=14,966	100	55.8	21.5	19.0	3.8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11.5	25.8	52.7	10.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주택 유형은 전체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2.8%로 가장 많고,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순이었다. 반면, 청년 1인은 다가구·다세대 44.2% 주택에 가장 많이 살고, 오피스텔 24.1%, 아파트 22.0%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주택 유형에서도 전체 청년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구의 주택 위치가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2.0%였으며,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는 전체 14.0%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은 월등히 높은 56.8%였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 면적의 경우, 전체 청년의 주택은 85.42㎡이며 본인 방(침실)은 12.59㎡인 반면,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전체는 45.67㎡ 및 본인 방(침실) 9.50㎡로 크게 차이가 났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상태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은 주택 내외부 소음이었다.

다음은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 비율에 대한 응답 현황이다. 전체로 보면 고시원이 0.7%, 일터의 일부 공간 0.4%,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0.2%, 쪽방 0.1%, 여관·여인숙 0.1%를 나타내었다.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아 각 구분별 비교 분석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1인 가구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이 1.7%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 파악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3-9-5〉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합계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기타
전체 n=14,966	100	62.8	22.5	6.6	5.8	2.3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22.0	44.2	24.1	4.7	5.0

- 주: 1) 결과값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6〉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위치

(단위: %)

구분	합계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전체 n=14,966	100	0.7	0.0	0.1	99.1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1.3	0.2	0.5	98.1

- 주: 1) 결과값은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7〉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단위: %)

구분	합계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	
		예	아니요
전체 n=14,966	100	14.0	86.0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56.8	43.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8〉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단위: m²)

구분	현재 거주 주택 및 본인 사용 방의 평균 전용면적	
	주택 전체	본인 방(침실)
전체년 n=14,966	85.42	12.59
1인 가구 청년 n=5,355	45.67	9.5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9〉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환기 상태	채광	주택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정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법	주택 위생
전체 n=14,966	3.93	4.13	4.13	3.67	4.06	3.98	4.01	3.92
1인 가구 청년 n=5,355	3.78	3.83	3.79	3.46	3.86	3.77	3.78	3.7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0〉 1인 가구 청년의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단위: %)

구분	비율	최근 1년간 1달 이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						
		거리 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 업소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복지시설
전체 n=14,966	1.5	0.0	0.2	0.1	0.7	0.1	0.4	0.0
1인 가구 청년 n=5,355	3.4	0.1	0.4	0.2	1.7	0.3	0.7	0.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로 보면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조달(1순위)은 부모님 또는 친지가 63.7%,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 5.3% 순이었으나,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자금 4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 또는 친지 40.5%, 정부·지자체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입자금대출 41.0%, 전세자금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구입자금대출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및 주거비 지원 비율 또한 높은 편으로, 주거정책 마련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표 3-9-11〉 1인 가구 청년의 주택 자금 출처

(단위: %)

구분	합계	부모 또는 친지	본인자금	민간금융	정부·지자체	기타
전체 n=14,966	100	63.7	21.5	6.5	5.3	3.0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40.5	43.3	4.8	6.4	5.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희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2〉 1인 가구 청년의 필요 주거 정책

(단위: %)

구분	합계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주거비지원 (월세 등)	공공임대입주	민간임대 관리감독 (전세사기 등)
전체 n=14,966	100	23.9	41.0	17.3	11.8	4.2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27.4	31.8	23.6	12.6	2.8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청년의 의사가 70.9%로 전체에 비해 낮았으며,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56.8%로 전체 25.7%보다 더 높았다.

〈표 3-9-13〉 1인 가구 청년의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단위: %)

구분	합계	현재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계속 살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전체전체 n=14,966	100	73.1	26.9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70.9	29.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4〉 1인 가구 청년의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단위: %)

구분	합계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그렇다	아니다
전체전체 n=14,966	100	25.7	74.3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56.8	43.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건강

1인 가구 청년의 식사를 살펴보면, 외식 또는 매식 빈도가 전체에 비해서 높고,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이 없이 혼자 식사했다는 비율 또한 절반정도인 52.1%에 달한다. 이른바 ‘혼밥’의 여부 자체만으로 1인 가구 청년의 취약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식사하는 동안 나누게 되는 일상과 담소, 안부 확인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결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표 3-9-15〉 1인 가구 청년의 외식 또는 매식 빈도 및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단위: %)

구분	합계	외식 또는 매식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		
		일1회 이상	주5~6회	주3~4회	주1~2회	주1회 미만	가족	가족외	혼자
전체전체 n=14,966	100	7.2	5.5	23.0	59.6	4.6	55.2	24.1	20.6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10.6	8.5	28.1	49.0	3.8	5.2	42.7	52.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이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또한 전체 청년은 2.4%(남 1.8%, 여 3.1%)인 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0.5%p가 더 높은 2.9%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1인 가구 청년이 6.4%로 전체 5.6%에 비해 더 높았다. 이유로는 전체와 1인 가구 모두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1인 가구 청년은 전체 청년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정신건강을 제외한 미충족 의료의 경우에는 전체 청년의 경우에는 4.5%(남 3.2%, 여 5.9%)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미충족 의료율이 조금 더 높으며, 전체 청년에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 차원의 문제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능성이 전체 청년에 비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9-16〉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

(단위: %)

구분	우울증상 유병률
전체 n=14,966	6.1
1인 가구 청년 n=5,355	7.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7〉 1인 가구 청년의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단위: %)

구분	합계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예	아니요
전체 n=14,966	100	2.4	97.6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2.9	97.1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8〉 1인 가구 청년의 정신건강 미충족의료 및 그 이유

(단위: %)

구분	미충족의료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받지 못한 주된 이유					
	전체	남	여	합계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심리적 거부감	정보 부족	기타
전체 n=14,966	5.6	3.0	8.3	100	27.5	20.0	18.9	15.6	18.0
1인 가구 청년 n=5,355	6.4	3.7	9.9	100	29.9	11.6	21.1	21.1	16.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19〉 1인 가구 청년의 미충족 의료 및 건강인식

(단위: %)

구분	미충족의료			병의원 진료받지 못한 이유					
	전체	남	여	합계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인근병원 부족	기타
전체 n=14,966	4.5	3.2	5.9	100	23.7	58.1	7.6	4.5	6.1
1인 가구 청년 n=5,355	5.2	3.7	7.1	100	35.6	50.8	5.3	3.5	4.9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관계 및 참여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7%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주목할 지점은 1인 가구 청년은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 및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9.9%에 이른다는 점이다. 혼자 살면서도 부모 혹은 형제와도 교류가 없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한명꼴인 셈이다.

〈표 3-9-20〉 1인 가구 청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위: %)

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공공 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 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어떤 사람/기관도 없음
전체 n=14,966	76.5	66.0	6.1	4.0	2.2
1인 가구 청년 n=5,355	70.7	68.0	6.7	3.9	3.2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21〉 1인 가구 청년의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단위: %)

구분	비율	가족 또는 친척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업무상 접촉은 제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n=14,966	100	86.4	13.6	90.4	9.6
1인 가구 청년 n=5,355	100	90.1	9.9	91.0	9.0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 계획에 있어서는 미혼 1인 가구 청년은 전체 미혼 청년에 비해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2〉 미혼 1인 가구 청년의 향후 결혼 계획

(단위: %)

구분	향후 결혼 계획	
	있다	없다
전체 미혼 청년 n=13,268	75.3	24.7
미혼 1인 가구 청년 n=5,237	77.7	22.3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생활비 중, 1인 가구 청년은 부모 동거 가구에 비해 생활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며, 식료품비 96만원, 연금·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식료품비 48만원, 주거비(월세) 22만원 순으로 주거비(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3〉 1인 가구 청년의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총 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월세)	주거비 (주거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오락· 문화비	세금	공적연금·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지출
전체 가구 n=14,939	303	96	8	16	24	17	27	15	23	32	12
1인 가구 n=5,948	161	48	22	8	9	8	12	11	8	13	7

주: 1)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2)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 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3)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4)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5)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소결

이 절에서는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주요 삶의 실태를 살펴봤다.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22.6%)은 부모와 미혼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53.3%)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기 청년보다는 중기 청년과 후기 청년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후기 청년이 많은 만큼 대졸 이상 청년이 가장 많은 비중(67.3%)을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점유형태는 월세 52.7%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세 25.8%, 자가 11.5%의 순이었다. 1인 가구 청년은 다가구·다세대 44.2% 주택에 가장 많이 살고, 주택 위치가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에 비해 높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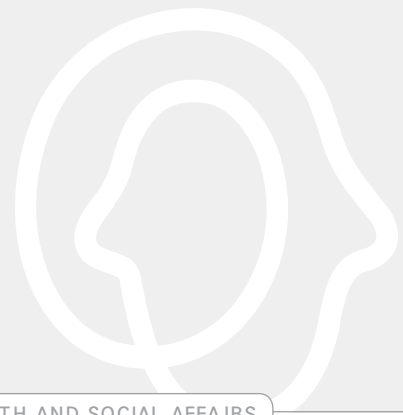
였다. 또한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는 전체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이 월등히 높은 56.8%였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상태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은 주택 내외부 소음이었다. 더불어, 1인 가구 청년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이 1.7%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이들이 살고 있는 청년의 주택은 내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에 비해 안전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인 가구 청년들은 현재 사는 지역에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이사한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또한 전체에 비해 낮았다.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은 외식 또는 매식 빈도가 전체에 비해서 높고,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이 없이 혼자 식사했다는 비율 또한 절반정도인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이었는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으며, 자살 생각 및 정신건강 미충족을 또한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1인 가구는 전체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을 제외한 미충족 의료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청년의 미충족 의료율이 조금 더 높으며, 전체 청년에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관계 및 참여 차원에 있어서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7%로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혼자 살면서도 부모 혹은 형제와도 교류가 없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한명꼴인 셈이다.

더불어, 생활비 중, 청년 1인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에 비해 생활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며, 식료품비 96만원, 연금·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식료품비 48만원, 주거비(월세) 22만원 순으로 주거비(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청년 정책의 설계에 있어 주거 상태, 건강, 관계의 측면에서 1인 가구 청년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제언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점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제시함
- 경제영역의 가구 결과값은 가구 가중치를 사용했으며, 그 외의 값은 개인 가중치를 사용함. 따라서, 가구 유형 비율을 읽을 때는 청년 1인 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22.6%, 청년 부부가구에 속한 청년의 비율이 7.2% 등으로 읽음
- 보고서에 보고된 통계정보는 KOSIS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 수정, 삭제 될 수 있음
- 셀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값을 표에 제시함. 단, 유효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모든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작성했으므로 전체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 유형은 2022년 1월 1일 기준이며, 주거, 노동, 사회인식 및 미래 설계 등 영역에 따라, 조사 시점이나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 상태를 묻고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지출, 소득, 자산, 부채는 2021년의 정보임

1. 일반사항

청년들은 경기(26.7%)와 서울(20.4%)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학력별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61.4%로 가장 많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인 비율이 24.0%, 고졸 이하 청년이 14.6%이었다. 가구 유형의 경우,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43%, 청년이 가구원으로 있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속한 청년은 57%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구주)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이 53.3%,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가구주)이 2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가구 유형에 속하는 청년이 24.1%를 구성한다.

청년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61.4%로 가장 많고, 대학재학(24.0%), 고졸(14.6%)의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여성이 88.0%로 남성 83.0%에 비하여 5%p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17.0%로 여성(12.0%)보다 많았다.

청년의 부모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부와 모는 모두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약 20%p정도 많았다. 청년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는데 19~24세의 부모 교육수준이 제일 높고 25~29세, 30~34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10%p안팎이었다. 한부모 가구 유형과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각각 전체의 1.4%와 1.7%였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전체의 0.9% 수준이었다. 청년들의 혼인 상태는 미혼 81.8%, 배우자 있음 17.5%, 이혼·별거·사별이 0.7%였으며, 남성 미혼 비율이 85.7%로 여성 77.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혼 비율이 84.1로 비수도권 79.2%에 미하여 약 5%p 높에 나타났다.

2. 청년의 주거 실태

□ 분석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57.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비동거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19세-24세는 79.5%가 부모와 동거하지만 25세-29세에는 59.3%로 낮아지며 30세-34세는 70.1%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성별간 부모동거 비율 차이는 각각 4.7% 포인트, 4.8% 포인트로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은 67.7%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

유는 경제적 여건부족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특별한 이유없음이 20.0%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져 이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적정 독립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정, 취업, 결혼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산형성 이후 27.8%, 취업 후 27.2%, 결혼 후 23.1%로 독립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성별, 지역별 응답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후'가 높아지며 '자산형성 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현재 거주 주택을 선택한 1순위 이유로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여서 42.3%, 주거비가 저렴해서 25.9%, 지인이 인접해서 8.3% 순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통근·통학'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별, 성별 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현 거주 지역 지속 거주의향에 대해서는 73.1%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지속 거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이동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가 45.4%,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가 25.9%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환경과 교육·보육·의료환경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55.8%, 전세 21.5%, 월세 19.0% 순,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는 보증부월세가 가장 많으나, 청년부부가구는 전세, 청년자녀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는 자가가 가장 많았다.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5.3억원(중위값 4억원) 수준, 수도권(7.3억)이 비수도권(3.2억)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세보증금 평균은 2.1억원이며, 수도권 2.5억원, 비수도권 1.4억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백만원, 월세 평균은 38만원이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부모 동거가구에 속할 경우 자가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크며, 청년 1인가구 청년은 작은 경향을 나타냈다.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조달(1순위)은 부모님 또는 친지가 63.7%,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 5.3% 순이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부모 또는 친지 비율이,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자녀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인자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현재 거주 중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2.8%로 가장 많고,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순이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다가구·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현재 거주 주택의 위치에서 반지하, 지하, 옥탑 비율은 0.9%이었는데,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반지하는 수도권에서 1.3%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구입자금대출 41.0%, 전세자금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11.8% 순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구입자금대출 비율이 높아지며, 청년부부가구와 청년자녀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1인가구는 주거비 지원을 원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전체의 63.2%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청년 1인가구, 부모 동거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은 91.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위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주거독립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독립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당위성과 현실 사이의 갭이 주거독립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거독립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독립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대안적 주거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 내부 구조의 경우 본인 방(침실)의 면적은 평균 12㎡정도이며, 주택 내부시설인 부엌, 화장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난방 및 냉방시설은 단독사용이 95% 정도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동사용 등의 비율이 5%라는 점은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택 내부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주택 내 외부 소음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1인 가구 청년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환경 만족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택 내부 실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열악한 주거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서울은 반지하 비율이 2.2%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보증금 등 지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 활용도를 보다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은 1순위는 물론 2순위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나타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한편으로는 자가 주택을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일견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관통하는 것은 거주자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자가 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 만큼 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절반 정도의 청년이 임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 거주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청년의 건강 실태

□ 분석 결과

청년들의 흡연율은 20.1%로 남자(33.3%)가 여자(5.6%)보다 높았다. 청년 현재흡연자 중 껴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6.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11.3%로 각각 나타났다으며,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높았다. 최근 1년간 음주빈도는 월 2~4번 정도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주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실천율은 32.6%로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에 있어 외식 또는 매식빈도는 주 1~2회가 59.6%,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20.6%였으며, 청년 중 12.7%는 약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2%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이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식사할 때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지에 대해 청년들의 20.6%는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했는데, 1인 가구 청년의 절반 이상(52.1%)은 매 끼니마다 ‘혼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일 수면시간은 평균 주중 6.8시간, 주말(휴일) 8.1시간이었으며,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33.9%)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남자 29.5%, 여자 38.8%)했다. 번아웃의 이유로는 진로불안(37.6%), 업무과중(21.1%), 회의감(14.0%), 일과 삶 불균형(12.4%)의 순이었다.

우울증상 유병률¹²⁾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5.6%(남자 3.0%, 여자 8.3%)로 그 이유는 비용부담 27.5%, 시간부족 20.0%, 심리적 거부감 18.9%, 정보부족 15.6%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약물 사용경험¹³⁾에 있어 수면제는 3.8%, 신경안정제는 4.3%, 각성제는 1.0%가 사용경험이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사용경험 비율이 높았다. 약물 사용 경험자 중,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약물 오·남용 경험은 12.1%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의 54.5%만 자신의 건강을 좋은(매우 좋음+ 좋음)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자(58.7%)가 여자(49.9%)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최근 1년간 건강상 이유(정신건강 제외)로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4.5%(남 3.2%, 여 5.9%), 였으며, 그 이유는 시간 부족 58.1%, 비용 부담 23.7%,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7.6% 순이었다.

□ 시사점

청년 건강정책은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모든 청년이 자신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의 건강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의 건강수준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 시기는 일생 중 가장 건강한

12)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여 PHQ-9 측정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으로 간주함

13) 이 연구에서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실태와 오남용 경험을 조사함

시기임에 분명하지만, ‘평균’만으로 청년의 건강수준을 판단하거나 혹은 모든 청년은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전제가 되면 이면에 가려진 청년 건강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최근 학업이나 취업활동에서 경험한 무한경쟁과 취업 이후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조기에 번아웃(소진) 경험을 호소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청년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무한경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과 약물오남용 경험은 대학 재학·휴학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중재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생애주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는 청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의 질병부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건강행태 등이 완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건강한 건강 행태의 교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개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

4. 청년의 교육훈련 실태

□ 분석 결과

청년들이 졸업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순이었으며, 대학생(졸업포함)의 전공 계열은 공학 18.2%, 보건·복지 14.8%, 예술·인문 14.6%, 경영·행정·법학 14.4%, 정보·통신 8.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공학(29.0%)이 가장 많고, 여성은 보건·복지(21.1%)가 가장 많았다.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은 학교 48.2%, 친구·선후배 43.6%, 부모·친인척 38.9%, 사설기관 33.5%, 온라인·유튜브 32.7% 순이었는데, 경로별 도움 정도는 친구·선후배(58.6%)와 부모·친인척(54.9%)이 높고, 공공기관의 도움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자기계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48.27%이며, 청년들의 월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은 21.4만원(중위값 15만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의 평균 지출액이 22.6만원으로 19~24세(21.3만원)와 30~34세(20.0만원)보다 높았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2.7만원)이 비수도권(19.7만원)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 평균이 22.7만원으로 대졸 이상 청년(21.4만원)과 대학 재학·휴학 청년(20.7만원)보다 높았다.

대학 미진학자의 교육훈련 선호 분야를 조사한 결과, 특정 직종의 직업훈련 선호 비율(36.3%)이 높지만 교육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36.9%였다. 직업훈련 외에 창업 교육(16.6%)과 어학(7.4%)을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성별로는 직업훈련 선호 비율은 남성(39.4%)이 여성(31.4%)보다 높았으며, 창업 교육은 여성(20.4%)이 남성(14.2%)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는 직업훈련 선호(40.7%)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25~29세는 교육훈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40.6%)이 직업훈련 선호 의견(37.8%)보다 높으며, 30~34세는 창업 교육의 선호(21.8%)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7.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7.0%였으며, 부정적인 응답 비율의 경우 19~24세는 11.0%, 25~29세는 19.3%, 30~34세는 21.6%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높았다.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32.4%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여성(35.7%)이 남성(29.2%)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25~29세(37.3%)가 가장 높았다. 또, 사교육 경험자의 71.2%는 사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19~24세의 긍정적 응답자(77.1%)가 25~29세(69.7%)와 30~34세(67.7%)보다 높았다.

□ 시사점

고졸 이하 청년 응답자 가운데 36.9%는 받고 싶은 교육이나 훈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 대한 정책 설계가 정책 대상 집단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정책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저학력 청년의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고졸 이하 청년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제공 방안 연구,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교육 활용 실태조사 및 불평등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가 그것이다.

5. 청년의 노동 실태

조사대상 청년 중,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한 비율은 67.4%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6%와 64.9%로 4.7%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고졸이하의 경우 74.7%, 대졸이상은 78.4%를 나타내 고졸이하의 경우 3.7%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한 일자리)의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52만원이었으며,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평균 임금은 각각 272만원, 229만원으로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에 비하여 1.18배가량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임금은 254만원과 249만원으로 수도권청년은 비수도권청년에 비하여 취업률도 높고 월임금도 5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중 복수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3.9%이며, 3.9% 중 2개라는 응답은 89.9%,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은 10.1%였다. 복수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남성 청년은 3.0%, 여성 청년은 4.7%로 여성청년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은 5.2%, 비수도권은 2.2%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중 전일제는 78.0%로 남자(81.7%)가 여자(74.0%)보다 많으며, 시간제는 22.0%로 나타났다.

청년의 14.9%는 퇴근한 날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았던 적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도권 청년(16.5%)은 비수도권 청년(13.1%)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았다.

취업한 청년 중 7.5%가 자영업자였다. 남성은 7.9%, 여성은 7.0%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7.0%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8.0%로 높았다. 고졸이하 학력자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1.9%로 높았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음이 68.7%, 1년 미만이 14.8%였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67.8%)에 비하여 남성(69.6%)이 높았고 수도권(66.8%)에 비하여 비수도권(71.0%)이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84.3%가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15.0%가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로 응답했는데, 근무 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4.5%)에 비하여 여성(15.4%), 비수도권(14.6%)에 비하여 수도권(15.2%)이 높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은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라는 응답이 10.1%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그 비율이 0.4%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은 70.6%가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15.0%, 미대상 14.5%였다.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5.6%, 1년 미만 32.7%, 1년~3년미만 31.7%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자의 비율이 33.8%로 비수도권의 31.3%에 비하여 높았으며, 3년이상 재직자 비율 역시 수도권 33.7%, 비수도권 37.9%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졸이하 학력에 비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의 재직기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는데 특히 3년 이상 재직기간을 나타내는 비율은 대졸 이상이 40.7%였다. 현 직장에서의 업무자율성은 일하는 순서 외 대부분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은 13.2%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13.8%가 현재 구직중이며, 비수도권은 12.6%가 현재 구직 중이었다. 고졸이하 학력의 경우 20.0%가,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22.5%가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했다.

미취업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4.8개월이었다. 구직 기간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다소 길었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길었다. 비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준비가 47.1%,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2.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해당 응답 비율이 없었다. 수도권 청년의 경우 52.0%가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은 41.9%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은 “당분간 쉬고싶어서”라는 응답이 13.5%로 높았으며, 대졸 이상 청년의 경우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율이 58.3%로 상당히 높았고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8%로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재학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직 또는 구직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순위)은 임금 48.5%, 고용안정성 12.8%, 장기적 진로설계 8.4% 순이었는데, 이직 또는 구직시 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9.7%)이 여성(47.2%)에 비하여 높았으며, 수도권(51.9%)이 비수도권(44.7%)에 비하여 높았음.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 특히 이 비율이 56.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청년의 경우 근로시간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9.1%로 남성 청년의 5.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에 있어서는 과중한 업무 19.1%, 성과 스트레스 11.1%, 감정 스트레스 24.9%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업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에서 지난 12개월 이내에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가 8.8%, 25-29세가 10.0%, 30-34세가 9.7%로, 25~29세 청년의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도한 업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6.2%는 지난 1년 사이 과중한 업무를 거의 매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는 비율은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는 30.6%만 있다고 응답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가 있다는 비율은 성별 또는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12.2%, 고졸 이하의 경우 22.3%에 불과하여 대졸 이상의 36.4%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자 중에서 14.4%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라고 인식했다. 수도권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2%로 비수도권의 13.5%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재학자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자의 13.2%에 비하여 고졸 이하 학력이 14.5%로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난 1년 사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11.5%로 나타났다.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청년의 경우 15.4% 가량이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고 밝혀 대졸자의 10.0%에 비하여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청년 중 4.8%는 거의 매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무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에 1회 이상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전체 취업 청년의 10.9%에 이르렀다.

□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에서 지난 12개월 이내에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가 8.8%, 25-29세가 10.0%, 30-34세가 9.7%로, 25-29세 청년의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도한 업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임금 뿐 아니라 안전을 포함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졸이하 청년은 대졸자에 비해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많음에 포착하여, 그 이유를 밝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절차 마련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조사 결과는 여성 청년들의 육아와 가사 대한 부담이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비율이 10%에 달함을 보여주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청년의 관계 및 참여 실태

□ 분석 결과

OECD는 회원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지”를 설문해서 사회적 관계의 질을 측정. 한국인 가운데 21.5%는 해당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우리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가족, 지인, 공공기관 순이었다. 청년들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다섯가지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이 1.2~3.4%로 대체로 낮았다. 한국의 청년층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

다. 물론, OECD 문항과 이번 설문 문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청년집단에서 지역별 편차가 컸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울산(14.0%), 경남(10.6%)에서 두자리 수를 나타낸 반면, 세종(0.4%), 대전(0.4%)에서 낮았다.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도 대전(98.4%), 광주(96.8%), 세종(96.6%)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울산(82.5%), 경남(84.9%)이 낮았다.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전(50.0%), 부산(43.3%)에서 높았고, 세종(16.3%), 울산(21.3%)에서 낮음.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세종(19.9%)에서 높았고, 광주(5.1%)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5.6%) 집단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 재학 및 휴학(2.6%) 집단에서 낮았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희망하는지’를 추가 설문한 결과, 도움을 받고 싶은 곳이 없다는 응답은 2.4%였다. 청년 집단 가운데에서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은 낮아지고(19-24세 72.1%→30-34세 65.1%),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비율은 높아졌다(16.9%→21.1%). 지역별 편차도 컸다.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경남(9.2%), 울산(5.3%)에서 가장 높고, 세종(0.4%), 대전(0.8%)에서 낮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37.5%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40.6%), 30-34세(42.1%), 수도권(39.9%), 대졸 이상(39.8%)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편차도 보였다. 대전(44.1%), 인천(43.7%), 서울(42.0%) 등에서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광주(25.9%), 울산(29.5%)에서 비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적 효능감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3.8%였고 남성(25.7%), 대학 재학 및 휴학(26.5%)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북(32.2%), 부산(27.8%), 경북(27.6%), 전북(27.5%) 등 지역에서 정치효능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지역은 대전(27.3%), 서울(26.5%) 등이었으며, 전남(16.1%)이 가장 낮았다.

청년 가운데 40.4%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있었다. 여성(42.8%), 수도권(43.7%), 대졸 이상(42.2%) 집단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비

율이 높았으며 고졸 이하(31.4%) 집단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았다. 문화예술에 한정해서는 지역간 차이가 컸다. 세종(53.1%), 대전(48.6%) 등 도시에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도 지역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 전남(29.5%)과 경북(27.0%)에서는 30%를 하회했다. 문화 예술 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가 없어서' (17.9%), '경제적 부담' (17.8%), '경험·지식·정보 부족' (10.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6%), '공간·지리 문제' (2.9%) 등이 제시됐다. 상당수가 학생으로 추정되는 19-24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18.9%) 대신 시간 부족(37.5%)이었던 점이 눈길을 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 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이 46.2%였으며, 남성(50.4%), 25-29세(48.5%), 수도권(47.3%), 대졸 이상(49.1%), 집단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이 높음. 지역별로는 대전(61.4%)과 세종(55.4%)에서 도드라지게 비율이 높았고 충북(35.4%), 경북(39.2%)에서는 비율이 40%보다 낮았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16.9%), '할 필요가 없어서' (16.5%),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8.8%), '경험·지식·정보 부족' (6.2%), '공간·지리 문제' (3.1%) 등이 제시됐다. 광주 지역에서만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34.9%)였다.

전반적으로 청년의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 지역 간 차이가 연령, 학력 등 다른 변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문화, 지역 특성에 따른 청년 집단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청년 집단의 지역간 이주에 따른 지역 이주 청년의 비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은 2.4%(임신·출산·장애 제외)였다. 은둔생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0%로 가장 높고, 인간관계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이었다.

□ 시사점

첫째, 청년 집단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이 28.0%(일상의 부당함의 경우)에 이르렀다. 청년기는 주변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경험 및 사적인 네트워크가 아직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사적·공적 영역에서 부당한 상황에서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공적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상담 혹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집단의 교류와 참여의 정도가 인구사회학적인 범주별로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은 울산 지역에서 42.7%인 반면, 대전에서는 90.5%였음. 동일한 청년 집단 안에서도 지역별로 정책 수요의 내용과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정책의 설계에서 이와 같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년의 문화 스포츠 활동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금전보다는 시간이었다.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금을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청년 집단에서 주요하게 부족한 자원이 금전보다는 시간이라는 점은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소득이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방안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

7.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 분석 결과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를 조사했을 때(0~10점), 만족도는 6.7점,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점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청년이 보고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나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행복과 희망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었다.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범위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현세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서 다수의 청년은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중간값인 5점에 미치지 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청년들도 10% 넘게 존재한다.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이나 1점을 선택한 청년도 약 1.5% 정도 있었다.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보고하는 청년은 5.2%였다. 보통 청년들의 삶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생애 가장 활기찬 시기에 행복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에 주목할 필요를 시

사하는 것이다.

세대간 갈등은 76.5%, 소득차이 갈등은 79.1%, 지역간 갈등은 63.4%, 성별 갈등은 72.3%, 국적간 갈등은 53.0%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에 따라 사회갈등 영역별 인식의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부유층과 서민층 간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여성 청년이 갈등의 정도를 남성 청년보다 다소 심각하게 인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갈등은 남성 청년 중 61.4%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여성 청년 중에서는 65.6%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영역의 갈등에 비해서는 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심각하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 간 성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 중 70.5%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여성 청년 중에서는 74.3%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 중 51.2%, 여성 청년 중 55.1%가 갈등이 매우 많거나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있어 불평등은 90.1%, 저출생·고령화는 95.7%, 기술·산업구조 변화는 90.1%, 테러리즘은 81.9%, 기후변화는 92.4%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중간층 56.5%, 중하층 26.5%, 중상층 11.6%, 하층 4.7%, 상층 0.7% 순으로 답했으며,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였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이었다.

일자리는 97.4%의 청년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95.7%의 청년이,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은 93.7%의 청년이 선택하였다. 연애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네 번째 순서이고, 결혼은 74.2%로 다섯 번째였다. 사회에의 기여는 71.8%, 자녀 출산과 양육이 69.3%로 나타났다. 높은 학력수준과 명예, 권력은 각각 61.8%와 59.1%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46.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9.7%)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

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청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98.6%로 사실상 거의 모든 청년이 자신의 노력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도 95.0%로 매우 높았고, 다음은 청년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88.3%, 정부의 정책 지원이 86.7%, 부모의 경제력이 80.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55.3%로 응답자의 절반은 넘지만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의 경향은 다르다.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1.3%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정도가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1%, 높게 나타난 청년 자신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6% 정도였다.

부모의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8.4%, 부모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9.9%였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향후 결혼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자와 여자는 10.1%p 차이(남자 79.8%, 여자 69.7%)가 나타났다. 향후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자와 여자는 15.2%p 차이(남 70.5%, 여 55.3%)가 나타났다.

□ 시사점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46.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9.7%) 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정도가 8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7.7%에 이른 것이다.

물론 정책 지원을 청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부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청년의 수요와 정책 공급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8. 청년의 소득지출재산부채 실태

□ 분석 결과

청년가구의 총생활비는 월 평균 303만원, 중위 금액은 월 평균 280만원 수준이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등의 순이었다. 19~24세의 경우 식료품비, 교육비 등이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청년이 있는 경우 교육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은 평균 6,525만원으로 통계청 전국통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개인 연간 소득은 2,162만원, 월 180만원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 개인 기준으로는 남자 청년이 2,309만원으로 여자청년의 2,000만 원에 비해서는 높았다. 청년개인 소득은 30~34세가 3,194만원으로 19~24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에 비해 광역시의 소득이 높았으며, 청년의 개인소득에서도 도와 광역시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개인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원천별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구와 개인에서도 동일하였다. 가구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6,173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재산소득이 154만원이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청년 개인 기준으로 수도권인 비수도권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시 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청년에 비해 졸업 한 청년의 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부부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3,329만원)이 혼자사는 청년가구(2,583만원)에 비해 많았다.

청년가구의 평균 부채금액은 4,454만원, 청년 개인은 1,17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의 경우 가구기준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으며, 청년 개인으로도 남자 청년이 1,478만원으로 여자 청년 832만원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34세 사이가 가구(6,378만원)나 청년 개인기준(2,58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주로 주택관련 부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부채규모가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인천과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졸업자의 부채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 유형으로는 청년부부가구와 청년·자녀가구의 부채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가구, 청년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종류별 수준을 보면,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이 가구기준으로 7,096만원, 청년개인 기준으로는 760만원으로 가구와 개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이외에 금융재산으로 가구 기준 7,789만원, 청년개인은 1,415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과 금융재산이 재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으로 보면, 2021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채를 가진 가구나 개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청년 역시 부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임. 조사에서도 부채금액의 대부분이 주택관련 부채라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 증가는 주거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유지하는 속에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보다는 1인 가구 청년, 청년부부가구 청년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1인 가구 청년의 삶

□ 분석 결과

1인 가구 청년의 비율(22.6%)은 부모와 미혼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가구의 청년(53.3%)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기 청년보다는 중기 청년과 후기 청년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후기 청년이 많은 만큼 대졸 이상 청년이 가장 많은 비중(67.3%)을 차지하고 있었다.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점유형태는 월세 52.7%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세 25.8%, 자가 11.5%의 순이었다. 청년 1인 가구는 다가구·다세대 44.2% 주택에 가장 많이 살고, 주택 위치가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2.0%였다. 또한 현재 거주 주택의 원룸형 여부는 전체에 비해 1인가구 청년이 월등히 높은 56.8%였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상태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았는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은 주택 내외부 소음이었다.

더불어, 1인 가구 청년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한 경험률이 1.7%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즉, 1인 가구 청년이 살고 있는 청년의 주택은 내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의 문제 또한 전체 청년 가구에 비해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청년들은 현재 사는 지역에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이사한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또한 전체 청년 가구에 비해 낮았다.

건강 상태에 있어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은 외식 또는 매식 빈도가 전체에 비해서 높고, 최근 1년동안 같이 식사한 사람이 없이 혼자 식사했다는 비율 또한 절반정도인 52.1%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가구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이었는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으며, 자살 생각 및 정신건강 미충족율 또한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1인 가구 청년은 전체에 비해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을 제외한 미충족 의료의 경우에도 1인 가구 청년의 미충족 의료율이 조금 더 높으며, 전체 청년에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 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 및 친척이 없다는 비율이 9.9%에 이른다는 점이다. 혼자 살면서도 부모 혹은 형제와도 교류가 없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한명꼴인 셈이다.

더불어, 생활비 중, 1인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에 비해 생활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이며, 식료품비 96만원, 연금·보험료 32만원, 교통비 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식료품비 48만원, 주거비(월세) 22만원 순으로 주거비(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청년 정책의 설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상태, 건강, 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적 시사점

주거, 건강, 관계, 그리고 생활비의 차원에서 취약성이 드러났다. 주택 만족도는 낮은 반면, 주거비 부담은 높았으며, 불안정한 주거에서 거주한 경험 또한 전체 청년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또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고, 우울과 자살 생각 비율 또한 전체 청년에 비해서 높았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연락을 나눌 가족이 있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정책 설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청년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2절 제언

1. 청년 지표 개발 관련 시사점¹⁴⁾

가. 지표의 개발 방향

본 연구는 청년 지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 문항을 구성했으며 이는 영역별 실태 및 인식 문항에 반영되어 있다.

지표는 “구체적 문제를 적시하면서도 포괄적인 지표로 구성(정해식 외, 2014, p. 168)”돼야 하며, 실태를 진단 할 수 있는 수준 및 격차 지표와 대응(안전망) 지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지표는 목적에 따라 개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의 정책 투입(input), 산출(outputs), 성과(outcomes)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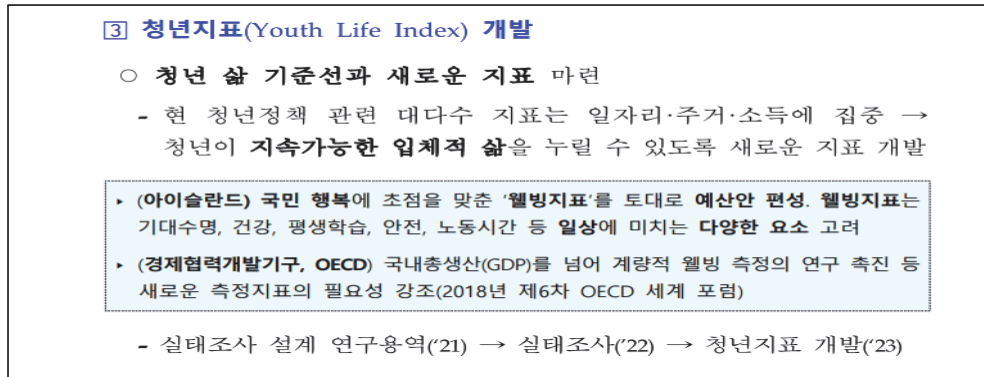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청년 지표체계는 정책의 추진 배경,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청년지표를 개발할 때는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 지표 개발은 3개의 주요 과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청년 삶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개발, 둘째, 청년 지표를 이용한 청년의 삶에 대한 모니터링, 셋째, 지표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지표 개발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청년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지표는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필요할 것이다.

14) 정해식, 정세정, 박윤경, 정홍원, 이다미, 김진영, 전지현(2021). 「포용국가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4-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지표 개발 관련 내용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또한 지표는 전체 지표와 특성별 지표로 구성을 체계화하되, 각 영역에서 목격되는 격차와 그 격차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해식 외, 2021). 또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 정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대응(안전망)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정해식 외, 2021). 청년 지표의 경우 청년정책기본계획과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는 소득, 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사회자본, 참여, 사회인식의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영역별 전체 지표와 특정 집단의 하위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지표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4-2-1〉 소득 영역 지표 구성의 예

수준 및 격차	대응(안전망)
▶ 소득 수준 및 격차 - (수준) 상대적 빈곤율, 중간소득계층 비율 - (격차) 소득 5분위 배율 ▶ 자산 격차 - (격차) 소득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 소득이동성 - 취업자 소득이동성, 세대 간 소득이동성, 저소득가구 빈곤탈출률	-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율 - 공적연금 수급률

자료: 정해식, 정세정, 박윤경, 정홍원, 이다미, 김진영, 전지현(2021). 포용국가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지표 개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본 조사에서 국제 비교를 염두에 두고 포함한 문항의 출처가 되는 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사망원인 통계, 지역사회건강조사, 청년

층 행정통계, 사회통합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인구총조사, 교육기본통계 등이 있다. 이 중 청년 삶 실태조사를 출처로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고 수준 및 격차나 대응 지표가 될 수 있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주거 안정성, 불안정 거처 경험, 주거불안 상황 경험
- (건강)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경험, 신체건강 미충족 의료 경험, 소진(burn-out) 경험률, 스마트폰 중독, 주관적 건강
- (고용환경) 장시간 근로, 고용 관련 건강문제, 업무 자율성
- (관계 및 참여) 사회적지지, 정치효능감, 정치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경험율, 은둔·고립
- (소득) 청년 가구 소득, 청년 연간 소득
- (자산) 청년 가구 자산, 청년 연간 자산
- (사회인식·미래설계)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지표의 모니터링은 시계열적 변화와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지표를 하위 단위로 분류하여 특정 집단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4-2-2] 청년지표 개발 연구의 과업

청년지표 개발	청년의 삶 모니터링	지표 관리, 운영, 생산 방안 수립
- 청년의 삶 실태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영역의 지표 개발	- 지표의 현황 진단	- 신규 지표 개발 방향 제안 및 시산

지표 관리, 운영, 생산 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와 지표를 통해 관련 변화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대부분 통계는 정책 추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생산 시점과 정책의 집행 시점이 2~3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 집행 시점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생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정해식 외, 2021). 또한 조사통계 중심의 지표 생산을 넘어, 대규

모 표본이나 전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통계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개발된 신규 지표(안)를 시산해 볼 수 있다.

나. 실태 조사에 포함한 주요 해외 조사통계 문항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언급된 청년 지표 개발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 조사통계 문항을 검토하고 활용했다. 이에 여기서는 청년층의 인식을 살펴 본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에 초점을 두어 어떤 해외 주요 조사통계를 활용했는지를 서술했다.

물론, 노동, 주거, 건강, 경제 영역 등에서도 다른 조사통계와 비교 가능한 문항이 있지만 이러한 영역들은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에 비해 비교적 쉽게 판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및 참여영역과 사회인식·미래설계파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내 조사통계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연구자들이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 따라 별도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OECD 주요국과도 비교하여 공표하는 국내 조사 통계문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유의할 점은 조사 시기, 해당 시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응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라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국가발전지표에서는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과도 비교하여 공표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도는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2021년 기준 사회조사 V사회참여 부문 21번 문항에 해당한다.

[그림 4-2-3] 2021년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문항

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 조사표.

본 조사의 관계 및 참여 영역 F1-1에서는 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조사 문항과 유사한 내용으로는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이 가능한 곳이 없다’가 있다.

또한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는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를 질문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사회조사의 21-1번 문항의 분석 결과와 비교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에의 관심 정도를 묻는 F2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문항과 유사하다.

[그림 4-2-4] F.관계 및 참여 영역 F1-1

F1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1-1 과 F1-2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5)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그림 4-2-5] 2021년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문항

21-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십니까? 교류한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

3. 지난 1년 동안(2020. 5. 12.~2021. 5. 11.)의 하루
 평균 교류하는 사람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감소한 주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 조사표.

[그림 4-2-6] F.관계 및 참여 영역 F6.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F6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있다 ②없다

[그림 4-2-7] F.관계 및 참여 영역 F2 정치에의 관심정도

F2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③ 그다지 관심 없다

② 약간 관심 있다
 ④ 전혀 관심 없다

[그림 4-2-8] ESS(European Social Survey)

B1 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 – are you... **READ OUT...**

very interested,	1
quite interested,	2
hardly interested,	3
or, not at all interested?	4
(Refusal)	7
(Don't know)	8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 (2018). ESS Round 9 Source Questionnaire. London: ESS ERIC Headquarters c/o City, University of London.

G.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의 G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의견 문항은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문항 중 집단 간 갈등을 묻는 질문이 G5의 일부 문항과 유사하다.

[그림 4-2-9] G.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G5 집단간 갈등 인식

G5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구분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2) 부유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3) 수도권과 비수도권	①	②	③	④
4)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④
5) 내국인과 외국인	①	②	③	④

[그림 4-2-10] 국제사회조사(ISSP)의 집단간 갈등 인식 문항

Q12. In all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or even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In your opinion, in [COUNTRY] how much conflict is there between...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Very strong conflicts	Strong conflicts	Not very strong conflicts	There are no conflicts	Can't choose
a.	<CONFLICT1: ABCDE> ... poor people and rich people?	1	2	3	4	8
b.	<CONFLICT2: ABCDE> ...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1	2	3	4	8
c.	<CONFLICT4: ABCDE> ... management and workers?	1	2	3	4	8
d.	<CONFLICT6: ABCE> ... young people and older people?	1	2	3	4	8
(N)e.	<NEW: CONFLICT8: E> ... people born in [COUNTRY] and people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come to live in [COUNTRY]?	1	2	3	4	8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ISSP 2019). Social Inequality V Source Questionnaire (July 2018)

G13 공정성 문항은 유럽사회조사(ESS)의 공정성 문항과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은 국제사회조사(ISSP)의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했다.

[그림 4-2-11] European Social Survey 공정성 문항

Q12. In all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or even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In your opinion, in [COUNTRY] how much conflict is there between...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Very strong conflicts	Strong conflicts	Not very strong conflicts	There are no conflicts	Can't choose
a.	<CONFLICT1: ABCDE> ... poor people and rich people?	1	2	3	4	8
b.	<CONFLICT2: ABCDE> ... the work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1	2	3	4	8
c.	<CONFLICT4: ABCDE> ... management and workers?	1	2	3	4	8
d.	<CONFLICT6: ABCE> ... young people and older people?	1	2	3	4	8
(N)e.	<NEW: CONFLICT8: E> ... people born in [COUNTRY] and people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come to live in [COUNTRY]?	1	2	3	4	8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 Data Portal. ESS round 9 - 2018. Timing of life, Justice and fairness
<https://ess-search.nsd.no/en/study/bdc7c350-1029-4cb3-9d5e-53f668b8fa74>

G14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은 국제사회조사(ISSP)의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을 참고했다.

[그림 4-2-12] G.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G14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G14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다음 각 항목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연애	①	②	③	④
2) 결혼	①	②	③	④
3) 자녀 출산과 양육	①	②	③	④
4) 높은 학력수준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일자리	①	②	③	④
6)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①	②	③	④
7)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8) 사회 기여	①	②	③	④
9) 명예와 권력	①	②	③	④

[그림 4-2-13] ISSP의 미래설계에 있어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Q1.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to show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Essential	Very important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important at all	Can't choose
a. <AHEAD1: ABCDE> ...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1	2	3	4	5	8
b. <AHEAD2: ABDE>... how important is having well-educated parents?	1	2	3	4	5	8
c. <AHEAD3: ABDE>... how important is having a good education yourself?	1	2	3	4	5	8
d. <AHEAD6: ABDE>... how important is hard work?	1	2	3	4	5	8
e. <AHEAD7: ABCDE>... how important is knowing the right people?	1	2	3	4	5	8
f. <AHEAD8: ABDE>... how important is having political connections?	1	2	3	4	5	8
g. <AHEAD17: DE>... how important is giving bribes?	1	2	3	4	5	8
h. <AHEAD9: ABDE>... how important is a person's race?	1	2	3	4	5	8
i. <AHEAD10: ABDE>... how important is a person's religion?	1	2	3	4	5	8
j. <AHEAD12: ABDE>... how important is being born a man or a woman?	1	2	3	4	5	8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ISSP 2019). Social Inequality V Source Questionnaire (July 2018)

2. 후속 조사를 위한 제언

가. 표본 설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에서 서술했듯, 조사 모집단을 2020년 청년 통계등록부로 활용했다. 표본 설계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제언도출을 위해 다음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첫째, 표본 설계를 위한 논의 당시, 표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는 2019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였다. 반면, 청년통계등록부는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등록부의 근간(backbone)이 당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였다. 청년이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등장했음에 따라,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에는 19~34세 특성 변수가 존재한다는 장점 또한 있었다. 따라서, 연간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청년통계등록부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체키를 기반으로 행정자료와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 통계등록부 자체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자료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표본 설계를 할 경우 가구를 먼저 뽑고 청년을 뽑게 되기 때문에 청년이 있는 가구의 특성은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등록부의 활용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만일 후속 조사에서 통계등록부를 계속 조사 모집단으로 두고자 한다면, 다음의 협조와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구 정보가 부재하여, 리스트에 있는 조사 가구가 청년 가구가 아닐 경우, 리스트 대체를 해야 했는데, 이는 특히 제주도와 같이 넓은 지역 범위에서는 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따라서, 후속 조사에서도 통계등록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조사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조사 완료된 데이터는 청년 통계등록부에 있는 대상과 약 20%의 매칭율을 보였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계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각종 행정자료와 조

사자료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서는 청년 통계등록부에 있는 조사 대상의 조사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전에 청년통계등록부와 청년 삶 실태조사를 연계한 자료가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떠한 활용이 가능할지 밝히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비록 다소 낮은 20%의 매칭율이기는 하지만 청년 삶 실태조사와 청년 통계등록부를 연결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작업은 각 통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청년에 초점을 맞춰 2022년 1월 1일 기준 19세~34세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또 그 기준으로 가구원의 생년과 생월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2022년에 태어난 가구원(자녀 등)은 논리적으로 연령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n 년의 청년 삶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n-1)$ 년 12월 31일 기준 19~34세 청년을 샘플링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조사기준 시점과 조사 시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7~8월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우리 조사의 일반사항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입하도록 되어있어, 가구 유형 또한 1월 1일 기준으로 구분된다. 경제 영역 또한 2021년의 연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노동,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등 영역에 따라서는 조사 시점이나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 상태를 묻고 있어 분석의 효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의 정확성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기를 n 년 3월로 당길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경제 영역의 대부분은 $(n-1)$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영역과 다른 영역들의 일부 문항들은 실제 조사 시점에서 응답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조사표 구성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TAPI를 기본으로 하지만, 부득이 할 경우 유치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구주가 응답하는 부분과 청년 개인이 응답하는 부분은 하나의 조사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조사에서는 가구에 대한 내용을 묻는 조사표와 조사 대상자가 응답해야 하는 조사 내용을 분리하여 TAPI와 조사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의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3. 청년통계 고도화를 위한 제언

청년 삶 실태조사와 청년 통계등록부, 청년층 행정통계는 각기 청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목표로 뒤야 할 이상적인 상태는 각 정보가 상호보완되어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1) 기준시점의 차이, 2) 조사자료와 청년 통계등록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확인, 3) 행정통계와 조사 응답자의 일치라는 과업을 해결해야 한다. 이 과업이 해결되어야 행정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교차하여 청년 삶의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IRB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를 얻고자 재심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통계청과의 사전협의를 완료되었고 변경 사항 검토 결과 동의서 미수집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위원의 결정 하에 변경 사항 신청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실제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들은 IRB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대한 처리가 상이한 상태임에 따라 통계청이 주도하여 승인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IRB 심의 면제 여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면제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은 2022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통계등록부의 내용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동 자료에는 19~34세 청년 인구 수, 총인구 대비 비율,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택 소유 유무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와 청년통계등록

부를 상호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의 의미(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실거주), 일자리 수(청년 삶 실태조사가 관심을 둔 것은 동시에 몇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고 청년통계등록부는 한 해 동안 몇 개의 일자리를 가졌는지를 조사했음)와 같은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청년통계등록부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는 사회조사와 연계한 것이며, 그에 따라 청년 삶 실태조사와 보기 구성이 상이하야 조사 결과를 살필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의 공적연금가입률, 사업체 창·폐업 현황, 연간 임금근로 소득은 행정통계가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에서 유효 표본수가 잡히기 어려운 다문화, 장애인 청년과 관련된 임금근로 소득 등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장 서론

강신욱, 강희정, 박세경, 김기태, 정해식, 정세정, 신영규, 이지혜, 남윤재, 김계환, 김혜원, 이강국, 이관후. (20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보고서*.

정세정, 김문길, 김태완, 김동진, 김성아, 이원진, 이해정, 임덕영, 함선유, 류진아, 홍성운. (2021).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제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21~’25].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제2장 청년 삶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표본 설계

나라통계. (2022). <https://www.명arastat.kr/pms/pub/scs/css/selectCo명fmStatsList.do>에서 2022. 7. 19.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2. 7. 19.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2022. 7. 19. 인출.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총조사 일반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1&conn_path=I2에서 2022. 6. 1. 인출.

제3절 청년의 건강 실태

질병관리청. 2022. 2020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2차년도(2020).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이승엽. 2020. 소진증후군의 이해와 대처,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9(2):105-11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60호(2023).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_시행령_에서_2023_2_7_인출
- 보건복지부. 2020. 4. 10.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90> 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9. 28.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79> 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7. 26.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에서 인출
- 이채민. 2020. 12. 10. ‘공부잘하는 약’, 먹어도 될까, 하이닥.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566653> 에서 인출

제6절 청년의 관계 및 참여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국가지표체계. (2023). 선거투표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에서 2023.2.2. 인출.
- 김기태. (발간예정). 정치·사회 참여 양극화 실태. 보건복지포럼. 2월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문길, 김기태,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노현주. (2022b).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 &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2022a).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2022년 3월 통권 제305호, pp.74-86
- 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진. (2021). 은둔형 외톨이. 서울: 학지사.
- 사이토 다마키(斎藤環). (2002). 〈ひきこもり救出マニュアル〉, PHP研究所; 김경란·김혜경 (공역). (2012). 은둔형 외톨이: 그 이해와 치유법. 서울: 파워북.

- 조성대, 홍재우. (2012). 연합정치의 비교정치적 맥락과 한국적 적용. 역사비평, 24-56.
- 조현아. (2023.2.1.)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 1만명 확대…고립·은둔 청년 통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960&cID=10201&pID=10200에서 2023.2.2.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제9절 1인 가구 청년의 삶

- 국가지표체계. (2022). 가구원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에서 9.1. 인출.
- 통계청. (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허광무. (2023.2.1.). 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원. 경향신문.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009500057>에서 2023.2.5. 인출.



[부록 1]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



응답자 ID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통계작성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사수탁 (용역)기관	주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	 한국통계진흥원
문의처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콜센터		☎ 042-485-2227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유치조사)
주소 ※ 실거주지 기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 (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아파트, 빌라 _____ 동 _____ 호		

응답일시	월 일 시 분	응답 총 소요시간	① 40분 이내 ② 40분~60분 ③ 60분~80분 ④ 80분 이상
------	---------	-----------	--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 연락처는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 일반 사항 (2022년 1월 1일 기준 19~34세)

A1 귀 가구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22년 1월 1일 기준,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포함 * 혈연관계(친·인척, 가족 등)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에 포함 * A2, A5, A6 문항의 보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										명	
가구원 번호	이름	조사대상과의 관계 ¹⁾	A3 가구원 성별	A4 생년과 생월		A5 교육수준		A6 경제활동 ⁴⁾			
				① 남 ② 여	생년	생월	A5-1 최종학력 ²⁾		A5-2 학력상태 ³⁾		
1 (조사대상)											
2											
3											
4											
5											
6											
7											
8											
9											

1) 조사대상과의 관계 A2	① 조사대상 본인(청년) ② 청년의 배우자 ③ 청년의 자녀 ④ 청년의 부모 ⑤ 청년 배우자의 부모 ⑥ 청년의 조부모 ⑦ 청년 배우자의 조부모 ⑧ 청년의 형제자매 또는 청년 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
2) 최종학력 A5-1	① 미취학(만7세 미만) ② 무학(만7세 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3) 학력상태 A5-2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4) 경제 활동 A6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⑦ 실업자(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자) ⑧ 비경제 활동 인구(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인, 구직 단념자) ⑨ 해당없음(만 15세 미만)

A2-1 가구주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7 (부모 비동거 가구) 부모님은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A7-1 부		A7-2 모	
A7-1-1 (비동거)부의 최종학력	A7-1-2 (비동거)부의 학력상태	A7-2-1 (비동거)모의 최종학력	A7-2-2 (비동거)모의 학력상태
① 해당 없음(동거 또는 부모 불명) ① 무학(만 7세 이상)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 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① 해당 없음(동거 또는 부모 불명) ① 무학(만 7세 이상)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 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A8 귀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한부모 가구
 ② 조손 가구
 ③ 자립준비청년 가구(구 보호종료아동)
 ④ 해당 없음

※ 한부모 가구: 부모 중 어느 한쪽과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인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예) 청년(19~34세)인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 자녀, 부 또는 모 +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

※ 조손 가구: 조손가구란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지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까지의 손자녀를 포함함.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였거나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19~34세 청년

A9 귀하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또는 맞춤형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수급 중 → **A9-1** 항목으로 이동
 ② 과거에 수급하였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음 → **A10** 항목으로 이동
 ③ 수급 경험 없음 → **A10** 항목으로 이동

A9-1 맞춤형 급여 수급 형태

A9-1-1 생계급여	A9-1-2 의료급여	A9-1-3 주거급여	A9-1-4 교육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가구원 일부 수급 포함)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비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수급 ② 비수급

※ A1 에서 가구원 수를 1명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A10 과 A10-1 의 응답에서 제외합니다

A10 귀하의 가구에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 대부분 집에 있으며 취미 생활을 할 때만 외출하는 가구원
- ※ 거의 대부분 집에 있으며 집 근처의 편의점에 가는 정도로만 외출하는 가구원
- ※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가구원
- ※ 자기 방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가구원

① 있다 → A10-1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A11 항목으로 이동

A10-1 해당 가구원이 이 상태로 생활한 기간과 이렇게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하나씩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지속 기간	주된 이유
※ 순서대로 기입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7년 미만 ⑥ 7년 이상	① 학업의 중단으로 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④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⑦ 기타()

※ 조사대상 청년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11 귀하는 가구에서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A12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가구원 번호:)

A13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해당 없음
- ②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 정도가 심함 (기존 장애 1~3급)
- ③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 (기존 장애 4~6급)
- ③ 비등록 장애인 (보호처 등록 장애인 포함)
- ④ 기타

A14 귀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① 대한민국(남한) ② 북한 ③ 그 외 외국

A14-1 귀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요.

- ① 대한민국 → **A14-1-1** 항목으로 이동
 ② 그 외 외국 → **A14-2** 항목으로 이동
 ③ 국적이 없음 → **A14-2** 항목으로 이동

A14-1-1 귀하는 한국으로 귀화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국적이다.

A14-2 귀하의 부모님 중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곳(북한, 외국 등)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A14-2-1**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모두 대한민국(남한)에서 태어나셨다. → **A14-2-1** 항목으로 이동
 ③ 해당없음 → **A15** 항목으로 이동

A14-2-1 귀하의 부모님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복수국적은 '있다'에 응답)

- ① 있다 → **A15**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다. → **A14-2-2** 항목으로 이동

A14-2-2 귀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귀화한 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한국 국적이다.

A15 다음 중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B. 주거

B1 귀하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는 경우, 18세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

① 예 → B1-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B1-2 항목으로 이동

B1-1 (부모 동거) 귀하와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B1-1-1

② 없다 → B1-1-2

B1-1-1 (부모동거)(독립계획있음) 귀하가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B2 항목으로 이동

- 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
- ②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
- ③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 ④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 ⑤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 ⑥ 기타 ()

B1-1-2 (부모동거)(독립계획없음) 귀하가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B2 항목으로 이동

- ①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
- ②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 ③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 ④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 ⑤ 기타 ()
- ⑥ 특별한 이유 없음

B1-2 (부모 비동거) 귀하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
- ② 결혼했거나 동거 중이어서
- ③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서
- ④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 ⑤ 기타 ()

B1-2-1 (부모 비동거) 귀하가 독립하여 산 기간과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각각 얼마입니까?

1) 독립한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2)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B4-1 (자기인 경우)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인지 시세 기준(2021. 12. 31.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응답 후 **B5** 항목으로 이동

억 만원

B4-2 (2021. 12. 31. 기준)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는 얼마인지 시세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B4** 에서 '③사글세 또는 연세'를 선택한 사람은 이를 월세로 계산하여 3)에 기입

구분	금액	
1) 전세	전세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2)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월세	월 <input type="text"/> 만원
3) 보증금이 없는 월세	월세	월 <input type="text"/> 만원
4) 보증금이 없는 일세	일세	일 <input type="text"/> 만원

B5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입 자금 또는 임차 자금(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자금 출처가 1개인 경우 1순위만 응답).

1순위: , 2순위:

- ① 본인 자금
- ②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 ③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 자금 (버팀목 자금대출 등)
- ④ 민간 금융 기관 자금 (일반 은행의 주택/전세 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 ⑤ 기타 ()

B6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단독 주택
- ② 다가구 단독 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 ③ 영업 겸용 단독 주택
- ④ 아파트
-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⑥ 오피스텔
- ⑦ 고시원
- ⑧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⑨ 기숙사, 향토 학사
- ⑩ 기타()

B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 ① 반지하
- ② 지하
- ③ 옥상(옥탑)
- ④ 지상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에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③옥상(옥탑)이 아닌 ④지상으로 응답 받음

B8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원룸형입니까?

① 예 → **B10**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B9** 항목으로 이동

※ 원룸형 : 침실, 거실, 식당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 형태(쪽방 포함)

B9 방은 몇 개입니까? _____ 개

B9-1 귀하는 본인의 독립된 침실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B10 귀하가 살고 계신 주택의 전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 본인이 독립된 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① 집 전체 면적 : _____ 평 또는 _____ m²

② (본인의 독립된 침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방(침실) 면적 : _____ 평 또는 _____ m²

B11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 종류	사용 형태		
1) 부엌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2) 화장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3) 샤워 시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4) 세면 시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5) 욕조 시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6) 난방 시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7) 냉방 시설 (에어컨)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8) 출입구 (현관문)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B12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를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불량	조금 불량	보통	조금 양호	매우 양호
1) 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노후 상태), 방수(습기, 빗물 누수), 난방 및 단열	①	②	③	④	⑤
2)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①	②	③	④	⑤
3) 채광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내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등)	①	②	③	④	⑤
5)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6) 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 예방 전기 시설, 화재 대피 시설 유무)	①	②	③	④	⑤
7) 주택 방범(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8) 주택 위생(악취, 벌레 등)	①	②	③	④	⑤

B13 귀하는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생활 인프라 (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①	②	③	④	⑤
2) 대중교통 이용	①	②	③	④	⑤
3)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①	②	③	④	⑤
4) 위생 환경 (무단 쓰레기 투기 등)	①	②	③	④	⑤
5) 녹지 공간(산책로, 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6) 문화/부대시설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7) 교육 환경 (학교·학원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8)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B14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전세 자금 대출
- ②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③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
- ④ 공공 임대 입주
- ⑤ 민간 임대 주택 관리 감독 강화(불법 건축물 감독, 전세 사기 처벌, 불공정 공인 중개 처벌)
- ⑥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 ⑦ 기타()

B15 귀하는 기회가 되신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B16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주거불안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1)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①	②
2)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①	②
3)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차액 계층, 아동 동반 등)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①	②
4)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①	②
5)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종료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①	②
6) 3개월 이상 공공급이나 관리비 연체 (또는 납부 지연)	①	②
7) 임대인과의 갈등 (무단 침입, 수선 및 관리 의무 방지, 부당한 관리비 인상 등)	①	②
8)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보증금/월세 5% 이상 인상,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등)	①	②

B20 귀하는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9세 이후 ② 취업 이후
③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이후 ④ 결혼 이후
⑤ 출산 이후 ⑥ 별도 계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때
⑦ 주거 독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B21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 ① 계속 살고 싶다 → B22 항으로 이동
- ②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 B21-1 항으로 이동

B21-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버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② 통학·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 ③ 더 나은 교육·보육·의료 환경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서
- ⑤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 ⑥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 ⑦ 가족, 친척, 친구가 사는 지역이어서
- ⑧ 기타 ()

B22 귀하는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해 오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C. 건강

C1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 | |
|-------------------------|-----------------------|
| ① 매일 피운다 | → C1-1 항목으로 이동 |
| ② 가끔 피운다 | → C1-1 항목으로 이동 |
|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 C2 항목으로 이동 |
| ④ 한 번도 피운 적 없다 | → C2 항목으로 이동 |

C1-1 현재 피우시는 담배는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 종류의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담배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사용해 본 담배는 제외).

- ① 일반 담배(궐련)
- ② 궐련형 전자 담배(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
- ③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 담배
- ④ 기타 담배(예: 씹는 담배(스누스), 물 담배, 시가 등)

C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 | |
|----------------|-----------------------|
|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 → C3 항목으로 이동 |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 ④ 한 달에 2~4번 정도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 → C2-1 항목으로 이동 |

C2-1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 | |
|----------|--------|
| ① 1~2잔 | ② 3~4잔 |
| ③ 5~6잔 | ④ 7~9잔 |
| ⑤ 10잔 이상 | |

C2-2 (남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전혀 없다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
| ⑤ 거의 매일 | |

C2-3 (여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5잔 (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C3 귀하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C3-1 항목으로 이동 ② 일주일에 1번 미만 → C3-1 항목으로 이동
 ③ 일주일에 1~2번 → C4 항목으로 이동 ④ 일주일에 3~4번 → C4 항목으로 이동
 ⑤ 일주일에 5번 이상 → C4 항목으로 이동

C3-1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② 장소(체육시설 등)가 없어서
③ 비용이 부담돼서 ④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⑦ 기타()

C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다

C5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에 외식이나 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제외하고 응답)

- ① 하루 2회 이상 ② 하루 1회
③ 주 5~6회 ④ 주 3~4회
⑤ 주 1~2회 ⑥ 전혀 안했다

C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십니까?

- ① 대체로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② 대체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
③ 대체로 혼자 식사했다

C7 귀하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 ① 주중(또는 일하는 날) : _____ 시간
 ② 주말(또는 일하지 않는 날) : _____ 시간

C8 귀하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일(학업 혹은 업무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C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소진(번아웃)은 업무, 학업 등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지쳐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함.)

- ① 예 → **C9-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C10** 항목으로 이동

C9-1 소진(번아웃)되었다고 느끼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가 들어서
 ④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의 불균형 때문에
 ⑤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⑥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⑦ 기타()
 (※ 현재 하고 있는 일에는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 자신의 주된 일과를 의미함.)

C10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구분	전혀 없음	여러 날 동안 (1~6일)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처럼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가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 예 ☒ 아니요

- ①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서(정보 부족)
- ② 주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③ 혼자 가기 어려워서
- ④ 상담 비용이 부담돼서
- ⑤ 상담 받을 시간이 없어서
- ⑥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 ⑦ 주위의 사선이나 반대 때문에
- ⑧ 기타()

구분	평생		최근 1년 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수면제	①	②	①	②
2) 신경안정제	①	②	①	②
3) 각성제	①	②	①	②

① 있다 ② 없다

① 예 → **C15-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C16** 항목으로 이동

D. 교육·훈련



공통

D1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고 ②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③ 과학고·영재학교
 ④ 외국어고·국제고 ⑤ 예술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특성학교
 ⑧ 대안학교 ⑨ 기타(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 해외고교 등)
 (각종학교)
 ⑩ 비해당 → **D3** 항목으로 이동

D2 귀하가 졸업하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⑱ 해외

D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D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D3 도움 받은 경험	D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학교(상담 교사, 교사, 지도 교수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 기관(고용 센터, 청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 기관(사설 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① 있다 →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께서 한 달 평균 자격, 취업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자기계발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천	백	십	일		



고졸 이하

※ 조사대상자가 받은 정규 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인 경우에, 응답해주시요.

D5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에, 졸업 후를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 ⑦ 기타()

D6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영역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 ① 특정 직종과 관련된 직업 훈련
- ② 창업 교육
- ③ 어학
- ④ 교양
- ⑤ 기타()
- ⑥ 받고 싶지 않음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 조사 대상자가 받은 정규 교육이 전문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시요.

※ 여러 개의 대학을 다닌 경우,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재학·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D7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 4년제 대학
- ② 2~3년제 대학
- ③ 산업 대학
- ④ 교육 대학
- ⑤ 방송통신대학
- ⑥ 사이버(디지털) 대학
- ⑦ 기능 대학(폴리텍)
- ⑧ 기타()

D7-1 귀하의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교육학, 유아교육, 사범계열 포함)
- ② 예술 및 인문학(예술, 인문학, 어문학 포함)
- ③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④ 경영, 행정 및 법학
- ⑤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⑥ 정보통신기술(컴퓨터 공학, 전산학 포함)
- ⑦ 공학, 제조 및 건설(건축학 포함)
- ⑧ 농림어업 및 수의학
- ⑨ 보건 및 복지(약학 및 보육, 복지, 상담학 포함)
- ⑩ 서비스(체육학 및 관광, 여가, 위생, 경비학 포함)

D7-2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졸업한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 ⑰ 세종 | ⑱ 해외 | | |

D8 귀하가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중이거나,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③ 보통이다 |
| ④ 약간 도움이 된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 |

D9 귀하는 취업을 하려고 대학 교육 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D9-1 항목으로 이동 | ② 없다 → E1 항목으로 이동 |
|----------------------------|--------------------------|

D9-1 귀하가 받은 사교육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③ 보통이다 |
| ④ 약간 도움이 된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 |



E. 노동

- '지난주'는 2022.7.10.(일) ~ 2022.7.16.(토)을 말합니다.
 - '지난 4주'는 2022.6.19.(일) ~ 2022.7.16.(토)을 말합니다.

E1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십니까?

- ① 예 → **E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1** 항목으로 이동

E1-1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십니까?

- ① 예 → **E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1-1** 항목으로 이동

E1-1-1 지난주에 일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E1-1-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미취업자 문항 **E14** 항목으로 이동

E1-1-2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E2** 로 이동

- ① 일시적 병, 사고 ② 휴가, 연가 ③ 교육, 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⑥ 노사분규
 ⑦ 사업 부진, 조업 중단 ⑧ 기타()

E2 평소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직장(일)이 두 개 이상입니까?

※ 프리랜서로 같은 일을 여러 곳(장소, 업체, 고객)에서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일로 보고 응답합니다. 다만, 일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일로 보고 응답합니다.

- ① 예 → **E2-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2-1-1** 항목으로 이동

E2-1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 응답 후 **E2-1-1** 항목으로 이동

총 _____ 개

E2-1-1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부터 순서대로 응답해주세요.
 ※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일을 할 경우 응답해주세요.

	1)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십니까?	2)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3) 이 일자리에서 "세금 공제 전" 소득은 얼마입니까?	4) 어떤 일을 하니까?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⑧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종사자 ⑩군인
첫 번째 일자리	_____ 일	_____ 시간	월 _____ 만원		
두 번째 일자리	_____ 일	_____ 시간	월 _____ 만원		
세 번째 일자리	_____ 일	_____ 시간	월 _____ 만원		

※ 다음 E3 ~ E12 번 문항은 지난주 일한 일자리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 일자리에서 일한 경우, 주된 일자리(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E3 지난주에 일한 일자리는 귀하가 소유한 사업입니까?

- ① 예. 자영업자입니다. → **E5**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 → **E3-1** 항목으로 이동

E3-1 이 일자리의 고용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설명을 받거나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일하기로 정해졌을 경우, 사업의 완료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응답합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더 짧게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응답합니다.

- ① 1달 미만
 ② 1달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으로 정함
 ④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E3-2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E3-3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어떻게 정합니까?

※ 도급제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 연봉 계약제 또는 월급제
 ② 주급제 또는 격주제
 ③ 일당제
 ④ 시간급제
 ⑤ 도급제
 ⑥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⑦ 기타()

E3-4 귀하는 임금(급여)을 일한 직장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 ① 직장 (지난주 일한 곳)
 ②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E3-5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의 '일 경험'에 해당합니까?

- ① 인턴
 ② 현장실습
 ③ 수습기간
 ④ 해당 없음

E4 귀하는 일자리에서 주휴수당을 받습니까?

※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함

- ① 받음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나 받지 않음
 ③ 대상자가 아님
 (자영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10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하지 않음
1)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①	②	③	④	⑤
2)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①	②	③	④	⑤
3) 타인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회사(조직)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①	②	③	④	⑤

E11 귀하는 일자리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습니까?

※ 자율성을 가진다는 뜻은 본인이 원할 때 일하는 시간, 장소, 양 등을 본인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1) 일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2) 일하는 장소	①	②	③	④
3) 일의 양	①	②	③	④
4) 일하는 순서	①	②	③	④
5)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E12 귀하는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13 (현재 일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지난 주에 36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① 예 → **E17**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3-1** 항목으로 이동

E13-1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③ 더 많은 시간 일 할 수 있는 일(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 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E13-2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E13-3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E14 ~ E16 은 미취업자만 응답해주시요.

E14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구해 보았음 → **E14-1** 항목으로 이동 ② 구해 보지 않았음 → **E15** 항목으로 이동

E14-1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E14-2** 항목으로 이동 ② 없었음 → **E16** 항목으로 이동

E14-2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_____ 개월

→ 응답 후 **E17** 항목으로 이동

E15 (지난 주 비구직자)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 ① 원하였음 → **E15-1** 항목으로 이동 ② 원하지 않았음 → **E16** 항목으로 이동

E15-1 (지난 주 비구직자)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E15-2 (지난 주 비구직자) 구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③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④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⑤ 취업을 위해 준비 중 ⑥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⑦ 가사 일 때문에 ⑧ 건강상 이유로
 ⑨ 당분간 쉬고 싶어서 ⑩ 기타()

E16 (평소활동상태)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 입시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⑥ 취업 준비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⑦ 진학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⑧ 질병 등에 따른 요양
 ⑨ 군입대 대기 ⑩ 쉬었음
 ⑪ 기타()

※ E17 부터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응답해주시요. 단, 문항 로직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17 아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응답해주시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임금 | ② 근로시간 | ③ 고용안정성 |
| ④ 승진가능성 | ⑤ 휴일(주5일제) | ⑥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
| ⑦ 회사전망 | ⑧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 ⑨ 스카우트 제의 |
| ⑩ 복지수준 | ⑪ 대기업 | ⑫ 공기업 |
| ⑬ 정규직 | ⑭ 기타() | |

E18 귀하는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5세 이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①'으로 응답하고,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경우에는 '②아니요'로 응답)

① 예 → **E18-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E1-1-1' 에서 ② 응답자(미취업자)에 응답한 자는 노동영역 설문 종료 하고 **F1** 항목으로 이동
→ 그 외 28페이지 **S01** 항목으로 이동

E18-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E18-2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을 계속하려고
- ②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일이 맞지 않아서
- ③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④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해서
- ⑤ 동료 또는 상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 ⑥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
- ⑦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 ⑧ 직장이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 ⑨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 ⑩ 폐업이나 사업(일) 종료로 인해서
- ⑪ 해고
- ⑫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 ⑬ 건강상의 이유로
- ⑭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 ⑮ 기타()

E18-3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짐
-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부족
- ③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 ④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 ⑤ 이전 직장 경력으로 인해 재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음
- ⑥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 ⑦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 ⑧ 기타()
- ⑨ 특별히 없었음

E18-4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까?

- ① 예 → 아래의 **SQ1** 항목으로 이동
- ② 아니요 → **E18-4-1** 항목으로 이동

E18-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 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실업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실업 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 ④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실업 급여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

SQ1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E19** 항목으로 이동
- ② 없다 → **E22** 항목으로 이동

E19 귀하는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 ① 경험한 적 있음
- ② 경험한 적 없음

E20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쉬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E21 귀하는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나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거의 매일 (주 5회 이상)	주 2회 이상 주 5회 미만	월 1회 이상 주 2회 미만	1년에 1~2번	전혀 하지 않음
1) 과중한 업무	①	②	③	④	⑤
2)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①	②	③	④	⑤
3)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①	②	③	④	⑤
4) 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5)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①	②	③	④	⑤
6) 안전, 보호 장비 미비	①	②	③	④	⑤

E22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있다 → **E22-1** 항목으로 이동

②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③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 노동영역 설문 종료하고 **F1** 항목으로 이동

④ 모르겠다

E22-1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②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③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④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⑤ 모르겠다

F. 관계 및 참여

F1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1-1** 과 **F1-2**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에서 부담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 고충, 갈등 등)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F2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약간 관심 있다
③ 그다지 관심 없다 ④ 전혀 관심 없다

F3 귀하는 정치·사회 문제에 관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전혀 없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리거나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등	①	②	③	④
3)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①	②	③	④
4)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등을 직접 제출하기	①	②	③	④
5)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6)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①	②	③	④

F4 귀하는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짜뉴스나 선전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F5 다음의 활동에 대한 귀하의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F5-1 귀하가 생각하기에	F5-2 지난 1년간	F5-3 안(못)한 주된 이유는?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③ 할 필요가 없다	① 했다 → F6 ② 안(못)했다 → F5-3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② 시간이 부족해서 ③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④ 공간, 지리적 문제로 ⑤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⑥ 할 필요가 없어서
1)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2) 17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4)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F6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 | | |
|--------------------------------|-----|-----|
|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 ①있다 | ②없다 |
|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 ①있다 | ②없다 |

F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G1** 항목으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F8** 항목으로 이동

F8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

F9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업의 중단으로 | 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 |
|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 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 ⑦ 기타() | |

G. 사회인식 · 미래설계

사회인식

G1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2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3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매우 신뢰할 수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5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구분	갈등이 매우 많다	갈등이 많은 편이다	갈등이 없는 편이다	갈등이 거의 없다
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2) 부유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3) 수도권과 비수도권	①	②	③	④
4)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④
5) 내국인과 외국인	①	②	③	④

G6 귀하는 다음의 상황들이 미래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1) 불평등	①	②	③	④
2) 저출생·고령화	①	②	③	④
3) 기술·산업구조 변화	①	②	③	④
4) 테러리즘(국제분쟁, 통일·안보)	①	②	③	④
5) 기후 변화	①	②	③	④

G7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G8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보통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9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보통 →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10 귀하는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자기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11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G15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G16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부모의 경제력	①	②	③	④
2) 부모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3) 나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4) 나의 노력	①	②	③	④
5)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①	②	③	④
6) 정부의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G17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지 않다	갖추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1) 부모의 경제력	①	②	③	④
2) 부모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3) 나의 교육수준	①	②	③	④
4) 나의 노력	①	②	③	④
5)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①	②	③	④
6) 정부의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G18 귀하께서는 향후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비해당(유배우)
- ② 있다
- ③ 없다

G19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H. 경제

※ 가구의 생활비, 소득, 재산, 부채는 가구주 또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소득, 재산, 부채는 조사 대상 청년이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주로 마련하는 사람

※ 만 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적음 (예: 11만 5천 원의 경우에는 12만 원으로 적고, 없으면 0으로 적음)



월평균 가구 생활비 (기준 시점: 2021. 1. 1.~2021. 12. 31.)

H1 다음은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기간(2021.1.1~12.31) 모든 가구원이 지출하신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주세요.

※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하고, 경상지출(매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친인척, 이웃(친구 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정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하여 주십시오.

※ 일부 구매한 물품의 경우 월 할부금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예) 2021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한 경우 월 생활비에 50만원을 포함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H1-1 총생활비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통신비 + 교통비 + 오락문화비 + 세금 +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 가구간 이전지출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이외의 소비지출(광열수도비, 의료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등) ※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예: 저금, 저축성보험료)과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예: 주택부금상환, 월부, 빌린 돈(이자 포함))은 제외	천	백	십	일
H1-2 식료품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식비는? ※ 가정 식재료(냉동식품, 간식, 즉석면의 중식(우유 중식비 포함, 외식, 뷔페에서 먹는 음식 비용 등	천	백	십	일
H1-3 주거비	H1-3-1 월세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지대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천	백	십	일
	H1-3-2 주거 관리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 주택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단,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광열수도비 제외)	천	백	십	일
H1-4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천	백	십	일
H1-5 통신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TV/유선방송 등	천	백	십	일
H1-6 교통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교통비는? ※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자동차 구입비 제외)		백	십	일
H1-7 오락문화비	총 생활비 중에서 해당 기간 지출하신 월평균 오락문화비는? ※ 운동, 공연, 단체여행비, 취미용품(TV, 오디오, 컴퓨터, 사진기 등 포함) 등에 대한 지출		백	십	일
H1-8 세금	총 생활비 중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소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2021년 소득공제 환급시 더 낸 세금 포함),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천	백	십	일
H1-9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총 생활비 중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포함)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천	백	십	일
H1-10 가구간 이전지출	총 생활비 중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간 이전지출은?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지인 등을 돕기 위해 지출한 현금 및 현물 지출(음돈, 생활지원금, 물품 지원 등)	천	백	십	일
H1-11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총 생활비 중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은? ※ 종교단체,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민간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지출한 현금 및 현물(종교기 부금, 기부금, 노조(회비, 심조회비 등)	천	백	십	일



가구 및 개인 연간 소득 (기준 시점: 2021.1.1.~2021.12.31.)

H2 다음은 가구소득 및 조사대상 청년의 개인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퇴직금, (민간)보험금 받은 것,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은 제외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청년을 제외한) 가구 연간소득					청년(개인) 연간소득						
H2-1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 시장(임금근로, 자영업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 ※ 사업소득은 순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H2-2 재산소득	이자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퇴직연금+기타 재산소득 +(주식)배당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H2-3 사적 이전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종교단체,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민간비영리 기관 및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H2-4 공적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 실업급여+취업지원 관련 수당+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양육 수당+기타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연금+장애(아동) 수당+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산재보험 급여 +육아휴직급여+기타 정부보조금 등) ※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① 실업급여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취업지원 관련 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H2-4-1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유형별 금액은?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기초연금+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기초 생활보장급여+산재보험 급여+육아휴직급여+기타 정부 보조금 등 ※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H2-5 총소득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가구 및 개인 부채 및 재산 (기준 시점: 2021.12.31.)

H3 2021.12.31. 기준 귀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명의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

※ 부채액이 0만원(없는) 경우, **H4** 로 이동

구분	해당항목	(청년을 제외한) 가구 기준					청년(개인) 기준				
H3-1 부채총액	2021.12.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할부구입, 외상, 기타 부채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H3-2 학자금부채	2021.12.31 기준 학자금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공교육 혹은 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한 부채액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H3-3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2021.12.31 기준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주식, 채권,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등에 투자를 목적으로 인한 부채액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H3-4 주택관련 부채	2021.12.31 기준 주택관련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H3-5 생활비 부채	2021.12.31 기준 생활비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H3-6 (월평균)이자	2021년 지출한 월평균 이자는 얼마입니까?	천	백	십	만원		천	백	십	만원	

H3-1-1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 2021.12.31. 기준으로 조사대상 청년이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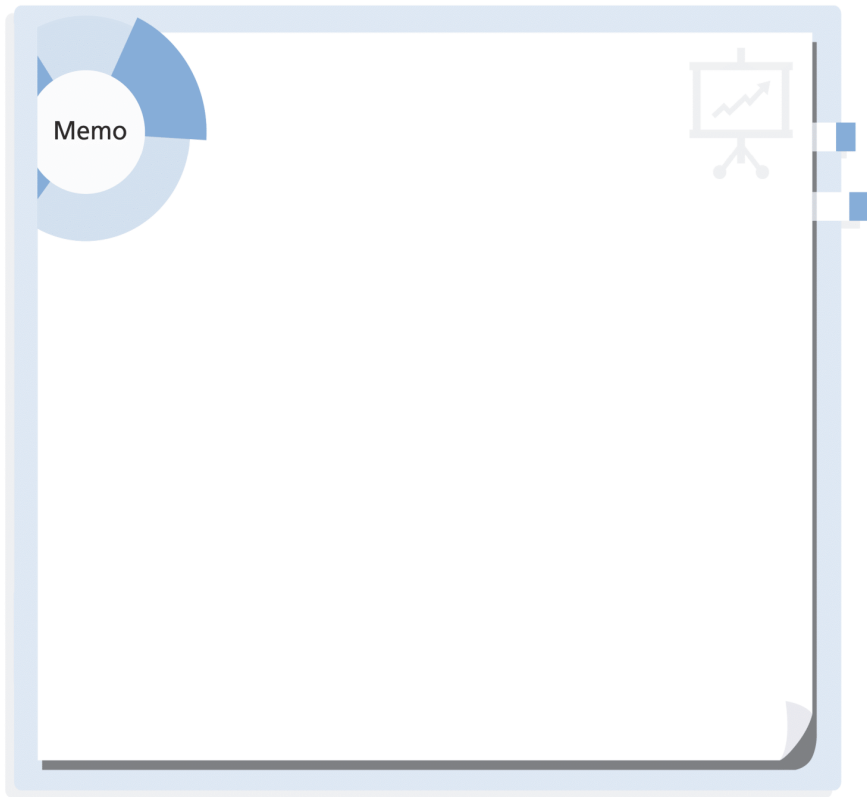
① 예

② 아니요

H4 2021.12.31. 기준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명의기준, 가구원 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

구분	해당항목	(청년을 제외한) 가구 기준					청년(개인) 기준						
H4-1 금융재산	2021. 12. 31. 기준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빌려준 돈, 낸 돈(다지 않은 금액)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H4-2 주식	2021. 12. 31. 기준 주식과 채권은 얼마입니까? ※ 직접 투자한 주식 및 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을 통한 펀드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H4-3 가상자산	2021. 12. 31. 기준 가상재산은 얼마입니까? ※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H4-4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21. 12. 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은 얼마입니까?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시가 기준임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예: 회원권 등) ※ 농기계, 자동차 등은 시세 혹은 중고거래 가격 기준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별 문의처 〉

조사관리부	☎ 070-4128-3227
서울본부	☎ 02-747-5558
경기본부	☎ 031-852-1138
강원본부	☎ 033-747-5557
대전본부	☎ 042-485-2227
대구본부	☎ 053-311-5552
광주본부	☎ 062-376-2226
부산본부	☎ 051-861-5558